

경후민 이제 그것에 ㄱ치 씨에 버물려지민 걸름에 다 ㅋ을 때 ㅋ양 요만식요만식 다 뿌려노민이 , 그것에 불영 씨가 나오민 ㅎ꼼 걸어라게 . 그냥 가는 건 웹씨 , 그냥 걸름 아니 행 그냥 씨빼엉 가는 건 그것엔 걸름이 들어가난 ㅎ... 잘 웨어라게 밀랑밀랑하게 .

바느질허는 사름덜도 먹곡 허민 그 관 짜는 사름덜도 먹곡 허주게 겐 관에 담은 후엔 안 먹어 .

아 , 잔치 때도 ?

옛날은 육식해영 노리 , 怦 .

어 . 그런 것도 강 사 오라 질 때나 먹지 무신 .

이파리는 지금도 먹고 . ㅋ양 먹젠 허민 ㅋ양도 이제 , 이제 요만식베끼 아니 드난 .

바로 그냥 뱃되서 빼떼기를 만들어 ?

메밀술 , 메밀술을 많이 허주 .

원담 그 물통여는 원담 다낫수다 .

게난 어디 옛날에는 흑 불리는 흑질허젠허면 막 세미떡 해영도 막 주고 햇덴 협디다 . 만뒤떡 해영도 막 주고 .

어 . 그게 쉐에나 물에나 그게 그거라 옛날에 뭐 .

고기 영 해여근엉 영 배 갈르민 저 뒷이 잇주게 .

구관 , 구관제복이라고 상젠 그런 것도 입는디 .

예 , 알앗수다 . 지난번에 우리 삼춘 범벅 잇덴 허는데 , 범벅은 어떤 범벅 어떤 범벅 해먹엇수가 ?

이 셋대기는 ㄱ따 . 맹긴 .

거의 동네마다 물통이 잇긴 잇엇는디 먹는 물통이 .

응 , 봄 나민 , 봄 나민 꺼꺼당 .

경 간섭을 잘 헷어 . 우리 고모덜 경해낫어 . 우리 풀 때 우리 시집이 도새기 풀 거 이수과핸 간 그디 내용 다 알아완 .

그 돈을 가지고 부락 운영도 하고 포제도 지내고 .

겅헨 우리 시어머니도 저 서화리 족은 아들 양제 ㄷ렌 ㅎ난 .

아니 , ㄱ률도 허곡 그냥 쓸로라도 물 ㅋ 놔두민 , 물오르면 그걸 다시 ㄱ률 ㅎ... 농 영 영 젓이 민 아무 밀ㅋ루라도 ㅎ술 농 막 영 , 영 젓엉 놋당 , 영 영허민 누룩은 그냥 맹글아질 거 아니라 , 딱딱하게 .

떡 받는 거를 아주 뭐하고, 세력 있는 아이덜은 그 사람 봐가지고 윤에서라도 떡을 주면은 가이는 버치는디, 불쌍한 아이는 아니 주고 주는 아이신디만 강부모 세력을 봐가지고 막아이고.

몰라. 얼만디. 그때 하여튼 그땐 도새기 새끼 나와야 돈 벌어.

물그레에서 골양 오면 아예 좀쌀이 다 뛰어 이서마씸?

큰굿은 대신 막 노프게 세우곡 대왕청이라고 막 허지 안 헙니까게.

해가지고예. 주로 동박, 동박낭으로예.

지금 저 우리 저 집은 서북쪽.

졸라메는 걸 곰이렌 햇수과?

모여 놋당 방에 클, 방에 공장에 클로.

그 출 빌 때 그 점심 해날르젠 허난 그때 막 힘들엇잖아예?

굶잖아요? 굶으면 우미가 뛰잖아요. 굶아진 그 하양한 투명한 것도 우미렌 헙니까?

여름에 그거, 우미 줌수덜 햇당, 개인으로 햇당 널영 우미 굶양 먹으메, 이제도. 경 먹읍니다 게.

무물크루도 흐꼼 흙은 는셍이엔 헌 거 셔. 흙은 거 ?를 우에 거. 그거 받아단 그거 서끄고. 경헨 허고, 맛 좋게 허젠허문 도새기 안침덜, 베설덜 닥닥 찍어 놔.

오월 망종은 보리 눈 곰양 비렌 햇수다. 보리도.

아, 그저 이제 교통?

응. 엉근탕건, 이건 좀진탕건이라.

예, 여기는 다님 치는 거예? 다님예? 예.

풍체는 초집에 이렇게 이 넓이로.

톱이 들어사 헐 거고 자귀가 들어사 헐 거고.

먹이는 어떤 거 헤낫수과?

막 담베 피우는 어른들, 막 가래 끼고 할 땐 건 어떻 헤근에 그걸 이 겨내신고예

초가지붕 일기? 초가지붕 이기?

어떤 밧듸 쉐 둘도 갈곡 너른 밧은 세 사름씩 갈레 가, 너른 사름덜은.

그것이 직접 만들지는 안 허여.

서까래가 뭐냐믄예 ? 집을 짓잖아예 ? 게믄 이게 벽이잖아예 ? 그믄 지붕에서 벽 밖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 잇잖아예 ?

으 , 으 , 기여 . 으 , 경덜 해세 . 거 막 좋은 거여 . 춤 범벅 감제뺏데기 행은에 골양 범벅허민 춤 맛좋나 . 그거 고급이라 .

그 다 엊어저부난 그걸 누게가 막 촇았던예 .

우럭도 가을 가을에 주로 많이 잡히주게 .

우리 들에 쉐 멱이레 가면은 아이들 장난으로 불슬라근에 .

경 허민 누물 숲양도 먹고 .

맞아 , 고내봉 있다 , 고내봉예 .

경 행 . 후문 또 문어 그뜬 것도 우의 메영 풀고 .

그때는 보통 뭐냐하면 바게쓰 도당 바게쓰 .

이딘 엊고 저 앞이 서머봉 .

아 , 콩은 게믄 사다근에마씸 ?

둘이 빌엉 허민이 닷새만 혜도 혼 가맹이 지어 가라게 . 열 말 뛰여노 민

이 그디 형제덜토 이시난게 , 그 요걸로 형님이랑 협서 , 무시거 협서 거세기 허연 허난에 뭐 놈 으 거 빌언 . 쉽게 말허민 .

지슬 농수 어떻 해여 .

처음에는 그렇게 다듬았는데 , 제재소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인이 나무를 끈어올 거 아니 가이 ?

영 행 사도 딕딕딕딕 해도 데끼는 거라 .

그냥 보통으로 이 두르막 . 이 저 .

엇어수과 ? 안 키워반 ?

이름은 엊어삼형제여 , 삼형제여는 이제 두 개벗고 었다 .

응 . 갈치적도 혜나서 .

그때 왕 사가라 . 사려 와 .

이제는 또 옛날에는 그 못 살아 노니까 .

그 쉐 주는데 어디다 어떻 보관햇당 줋수과 ?

보섭뿔리 , 여기로 제주말론 보섭뿔리 .

쉐막이 그냥 부떠분 거 .

국 , 뭐 국이나 뭐 따뜻헌 국 해서 뭐 콩국 .

그럼 몇 시에 보통 주무션마씨 ? 그때에는 ?

출구덕 아져근에 드르에 콩입 툰으레 가낫주 . 툰으레 갓당 밧임 제 만낭 다울리민 돌아나지 못 허민 구덕 왕 빼가불곡 .

그자 조팝 불릴 때 .

으 , 그거하고 톱이 그것만 필요하다 . 남 끈을 땐 . 옛날에 목수덜은 뭐 대패니 끌이니 뭐이니는 건 목수가 거세기 하는 것이고 .

아 , 밑에 장태 받쳐근에 .

올리가 젤 인칙 드는 해 , 입춘 .

상을 따로 출리는 건 아니고 .

응 , 잠데로 . 겟 갈단 개발허난게 기계로 갈곡 .

이거 영 혔 혔 발쯤 해기네 노를 영 네 개 해기네 .

그치 . 농사지을 때 , 품팔이 해근엉 , 품팔이로 거 하루 일당 보리쌀은 얼마 좁쌀은 얼마 해가지고 . 그거 헤다가 엇인 사람은 그걸로 자식들 키왓주게 .

베 , 봇데 , 봇뎃옷 , 봇뎃옷 .

저 거세기 유월절이 꾃나민 마걷이밧이엔 보통 이 마에 마가 지나갈 무렵에 저 게난 건 후 삼일에 졸 농사하고 .

옛날 저 절문 땐 .

그물마다 배는 맷 개 ?

대축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?

느물죽은게 웬장에 허젠허민 웬장 풀어 놔근에 팔팔 끌리민 느물 씻엇던 거 놓 익으민 웬장국 .

잘 출렷젠햇주게 . 난 잘 출련 온 거 .

새로 새 벨완 .

앞의 한 사름 옆에 .

그냥 막 다른 디선 엄청 죽여십디다 .

으으으 . 저저 , 저추룩 .

쉐 빌엉 불려 . 쟁 불려놓 이젠 따시 또 그걸 또 이젠 삽 , 갈래죽으로 이젠 쉐스령으로 문 데쓰 주 . 다 데싸 놓 또 이젠 따시 그디 수세 담아놓멍 또 불려

옛날은 주로 여자 갈중의는 이만큼은 풍차게 혜여근에 그냥 영영영 영허영 이디 독다님 청 허민 이디가 방탕허영 경 살았주 .

그디 가십니다게 . 그 무사 아방네 구경 우리 구경 가나지 안햇수과 오라나난 한림 저 이제 선거 허곡 허지 안협니까 ? 그디 강 조합에 우리 선거덜 막 허곡 해나수다 . 거 저 무싱거 주꽃디 . 보건소 주꽃디 .

으 , 채 썰엉 .

물만 하영 놓민 그자 그대로 익어 가는 냥 밥이 웨여 .

봄 나민 . 봄 나민 . 보리 나민 .

으 , 썰어근에가 물류왕 그건 , 그건 더 감저 뺏데기보다 더 맛 좋나 쫄깃쫄깃해 가지고서 .

아 , 거기 강 연애 허영 시집 간마씨 ?

피농사도 햇수과 ? 수수 피 ?

아 , 저가 질문한 묘제는 어떻 햇수과 물어보는 거예 ?

찢어오람주게 . 벡부름도 치져진 거 문 부려당 문 맹글아불곡 , 경 햇주게 , 옛날엔 . 벡부름 풀 허민 두둑두둑 허지 안 해수과 ? . 게민 그거 막 박박 부령 온 아이덜도 하 .

부지떼기 땡 ! 경 헌것도 닳아 .

트운다는 건 지금 말론 허민 발효 .

응 . 서리에다 무꺼 .

질루는 거지 , 건 . 혈 때 웨면은 이제 팔월 나가면 새 틀 나가면 봄날 때까지 거 그냥 내부는 거라 , 못하게 . 이제도 . 옛날도 .

경허난 소고기나 웨지고기라도 오래 놔둬서 먹을라면 소금에 .

우리 시아지방 뒤에 여자가이 열 멧개라 .

그자 무턱대고 담양 항아리에 놔 부는 사름도 잇고 .

비교가 안 웬주 . 비교가 안 웨 . 겨난 그 나는 계란에 질령 안 먹는디 아이구 참 .

못 쑤는 게 없어 . 아무 거라도 쑤민 웨여 .

응 . 오수리 그거 , 그런 거 쟁 뎅기고 . 경 안하민 그자 뎅기고 .

옛날은 돌이 작은 걸로 헷어 .

카놔근에 그디 해영 옛날은 솟드 헷저만은 이젠 엇이민 밥통에라도 밥통 내분 거라도 안네 거 허민 뉘주게 . 경행 놓 쑤어근에 .

송년들 때 헨 먹엇덴은 허는디 , 나도 놈 현 거 혼번 간 얻어먹어봤 어 해변 누려 간 때 . 주로 우리 내려가서 집 빌어서 사는 집의가 좀 어려운 집이야 . 경 허니까 거기 거 좀 얻어먹고 . 옛날에는 밀주시도 먹고 살았는데 , 여기 씨집을 오란에 허난 여기도 좀 . 여기도 먹언 사는 집이야 . 사는 집이난 워낙 놈덜이 이젠 먹어가니까 .

응 , 견디 그 약이 이제 몰라 , 엇어젖어 . 우리 전이 옛날은 해당 놔둬난 디 이젠 원 못 봐 , 못 봐 .

겅 귀 알령도 하주게 .

경현 때에 이제 .

관리라는 게 거우다 . 바령도 중간에 헤낫주 . 첫 번에 해난 게 아니우다 .

아니 , 앞치마 맡고 그거 맡고 .

경 허민 그거 이디 고냥이 . 이디 고냥이 .

건 쪽기를 쪽기를 ?만이 이렇게 놋 가지고 저레 차고 받아 가지고 이레 차고 . 경 받지 못허민지고 그렇게 .

예 , 땅따먹기예 . 땅따먹기 허젠허민 뭐 던져두는 거 있잖아예 . 뭐 사그마치 같은 거 ?

경해영 뒤집어 놓 영 영 또 때리곡 . 경허믄 이젠 그 뭇은 털어져도 방울이 돌아진 것이 만이 잇주게 , 거기 .

가라물이엔 현 건 검은 것 ?라 가라물이엔 허여 . 청총이엔 현 거 좀 푸른색이 껴 있는 것 ?라 청총이엔 허고 .

염색은게 , 물 허영 퀘와근에 물레 헤다근에 물에 타멍게 적삼이민 적삼 들이쳐근에 박박 놀령 물리우민 그것이 염색이주게 .

아니 , 어떻 행 사냥하는 걸 봐 . 못 보지 .

들어와가지고 별미로 헨 그 헷젠허난 , 어쨌든 그런 걸 사용한 건 떡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불과 혼 칠팔십년 .

거민양 , 여자 삼춘 어머님 고향은 어디우꽈 ?

아 . 골양 어떻헙니까 ?

아 , 솟드 놓 쳐 .

옛날 잔칫날 요거 풋밥 먹엇지양 .

친정에도 당일제협니까 ? 아니 저 .

범벅 , 감저 썰어놓 해 먹는 건 모멀 .

맛잇어 저게 . 그래 가지고 어디 잔치 때나 또 어디 대소상 때나 이런 디서 그걸 도야지 잡아놓으면은 그거 숨양 도새기 숨양 놓으면 그 국물에다가 그 몸 몸을 뿔아서 썰어서 놓으면은 그게 몸죽이 뛰주게 .

경후난 어떻 , 젤 처음 감저줄 걷어야 훌 거 아니우꽈 ?

요즘 춥쓸인디 . 그거 .

예 , 예 , 예 . 알아지쿠다 . 옛날 집들 보면은예 . 그다음에 삼춘 , 이제 문을 달젠 하면 아까 이제 대문을 달젠 하면 왜 이렇게 ? 삼춘 , 녹음 뛰난 후꼼만 조 용해 줍서예 ?

경 혜연 하는 거지 .

꿰도 쪼금 놓게 뛰면은 , 이제야 꿰지 , 옛날은 웬 경 만이 흔전 헤나지 안 하난 그자 . 풋 거튼 건 후꼼씩 가니까 .

것이 어레℡ 건가 ? 질이 궂이니까 . 그 어레로 올라간 영 .

게믄 출 운반훌 때는 ?

음 . 소나무 낙엽 .

어 , 그런 사름덜도 옛날부터 이서 , 겐디이 우리는 .

후나는 도곰착이엔 하고 이거 두 개는 도곰이엔 하곡 .

아 , 유마는 막끗데 . 아무튼 알앗수다 . 게믄 유마는 어떤 말마씨 ?

이제 출 벨 때주게 .

것도 사는 집의가 서꺼 먹엇지 . 경 아녀민 보리쌀에 쟁쌀 . 주로 그거 .

이거 저 무신거 훌 때도 올립디다예 , 묘제 훌 때 .

아 , 지금이난 먹으래 감주 , 어디 옛날에사 어디 당개 자리훼가 잇엇수가 ? 엇엇주 .

옛날에 어머니가 해줄 땐 두부추룩 허는디 나가 허민 경이 안 뛰여 .

우리 육은 때끄지 헷어 . 허다가 뭐 끊어져 불언 .

응 , 구물어 가건 그자 둠으민 날 안 봐도 뛰곡 . 이 저 장행 둠젠 허민 이녁 남펜 목멕날이나 이

넉 범벅날엔 장 안 둠아 . 둑날이나 만약에 둑해치 , 개해치 시민 그 해치엔 장 안 둠아 .

게메 게난 예를 들어서 다섯 바티민 다섯 시간을 잡는 거 .

그치 강 비주 . 거 어떻헙니까 ?

이 때 관에 들어가신디 날짜 안 나오면은 .

아 , 게민 낫는 거구나예 . 베인 데 , 베였을 때는 어떻 치료헙니까

대나무로예 . 대나무로 만드는 거 . 연대는 대나무로 하고 , 얼레는 ?

곤솔로 만든 건 설귀 .

그럼 조밧도 밟안마씨 ? 여기는 안 밟안마씨 ?

하영 밀린 땐 지네 친촉 친촉 알아근에 헤오주 . 저 알동네 허민 이디?"장 알앙 허주 . 우리도 이  
디 앗아불민 친촉 엇어불민 몰르주 . 이녁 친촉이 골아줘 서 허주 . 어떻 행 알아 .

응 . 많이 헤난 . 혼 칠십 개?"장 헤낫젠 혼다 . 칠십 도엔 허여 , 경허민 .

그 어떤 검질덜 이신 거 자세?게 골아줍서 .

그건 무신 국 헉니까 ?

제사할 때만 허는 거지예 ? 문전제 허는 거고 .

요새 약 엇이냐 ? 연고 볼르주 .

예 . 제사할 때 적 말昂 자리젓이나 멜젓 같은 그런 거 ?

그 구장인데 , 아이고 그때 게난에 네중엔 그 사사름덜이 좀 미움도 받았주만은 왕 , 왕 , 왕 .

아 건 그 사람들은 다 현장에덜 , 우리 아버지영 현장에서 , 그 사람들 앞에서 죽여 부리니깐 .

불체 ? 그 재마씨 ?

튠아앗아 놓민 . 어느 학원을 가카 .

소한허고 대한은 그때는 겨울에 막 한걸헐 때주 .

자기 놓고 싶은 거 놔가지고 그걸 서끄어 .

경 헤여도 그걸로 허영 허민 이 폭이 멧 자 멧 푼 이런 식으로 허잖아요 ? 그 저기 베나 미녕이  
나 허면 ?

그거 행 어디 저 대정 사름덜 풀레 뎅기주게 .

그럼 그 때 보리 수확은 어떻 헨마씨 ?

남잔 엇어 , 여자 보고 좀수 .

영 허영 허리 . 여기는마씨 ?

그다음엔 성주로 다른 거 모시는 거 안 봇수과 ?

엇어예 , 엊어예 . 저기 동지 뜻죽 ?

허고 좁쌀 . 예 . 게민 보리밥은 허젠 허민 어떻 행 허는 거꽈 ?

응 , 조팝 . 보리쌀 서끄민 것도 괜찮여 , 뜻 숨곡 허민 맛이서 .

예 . 혼례헐 때 . 결혼할 때 . 우시 .

어디 싯당 그 장에 관련행 각시나 아파불민 경행 감사 해신디 몰르주 .

그럼 이 고내리에 주로 무슨 성씨가 많으과 ?

예 . 그다음에 여기도 양태도 줄아신가마씨 ? 양태 .

이계봉이라는 독 계자 , 두 이자 , 독 계자 해서 독 두모리가 새끼 깨운 형이라고 해가지고 .

아 , 게믄 영 바드렝이에 .

그럼 멜젓은 어떻 만들어마씨 ?

우리는 지금 우리 아덜의 증조까지 하고 잇주게 .

판이 , 쉐 해당 팟주게 .

으 , 거 고팡 말고 . 고팡하고 골방하고 틀려 .

이제 걸로 쳐가지고 움직거리지 못하게 막주게 .

식초는 거문 사다근에 먹어나수꽈 ?

바당에도 그 당시엔 초신 .

재기는 그 문 밸르는 창호지 .

뭘 먹고 살아서게 , 일도 후곡 기자 바당에두 물질두 잇당 후곡 , 해근엥 물질은 잘 크겐 못허주  
게 . 경허멍 어떻어떻 살다보난 이거매기주 .

그 쓸을 또 널엉 .

족으민 짙을커허레 뎅기곡 하민 안하고게 . 족으민 허레 뎅기고 .

경 허영 봄 나가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사름 기척허영 물 모는 소리 하민 그냥 알러레 그냥 둘둘  
내려와 .

어 . 장언 뒤겨 먹어 .

건 꼭 해봐산덴 , 족게 하나 낫게 하나 건 해사헌덴 하주 . 거 얘기어멍 도 헌덴 하여 , 거 . 시방  
덜은 하도 주사 맞아부난 엇은 거주 .

이 안주에기가 제일 모쩐디는 거 .

욕은 후제면 몇 살쯤이꽈 ?

예 , 이제는 세상이 바꽈정 네 쌍둥이도 나곡 , 세 쌍둥이도 나곡 막 햄주게

그 줄르는 거 초파일 드사 줄를 거 아니 ?

으 , 승부하는 거 .

사발 두 개 , 국그릇하고 밥사발 말양 .

아 , 이녁 걸로 .

아 , 집에서 , 누군가의 집에서 .

솔라니도 헤기네 조기회도 잊고예 ?

소 , 물 지르는 집에 .

게난 집집마다 이녁 거는 이녁이 혜신가마씨 ?

응 . 게난 주로 무멀범벽이나 , 느젱이 범벽이나 .

예 , 밥만 올려 .

그 다음에 이 단 풀어지지 못하게 허는 거는 ?

송킬 놔야 . 여기 그때 겨울에 콩국 많이 먹어낫던 헷잖아예 콩糗 , 콩국 ?

요즘은 오메기떡 행은에 뜻 담양은에 .

경 무는 아이덜은 막 물령 혼 번 물어봐 , 물어봐 흐민 이제 거시기 혼 멧 번 물엄시민 혼 번 무  
나마나 것도 힘들어 .

다 알아 , 다 알아져 .

눌어난예 ? 보리낭깽이 눌엉 거기서 얘기 날 때 북덕자리 .

그 물꾸럭 닮은 거 머 잇지 ?

경행 또 제라하게 부모집에 갈 땐 , 동이가 있던 .

초일렛날 절간에 가는 거베끼 엇수과 ?

식가지가 이서 , 깅이라도 .

나무 흐나 웬 거 , 베낀 것을 들러근에 멧 가닥 실만썩 헤근에 . 할마 니들 이 옷 다 걷어근에 이 솔에서 그거 다 잇는 거여 , 잇영 .

베렝이 궤엿저게 . 막게게 . 그것이 파리 뒤영 나가 .

발렌 건 어떤 식으로 먹어 ?

동솟 옆뎅이에 흐꼼 공간 잇어 . 거기 이제 말똥이나 소똥이나 말른 거 잇이민 거기 불부찌근에 불부찡 불치 더깽 놔두면은 거기서 그 불이 부떠근에 제게 꺼지지 아녕 이시민 그거 가정은에 헤근에 저 저녁 때 그 불로 헤근에 불어근에 크게 만들어근에 밥행 먹곡 . 저녁 때도 거 엇인 집은 놈의 집의 불 담으레 뎅겨낫어 . 불 빌레 .

겨민 앞에 영 앞 드리 잇고 .

아부지가 인칙 돌아가셔 불언 .

뭐 할 때 써 ? 옛날엔게 밧 고리청 밧 갈고 .

먹이 , 먹이 , 마소의 먹이 ?

야 , 간장도 . 싱겁건 거 장물 앗아내라 영 헤낫다 말입니다 .

그 거지 , 그 우미 숨은 거주 .

영 , 놔두민 , 헤 , 헤 , 헤 , 헷 .

소금에 훑은 소금에 허영 . 소금에 고치고를 흐꼼 서끄곡 이젠 마농 게도 마농을 흐꼼 빠져 놓고 .

모자를 세 가지 써가지고 경 해서 이제 서로 손 심으면서 그냥 보호할라고 해서 이게 말허자면 요새 고트민 아이덜이 전투하는 식이주게 .

메칠 메여주고 . 소 말 임제네 집의 강 .

그 옛날에 자전거 건 저 막 후에 영 웬디 자전거 빠꾸 기자 영 이성 허며는 그 낭에 헤근에 췀 철사 오그령 영 헤근에 이추룩 헤근에 게 영 허영 뭐엔 헤낫는디

으 , 계난 중학교 앞이서 이 집이 오랏주게 .

여름에 입는 것도 허고 .

가를도 없고 밀고를 좀 잇으민 서끄민 더 잘 뛰는데 , 이젠 가루도 없고 아무 것도 . 기냥 지지난 생전 지질 수가 잇어 .

계난 웬장은 작년에 멧 뛰 담갓수과 ?

응 , 데슬락이라 , 이거 .

아니 , 퉁난 건 아니 . 물렁 주 , 영 허영 수제비라고 떡떡 떠 놓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안 돼여 . 밀가르벳기 .

꺼풀 엇이 밀 골이 빽은 거라 . 밀 같은 거고 . 이제 맥주보리 .

혹시 우리 이제 나온 거는 손도 영 바끗되레 못 나오게 영 막아지게 이렇게 막아지게 영 괴매 부는디 옛날도 경혜낫수과 ?

나막신은 나무로 영 코 돌리고 해영 아래 발 돌리고 해근에 나막신 고무신 코신 잇지 안허여이 ?

곤죽은 산뒤쓸로 허민 곤죽 . 좁쓸로 논 건 흰죽 .

제일 오래된 거마씨 ? 그거 말고 뭐 남자들이 했던 건 엊수광 ?

농사 . 옛날이라 별거 이서수과 ?

갯누물은 일부러 갈질 아녀고 .

그럼 고산의 좋은 점은 뭐가 잇이까마씨 ?

한 그물 먼저 영 행 오민 다른 그물로 또 행 와 ?

어린아이가 그때 그 막 술이 엇는 때 거든이 . 그 베가이 , 베가 막 딱딱헌 거 아이가 ?

확실한건 모르고 푼체 , 푼체 해나난 몰라 . 이디 , 이디 장화할망네 푼체 둘양 .

바닷고기 놓 국 끌일 때도 고장 놔지고 .

하하하 . 물도 그게 참 . 명칭이 상당히 으라 가지라 .

기와는 기와집도 기에집이엔 해가지고 잇수꽈 ?

삐엉이 이런 디 , 펜펜현 디 삐엉 갈아 불민 다 묻어져 불민 갈양 나와 불민 끝 .

삼월 그물어 가민 해여 , 건 .

그것에 것이 들어가야 것이 돼주게 .

지레 큰 보리라고 하는 게 나 키만이 커 , 이만이 .

게민 쇄손은 쇄로 만든 거 ?

목수가 허는 거 . 대충 어떤 것들을 집 짓을 때 .

식게 때는 아멘해도 식게 때는 고기 .

또 저 거세기 쇄고기 적갈 .

누빈 옷을 아까 소리를 , 어떻게 냇수과 ? 노빈 옷 ?

날 졸 떼만 율암주게 .

으 , 무슨 뜻 ?

중혹교 , 첨 고등혹교부터는 일본서 대 젖주게 . 넷 , 넷 경헨 다 이제 결혼꺼지 다 허여 놓고 이 막내 사고로 가 불고 . 여기서 .

잘 허는 사람으로 뽑아 가야겠다예 .

쉬는 또 어떤 거 이수과 ?

예 , 무물<sup>무</sup>루 저기 칼국수는 국제 해나수과 ?

쉐 뾰랭이도 주성 풀곡 , 고사리도 잇지예 .

배추를 담가 . 여기는 망사리에 배추를 담아 놔근엉 .

뭐 엇어 . 고추장 , 텐장 .

예 , 이제 만들어 줍서 . 말로 .

그 사람은 계속 자리 거령 오믄 .

아 , 이때 초불 가는 거라예 . 이때서부터 본격 농사 준비 ?

응 . 게민 부찌사둔 .

예 . 장수하는 사름덜 그걸 몰랑 그렇다고 .

그자 광대놀이 . 농악 놀이라 . 이게 . 우리가 말허민 시방 농악 놀이 마씀 .

제반걷기엔 헌 거는 밥 같은 거 우에 걷는 건데 잘 모르켜 .

조 불릴 때는 저거 물로도 불리곡 쉐로도 불리곡 . 사람으로도 불리곡 .

응 , 세 개 네 개 들어야 .

깍을 어 그 미삐쟁이로 안 헤여근에 .

시방 한남리 막 제라현 큰 당 잇고 .

코젱이 잘 내어근에 험벽으로 잘 두드려사 , 뱅뱅 돌아가민 . 또 죽어가민 팩 두드리곡 , 팩 두드리곡 이레도 둥글곡 , 저레도 둥글곡 경 흐는 거주게 .

보리 영 영 쑥도 나와 가민 물려와 .

게난 니랑 흐窣썩 집이꺼 산 , 사자니언 국을 햇는디 .

요거민 요영 허민 요디 거 .

여러 가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니깐 . 쉐 맥이는 것도 조찍 새꼴 , 감젓줄 , 콩고질 네 가지를 섞어놔야 쉐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허거든 .

그레에 골왕은에 것도 해 먹는 집인 해 먹고 것도 못해 먹는 집원 못해 먹어 .

삼춘 지난번에 보난 꿩사농도 헷덴 헨게마는 .

어떻 행 아마 구완은 해실 거여마는 종지엔 헣다 . 그건이 종지 겁나 종기 낫젠 허민 이젠 그런 거 엇나마는 옛날은 ?

안거리에 안거리에 밧거례에 영 혼 칸 부찌근에 쉐막도 그찌 부쩐 잊어난 거 닮아 .

응 , 검질로 검질로 , 검질로 행 영 글로 나가게 . 그것이 감저눌 .

다섯 개 . 모로게 혼나 , 영 그로 혼나 , 영 그로 혼나 , 영 아래 혼나 니 개주 .

게 . 경 서끄엉 허민 반지기주게 .

뿌려 ? 게민 남자가 ?

노릴 헷는데 다리를 맞았는데 .

예 . 어떻 만드는 것광 ? 범벽은 옛날에 ?

그믄 이 무실 주변에 오름 , 내창 , 바위 ,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.

없어 . 이젠 없어 .

무사 ? 안여 . 허여 .

아레 바지는 입어신가마씨 ? 얘기덜 .

마늘지신 그자 저 소곰 헷당 건정 고장에 하는 거주마 . 마농지신 .

늙은 걸 막 건져당 쪄수다 .

짐예가 제일 좋은 거주 .

이 방하고 저 방은 만약 방을 만들젠 허민 이디 벡선 한 네 개쯤 세왕 튜길 만들어야 허지 경 아녀민 .

그민 기신새 놓면 기신새 위에 바로 새 새를 해봅니까 ?

두드려 가민 혼 사름 또 접아 논덴 해근에 .

예 , 정지에서 주로 .

눌 눌어 놋당 이젠 .

으 , 대상만 헷주게 .

응 . 혼 노메엔 허주 .

탕건은 건 좀 어디 뎅기는 사름덜 . 겐디 , 탕건은 무시거 뎅기는 사름 .

산디찝이 여기 경 많질 아녀난 .

응 , 통허렌 . 경현디 그디도 잘헌 사름은 이제 중이나 고양이 못 들어가게 , 그딜 낭 뭐 얼거근에 톡 놔 .

그걸 이제 다 헌 거라예 . 삼춘 아까 지직은 뭘로 만듭니까 ?

크게게 . 막 집이 크게 , 큰 집 상 강 . 경현디 그거 그냥 , 다 피난덜 허렌 허고 또 이디서도 제기 오렌 허고 허난에 겐 와 불엇주 . 스물다섯에 들어와 불엇주게 .

어디 그 , 촘 저 택일 허는 곳에 가서 택일을 해와부니까 여기서 아무 세와지는 게 아니니까 .

나무 ? 일름은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이서부난 그걸 잘 몰라 .

옛날 대국조엔 허연 흐린조 .

감저로 무싱거 , 숨양 먹곡 , 감저뺏대기 방에 강 그루 흐영 떡도 쳐 먹곡 경 햇주 . 계난 공출 해불곡 감저 순 숨양 정심으로게 . 옛날은 먹을 것이 엇이난 , 보리밥 흐영 감저로 막 양식을 흐연 살앗주게 , 우리가 . 엇는 집에는 .

꼬슬귀 만드는 건 무슨 나무로 해마씨 ?

산듸찝도 허곡 무멀찝도 허곡 건 ?

계난 하민 묵도 하영 , 모물살 관ಡ 흐나 놓 쟁 해도 그것덜 다 방상에 늑신네나 이제 떡 놓곡 밥 놓곡 채소 놓곡 그 묵 혼 고지썩 놓곡 행 다 보내젠 허민 묵도 하영 해사주 , 묵도 혼 설라믄 고지썩 스무나믄 고지썩 . 혼 고지썩 다 놓 보내젠 허민 .

중방은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맞으러 갈 때 . 저 신부 댁에 갈 때 .

느물이 이만이 둥 사면 .

으답 설은 나난에 이제 , 으답 살은 나난 얘기만 돌아도렌 허난 우리 할마닌 난 여름 탕 여름 나민 보리밥 베랑 안 먹으난 , 여름 탕 보리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허난 얘기 못 돈덴 , 경해도 조팝만 헤주肯 하도 헨 . 아기 돌레 가난에 옛날에 청목 , 퍼링헌 청목 요만썩헌 넓이 헤난 거 싯주게 . 그거 헨에 , 가난에 치메 멘들안 굴중의에 그거 네 폭 행 이디 및 부찌고 적삼 허곡 행 주곡 , 행 주민 그거 허영 입곡 애길 드난 .

그거 흐끔 골아줍서 . 그거 .

응 . 줄 벌은 거 걷어됭 .

뭐 뛰는데로 행 오주 . 거 무신 .

묵게 , 묵 그거 . 경 지진 묵도 잇곡 , 저 쑨 묵도 잇곡 , 계난 묵 쇠 , 경 곤곡 청묵은 모멸설 물  
후끔 둉갓당 주맹기에 담양 웠지랑 놓 , 그거 쑤민 청묵 .

게면 이제 그걸 몰려 . 솜을 이제 바싹하게 물르면 그게 테우는 멘네 테우는 디가 잇어 .

예 그 저기 헤나근에 그 머 .

이제 날 보레 간 사름이 큰아덜은 멧 설 , 족은아덜은 멧 설 , 손지 멧 설 뜰은 멧 설 , 이 자식  
덜 나이를 딱 간 그 지관 앞이 놓면 .

녹두하는 사름 녹두하고 거 메기지 .

응 . 방에예 뿌상 . 방에예 지어근에 허곡 . 그로 후절 , 그로 후젠 기계 나난 기계방에 강 굴앙  
오곡 .

우리 생기리도 마찬가지 . 생기리 헐 때도 그렇게 하고 . 밤에 비암직히민 강 더퍼야 뛰여 .

이거는 보통 관뒈로 두 개 .

게민 그다음에는 아이를 또 언제 낫수과 ?

베예 . 베는 드린덴 힙니까 ?

응 , 감저 놔야 그 벳 나불민 못 놓난에 .

몰라 그자 독엿 , 꿩엿만 허는데 .

옛날에 곳간에 쌀 같은 거 놓면은 잊어버릴까 큰방에 부쳐서 했다고 허는데 요즘 와서는 .

풀짐치에 무신거 어떻 놔근에 힙니까 ?

곤쏠론 어려왕 옛날에 어떻 허느니 ?

영장날 아칙은 그자 밥 먹엉 강 그 토통에 영장 아져당 묻는 거 .

여긴 보말 심 , 보말 심으레 .

예 . 클로 홀타근에 .

겐 명석에서 우리가 마끼로 이렇게 텔엉 부수와 가지고서 게 가지고서 그거 쌀 , 쌀 다 웰 거 아  
니가이 ?

경 행 지금은 많이 편햇지예 ?

으 , 건 수천복 .

그럼 아까 열매 맛있다고 한 거는 그거 벌어지기 전에 ?

열 해 , 말은 뭐 쉐 스물 , 물 서른 영 산덴 허주게 , 옛날 말이 .

조축 . 그 조축은 어떤 식으로 해 ?

그럼 정원 명절 때 특별히 한 거 엇언마씨 ?

피는 성읍리 같은 쪽에가 .

이дин 포제 메칠날 헙니까 ?

밥이 족안 , 아이덜은 하곡 밥은 혼 사발이난게 경 문딱 못 줘 .

이제 시대가 혐악해 가니까 번쉐를 허여 , 동네에서 돌아가명 .

호랭이 거 나무로 만든 건데이 . 나무로 만든 건데 중간에 철로 만든 것도 잇고 .

문은 이디 대문 잇고 , 이 마리 뒤에도 문 잇수과 ?

겨난 아덜은 큰큰헌 차 행 가도 돈 혼엇이 못 벌어도 메누리가 돈을 잘 벌언 살암서 . 메누리가 착한다 .

소상 , 대상 때 올리는 떡은양 , 저 침떡후곡 , 옛날엔양 , 모멀로 중궤 약궤 흡니다 , 모멀쓸로 .

몰르크라 . 잘 몰라 .

지일 처음 낫젠히여 .

아무상 엇이 못 행예 . 그거 산에 거운 뿍을 뿍닙을 타젠히면은 산에 산 뿍을 헤다근에 .

나는 우리도 꽈 잡아서 . 우럭 곁은 거 .

요젠히요세는 그 솜 파는 그거를 , 따로 멘들안 .

촛불 싸근에 ㅋ찌 촛불도 두 개마씨 ?

보깡예 , 어떻 보꼽니까 ?

뭐인가 그 , 사람 지게 , 지게하고 쉐 시끄젠 맥하고 그 맥에 담을 거이 . 또 쉐얏배도 필요하고 .

음 . 그랫구나예 . 그다음에는 쉐 명에 잇잖아요 ?

그거 말양 무싱거 잊어게 .

예예 , 보리 끗낭 .

그럼 깅이죽도 드션마씨 ? 깅이죽 ?

으 , 뚫도 이제 우리 족은뚫이 이제 예순..섯이주만은 머리가 원체 좋안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죽

장 헷주게 . 고등학교 들어가난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허연 . 경혜연 허게 뛰난 이제 교육대 들어간 허게 뛰고 .

아 , 경햇구나에 ? 알았수다 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쿠다 .

아 , 남뎅이가 쎄진 않구나 .

맨 우의 놓는 거 .

게도 배추처럼 , 송키처럼 우영밧디 먹을 건 안 갈아낫수과 ?

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짚어당 놓젠 곡석도 문 항도 다 빙고 물 질례 경 안하면은 물 질으레 천리만리 가야 뛰니까 .

그건 뭣이엔 골양 좋을 건가 . 솔보리 솔보리추룩 허여도 막 막 고시락 나고 걸보리엔 헌 거 .

예 , 경 허고 삼춘 , 옛날에는 집에 다 뛰야지덜도 다 헷잖아예 . 거는 어떤 식으로 키왓수가 ?

콩 이름은 시방 우리는 모릅니다 .

게서 패농 지시하고 콥대사니 지시하고 들은 마농 지시 영행 허면은 그게 구구 각각이 맛이 틀립니다 .

크난 코토새기 담 일리민 잡아져 수두리 까마귀보말 쪽짜헌 거 . 먹보말은 거멍허영 허곡 . 수두린 색깔이 달랑 수두리가 커 . 베말 , 베말 잘도 돈다 . 아맹 이라도 된다 . 납작허게시리 딱딱 숨앙도 먹고 , 굼벗 물 데왕 두루치기 헤영 작작 밀어 밀민 아무거라도 허영 먹어 . 겁죽도 벗어지고 밀민 혜양허게 나오난 아무거나 해먹주 전인 우리어멍넨 그거 혜당 불도 숨고 , 우리어멍넨 그거 혜낫저 . 풀아나서 우리 물에 들땐 풀아보지 아니허곡 안 우리어멍 물에 들 때 솔민 딱딱헌 거 나오민 그거 무싱거 행고이 ? 바당에서 지덩 캐와 . 재가 혜양헌게 딱딱 수라난 거 . 재를 풀아 뭣사해산디 , 우리 막 어릴 때 . 톳 바당 이제라도 혜당 먹어 . 톤양 먹어 . 우미 짚은 디 나는 거고 , 톳은 아무나 우민 짚은디 나곡 , 숨앙도 먹고 우민 짚은디 나곡 .

적 , 그런 게 맛좋아 . 옥돔 국 맛좋고 .

좋주게 . 혼 푸대에 얼마행 . 부녀회에서 이 ??장 시꺼다 줘 .

제일 한 거 드릇누 물 속 물릇 그것이 , 보리밧듸 제일 한 거 대우리 .

아 , 줄이사개 그 더플 때 매는 거주게 .

다른 데는 조 , 보리만 헷덴 하던데 .

그럼 뱀한테 물리면 어떻 헷주마씨 ?

어떻 어렵 틀린 거꽈 ? 돌보말은 , 어느 게 젤 큰 거꽈 ?

게난 저게 많은 저 양식을 헤젠 헤민 물방애 강 쟈을 맨들곡 , 그때그때 죽은 건 고래에 거피해

여 .

요거는 여기는 보선코 . 요 , 요거는 ?

응 , 공긴 막 하영 헤나고 .

덕수도 강 싯당 온 사름 .

그런 거는 무신 바농질 허여마씨 ?

영 문 아자근엥에 옛날은 원 바농질 헷주만은 이제사 힘서 ?

예 , 예 . 모멀룩 .

어 . 바닷물이 큰 약이다 .

조노기 , 조노기당이라고 지으니 바로 조노기주 조노기 .

물은 군산에 놓 내부난 , 저 창천이 우트레 강 촇아오곡 해낫수다게 .

거 문 흄을 파는 골 대패가 잇고이 .

그 죽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광 ?

예 , 경 형 .

고무줄 허게 , 고무주 허게 허멍들 .

아 , 농사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땔감 준비하는 거 .

게난예 옛날엔 그것도 잔치 때 이시민 행 먹기도 .

게니까 옛날에 . 옛날 헤난 거 얘기해 줍서 .

어 . 혼 이십대 후반 .

메역만 놓도 국 허주 . 메역하고 참기름 놔근에 영 영 영 뽀꼬다근에 어느 정도 보까지걸랑 물 놔근에 해영 뭐 꿀여지면 간해근에 .

쌀도 있고 고기 거 뭐 , 물품 거 , 홍세미녕이라고 헤 가지고서이 미녕도 허고 . 또 미녕도 하고 또 이거 저 비 , 비단이 아니고 것?라 뭐렌 허느니 ? 저 아이고

잔칫날은 또 다 모이주 , 동네 사름덜은 .

세우리짐치도양 , 세우리 영 𠂊영 올라오민 비여그네 , 비여그네 싯청 물 빠지민 소곰 했다그네 양념 버무령 , 옛날엔 경 𠂊연 먹엇수다게 . 세우리짐치도 똑 골아마씸 . 마농짐치나 세우리짐치나 경 𠂊영 먹엇수다게 . 이젠 세우리도 비어 물령 그저 헸치 막 버무령 먹어신디 , 옛날은 똑 소곰 햇단 저 뜻로 버무령 먹엇수다게 , 세우리짐치도 .

어 , 옛날에 그 은행해도이 . 성산 안네 금융조합 흐나 잊어낫고 .

통시에는 도새기 집이 뜨로 잇주예 ?

건디 이추룩 하여사 제대로 잘 웠는 거 .

그 끈어분 다음에 감저를 머엔 흡니까 ?

중매 그럼 누구 통해 중매 하션마씨 ?

감저 빼떼기 사당 감자?를 멘들앙 .

쉐왕간이렌 헌 거 나중에사 .

연고지 따라가지고 간 거지 .

좁쌀 게메 아까게 . 좁쌀 만들제 헤도 방에 가근에게 그걸게 비로 안에 안에 거 영 허고 베꼈다  
거 쓸어 놓곡 헤근에게 이만큼 허면은 .

멘네용수 우리 안 해보난 거 잘 몰라 .

아방은 이젠 , 이젠 큰아덜은 절을 해야지 . 큰아덜은 아방 대신 . 족은아방 이서불고 셋성 이서  
부난 족은아덜이 집서 .

아 그민 아홉 개가 필요허네 .

그냥 저 미시거 그 병것이엔 허주 . 이제 요새 그 저 조선 왕조 오백년 때 , 인칙이도 테레비에  
나완개 . 그 막 검영헌 것에 그 띠 둘루곡 혜영 그 무신 뒷들 어샤게 , 관덕정?뜬 디 .

그럼 예전에 베로는 어떤 옷 만들언마씨 ?

좁쌀이라도 모힌좁쌀엔 헌 건 그 노랑헌 좁쌀 잇잖아 .

밀초배기도 흐영 먹곡 , 보리조배기도 흐영 먹곡 , 모밀초배기도 흐영 먹곡 그런 그 조배기밖의  
뜬 조배기는 엇인 거 닮수다 , 우리 알건 딘 .

그럼 고깃배 종류도 좀 알아마씨 ? 어르신 ?

예예 . 상 상 , 밥 그 잔칫집이서 그 상을 받을 거 아니우꽈 ? 거기도 .

삼춘 물 물 기르기예 이것도 똑같에예 물도 어떻 어떻 기르는고예 물 물 .

몸소곱으로 안 들어오게 히안하게시리 그 옛날 어른덜 거 짠 거 보민 .

삼춘 , 밀장두께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?

자리젯 멜쳤은 수못 옛날엔 못 먹엇는디 그루후제 . 자리젯 먹음도 흐쓸 그루후제 . 수못 옛날엔  
그런 거 엇었수다 .

씨 정씨 잡앙 아무나 안 뿌리주게 . 무쉬 아정 강 빼어주는 사름은 고마운 사름 . 경 안허민 이녁  
냥으로 놈 빌어사 빼여 , 여청덜은 .

예 , 그 봄난 것만이라도 어떤 식으로 허드란 거 굽아줍서 ?

씨 잘 빼는 사름은 뭐엔 골읍니까 ?

산듸 . 그것도 ㄱ슬 일 . 마찬가지 가을 일 .

벨떡엔 힙니다 . 벨떡 .

그거는 근래에 체육대회 ㄱ튼 때 하는 거주게 그거는 .

영 영 행 , 영 동글락하게 행 영 해 불민 . 납작하게 허영 영 영 영 .

뺑이 뽕앙 이기민 지가 갖고 ?

출례 , 출례 . 출례 .

서이가 매민 건 모세기무루 .

이 . 여기 몸 수두룩이 아플 때 .

물 었다 . 골른 물이주 . 골른 물 .

그럼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 ?

흑 불른 걸로 끂난 거 , 옛날은 .

예 . 녹두죽도 ㄱ뜨고 .

예 , 이긴 엇곡 . 여기 영하면 이 , 이 , 이 옆에는 뭐엔 굽아 ?

으 . 또 다시 이제 텁 쪽에 넙짝한 텁이 잇주 .

상제는 산제는 못 출려 .

찍신 , 나룩찍이 좋아 .

장지에 가민 상뒤꾼아티 음식 대접 잘 허지양 ?

그리고 마을 , 마을 사무장도 오십칠 년도부터 열일곱 살부터 마을 사무장 허면서 , 허다가 , 오  
십칠 년도 그 시작을 허면서 또 그 농촌운동을 허기 시작했고 또 그 인연으로 헤서 집사람하고  
결혼도 했고 . 그 결혼도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이제 고생하는 걸 뭐 해 가지고 , 열아홉 살에 결혼  
을 했는데 .

아 , 그것 ㄱ라 , 뭐센 혼다만은 . 설베메영이 것고라 뭐센 혼다만은 잊어불어졌저 막 소리덜허멍  
둘렁메영 나가나신디 . 이젠 차로 확 시깽 간다만은 그땐 그거 메영 설배메영이 막 소리덜 허멍

들렁 가느녜게 .

가끔 혼 번씩예 .

그때는 약도 엊고 병원도 엊인 때난 아프민 침이나 마치고 , 저 심방 빌어당 강 굿이나 하고 , 허당 오... 죽으민 강 묻어 불고 , 묻어 불고 게난 내가 .

게 . 뜰 줍생 가민게 .

그 저기 머 놓는 거부터 틀릴 거 아낫과예 ?

집이서 입는 옷은 해영허게 행 입고 경혜낫주 . 기지가 요새<sup>고</sup>치 널어지지 아니허난 .

아 , 솟듸 놓 끌리는 게 아니고 ?

아 , 날 봉 .

무시거 방석도 멘들주마는게 . 무시걸 허여게 ? 부엌에 꼴양 앗는 방석 .

그때 돈 것도 하지 안 허난 돈 것도 안 놔실 건디 , 패 숫으민 경 돌아 .

아니 갈첫배 뜯나고 , 자릿배 뜯나고 헙니까 ?

무끄는 식은 비슷헐 테주 .

하간 거 허레 뎅기는 디는 그런 게 막 많이 들어가 .

어떻 혜연에 하원마을이 만들어저신고 ?

예 , 콩지를 키우는 거예 ? 예 .

이게 공식적으로 머리에서 나왔어 . 옛날에도 .

원을 그려서 여기는 자기편이고 , 저쪽 편에서 이걸 가져 . 치면은 맞 뜨젠허민은 이걸로 하나씩 차지해 가는 거여 땅을 .

그자 장물 놓 국 끌령 먹는디 웬장엔 혼엇이 좋지 안허여 .

목화 농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.

고등어도 젓 해예 ? 아아 .

그냥 무로 그냥 김치 만드는 것이 있어 . 통째로 만든 게 .

망종 뛰며는 못 빌 보리가 었다 . 보리 다 비게 웬다<sup>호</sup>는 거 .

그 장탱이로 두 개 허민 두 뛰 ?

수박 . 참웨도 안 헷지예 ?

아 , 게믄 삼춘 줄 무끄젠 허민 아까 여기 안 나았는데 앞에 대낭으로 딱 해갖고 .

게 , 펜 갈랑게 혼 사름 사고 죽 구부리면은 진 펜부터 먼저 . 게 가지고는 뛰어강 그 우이 타는 거라 .

아 그 사람 찾고 막 하는 것꽈 ? 아니면 그 영 터치 헤가지고 .

가을은 ㄱ슬 , 겨울은 저슬 . 계난 멩지로는 보통 겨울옷을 , 저슬옷을 멘드는디 생멩지로는 여름 옷을 .

이젠 쉐 길러난 거 여쭤보쿠다 . 쉐 길러난 거 .

두부 콩 컷다근에 다 ㄱ례에 ㄱ난게 . 골아근에 그거 헤근에 이제 그 썹근에  
삼갑신엔 현 거는 저건 깍을 미리 비녀논 게 아니고 .

게민 웬장 꿔 때도 누룩을 ㄱ치 낭은에 꾸는 거 ?

말테 , 아 저기 돌테 .

여기서는 출 빌 때 어떤 ?

이제사 정 헴서게 ? 이녁 이문만 그자 올레 문만 ㄷ는 딤 둘암주 .

저고리는 이 안으로 무끄는 거 잇수게 ?

고팡에 그 고팡이엔 허지 , 옛날은 . 그디 그거도 허고 .

멩질 때나 식게 때 ?

경 그디 강 뺏아당 막 하영덜 . 경헨 빗으로덜 갈랑덜 .

이추룩만 골으민 뛰는 거우다양 .

다헤근에예 ? 낚시도 허곡 .

응 , 무신 헤치 보지 말라 무신 그 입관헐 때도 못 보고 하관헐 때도 뭐 무신 상제라도 그 헤치  
걸린 사름 아니 보는 거 . 헤치로 가는 거 .

또 , 곤쏠도 석산베쏠이렌 헌거 .

우장은 여기선 우장은 뭐렌 골앗수과 ?

물벵인 어떻 행 허는 거꽈 ?

예 , 경 헨 그 소곰물 끌영 . 그거 행 놔두민 .

자 이제는 , 게믄 .

응 , 앞이 강 , 문전에 강 영 놓 흥세함 디려 .

만들 때 게난 좁쌀에 고치 놓 .

어 . 그거 나비 웨영 허민 .

낳은 춤 동백낳도 잇고 소낳도 잇고 숙대낳도 잇곡 다 잇어 . 아무 낳이라도 춤만 메여 . 이 저 펭낳에도 메곡 .

조천 장에 받으레 오주 , 받으레 와 . 탕건 장시가 이서 , 육지레 .

말은 얼마 안 키완예 ?

그 저 안네허는 건 또 뭐엔 헤낫지만은 , 건 두 사름씩 , 거난 그 사름은 그 사름 그 삼한을 영 모셔가곡 , 영 모셔오곡 허야주게 . 게난 비치럽다하는 거주게 .

마농지 놔야 늘내가 흐꼼 감소뒈지 .

하하하 . 게난 이디 우리 할망이 젤 고생헌게 그거주게 , 젤 고생허 연

아니 , 쉐가 영 보난 밤이 뉄둠서 들으난 . 저 하르방 간세로 아이 나가 경허난이 막 쉐 장석 소리 나난 가보난 송애기 나젠 허는디 .

여기가 길인데 어 그 바로 여기서 해버리면 길에서 바로 들어오기 좋은데 이렇게 좀 길게 올레를 만들었잖아예 ?

자르는 거마씨 ? 그럼 출 베기는 ? 월로 ?

저기 자라온 거는 여기서 멧 데 멧 데까지 .

이건 웨 살 . 이제 또로 두 살 허영 이제 세 살 영행 올라가는 거라 . 네 개 혈 땐 이렇게 하는 거라 , 영 .

그걸로 그걸로 봄 나민 묻엉 .

게 , 눈이 벌겅허게 충혈 웨불민 건 어떻햇수과 ?

거문 그땐 보리가 엊어실 때난 어떻 헤신고예 ?

뜸엔 현 건 이거 설치 구녁을 뚫르면은 이게 올랐다 누렸다 못하게 영 허영 고로 뜰을 주주 .

그래서 그 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이 여기 생긴 지가 한 육백 년 됬다 이렇게 저 나무를 봐서 .

밧 천 펑짜리 하나씩 .

예 , 무신 말이꽈 ?

아 , 거난 건강하시구나예 .

무사 굴렁쉐도 해 해 .

사위도 들 잇고 며느리도 들이고 .

대물 타기 , 대낭 헤근에 영 강알에 헤근에 막 돋는 거 .

중간에 비오면 어떻 해마씨 ?

이제 그 고기 이제는 일 키로에 얼마 헤신디 그때 일 관에 얼마 헤낫주게 . 고기를 사젠 안 헨 . 그 우리 배는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아와신디 . 우리 배만 들어오면 우리 밴 아니 맡으肯 하는 거 라 . 그 .

게난 나 거 잘 모르는디 .

게난 막 그 우의 출 비는 밧 .

사진이 어디 잊어 ? 안 찍엇주 .

그 써난 그 집줄은 무신거 헙니까 ?

물이 족으민 이젯말로 뛰다 영허는디 .

게민 사삼은 영 들어왕 겪은 거 아니예 ? 사십팔 년도난 .

뭐 흄질이여 무신 감침질이여 이런 말 안 써마씨 ?

고구마로 감수다예 . 감제예 ? 감제는 언제 준비가 필요합니까 ?

그런 걸로만 불라근에 . 유리란 건 엇어 . 유리란 건 사람보젠 요멘이만 헤근에 멘들주게 . 사름 덜 갓다왓다 후는 거 보젠 . 사각으로 요멘이 .

보통 다 경 햇수다 .

그럼 파제는 보통 몇 시에 핸마씨 ?

솟디서 남죽으로 막 문질렁 .

영 혼 사름이 튀당은에 둘리도 ㅎ곡 . 서이도 ㅎ곡 .

으 , 시루에서 치는 거 .

이중으로 안 하고예 . 그민 이거는 조문은 동네 사름덜 다 .

아이 맛 좋주 .

예 . 거기에 풀칠해기네예 .

에 , 지금도 잇어요 .

음 , 게믄 그때 그 떡은 무슨 떡 헙니까 ?

멘네사 같아신디 , 어떻사 <sup>호</sup>연 주난 , 가렌 <sup>호</sup>난 오라부난 몰라 .

솟은예 , 감산이선 곶밧듸 강 , 영 막 데명 그레 불 부쩡 , 숫 해난 거 해도 , 난 숫 해나지 안 <sup>호</sup>난 몰라 .

그믄 어 감저밥은 들어보셨수광 ? 감저밥 ?

송당 재산 문딱 풀아 아전 .

이제 그 바당에 가근에 슬라니 나까오는 입에 영 보민 째끌락현 낙시가 입에 들어이서 .

그럼 호룡이나 뒤치기 같은 거는 안 써마씨 ?

으 , 감저 싱그곡 .

침떡 쳐서 먹을 수도 잇고 올릴 수도 잇고 .

경허단 이제 촉촉 살장귀가 나난에 놀래 감도 살장귀 때리멍 .

그면 원이나 원담이랑 갯담 알아마씨 ?

헌덴 <sup>호</sup>주 우린 여기선 보리밟기 .

이제야 일본 수출하고 이렇게 허니까 지키 , 지키면서 그 채취하는 날만 .

무사 일곱 번 무꼽니까 ?

보통 그냥 중간에 거렌만 얘기하는 거예 ?

아 , 게난 먼저 강 봐지는 대로 .

그 예 삼춘 , 흰죽예 ?

먹는 날을 가문잔치엔 곤는 거꽈 ?

아 , 멜젓 김치 할 때나 넣젠 헨마씨 ?

아 , 삼년 혜나면 그 밧듸 더 이상 못해 가지고 .

게난 잘 데끼는 사름은 .

잔치헐 때 음식은 무신거 무신거 해근에 .

자식덜은 결혼은 어떻 시컷수과 ?

경 <sup>호</sup>주만 어떻 하여 .

곰 피연 . 맞수다 .

쉐 먹나 . 콩깍지라고 거 먹나 . 쉐게 , 경 딱딱해도 .

응 . 게믄 아무 때나 헙니까 ? 겨울에 헙니까 ?

아 . 대톱 , 소톱 ?

거난에 쉐뚱 물리와야 텔 거 아니우꽈 ?

아니 , 찹쌀 조가 잇엇어 . 흐린조라고 찹쌀 조가 .

게연 메느리허고 사위 자랑 좀 해봄서 ?

말은 색깔이 엇주 . 기자 검은색 기자 붉은색 경 저 붉은말 검은말 기자 영 색깔이 경 요란하지 아녀 . 소그치룩 .

그 저기 소에 꿀 벗던 거 , 출 벗던 거예 . 저기 흐끔은 어릴 적에 베 나지 안헐디가 ?

그냥 상군 . 상군 중군 돌파리로만 세 단계로 하는구나예 ?

여기 와서 시에서는 밥으로 헤 보리쌀을 하엿지 , 여기 오니까 깡냉이 그를이 막 나왓어 .

예 , 제사후젠 해부난예 , 성주 핸마씨 .

그 집안에서이 집안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잇잖아 .

도께질예 ? 다 , 콩은예 ?

무생이게 . 무끄는 건 이젠 영 현 걸로 허주만은 ,

아니 , 것도 거 사부러시난 .

으 , 엇어 엇어 .

아 , 여긴 안 팝니까 ?

거름 내는 날 먹어난 거 기억남수다 . 거름 내는 날은 지름밥을 .

백로 지낭예 . 게믄 그걸 팔월중이렌 하는 거라예 . 중간이란 의미가 아니라 팔월중 .

씨동생도 어렷겟다예 ? 씨동생도 열 멧 술 ?

여기서 짜는 건 엇어서 .

젓갈후곡 설탕 . 설탕이나 물엿이나 .

아무거나 질김만 허민 하여 , 다 .

에이구 , 제섯날에 뛰지고기 혼 점 안 놔부난 나 울어난 .

개민 두 개 놓고 .

그 가와에 영 올려그네 .

아 , 집에서 저 먹기만 햇주 . 예식은 예식장에 간 .

정 잇어 . 겐디 우리 동네도 이서 . 연날 아니라도 이런 일은 잇엇어 .

그때는 얼마 안 줘져실 걸 .

연 날리멍 즐겁게 논다 . 그렇게 게난 연이 영 허당 잘못뒈영 연이 떨 어지민이 또 연 놀리는 사람이 잇주 . 같은 친구끼리 쪼금 미련한 사름이 연 놀리라 하면 떨어진 걸 손으로 심영 바람에 연을 올려줘야 영 하늘로 올라가주 .

건 웨정시대에 옛날에 경 행 살았수다 . 옛날에 .

남신 , 남신 . 나막신 아니고 남신 . 남신은 어떻 ?

아 , 게난 지난번 우리 갔을 때도 장궤가 잇엇잖아예 ?

아 , 진짜예 , 하나도 진짜예 . 그런 걸 배와야 환경얘기가 나올 건디예 .

영 둘리 상 영영 둘리는 건 ?

경 후여그네 그르후제 중간이주게 중간 .

으 , 콩은 거름 안 해도 .

그런 것도 비여다가 그 익은 거 비여다가도 만들고 뭐 또 이 새로도 만들고 또 이 조침으로도 만들고 허엿주게 . 조침으로 .

예 . 그 집줄 맬 때는 어떻 멧 번 맵니까 ? 이렇게 .

삼춘 , 옛도 직접 해봅디가 ?

아 , 우리 국민혹교 뎅길 때는 아이 그짓말이 아니라 제기차는 건 나도 두 번째가伦 허믄 .

어 . 경 해사게 .

칠십구 학번에 둘째가 팔십일 학번에 , 쭉 해서 그 사남매가 다 대학교 가게 됐니까 도저히 이제 , 공적인 일 , 마을 사업에만 , 이런 디만 해서는 안 됐겠다 . 우선 자식들 학자금 조달 위해서는 , 우선 자기 삶 , 삶도 돌아봐야 됐겠다 . 그면서 뭐 열심히 한 , 십여 년간 ,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, 자식을 위해서 . 자식을 위해서 해서 사남매 다 대학교 졸업을 시키고 . 그런 거 뭐 . 큰 애는 지금 뭐 , 엠비시 제작국장 하다가 이젠 뭐 내일모레 정년됐니까 , 하게 되니까 , 뭐 좀 셋아덜은 다른 또 법조인으로 그렇게 하고 .

예 , 예 , 예 .

조 , 보리 다 뛰 나민 따시 밧을 갈주게 . 밧을 갈민 초불 갈민 검질 엇어근에 좋은 밧된 하고 검질 짓은 밧은 빌레 밧은 빌레 찌깍허난 그 풀을 다 메어사 .

족아도예 . 음 자랑거리 ?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났거나 이런 뭔 엇수과 ? 자랑거리 막 자랑헐 만헌 .

으 , 조방이엔 허는디 옛날은 저걸 도절귀엔 헷어 .

으 , 그건 또시 이젠 눌어다근에 불 숨고 . 또 쉐 신 집인 쉐 맥이고 .

그것에 잘 눈을 안 두면은 .

그걸로 멩지웃은 윤디하고 다리웨 가져사 하고 .

두주 , 두주엔 현 거 양쪽으로 이제 이거 이것이 영 헤근에 마루면은 요기는 저 두에 .

게메 , 함덕도 소원으로 해줘 .

경 헤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지는 거라 .

경 허영 딱 허게 썰어 놓곡 이제 그거를 떠 놓고 냉국하민 맛잇어 .

거 중방이엔 허는 것은 중방이엔 허는 것은 신랑 ,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이제 그 모셔다가 이제 그 뭐인가 신부 쪽에 앗는 거주 . 중방은 앗아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다 인도 , 인도하는 거 .

예 , 사름 송애기렌 헤마씨 , 세 설은 ?

아 , 저 웃삼달보다 더 우에 ?

응 , 수망리는 거 훼 그런 거 먹어보지도 아녀서 .

아 , 불을 꺼불어 .

그걸 취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.

으 , 경허난 뭐 닥치는 대로 . 검질 웃을 때꺼지 메영 , 조가 이만이 헐 때까지라도 막 메여 . 메곡 수까주곡 .

좁쌀만도 조팝이라고 , 거문 조 거무룽흔 거 더 맛좋나 .

막 나중에 처녀 총각 때도 헐 때도 , 안 헨마씸 ?

뒤의로 후곡 , 옆으로 후곡 , 세 개 .

무판 엇어부난 궤기도 못 갈랑 먹고 , 쟁 기자 .

훗롯조냑 제우 잔 . 둘아나 벳주 .

물통 . 이 바당에도 이 원 안에 영 싯나 . 물덜 잘 안 빠정 .

고약 부치는 거 . 영 떼근에 , 아 그 까망 거 그거예 ?

것도 절간에 가는 사름만 .

꿩코는 어떻 놓는 거꽈 ? 말총으로 어떻 헤여 .

삼은 우리 학교 덩길 때예 , 모싯대라 이젠 보난 , 모싯대 겁죽 베껴 오렌 흡디다게 . 모싯대 겁죽 베경 학교 가민 , 잘 안 후영 오민 별 받곡 해낫수다 그걸로 삼베 멘들젠클 공출로 육지레 내보내엿젠 흡디다게 .

건드리면은 흔들흔들하는 그게 잊어 . 잊는디 일름을 모르겠네 .

빼다귀 국물 ㅎ여그네 , 영 맥이곡 .

대반은 아무나 앗지지 아녀 .

몽니로 건가 ? 이 ?

아 비양도 . 그 바당 길이 한도꽈 ?

가령 가을목이면은 우리 웃동네 가을목 섯동네꺼지 해 가지고서 거 이제 딱 규정이 뛰엇져 . 영 장나면은 옛 개 반 . 우리가 육 개 반인데 삼 개반을 동원시킨다 .

그 심방은 어디 강 모셔와마씨 ?

배고프곡게 , 귀가 귀 ㅎ여노난게 , 매역귀 . 이젠 매역귀 먹지도 안 ㅎ엿주만은 .

논에 일허레 가다가 논에 가져강 저 , 요즘 말허민 푸대에 담아가근에 덧겨버리고 다 먹지 못허니까 .

게난 떡이 막 하영 헌 사름은 떡이 혼 수오십 빚은 나가 .

노는 거사 우리사계 요새 놀듯이게 뭐 무신 베威尔락이나 허곡 방찰락이나 허곡 .

팔월중 . 게난 그 팔월절 들었다는 말이우과 ?

좁쌀은 요만큰 놓고 톳만 이만이 놓고 허는데 완전히 톳만 먹는 거 .

아 , 아 , 자리물훼 ?

옛날엔 , 장마나 , 장마가 그치룩 심허영 장마 이젠 그치룩 안개 안 끼 주마는 안개 끼민 여기 사름도 안 보일 정도로 . 장마 넘어나민 창문이고 무시거고 온 집안이 곰팡이로 .

애긴 혼자 여기 잊고 ?

공기도 중간 동네사 헷주 , 옛날엔 공기 엇어낫어 .

게난 잘 뿌렷느니 안 뿌렷느니 ㅎ는 건 나중에 보문 다 알아지는 거니까 . 헤 , 헤 , 헤 , 헤 .

저고릿곰 말고 남자 거나 두루마기나 헐 때도 다 그냥 .

그다음엔예 , 떡 , 떡에 저 떡들을 해서 저기 제사명절에도 쓰고 해야 되잖아예  
좁쌀 놓은 죽 , 잘 안 헤여 .

음 . 그 게난 저대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런 그 저대가 뭐인고 요즘 사름덜은 헐 건데 , 옛날  
기생덜 . 그 그날 놀이하는 사름덜을 상당히 즐겁게 허기 위해서 술자리 베풀어주고 이제 그 뭐  
허던 것이고 , 대지왓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  
내던 그 밧으로 이제 생각이 뛰는데 . 이제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은 에 원단이 무루라고 해  
가지고 이 새해 정월이 뛰면은 그 마을이 편안함을 빌기 위해서 제를 모섯 , 모셨던 곳이 있는가  
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 .

그걸 물 목에 헤가지고 빈 밧이나 어디 뛰왓에나 .

게난 송키바구리 아지고 해서 막 재미 부짱 넣어 아정 왕 집의 왕 다듬양은에 걸로 짐치도 담양  
먹고 .

모커리엔 헌 말도 써 낫주예 ?

예 , 알았수다 . 게난 안 해본 거 엇어 . 삼춘 이 , 이 마을에서 도련에서만 특별하게 해 먹은 음  
식 이신가마씨 ?

응 . 겟 옛날 보리농사 하영 해낫수과 ?

길마엔 헌 건 뭐여 ?

씨는 언제나 나가 뿌려 .

메지 않은 것은 무신 말이우과 ?

게믄 선물은 안목에 잇는 거예 ?

남자 아이덜 가이셍이엔 허여근에 또 모조 영허영 꺼꾸로 씨엉 허고 거 일본말 , 일본말 .

어 , 갈기 전에 .

궤명이 , 궤명 . 궤명을 다섯 가지 해 가지고 친떡 우이 주근주근 올려 .

게난 뗄곰 준비하면서 그 경험 같은 거 . 장작 뭐 솔닙이나 .

그믄 열 명이민 얼마나 숲아야 뛰는 거라 ?

՞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잉켕이 거려 놔기네 그냥 .

예 , 넓게 허고예 ?

뺑이치기는 상대 들이가 하는 건데 .

아 , 겟 그걸로 영 두드려 ?

설칫 우에는 이 설칫이 우트레 올라가지 못하게 이 설칫에 ㄱ로 고냥 뚤랑 끼우주게 .

하고 자반 , 뭄차반이엔 헤근에 무청도 먹어 . 놀채 , 뽕양 .

응 그건 끌일 때 소곰 놓 끌영 .

새로 집 이사하면 사람들 초대하고 음식 좀 대접하고 그런 걸 뭐라고 헤마씨  
게믄 솟듸 물 놓고 그다음 무신거 놔 ?

호박은 호박도 밧 서사 심그는 거주 밧 어시민 싱그지도 못허곡 .

어욱 비어다근엥에 주질 영 씨울 거 . 정 헤나믄 이제 칙이랑 뭐 걷어당 불려나카부덴 눌 , 불려  
나카부덴 막 칙이영 막 헤당 낭께기 헤당 출르러레 꾹꾹 찔르멍 누람지 불려나지 못하게 .

거 옛날이주 . 이제사 그런 거 이서 ? 이젠 신들 좋게 신어부난 옛날에 저 짚신 그런 거 신을 때  
눈터서 .

계난 골도 , 보리도 골 갈고 경 허지예 ?

계난 우리는 딱 그 세계는 지나고 .

이 선흘사 술 디 족느냐 ? 수못 땅에 마당에 , 올레에서 술아불주 .

계난 걸름을 다 뿌려 , 초불 걸름을 다 뿌려져그네 걸름을 이제 고량 놀 걸름을 좀 냉겨 나둬 .  
이 고량 보리 흐젠 흐민 , 뿌리다그네 멧 군데 혼 밧듸썩은 고량 걸름을 냉겨 , 밧 갈멍 둥그령  
낫다그네 밧 다 갈아난 다음 고량 걸름 톡톡 훈 아노멍

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?

좋젠 허민 이녁이 복 받젠 허민 막 그거가 잘 뛰여 .

줄 메영 그것에 돌 , 돌 지들왕 .

겟 보리 까끄라기는 뭐 헷수과 ?

항아리도 크기 별로 이름 이수과 ?

고기는 상에 올려야 . 건디 , 쳐 , 쳐 . 고기를 굽질 안 하여 .

노란 거 지일 주류로 하영 하는 거 . 노랑 거 .

아니 , 난 감산이 친정에 나록 하난 해낫주만은 , 이디도 오란에 이디 이거 이제 다 논 해난 디  
라 . 논 해난 디난 우리도 나록 해난 . 이젠 밧을 멘들아불 엇주게 경 해신디 감산이는 우리 친정  
에는 논 한 집이난 어린 땐 머 나록도 날르곡 다 해신디 , 이디 완도 논 버실엇단 논 메완 논 엇  
어져부렷주게 .

아잇 , 저 오민은게 저 뜻통이 어딨수과 ? 영 후주게 . 게민 어디잇젠판 가르쳐 주는 거 .

그 적은 걸 이예기 흐는 거주게 . 적은 걸 .

아 , 묵은핸 괜찮고 .

멘네 농사 짓는 것에 대행 말해봅서 .

음 , 또각또각한 거 . 지미개 .

예 . 막는 거 . 거 .

섭이영 대가리영 . 밑에 마농은 안 하고 ?

그런 건 안 신어 .

아 , 헤낫수과 ? 어떤 식으로 행은에 맹지씰 멘드는 거 ?

그거는 뭐냐하면 이 내음새가 좋다고 . 냄새가 .

으 . 그 물구레엔 허민 저건 다 까져 불언 안 뛰고 .

맞지주 아니 써 . 시삼춘나 동세나 . 것도 시집오랑 잘살고 얘기도 낳고 복 존 사름이라사 , 아무나 훌 어멍도 아니고 .

아 , 게난 이거는 다른 거 하고 투나게 그냥 처음에는 무껑은에 .

옛날엔 자리젓하고 멜젓하고 또 다른 젓도 헤낫수과 ?

꿰 멀주게 . 이디서 돌새기엔 하면은 .

아 , 국시 꽂이 듯이 ?

하하하 , 힌 잔치 .

옛날에 우리 저 우이 살 때 이디 오랑 보민 집이 혼 열 , 스무나문 개베끼 엇어낫어 . 우리 역은 후제 다 온디 . 이 동네 사름도 물질히고 따시 용수지어 용수행 감저도 놓곡 , 보리도 갈곡 행 , 잡곡 농설 허주게 . 경행 살안 .

게민 여기는 대 안 들어갈 거라예 ?

잉꼬 색깔이니까 저 색 , 저 색보다 더 진현 거 .

명도 하르버지 후손덜은 신식 촛는 편이라 , 지금 .

아 경 해부난 세 네 번 ?

내불주게 . 그 묻어난 땅은 이제 그디 나쁘민 좋은 터 봉강은에 야 산 잘뒈민 주순 잘媿민 허멍 막 터 좋은 디 봉강은에 정시 돌아당 빵 허고 헤낫저 . 이젠 그냥 그자 공동묘지 행은에 주근주

근주근 거 묻는 사람도 싯고 불도 케와비는 사람도 싯곡 헤도 옛날엔 주순 조상만 두엉 잘 묻으  
민 잘 뛰카부덴 오죽 맹심해사 게

한식 맹질 헤나곤 디 혼 삼십 년도 넘어실 거여 . 오랫주 .

그다음에 나록에는 어떤 검질덜이 자랍니까 ?

출 종류는 뭐 엇인가마씨 ?

경 생각하는 게 좋을 거 닮수다 . 대부분 남자들은 펭이치기를 햇주게

춤웨는 그 수박 가는 디 조꼼 대대적으로 하지 아녕 . 춤웨하곡 수박은 이제 가만이 생각해보믄  
함덕서 그걸 많이 헨 그걸 풀레 템겨난 거 닮아 .

으음 , 게 그거 허젠 그거 허젠 하면은 막 손도 아프고 헐 건디 가시낭 .

기지예 ? 아홉 살 쯤 . 그문 그때 일제강점기 때 아홉 살 때까지 혹시 기억나는 거 이시믄 골아  
줍서 .

빨강 알멩이 요만흔 거 납작납작흔 거 두불콩 잇수다 .

응 , 톱밥 담아불멍 헤염주게 . 톱?루 , 톱?루엔도 허곡 톱밥이엔도 허곡 .

예 . 경 해영 조 갈명 콩도 갈곡 .

개난 나무로도 흐곡 , 나무로도 흐곡 .

거민 집 종류는 어떤 집덜 잇어수과 ?

당일 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.

아까 물 무신거 햇덴 골아라만은 .

으 . 느네 하르부지 , 한동은 느네 하르부지도이 그 평대국민학교 선생 이랏저 느네 하르방이 이  
디 저 동문이 가시아방하고 그디 선생이랏는데 , 선생이랏는데 그 느네 아방이나 이디 송태네 아  
방네나 한동에 주모자는 누계 이신고 하면 이찬이 형이라고 잇엇저 . 이찬이 형 . 이찬이 형 느네  
잘 모를 거여 . 영 돌아가는 가 도에 거기 잇엇고 .

응 , 고장이 물장이주게 .

돈이 엊어 부난 그걸 질기게 해서 질기게 씨게 해서 밧이 그 감나무 .

전기 안 들 때 우리 때 . 그때 초집에 살았주게 .

이젠양 , 서화리 사름들은 간혹 일본말로 게슴이라고 낭 카논 그 숫을 멘들앙 짓어낫수다 . 우리  
도 .

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.

아 , 그런 것도 잇었다예 ?

돌 메왕도 안 헙니까 ?

팔월달에 팔월 보름은 추석 , 팔월멩질 ?

워낙 어려와 놓니까 . 웨정 때 .

거기에 그 , 그전에 그 유체 같아나면은 유체 누물이 거 쫌 잘 나주만은 . 거 유체나 안 갈아 난  
дин 별로 그 잇당 . 그 데우리 ˘뜬 .

양늘베기 . 또 왜 그 큰 텁 혼자 못 쓰고 들이 잡앙 영 영 허는 것도 있잖아예

아니 그땐 쫄르곡게 . 경허단 두 번 까끌 때도 초파일에 가까도 뛰고게 .

이제는 흥역이여 하영 병원에도 가고 주사 놔불민 열도 꺼져불곡 하는디 . 그때는 그 열을 몸에  
서만 핍젠 해노난 힘든 거라 .

서리 내릴 땐 어떻해야 뛰마씨 ?

누구영 제일 먼저 ˘치 조차뎅겨난마씨 ?

그믄 한 장도 안 든건 반장벡이마씨 ?

이거 진짜 맹질 아니민 먹지 못 해어서예 ?

게난 남자 삼춘이 굽아봅서 .

응 , 게민 유월돌에 옛날에 독 잡아먹는 날도 해낫수과 ?

거 두 가지밖에 엊어 .

물방에에 가 가지고는 물에 , 물에 둑가둠수루 굽아 .

비 올 때 영 ˘는 우장 ?

아니 , 어린 아이덜 입는 옷은예 , 어린 아이덜 입는 옷은양 , 그때 아기들 입지는 거 베려보민  
양 , 이 저 아이덜 영 ˘여그네 옷을 일루 영 ˘여그네 입지곡 , 일로 턱받이 식으로 만들아그네  
어깨마리 식으로 영 만들양 그런 옷 입곡 , 알은 영 그냥 저 들르민 아기덜 오줌이영 뚩이고 쌔  
와지는 그런 옷이 이섯수다게 그때 .

낚시 영 오고랑 . 낚시덜 .

구챙기 ? 으 . 구챙기 .

아이 , 테우지는 안 현다게 . 거 걸름은 해도 . 그거 다 그거 홀타난 다음에 또 다 무꺼 .

나도 ˘치 강근엥에 그 저 연자방아 돌려사주 .

으 . 빗창은 , 빗창은 그 전복 떼는 거 .

야 . 말똥 , 쉐똥은 우리 화덕에 불은 아니 떼어 봐수다 .

무수도 썰엉 넣엉 먹을 때도 잇고 . 이제 매역도 주물어당 먹을 때 잇고 . 이제 톳도 먹어 .

이 , 그 흑 이거 땅이민 흑 기자 ㅎ술 영 파근에 그레 저 돌 쪼꼴락하게 영 놀근에 기자 영 우트 레 걸처근에 영 해근에 허곡 .

치져그네 , 치져 놔그네 국 ㅎ영 먹곡 , 경현디 꿩은 저 독 답지 아니영 궤기가 작읍니다 . 베짝 물랑 무신거 하질 안 흡니다 . 게민 꽝이고 머시고 막 웃아 놔그네 지름 놓곡 , 마늘 놓곡 , 무 놔그네양 , 국 점 찌게 점 훈 게 제일 맛 좋아마씀 . 그게 제일 맛 좋아 .

특산물이 마농매기주게 . 거벗기 없어 .

어 . 각제기 새끼 , 멜 새끼 , 어렝이 새끼 . 그런 거 .

그런 건 어디 오래 걸어 나면은 밸바닥이 그 물집이 생기는 것?라 거 십종이엔 혔다 .

아이 옷에 대해서 , 아이덜 옷 .

질 가까운 사름안티 젯주 .

외할아버지 . 아아 , 돈이 필요허니까 경도 허는구나예 ?

저 물랴근에 보리 정 , 그 방앗간에서 나오민 .

코피 날 땐 영 행 고개 잣혀근에 여기?지 심어주곡 , 뭐하당 멈추곡 약은 헌 거 담지 아녀 . 코피 난에 막 심할 땐 훈 십오 년 전이?장은 문어 .

팔월에 탈 때는 초창기에 초물을 타고 .

그 둠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해근에 ?

어 . 담 아 , 담이 엊어 노니까 .

예 , 예 맞수다 . 으 쟁풀에 .

엇어 . 맹긴하고 탕건허고 양태 . 거나베끼 .

그면 혹시 삼춘 어릴 때 기억 뒷살려봄서 . 어렷을 때 뭐하명 놀았수과 ?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이 종류 .

칠십 , 이제 일흔 뒷나 마나 .

시금치 그런 것덜 쇠 가지 놓 허는디이 이젠 사당 덜 얼마라도 .

아 , 그냥 들어간마씨 ?

멜은 여름 아니 . 겨울에도 나와 .

아니 , 그때 옛날에 , 난 미싱 시난 미싱으로 드러 헷주만은 손으로 하영 허주게 .

껌시롱하고예 ? 이걸 가정 또 그레 골양 떡도 만들고 .

불리민 이게 소로 장기로 갈면은 이렇게 높은 디가 잇고 야튼 디가 잇거든

한 군데 그 만이 들어가게 묻영은 온도 조절이 안 돼주 .

응 , 웬 노 꼰 거 웬수 .

그딘 훗수가 얼마 안 돼니까 뭐 , 알아보는 거고 . 교래리니 머 이섯 자 맷 십 가오 안 돼니까 .  
함덕이 젤 . 건물도 막 해 노니까 인구가 늘어나 불엇어 .

감재술 골아당 떡도 행 먹고 , 개역도 행 먹엇수다 .

뭔 신발 신어게 ? 고무신이여 , 옛날에사게 .

종낭이나 그 무슨 저 폭낭이나 .

응 . 옛날 밧듸 강 밧듸서 밥 먹전 하민 물 뜯로 , 장 뜯로 가정 강 냉국 행 먹어 ?

아 , 멜허는 디도 도감 .

난드르 형성 과정이 거 어른덜 곤는 거 들어보민 거 저 애월서 넘 어왓젠 흡주게 , 사름이 . 게난  
애월서 넘어온디 , 우리 양씨 .

그 그러면 콩씨 뿌리는 거는 뿌리는 저기 그냥 .

글쎄 친떡?!지는 안 돼고 .

영 뮤영 관 들어올 거 .

테왁에 망사리 헤근엥 가지예 ?

그때당시가 고등학생 때마씸 ? 아니면 총각 때 ?

저 장만 행 놔둔 거 .

안 해본 게 엊어 . 매칠 전에도 골 놋덴 헨게 골은 잇수가 ? 이제 다 골아불언

흑 바를 때 가로 여기 영 낭으로 가로로 세로로 영 놓는 거 아까 무신거엔 골았수과 ?

어떻 부찌민 꽃게 , 꽃깅이엔도 골을 수 잇주 . 꽃깅이엔도 .

속아근엥이 김치 헨 거 열무김치엔 행 헷주마는 .

물 곱는 디 ? 신귀 ?

눔빼 썰어놓게 . 웬장 일어놓 꿰여가민 냄빼 썰어놓 익으민 국이주게 경후고 옛날엔 냄빼국을 잘 안 후였수다 . 누멀이 좋으난 , 누멀국이 주장이주게 . 웃드른 메역국은 아이 먹곡 .

아 , 막 이것저것 많이 헷구나예 .

경현 때베끼 우리 물질 안 혜난 .

건 나 저 이녁 힘 있는 대로 .

씨를 잘 뿌려야 뒤겠다예 ?

잊어불어젖저 ? 미가 뭣고 ? . 해숨 .

게민 밧 갈 때도 영 고랑은 있게 가는 거다예 ?

콩찝도 멱이고이 . 또 콩찝도 멱이고 또 다시 그 조찝도 겨울에 멱이고 .

경 훌 때는 멜을 그냥 모렛바닥에 물령 걸름도 헷서 .

또 저쪽 으슥헌 데만 돌아다니명 붙주게 . 또 막 붙으민 여러 개 해서 싹 갈라정 .

소로 불리는 것보단도 소로 갈아놓 일차 . 혹을 영 만들어놓 .

그거 허는 집이 막 만아낫어 .

사월달 넘어가쿠다예 . 사월초파일 그때 뭐 헵니까 ?

아 , 이건 감저밧듸 꽂고 . 들풀은 안 먹어 ?

아니 , 처부님하고 우리 아부지하고 사둔 , 사둔 , 동네서 농담이 진담뒈 여

어느 거우과 ? 일본에서 사는 뜰은 이거 ?

가시새 ? 가시새는 뭐꽝 ?

으 , 주룩은 어떻 트나 ?

흔 쑬미 미싱 바농은 으섯 개 .

옛날엔 엇이난 햅주만 , 이젠 비료 안 주민 안 뛰주기 .

그냥 밧디 나는 거 .

일로 만약에 그 배가 느지면은 한줄 소곱으로 강은에 심는 게 경혜가민 벳가 개여 , 개여 .

응 . 두린 때 .

그 그런 뭐 종네기덜인디 우리가 이디서 그 사냥 해근에 뭐 총으로 사냥 하는 건 주로 노루엿고 .

멜덜이 소복소복 다 잊어 .

이 볼목리는 그 언어가 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평등한 편이주게  
음 . 저베기 . 거 좁아 놓는 건 저베기예 .

새 시난계 , 새 .

예게 , 보리밧 볼르곡말곡 . 보리가 예 , 정월에 볼릅니다 .

이 , 저 오름에 강 , 제 허여 제 . 제게 그 올히 농사 잘 웨줍서 해근엥 하는 거주게 .

명석에 널어근에 저 뭐 영 돌아뎅기멍 저시는 거 .

다 모여라 헌 거 아니예 ?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.

어디 정의 쪽더렌 골암신디 몰라 . 그때는 이디 서귀포 고듸라도 정의 아래는 모관 , 정의 허주  
게 .

그때 특별한 재료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엇고 그냥 이거 춥쌀이나 좁쌀 ?

그 알게미젓이라고 있어 . 그런 거 .

불교로 , 사십구제 ?

그리고 또이 이 퀘고루 거튼 거 무신 거 보끌 때도 무쉐솟 그 뭐인가 두깽이 있어 . 두깽이 가리  
청 놔 가지고서 그 빙도 지지고 뭐 하고 그 그렇게 주로 그 . 솟두깽이 가리청 놔 가지고서 .

어 , 경허주 .

엇어 부난 . 게난 그때 나민 그 제도 거 엇이민 다시또 흐쓸만 놓 상에만 올리고 보리쓸에 산뒤  
쓸 흐꼼 놓 밥행 갈랑 먹고 경햇주 .

정시를 돌아근에 어디 강 물을 건지를예 ?

만이 받아 올 수가 엇어 .

게난 뭐 제사 하는 집에서 .

우수 고튼 건 벨 뭐 행사는 엇었고 .

사막 나민 어떻 협니까 ?

그걸 톡톡톡톡 줄 때가 어느 만큼 클 때마씨 ? 보리가 .

옛날은 그런 거 엇어 . 이제나 강훼로 물웨 첨 저 자리 썰어 놓곡행 맛잇게 양념 놋근엥에 벌겅  
케 해놓민 맛잇게 먹주 .

으 , 제도 안 지낸다 .

벳 안 난 날은 적져도 두루 발고 . 경현 때문에 혼이 엇어 , 거는 . 아무 때나 그자 발만이 , 그

물색이 발아질 만이 발민 아니 허여 .

게난 거난 . 아이가 훌륭하게 웠 . 게도 영 사는 거주게 . 어멍 어신 아이덜이 요즘 .

감테 주물 때 여름 나민 감테 주무랑 풀곡 , 그거 주 . 무신 물에 든 게 무시거 벨로 헐게 잊어 . 그거주 .

그것이 더 맛은 좋아 . 뜨박뜨박 썰엉은에 그자 것?라 놈빼짐치엔 허여 . 놈빼짐치 .

게난 게난 젖이민 싸왑주게 . 이 하르방은 그자 막 못헐 말 경 잘허주게 , 난 더 답답행 허는디 .

아 , 이 꼭대기보고 우통 .

풋 논 건 저 뭐 밀가루로 헙니까 , 보릿가루로 헙니까 ?

우리 그런 것?지는 몰라 .

아시에 , 만들어진 김치를 사다 먹엇수과 ?

게난예 . 그 장지 정헐 때는 누가 정해마씨 ?

아 , 그믄 잘 출린 거라 ?

댓썹 , 대 그차당 .

게민 그거가 푹싹하게 잘 웨부는 거 .

호는 거난에게 머 머 .

널짝을 그 나무를 쪼개근에 판자를 멘들젠 호민은 , 그거 마루 혼 마루 놓젠후민은 혼 멧 년 이 서도 그 마루를 못놔 .

이거는 무시거 하는 거 맞은게 . 씰 돌아메고 베클 .

이거 영 허민 이딘 젯갱이알 .

암커 , 수커 잇주게 .

게난 , 거 머리에 불르는 건 신낭지름만 알아져 .

오 오름은 수월봉이 제일 좋은 거는 .

지어 왕 식게 때나 ?

노린 물 . 뭐 놔근에 물들여 ?

?찌 , 그때 ?찌 가는 거 조 조팟 훌 때 ?찌 .

예 , 알았수다 . 게민 주뎅이보리가 이제 맥주맥이고예 . 줄보리하고 맥주맥은 어떻허과 ?

뭐 천년이여 뭐여 영 골암선계마는 . . 이 성읍리는 성씨들은 주로 어떤 성씨로 이뤄졌수가 ?

예 . 그치록해영은에 이제 쌀을 이제 뽑는 거라예 . 게믄 그 멩지도 삼춘 , 멩지도 종류가 잇수가 ?

경 헨 추렌이 썬 많이 뎅겼수다 .

뭐 가을에 것도 수확하는 거난 .

콩 시껑오당 보민 다 털어져 불지 안협니까 ?

채가 또 잇주 , 건 .

그 다음에 지름떡이나 무시거 이시민 그 놓고 .

그치록 해연 하엿는데 누게 경 사진 찍어간 중 알았어 ?

그건 돌아 . 돌아 .

게난 이거 , 만약 이게 지금은 네모우다만은 이거 동글락하게 본을 뜨는 거 ?

제 저 솟 맛디 옛날 불솜양 .

지슬 같은 거 조금 흐고 양 .

이거 허당 보민 나중에 엿 뉘지 안읍니까 ?

이 우의 또 이렇게 ㄱ로 이렇게 놔 .

경허난 손 디밀양 빠짚이문 사는 건디 ?

어떻 헤게 , 그걸로 문딱 허주게 .

고고리가 질곡 , 솔오리 달므명이라도 영 네 개로 부떠그네 고고리가 질곡 저 이 쏘복에 보리알이 맥주보리추룩 쫄랑쫄랑 맥주보리 담지 안 ㅎ영 쫄랑 쫄랑 ㅎ연 여물이 경 엊어 웬니다 . 맥주보리는 .

아 , 겨난 , 비媪 직 허믄 아무리 어두엉 밤이라도 거 들여 , 다 들여야 뉘주게

영 반득하게 안 해 가지고 토라지게 . 그런 총칼 이서난 . 우린 봐나난 눈에 훤허다 .

난 겨난 십오 세노렌 안 허연 .

두불예 . 조팟디 검질에는 뭐 잇어 ?

남자가 헙니까 , 여자가 ?

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은 ? 식게 때 하는 거 .

게민 이 제서 때 썼던 두 뛰들이 시리에 헤 보면 이제 그 시리에 ?루를 꽂아 ? 뭐 , 뭐부터 , 밑에 뭐부터 꽂아 ?

습진이나 거나 비슷한 거주개 . 습진도 ?롭고 저 무좀이나 비슷하여 일본말론 니스미시라고 허여이 .

다 쑤질 때까지 게나제가 젓어야 그것이 밑에 안 눌주 . 경 아녀민 눌어베근에 안 뛰여 . 그끄령 내 나고 .

난 쉐 촛이렌 벨로 이져부렁 촛이레 뎅겨나진 아녓는데 .

아니 , 거 닳은 적다물 . 백마 , 먹총이가 이서 . 검고 흰 거 , 건 먹총이 으라 가지 물은 으라 가지가 색이 이서 . 쉐는 둬 가지 베끼 엇는디 .

그 저 용돈 쓰곡 그자 . 그자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 .

겐 보리도 보미체엔 협니까 , 산뒤 말고도 ?

빼다귀난 옛날 뛰지고기 이제난 뛰지고기 썩어지고 밀려졌주 , 정 뛰지고기 , 제서나 허젠 허민 근도 아니고 영 토막으로 사당 후꼼 허영 헷주 . 경 이제 ?치 널어지게 경 .

연듯동산이렌 골아나서예 . 예 , 알았수다 . 이 마을에는 다른 마을처럼 무슨 기관덜이 이신가마 씨 ? 무슨 우체국이여 , 농협이여 ?

엉장이라고 허는 큰 바위 .

정월 초후루 뛰기 전의 .

소에 , 소를 언저 메근에 큰 소 후나러레 족은 소 다 돌아메근에 .

그 과정 잇지 안후으꽈 ? 우선 중매 후고 .

그걸 싹이 트게 해근에 싹이 요만씩 나오게 행 몰려 , 몰려 부는 거여 . 싹이 너무 크게 나오면 안 뛰지 .

그 사십구 년대에 의귀리 재건하고 .

아 . 자식 귀해도 하는 거고 , 이서도 하는 거고 .

맨 처음에로부터 한 번 .

아 , 뜻을마다 허는 건 아니고 .

아니 얘기할망이엔도 곤주마는게 .

그럼 대톱은 언제 쓰고 , 소톱은 언제 써마씨 ?

아니아니 , 이 ?진 일본 사름덜이 못 오고 , 할당을 메기거든 . 그만히 ? 묻 그 채우젠허민 어떻

헐 꺼라 ? 거 채우젠 허민 뭐 .

흔 사흘 물령 . 흔 흔 삼일 이추룩 햇빛 잘 나민 .

맞수다 . 맞수다 . 그 우에 이섯수다예 .

머귀낭이엔 흔 거 이서 .

베는 것부터 골아 줍서 .

아니 , 경헌디 어디 저 영 이 앞인 풍체 해불민 새 엇이난 비 안 발르주 . 풍체 엇은 딘 비 발라  
도 풍체 신 딘 비 안 발르주 .

헌덴 해데 , 영등 .

못은 건 먹지 안햇저 , 그때 못은이 막 .

질 빨르고 아직은 이 다리도 안 아프고 .

고구마가 들민 이걸 크민 그 줄은 뭘 해마씨 ?

게믄 이제 그 조는 게난 언제 갈았수가 ?

옛날에는 이묘허젠 상당히 골치가 아파낫주게이 .

저 , 그 고챙이 쪽 난거주게 . 거난 그 씰 감아지는 건 그디 끼아근에 그게 물레 돌아가믄 그게  
막 돌리는거주게 .

비료가 어디 셔 ? 걸름이 어디 .

요즘은 또 그 놈우 것을 아이 갈암십주게 . 왜냐하면 송당같은 디는 양 해벤이는 해도 새로 못  
해먹어 . 참새 , 밥주리 새가 .

다른 거 놔근에 뭐 무슨 꿩엿 이런 건 안해 ?

그러면 소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잊어마씨 ? 소 먹이 .

야 . 뿔 몽그레기 . 또 찔레질 허당은에 훈착 벗어정 뭐 허는 것도 야 저 뿔 몽그레기 일러불엇  
저 . 찔레질 허당은에 .

조금씩 케 뿔령 내부는데 .

이질은예 ? 웨냐면 저 십여 년 전쯤에 남원 지역에 초등학교에 이질 막 걸련덜 병원에 집단으로  
입원해나고 해낫거든마씸 . 그 옛날에도 하긴 해나실건 디예

뭐 잔칫날이 언제산디 몰르고 . 첨 , 우리 흔 동네서 난 컷젠헤도 경 가깝게 지내도 안 해나고 .

광복은 못 혔다 . 기갱이로나 허주이 . 미녕은 해낫저 , 미녕 .

아 , 오줌도 뿌리고 ?

게믄 삼춘 , 아까 이제 원단이 무루렌 헤지 아녓수가예 ? 원단이 무를 에서 제를 지낸덴 허는데 지금도 거기서 제를 지냅니까 ?

삼아서 ? 누게 , 수원이 수원이 선생 경 잘 삼았젠 골아 .

그럼 아이들은 지금 몇 명 잇어마씨 ?

어디 영영 허느냐 ?

풀마농 동 안 사민은 .

다른 땐 무시거 닮다 , 다수 가지 닮다 . 제펜 , 솔벤 , 저 젤벤 , 은절미 우씩 다수 가지 닮다 .

새로 , 짐 촘 무끄는 줄 놔근에게 .

무밥도 해 먹엇수과 무로 ?

돈 안 들이젠크 .

그루로 , 그루 다 범벅 허여 . 감저 그루에 범벅 , 감저 그루에도 감저 썰어 , 감저 기냥 딱딱 감저 썰어놔그네 숨아 . 숨아놔그네 우터레 감저 골아놔 범벅 혼 것이 감저 그루만 범벅 혼 것보다 맛이 좋아 , 감저 그루만 범벅 혼 것 보다 .

음식을 먹어야 그 춤도 안 날 견디 .

산담 운영 소임엔 헌 사름 잇주게 . 책임자 소임 .

볼 받양 신는 건 어떻하는 거 ?

패마농 지시가 그게 색은 거멍해도 쿠십니다 .

널을 장으로 깔아불어 그냥 .

멜 털멍 , 거 한소절이라도 훌수 있는거 잇수과 ?

그런 남을 거 추낭이라고 여긴 허여 . 그거 끈어서 숫을 만들젠 하면 저 육지 사름덜 옛날에 옹기 굽는 , 대정 사름 옹기 굽는 모냥으로 .

게난 새 빔이 힘들엇주게 .

어 . 쫄라가지고 또 이렇게 쫄라가지고 꼬지에 꿰어 .

만약에 이렇게 뛰면 여기가 방이 텔 거우다 . 이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위치우다예

웨냐하면 동지 뜻죽 거 쑤 먹는 원인은 그 뜻이 거 붉은 거거든 .

허벅 벌러진 것도 아무 허벅이나 아니 됩니다 . 지세허벅이라사 .

표선리는예 , 젤 강 씨가 만허후다 . 편안 강씨 .

아아 , 지실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?

어 , 나 밑에 잇는 애들 .

뒈약세기로 다섯 개 드는가 , 좀팍이 .

여기에서 패밥이엔 헌 거 엊어 .

예 , 겐 경핸 이제 그디 다 짓게 뛰난 지집아인 그디 강 , 사학년 때 사학년 때 그디 강 사학년으로 들어가고 수나이 놈은 일학년으로 들어가게 뛰난 ?치 둘앙 간 . 그디 강 나가 살명 십 년을 살안 .

그냥 겹사둔이엔 곳는가 , 접사둔이엔 하는가 ?

쉐걸름을 일 년 내 놋당 .

응 . 그 윷 낭은 월로 만들아 ?

아 , 다마치기로 허지 않고 .

경 허영 그 감자도 심그곡 행 절간도 허영 풀고 .

아 , 계문 모양에 따라가지고예 전복도 이름이 이실 거 아니꽈예 ?

또 호 호 호 .

어 , 비가 아니 와서이 .

거 나한티 허락도 아이밭양 ?

그찌 허젠허민 복잡허영이 퉁로퉁로 해지민 퉁로 허젠허여 . 험치허 게 뛰민 새도 힘들고 .

물의 힘에 따라서 어 .

어디 강 ? 심방안티 .

그럼 제사 때 뭐 구젠 허민 슷 어떻 행 써나서 ?

예 . 뭐 차 사고나 아무거나 사고 같은 거 .

따시 또 집이 따시 손볼 사름은 집도 손보고 .

그레 놓 꿔여 놓 죽 쑤민 놔빼 썰어 놓고 배추라도 ㅎ꼼 놓곡 허영 먹으민 좋아 .

불은 막 센 불에 협니까 ?

그건 간식으로 . 그거 막 듭니다 . 둘아 . 그게 .

거 더꼬레 ? 경 안허민 동넷사름신디레 밧더레 가명 부탁해됭 가고 집이 든 사름 , 근처에 아기  
어명이라도 시민 우리 집이 비오라가민 장항 더꺼도렌 굳고

그다음엔 두 솔 묻이 , 세 솔 묻이로 네 개 뿐이난 , 애기가 . 네 개만 나난 그때 시절에도 애기  
가 거뿐 . 노인훼장 흐고 , 뜨시 무슨 훠장 흐고 흐여도 애기가 거뿐 . 옛날엔 막 일고여답 개 나  
지 안 흐엿수과 ? 게난 그거뿐 . 거 무싱거 아무것도 아니 흐여도 거뿐 . 게난 막둥이가 서른세  
술에 난 아의가 이제 순하난가 , 순둘일 거우다 . 막둥이 , 저 누나광 열두 솔 차이 .

이젠 쉐로 갈양 , 그자 병에나 시민 병에나 두드리고 , 경 허멍 그건 쉬운 게 그놈의 병에 .

좁쌀도 두 가지가 잇주 , 히린 쌀이 잇고 , 모힌 쌀이 잇고 .

뭐 두에 . 장독두에 , 뭐 장팡뒤 ?

뭐 허지 마라 . 뭐 허지 마라 그런 얘기 들은 거 잇이믄 얘기해 줍서 .

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?

무김치는 여기서는 무는 여기서 뭐렌 골앗수과 ?

조끼도 조끼 , 마고지 .

어 . 비행장 생긴다고 허니까 .

그런 건 남자덜이 아저씨가 햇수과 ?

그다음에 소나 말도 많이 키우지 안헨 ?

어 . 그것에 양물에 .

장 둠양 , 정월덜에 둠으민 삼월덜부터는 그 장이 익으니까 , 훈 두어 덜 웨니까 , 익으민 먹주 .

삼춘 그 두건이랑 복치마도 준비해마씨 ?

겡 몸빼 그거 주민 다 받양왕 .

어 . 게난 풀 비여당 눌엇다가 걸 지들커 혼다던지 .

감칠 땐 어떻 해야 웨여 ?

싸움판 , 이름이 싸움판 .

삼춘네도 경 헤도 말은 집에 잊어실 거 아니우꽈예 ?

고팡은 이디 들어가민 이게 방이민 이게 저짝 .

음 . 아프게 하면은 거기 강 잘못햇수덴 허멍 잘 갓당 바찌고 거기 강 돈 갖다가 올리고 , 바찌고  
허민 흐꼼 좋은 수가 있어 .

미시거 비니루나 영 꽃아 가지고 소금 톡 더께 가지고 더껑 놔둬 .

게난 감저 순은 지럭시가 어느 정도 정도 저기까지 키와기네 그걸 잘 라다근에  
아 , 요즘은 약을 많이 하영 허니까 밧듸 별로 안 나주게 .

게난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연이 됬고 . 또 .

그문 형제는 삼춘네 형제 아부지가 멧 남 멧 녀를 두션마씨 ? 강씨 집안 ?

오십 개 잇언 혼 우린 우잣이 멧 펭이나 뛰여 . 혼 벡 평 정도 훨 거라 . 멧 그디 다 물 .

경허영 혼 열흘 정도 웨민 어느 정도 소소한 밧은 짊 시작하는 거라마씨 .

그거 준비하고 그 뭐 떡 거튼 거 할 걸로 .

아아 . 구장이면 어디 구장마씨 ? 신창 ? 아니 한경면 ?

무신거라게 . 그거 그거 경허민 숙전웬덴 하는 거 .

그럼 조밧에도 검질 나잖아예 ?

옛날은 그 걸궁을 허젠허문 집집마다 강 햇주게 , 집집마다 .

그 다음에 바지 혹시 이렇게 허면 이실 거 아니우꽈예 ? 남자 바지 이렇게 생기곡 . 남자 바지  
이름 명칭도 알아지쿠과 ?

멜 들어오면은 여기서 족바지라는 게 있어 . 족바지 .

예 , 콩주름예 ? 그걸로 이제 국도 행 먹곡 .

완전히 곤솔로 만들젠 허민 ?

건 모르켜 . 여저덜 물으민 알 거여 .

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일고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고에 가서 저 원서 들이고 이제  
일고에 일 년 다니니까 .

망내미는 그 저 옛날 사형수 , 사형하던 사람 .

그렇게 허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던 모냥이라 . 그렇게 아파도  
굿 해줍서 허면은 굿 허곡 . 굿도 일주일을 대 세완에

건디 산디는 무디가 안 생기거든 , 피낭은 무디가 생겨 . 경 후영 구분 뛰여

아 , 콩은 거름 안 해도 나 .

이거를 한 장해근에 여기도 허곡 .

그럼 고구마 수확은 어떻 헤마씨 ? 어르신 ?

목시물 , 식산 그 곶덜 .

그 저 해녀들 영등굿 해여 . 해녀들이나 어부들 .

게민 범벽은 주로 뭐 놓은에 하는 거우과 ? 범벽에는 .

경 혜영 헤나고 , 경 .

나이 많이 갈수록 전립선이 생겨갑니다 .

잘 하주 . 경 아녀민 게난 우리 어머니네 보면은 그때 보리밭 하젠 허민 이만은 항으로 , 이만은 항으로 그 술 흐나 .

멍지 누에 행 질뢰근에 누에 빼엉 놋당 봄 나민 그거 깨영 나오랑 굼벵이 ㄱ치 .

게메 , 그냥 이제 남저 어른 쭈께 ㄱ뜬 거는 단추를 ㄷ는디 이 중의 적삼에는 단추를 안 돌아 . 쭈께는 단추 돌아 .

이디 눌도 막 그냥 오름만이 눌어 .

그 데기는 건 어디 놓 데깁니까 ?

알로 막아 돌랜 하면 ,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주매 . 막아지면 거기에 기름을 비와 .

낚싯대 , 낚싯줄은 어떻 장만해 ?

쉐스랑으로 내영 골체레 놔그네 뜯시 그거 흐민 흐루 종일 역 벌여 그네 통지레 담아 . 통지레 담아그네 통지에 가면은 도새기가 뜯시 그걸 먹으멍 걸름을 불리면 뜯시 도새기 걸름이 그런 게 웹니다 .

손에 이런디 막 난 거 . 말축 ?

나가면은 별론디 들어온 사람덜이 잘 웬다 . 조수에는 나가는 사람이 잘 뛰고 , 요렇게 그런 유래를 우리 촘 들은 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원래 여기 들어온 사람덜 다 잘 살고 있어요 . 뭐 촘 남 못지않게 더 도시에 사람들 부럽지 않게 다 살고 잇죠 . 예 .

바농질 허젠 허민 뭐 뭐 필요합니까 ?

넙패를 메당이 복삭 뿔양 숲으면은이 . 그놈이 것이 푸달푸달해여 . 푸 달푸달허민 웬장 풀어 놓고 국을 끌리민은이 촘말로 쿠싱행 맛잇어 .

멜젓은 하는데 . 그자 주로 마늘 쪼금 놓고 멜젓 놓고 고추 ㄱ루 원 죄다 양념이 거라 .

경헨에 이젠 헌디 , 그 볼목리 뜰 잇젠 아버지한티 들은 그 나 , 촇이레 온 그 오라방도 막 젊은 때 돌아가불고 .

그 실을 가레기에 꿰왕 영 , 영 둘러 가민 실 영 해영 영 나옵네다 그게 경허믄 그걸 그게 뜯시  
영 보제기 멘들앙 기계로 죽 감아지게 만들앙 영 해영 조록허게 감아지곡 허영 .

게난 그것도 다 만들어난 거 아니예 ?

으 , 곤썰 침떡 ?

혹시나 경허단 사름도 굴 팡은에 만히 살아십주 .

그래도 오래 입어 가민 변허잖아 .

예 , 그 마차 ?

영장밧디도 만약에 허젠 허면은 .

멜젓 , 자리젓예 . 아감젓은 안 담아낫수과 ?

이 바우 멘드는 거 .

못 먹는 거 엇수다게 . 도새기 새끼훼 , 쉐 새끼훼 , 자리물훼 , 한치물훼 , 그 훼 종류 그거 . 그  
거 뿐 닮수다 .

응 . 그다음에 호충 .

달루는 건 어떻허는 거마씨 ?

삼춘 어렷을 때 어머니랑 둘이 사션마씨 ?

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 홍세미녕 ? 들어봤수과 ?

후라이판 ㅎ나민게 멧 개 세 개쯤 .

동갑계 말고 다른 거 엇엇수과 ?

돔베로 다 썰어나서 . 막 난두질 해영 .

거 막 잘사는 집이 하는 거 .

경훈디 앞으로는 상덕 밑에로 딱딱 물 떨어지는 디도 잊어 .

혜져 . 저 , 저 , 저 멜 거튼 거는 역불 사지는 안하고 .

그전엔 에 , 내예 가근엥에 몸 굽고 뭐허난 , 요세 여기가 게난 .

게민 , 콩이 다 익을 거 아니가이 ?

세불만 멤서 ? 드러 . 감저밧듸 검질이 더 나 뜯로 , 감저줄 더꺼져도 경 ㅎ민 감저줄 영 영 해쳐  
근에 에염드레 노멍 고랑으로 검질 메여갑니다게 .

예 나는 하나도 모르주마씨게예 . 겐디 삼춘 골아가니깐 아 , 영 헷구나 행 하는디 삼춘이 , 말씀도 잘 하시고 .

들팡돌 . 건 나무로 뛰여 있는 건 아니고 ?

뽑아난 다음에 어떤해마씨 ?

그 안팟끄레 집이 우리 동생이 지은 집인데 .

응 싹 우이해근에 널며는 뛰겟지마는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.

그거 행 안 온 할망덜은 보내고 그디 온 사름덜은 그디서 돛국을 숨고 밥 해근에 그거 허곡 헤여근에 반 놓 그거 먹는 거 가문잔치 .

갈색말 . 등이 굽은 말도 이서마씨 ?

칠올랏덴 헷잖아예 ? 그 땐 아까 소아쿨 .

막 하다예 . 아까 수두리 , 촘?메기 그다음 무신거마씨 ?

건 중간에 숭년 든 때고 건 .

첨 , 우리 혼 동네서 난 컷젠 해도 경 가깝게 지내도 안 해나고 . 혼 동넨디 이 하르방은 저 알동네 흑교 저끗되고 , 우린 요 중간에 살안 . 또 우리광 막 천지차이주 . 우리 하르방넨 막 글선생하고 수못 .

옛날 장콩은 이제 거 씨 져 불었주 , 옛날 그 옛날 재래 장콩은 .

응 . 경해도게 베끗딜론 뜻이게 끼려도 속에는 베적삼을 입져 .

그대로 뭐엔 혼민 올케 저 그대로 딱 해 가지고 .

아니 잔치가 우리가 혼 둘 앞두지 안 해샤 ? 경허민 놈이 잔치 먹으레 안 가주게 .

뭐 . 그게 그런 식으로 .

네가 방에 안 싸이고 그 네가 전부 뱃께서만 음식을 만들어도 딴 디서 하니까 .

요?지 오면은 가메 탄 사름은 이?지 왕 가메 톡 놓민이 가메 이녁 부모가이 영 올아주민 일로 영 기엉 나와 . 기엉 나오민 저 구들러레 앗당 돌아당 앗지주 펑퐁 치고 . 그 선사 옷덜은 펑퐁에다 뿐다가리도 엇인 옷덜 다 걸어지고 .

것도 큰일 때나 어떻 허영 돼지 잡아질 때나 허영 먹엇주게 .

경 허민 시어멍이 저 아덜만이 못허여 . 성질이 차분허질 못허여 .

다시 한 번 골아 줍서 . 반지기밥을 어떻 허는 건지 ?

아니 삼으로 해도 찹신이라 . 그뜬 거라 .

게메 . 이젠 다 살아부난 .

메칠 날 딱 정하믄 그날 헤근엥아 .

굿 훌 때 쓰는 떡은양 , 저 시리떡이나 흐영 올리곡양 , 다데 . 뺑떡 흐나토 안 흐영 다데만 흡니다 . 곤сал로 흐나 , 좁쌀로 흐나 , 모멀쌀로 흐나 다데 .

한 입 물면 떡 안에 뭐 잇잖아예 ? 팟이랑 그런 거 .

모멀칼국수는 어떻든 간에 끓인물 이만헌 돈배 . 그런 거에 놔근에 병

거 봉구 살아난 디 . 그디 강 봅서 . 그디도 이 돌 화장실 지붕이 돌로 뛰어수다  
애기 다섯 개 나동 죽었주 .

옛날에 멘네 갈양 이거게 소게 해영 이불도 허곡 . 이거 멘네 소게로 이불 듯게시리 이불 흐는 거주 .

이파리 모녀 돌는 짹이 풍년이 듦다 .

그거 허곡 . 경 또 여유 이시민 풀양근엥에 뭐 신발이라도 사고 .

해벤 사름덜은 배 해영 궤기 나끄레 뎅기고 .

이건 고라적다엔 흐는 거 . 이것도 .

아 , 다찌개 . 담 다와진 걸 다찌개렌 헌텐 말이지예 ?

예 . 경 해부난 열두 명 필요헌 거꽝 ?

아 공기 , 공기는 초담 이추룩 나란히 논 건 영 해영 흐나썩 영 좁은 거는 웨 찢이라 , 이건 웨 찢 . 영허영 . 이거 두 베록 티우민 흐나가 올라가는 거라이 두 베록을 이것가 이것도 티우기가 어루와 .

삼월엔 뭐 씨 빼고 흐는 거 엇어 ?

아니 , 아니 . 도절귀엔 헌 건 췌로 만든 , 췌로 만든 걸 도절귀엔 허고 .

네 솔꼬지 세 솔 사름 나름 다소 썰 으쌰쌀 해 가주게 웃터레 .

아니 . 어촌계에서 싹 받아가불어 . 풀 거는 .

갓 아이 쌩 맹긴만 써 . 맹긴만 동글락헌 거 이젠 딱 써근에 이제 상통 이가 이서 . 사름덜 하르 방덜 상통이 .

이 웨지 사름덜은 언제부띠 막 들어왓수과 ? 이디 .

그 남신 처음 신으민예 , 흐루만 신으민 뒤치기 다 벳겨져벼 .

이걸로 골미떡을 만들엉 국제에 셋던 거 .

아니 , 아니 . 하르방도 못 잡지 우리 아이덜도 독 못 잡아반 .

아니 어멍넨 , 아이덜 혼 댓이 행 말테 돈듯 돌아 뎅기당 돌아오곡 . 고사린 베랑 꺼끄멍 돌아뎅 것어 ?

아 , 콩지름 . 콩지름예 , 반찬행 . 결혼식은 헌 거잖아예 , 어쨋든예 ?

생선은 익는 거난 웬 때나 아니 웬 때나 아무 때라도 .

아 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 않으민 .

이게 돌이민 이거?치 동글랑하게 마주쳐근에 그 돌 소곱에 바글바글 허주 그레 다 기어 들어근에 .

좁썰에 콩 그거 헤갖고 메역 놓은애에 .

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뭐 , 뭐 마을 , 마을에 잘 헤드렌 하는 거 , 가 정적으로 잘 헤드렌 세벡이 강 기도도 허고 경 행 . 심방 가근에 하는 것이 잇었는데 .

감치는 거엔 ? 기냥 감친덴 헷수과 ?

복친 아니 , 거는이 놈이 해줘 .

풍선이엔 헌 건 바람을 이용행근에 간덴 .

고생햄수다예 . 게난 요양원에 맡겨도 돈이 많이 들고 .

옛날에 할머니네 헐 땐 무시거 올려낫수과 ?

얼멩이는 저 옛날에 그 짹으로 꼬양 . 막 좀질이 꼬아근에 그 얼멩이 를 만들어낫주게 .

그추룩 허멍 막 울멍 . 멧 년 동안을 경 잊히지 안허영 , 이제도 굴아 이제도 굴아 . 원체 일을 잘 보고 저 , 경 막 그냥 일도 잘 보고 언강도 싯고 할망덜 을 잘 헤주곡 . 경허멍 허영 . 헌디메누리도 ?치 뎅기단 거기서 알안 시집 장게갓주 게

것도 자귀질을 툭툭 찍을 줄 아는 사름이 그 사름 깨여근엥에 주면은 지붕우에 올리민 지붕에 또 서설 하는 소름이 따로 이수다게 . 서설을 기냥 그 망사추룩 행 그대로 놓는 것이 아이라 그 새끼를 꼬양 놔도양 . 새끼를 여기선 뭐 여기서 제좆말론 노영 헤근엥예 , 게 , 우에서 서로 야 거 아래서 노 올리라 노 올리라 하민 , 요즘 사람들은 노올리라 하민 무슨 말인지 몰라 . 거 새끼줄 올리라는 뜻인데 노 올리라 노 올리라 올려주민 거 서설하는 사름들은 그 제각기 자기 만씩 자기 쓸 만큼 헤여근에 이 그 허리에 참니다 .

경행 또 이디도 탕근 모냥으로 이 양태도 바우 둘라 .

낚베는 낚베는 그 배 위에 배 코거리라는 게 있어 .

으 . 형 ,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가 가지고 저 천진 , 천진서 그 뭐여 해군 뭐인가 징용당해서 배 타다가 죽은디 산디 몰르고 또 우리 동생은 또 군인에 가 가지고 전 사하고 . 난 이제 두 번짼디 독제 웻저 .

집 짓는다고 하면은 목수 , 목수는 품 줘서 하고 담 다는 건 품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름덜이다 나와서 .

멘네 부르는물레가 있어 . 멘네씨 가리는 거 . 경<sup>후</sup>민 일로 뻥뻥 돌리멍 , 일로 멘네 맥이민 씨는 저 이레 털어지곡 , 멘네 , 소게 , 깐 건 저레 뒤타레 털어지주게 . 그거 곶엉 가근에 저 멘네 <sup>후</sup>는 듵 강 , 멘넷정도 해 오곡 , 소게도 멘들아 오곡 핫주게 .

눌 눌민 영 더풀 때는 뭐로 더퍼 ? 영 지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 ?

거 줄 비는 사룸 .

게난 그거 곱지민 복삭헌 거 입져주는 거 .

어 . 잘 허는 사람은 이녁냥으로 풀주기 . 옛날에는 신이 엇어 노니까 찍신이 많이 .

그리고 양테 해나수꽈 ? 여기 .

아 , 그럼 소곰만 넣고 ?

막 삼춘네 일허당 지처근에 오면은 코피 나거나 경 안 해봤수꽈 ?

아주 옛날엔 쉐 걸름 허영 내엿다근엥 그것에 보리씨 서꺼근엥 그게 걸름이니까 비료 .

가에서 춤대로 낚으는 거 .

미나리도 올리고 따시 또 저 미역도 올려낫저 . 미역체 .

예 . 이제도 많이 먹지예 ?

뒤칙이 신으로 밀어불민 아프주게 .

흔 육십 년 , 칠십 년 전 .

방에서 낫주 . 어디서 나 ?

그면은 삼춘이 한 쉰이나 예순 월 때 돌아가셨수꽈 ?

그 그렇게 뭐 하지도 아니하고예 . 게민 형제분들은 ? 또 그렇게 .

그 자라는 율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끔 .

풋죽 , 녹지죽은 옛날엔 이젠 떡들허멍 주베기들 허멍 헙디다들 . 옛날은 그런 법이 어서수다 .

시금치 . 신디 말안디 모르켜만은이 .

게에 . 내불지 안 해영 뭐 벌어이 ? 전이 집 지서난디 집 틀어됭 이젠이 것덜은 저 중간에 강 집  
상 살암고 , 전이 나 시집가고 해난 집은 이젠 저디 밧 뒤엇저 집 틀엉은에 .

포제허곡 . 그 다음 마을 굿도 해나지 안해수과 ?

으 , 잘 돌아가게 , 것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야 웬다 .

삼 칸 집에 중간 막는 건 나무로 헷수과 ?

게난 옛날 어른덜토 걸 생각하면서 현 말이주 .

에 , 엉겨야 일을 허고 .

아이고 , 경 해도 . 얘기 낭 사흘?!지는 솔레기국 맥여 .

들으니까 골암주 . 그 전엔 저 우리 염색허여 보진 안 허연 .

새 요만썩 헐 때 뻣이가 나온다 .

우에다 놓는 거라고 우씩 .

아 . 고산 안에서도 동마다 다르게 .

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니 약초를 캐서 .

나도 출 삼백 바리까지 해본 사람인데 .

그건 집의선 지붕 우의 .

사금파리 해근에 발로 창 , 오리양도 잘 그못에 아이 들어가민 지고 .

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허여마씨 ?

게니까 나는 어떻게 보느냐 ? 피난지로 오는 것 !타 . 전쟁이 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. 파짝허  
민 여기 와서 불을 띠가 잇어야 , 집이 잇어야 . 겐디 나는 그거를 가만이 생각해 봐 . 요 동네  
살 때에 아버님도 좀 그 학문이 좀 잇엇거든 . 글이 좀 많이 담아졌다하는 사람은 촌으로 , 여기  
도 촌이주만 이건 관중이고 여기 다소 가구 사는 디는 진짜 촌이거든 . 우리 집으로 집합을 해  
여 . 정감록이라고 허는 책이 잇어 . 심이 월 감이 대답허곡 , 감히 월 심이 대답하고 , 두 양반이  
세상일을 제낄 거라 제낀 것이 정감록 비결이라는 책이라 . 그 책을 나가 어릴 때지만 열다소 미  
만 이지만은 그 말을 가만이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잇어 . 한강이 적탕삼일 하고 흑운이 파천칠일  
힌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강이 적탕삼일은 한강이 피로 사흘을 흐를 것이고 새 시상이 날라오면  
은 흑운이 파천칠일을 히다 이거야 . 흑구름이 밤낮 일궤를 캄캄힌다는 거야 . 악악하여 . 게서  
나가 지금 가만이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 폭탄이 맞았다고 허면은 .

아 . 그게 제펜 만드는 거구나예 ?

그럼 그냥 넙적넙적허게 썰엉 ?

흔 무꾸미 허민 신 두 베예 ?

이제도 껌도 하는 사람도 잇서 .

그 당시 백만 원 , 백만 환에 팔아서 중학교 입학금만 삼십팔만 천오백 원을 냅어 .

그니까 삭망제라는 게 소상할 때까지 일 년 동안 허는 거잖아예 ?

지달이 사냥은 경하는 거구나예 .

벳꽁젱이엔도 허곡 벳반침이엔도 허곡 .

저 뭐꽈 ? 송키들 놓 끊이는 죽은 엇수과 ?

실거주만은 안 헤여 .

그리고 , 게니까 , 그 밑에 우리 저 형이 해도 , 내가 큰아들이나 다름없어 .

으 . 게난 고구마렌 써야 월 거 아니가 , 그딘 ?

그럼 쟁이 잡는 어른도 이서마씸 ?

근디 어무니 막 곱수다 . 젊었을 때 막 인기 많아실 거 닮은디 ?

호박닙은게 여름 나사개 호박닙 훈아다 놓곡 ㄱ루 놓코 허영 국 끌영 .

그런 베는 . 다른 거 젠젠훈 거는 흐나만 젓어도 웨는데 .

미역국에는 미역으로 끌리는 국에는 어떤 국들이 잇수과 ? 미역하고 뭐영 서꺼근에 끌렷수과 ?

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혼 열일곱에 죽어 불어서 .

우리 집 , 우리 어머님네 집에게 우리 씨족가기 전이난 헤나나난개 씨족 간 후젠 안혀난 .

아 나 건강 허는 건 이제는 아 너미 건강해서 이거 . 아이덜에게 이제 짐이 훨가봐서 난 제일 겁이나 응 .

그다음엔 데페는 어떤 종류들이 이섯수과 ?

재미나는 것사 서방 , 신랑이영 아기 안양 놀 때만 , 재미난 건 신랑 ㅎ 고 뽀뽀 훌 때만 좋았어 .

물빵 . 거난 물빵 네 개를 뭐렌 큵니까 ?

맛존 거 하영 헌덴 허멍 ?

여기는 그때는 저 뭐 벨 반찬이 없으니까 자리철 나면은 . 그땐 옛날엔 술춘 영현 것이 잇어낫 어 .

집집마다 그거 다 해서 그 저기 저런예 .

그자 땅에다가 초신 벗어근에 올라왓수과 ?

으 , 게믄 모종 행은에 질루는 시간이 어느 정도 뛰는 거라마씨 ?

그 흐면은 쓸도 거려다 주곡 .

산듸찝으로 하고 . 그다음에 그 요번에 뭐 미로 헷덴 헌 거는 뭐 ?

그디 헨에 다 뿌련 해연 그디서 천도식 할 때에 우리 오빠는 옛날에 저 무신 , 그 우리 어머니네 우리 그 초상덜 다 헨에 천도식 . 천 , 천제를 지내신디 .

이 동네도이 옛날은 집덜이 문 빈 집이란 , 요멘이헌 집도 방 현 디가 엊어 다 들언 , 집 빌레만 맨날 뎅겨 .

게도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농사짓젠 허민 도웁긴 해실 거 아니라양 ?

삼춘은 씨아지방이영 씨아방이영 모성 살고 세상에 .

아 , 경도 못흐여 .

예 . 감치는 건 펑펑 감는 거예 ?

새로 멘든 , 예낀 거주 .

주베기도 그 경 허영 먹전 허민 잇는 집이라야 헤먹주 . 죽 허여근에 영 허영 영 허영 좁쓸 멧 방울 놓고 막 푸성거리 많이 놓고 허여서 영 허민 물이 쭈루루해여이

할머니 젊었을 때 잘도 고와나시크라마씨 .

산디는 멧 월 달에 갈아마씨 ?

짐치가 , 짐치찌개에도 맛잇고 , 간쌈이 . 궤기 잘 안 먹는 사름도 그런건 먹어져 . 우리도 고기는 먹긴 먹어도 추미 냉 먹지 안하는디 이런 거 숫양 먹어 .

어디 갔다왔니 뭐하니 허명 뭐 .

밑에 간 거는 개역이고 .

그 저 뭐 다 돌아가멍사 헷주만은예 ?

요즘에는 수협에서 딱 몇 키로 . 일 년에 키로수 넘게도 못 하여 .

예 , 사름이 불라 ?

아아 . 비 온 다음 가는 게 아니고 , 주는 때 갈아 ?

칸이 세 개로 나눠졌다 이 말이주 .

아니 , 힘들지는 아년디 .

아 . 그건 계난 사둔칩이서 행 오는 거라 ?

아까 안거리 시아주방은 누게가 ?

아 , 게민 삼춘네는 거름에 보리씨를 서껑은 안 해반마씨 ?

아 , 짹그르게만 올리민 뛰여 .

아 , 목장조합장도 ㅎ여십주 .

밀?루도 골양이 그냥 부침이가 아니고 묵이라 , 것?라 묵이엔 하여 .

꿩코도 아녀고 . 이 동네 꿩코 허영 꿩 잡는 사름덜 으라 사름 잇어 . 재수가 없젠 허난 우리가 논 코에는 꿩이 안 걸린덴 하니까 .

그건 아까 언제 헌다고마씨 ?

테우 , 테우 . 테우 배 잇잖아예 . 새우 말양 테 .

쉐 이신 사람은 연자방에로 돌리고 경 안 헌 사람은 도깨로 두드립니다 .

목이 수눅이주 . 목 수눅 .

젤 곤란햇던 때가 육이오 동란 일어나가지고 .

응 , 손잽이 영 쫄랑?지 .

그 하나의 조가 뒷주 .

이게 일직선 뛰는 게 아니라 .

응 . 뭐 엇이민 경허는 거주 거 무신 , 시민 신 대로 옛날 허는 거주 경허지 말라 허영 허진 안허여 .

무솟동도 허영 하여 . 무솟동 .

여름에는 콩입 하영 먹고 ?

으 , 줄 치는 거 .

돌 일름을 짓 질 안 ㅎ여서 .

고디 헤나면 바로 헤마씨 ?

흔 징 흔 징 놀 거난 .

저 웃슨당은 작년?지 헤낫수다 .

아무것도 아니 헤영 그자 .

겐디 그걸로 하면은 또락또락하게 여꺼지질 아녀 손으로 해야 .

불 숨는 거 쑥쑥 디무는 거 부지깽이 .

손맛이엔 허주 . 그걸 .

밭일이엔 허면은 농사짓기 전에 이제 그 춤 . 여기는 검질이 상당히 많주게 이 이 제주도 땅이 .  
이 저 화산회토가 뛰어서 그런지 . 검질이 검질 자라는 디는

그때 시절로선 고급 대접 받는 거주 .

아아 그 만날 벌어다 먹는 행실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그 명석은 무사 마당에 열두 개 잇는디 걸 .

꽝과리 치는 거 . 걸궁하젠 허민 또 북도 두 개라이 .

감저 거튼 건 대용식이니까 . 아맹해도게 .

응 , 장시도 뎅기곡 ㅎ난계 .

밀낳으로 허민 질기고 보릿대 허민 야리고 . 우리 패랭인 우리낳으로 짜 낫어 .

멩글아근에 . 등어리에 맞게 만들엉 . 일로 가린석 메곡 .

꿰비눔은 뻘겅해근에 막 영 이치룩 솔정 막 영 벌겨지는 건디 그 고롬풀은 그 줄이 ㅋ는 ㅋ는 해  
영 땅소곱에서 막 영 벌어가멍 우터레 기자 썹만 동글랑현 거 .

아 , 나와마씨 ? 혼자 잇을 때 둔마씨 ? 아니면 여러 명 잇을 때 둔마씨 ?

이게 이렇게 헌 여기가 앞섭예 ?

우시덜만 강 보내영 강 둘양오는 거 .

어 . 거난에 그때 이 봇부른듸렌 헌 디 , 바로 영 안 맞이니까 .

정 ㄱ 래잖아예 ? 물 놓은에 허멍은에 ㄱ는 거 잇지 아녀우과 ? 그건 무슨 ㄱ래우과 ?

항 놔두는 디는 어디 항 놔둬낫수과 ?

아 , 무수도 안주고 .

멜젓은 멜젓도 알에 가그네 사당 멜 사당 , 멜 사다그네 집의 오라그네 , 기자 멜쳇은 집의 오라  
그네 , 기자 멜쳇은 사다그네 기자 더러 훑은 건 , 국이나 끌려 먹을 거 ㅎ술 넹겨둬그네 소곰 버  
무려그네 기냥 망데기 , 망데기에 무신 조그만한 조막단지 닮은 거에라도 , 것이라도 담양 놔둡니  
다게 .

운이 다 갈려전근에 맹 질게 산 덴 허영 질례 상 가는 사름 오는 사름 다 테와쥔 .

그디 사름도 빌어당 허고 . 호미로 비어 , 호미로 .

수의 , 수의 . 첨 수의엔 헤라 , 요새에 .

그러면 뎅겨다 허민 그 실이 잘라져 부는 거주 .

부락에 하나 하믄 그 공동으로 관리를 허주게 .

큰구들 족은구들 이렇게 하고 . 아까 그 정짓간도 따로 헌덴 헌 거는 무신 말이우과 ?

집줄 맬 때 그 집 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멧수과 ?

입에 침이 고연 . 우리 마농장아찌 못 만들었는데 . 경 헤근에 허민 딱

엿날에 집이서 시리에 훌 때는 , 그 그루에 물 , 그루 골아다근에 물 버무령 예영 쥐여보면은 알  
아정 기자 . 뿌짝 쥐어진 거영 삑 불어불민 징계징계 놔근엥예 중간에 풋 놓곡 , 풋 아이 놓 흐는  
떡은 영 헌벽 놓곡 혜근엥에 치면 떡 뛰는 거주 , 무신 .

아 , 콩죽 ? 그렇게 헹 먹으민 맛잇겠다 .

기자 문전신 ? 다른 이름은 엇고예 ?

맞수다예 . 혹시 소라는 말 안 들어봤수과 ?

아 , 두 관ಡ씩 ?

좀 쓰라린 생활을 많이 본거라 .

으으 . 바꽝 먹어 낫주게 .

비께 이따만 거 헹은에 .

초담은 영 못아낳 서이여근에 이젠 다 서이여지민 요디 또로 이디 총 혼 방울 놔 가지고 이 우통  
도 서이여 .

직접 봐보기도 헨마씨 ? 삼촌 .

아 , 귀신 오지 말렌 ?

거 말고 그냥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민 어디 갈 때 새각시덜은 우에 옷 영 써근에 .

으음 , 게도 그 고대흑 허젠 허민 힘든 거 아니 ?

예 , 예 . 게믄 그 준비를 집을 그 지붕을 일젠 하면 .

옛날도 그 저 대통령 표창 받은 할머니가 있어 . 그 자식덜토 공부를 잘 시켰다고 .

경 하곡 또 명석 .

게민 낙시를 어떻 구해신고예 ? 옛날에 .

경 테역밧이 경 하신가 ? 그거 .

어르신 빙떡 알잖아예 ? 빙떡 .

예 . 토멩지 . 생멩지엔 해근에 빠들락한 바닥바닥헙디다 , 저 멩지가 . 생멩지엔 헌 건 .

콩 , 콩도 허주게 .

난 뜻 놓 혜도렌 혀영 맛좋덴 . 이디 노인정에 앗양 가도 막 할망덜 ㅎ나썩 먹으민 막 맛좋덴 해여 . 제수 넘어나민이 .

바당에 가근에 게수리 파근에 끄껍도 ㅎ곡 , 경 햇주게 .

깅이에 또 콩 헐 때 반찬도 행 먹고 , 우럭 놓도 지정 먹고 콩 , 콩국에 누멀 놓도 행 먹고 ?

마차예 . 소가 실을 정도로예 .

보릿겨나 보릿짚 , 보리 까끄라기 등 남는 거 잇잖아예 ? 그건 뭘로 활 용하션마씨 그냥 버려마씨 ?

어 , 그면은 이제 산듸씩은 아주 여러 용도로 사용해실건디예 , 산듸씩으론 무신 , 어떤 데 사용해낫수과 ?

댓 줌씩 이만이 높으게 걱이 놓는데 경 안 하면 서너 줌씩 .

흔 흔 사오십 명 뎅겼어 .

이 떡도 올릴 중 물론 사름 못 올립니다개 .

제관은 그럼 누가 완마씨 ? 고산에 잇언마씨 ?

아니 . 둘지도 않고게 허젠통 안 허주만은 .

그때는 동네 일름을 에 , 맨 처음에는 수망리라 안하고 물아 , 물 , 물이 잇다해고 물아 , 무라 , 또 어떤 사름은 물우라 , 이렇게 이름 불러 오다가 , 에 , 일제 말 후에 아 일제시대부터 , 아마 그때는 아마 그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물 이건 물을 중심해서 사름이 살기 시작해시니깐 물 수자를 헤 가지고 마을 이름을 짓자 이렇게 헤 가지고 , 게 물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네다 .

이겨쥔 , 천오백 내난 , 재판 이겨쥔 놔두난 그 사름이 그 재판허명 돈은 흔 일억 , 그 사름이 돈 천만 원을 또 보내줘 . 경허난 그 행 놔두민 언제라도 돌아오긴 돌아오는 거라 . 흔 이십 년 안 헤도 .

물 타는 건 물러레 타근에 이깟 뎅기고개 , 경 햇주게 .

그런 때 희생당허곡 저 일본사람한티 끌려가고 이런 거 기억 안남수과 ? 마을에서 소문이 나오 .

아 , 반치지는 헤먹고예 ? 그다음에 .

아 , 거 김치 헐 땐 어떻 헤 ?

이제 아까 ? 치 그 저 , 새우리하고 , 양웨 .

그거 학교에 차곡이 자치기란 것이 있져 .

마당에 끌아 놔도 또 화장실에 가 . 벤소에 가 . 마당 곱게 허젠 끌아 놋다근엥에 또 통시에 들어가 .

응 . 빌어가고 잔치하는 식후곡 , 구신 빌어감이라고 받양 , 그 집이 혼디 그디 잔치하는 식으로 헤근엥 혼디 간걸로 행 .

보기사 보는 체 헷주만은 . 구두계약이 웬 거 . 동네 , 불과 오십메다도 안 웬 디 살아시난 .

흔 번 더 영 골아봅서 .

으 . 그 예장이라는 게 뭐과 ?

세우리라도 허영 그거 놓 그르 카근엥 지지민 지짐이주게 .

아 , 훗 것 ?

정도 허지 . 정성으로 안 가는 사름 . 그럴 수도 이서 .

성 안티렌 못 들어오니까 성 벳겼디 다니는 사름은 죽여분 거주 .

엿날에는 이제 ? 추룩 독죽 , 뜻죽 안 행 기자 독죽이여 허민 독 담아놓 쑤언 먹어실 거라 . 이제 ? 추룩 무신 추례 출리지 안허영 . 녹뒤여 무시거여 안핸 해서 엿날은 .

가레기쇠가 이게 보리 클이 아니고 ? 이거는 산듸 클이꽈 ?

상웨떡 ? 건 막걸리 놓 하는 건가 ?

저 누물이영 몬딱 행 씻어근엥 몬딱 그릇에 놓 허곡 .

응 , 경 허영 .

게난 . 옛날엔 그런 거 안 행 먹어난예 .

물 지는 거 . 옛날은 물 지영 거행 두드려근에 .

그때에 내가 마차조합에 들언에 그 좀 거기 운반하면서 헤낫는디 . 그렇게 허단에 그게 그 김새 허단에 한 이젠 세상이 쫌 이 한라산에 폭도도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뛰고 월 헨 허니까 한라산에 도별목을 허례 다님 시작햇주 . 웨 그때는 사삼사건이니까 불 타부련 집이 없는 동네가 많았엇 주 .

또 곤떡이라고 동글락 , 동글락하게 띄 만든 거 . 그거 웨에는 .

게난 흐린조팝은 찰기가 이신 거고 .

사그마치는 드르팟디 막 통개 벌러진 거영 허벽 벌러진 거 데껴불민 그거 막 봉가당 멘들암주 .

후술 잘사는 집인 두불 골양 문들락하게 밥을 행 먹고 , 못 사는 집인 초불만 혜당 ˘래에 골양 그거 혜먹엇수다 .

오일날이 청명이고 그 뒷날이 한식이난에 .

게난 그 쪽 그 동 산 걸로 지시를 담은 거구나 . 요즘은 동 사믄 캐지도 안 허는디예 ?

예 . 나타납주 . 지금 우리 현재 나타나 .

다림 행양 , 영 행 오그려그네 중의 영 후민 영 혜영 오그령 다림 곱닭후게 , 다림도 곱닭후게 멘들앗수다 . 경 행 톡 후게 무꺼 .

어디 요 저지쯤 강 허민 .

그냥 거기서 살아뵙디가 ? 게난 .

이렇게 행 받치는 작대기가 잇인디 .

그 영 썰믄 , 그거 이제 큰 가마에 놓 숫주기 . 보그랑케 숫아지만 그 ˘루 무신 디딜 ˘루나 보리 ˘루 그거 허영 허텅 소 주곡허느네 .

소 , 소개된 후에 여기 살았다는 거 아니우꽝양 ?

어 . 고내도 하낫어 . 이젠 하나토 엇어도 .

그게 어디 뎅길 때 웨출 뎅길 때 사용해난 ˘는대구덕 .

듬북 행근에게 그 저 이 작두로 뜻으멍 .

출 베기는 손으로 호미로 비엇주게 우린 .

간단한 거 . 후민 . 아녀난 허주 .

물방에에 가근에 져다둬 헤근에 골아서 죽 췄 먹고 . 다 경허연 . 죽췌 먹고 범벅도 해여먹고 . 조펌벽 맛 좋아 . ˘꼼 허민 에이그 . 히린좁쌀 낭근에 조펌벽 행 먹어사켜 . 히린좁쌀에 감저 썰어 놋근에 감저 뜨벽뜨벽 썰어놋근에 혜영 딱딱 허여근에 먹으민 잘도 맛잇어 .

옛날에는 소고기 안 하고 ?

저 , 거시기 여름 요세사 하주 . 췈비름도 씻인가 ?

경 혜연 안 들었젙 .

안태 ? 안태가 무시거라 ?

한장에서 벨다른 큰 제사는 엇었고 . 비가 안 오민 기우제 . 기우제 지낼 때 한장서도 헷주게 . 또 제관 .

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짓 다음 동전 달지 아녀게 ?

무사 이제도 허곡 옛날도 허곡 .

보리 무싱거 둥글여 낭은에 무싱거 헷당 그거 숨앙 쉐 맥영 밧 갈고 쉐출 해오고 그자 .

마누라 손을 내치는 거 , 응 .

저 그랑조가 엊어진 디가 오십 년 , 혼 사십오 년 .

문딱 그디 그 흑으로 다 더퍼야 웬다 . 그 서슬을 흑으로 쪽 허게 .

토요일에 현덴 하는 거 닮안게마는 . 난 토요일이엔 들어신디 .

누룩을 깨끗이 해 웠다가 .

젓갈 못 담는 거 엇어 . 바닷고기 아무 걸로도 둠으면 뛰주 .

베 저 뜻 야오엔 하는 거는 앞이 앞이 쪼만한 거 .

이제 수정이나 하근녕 . 갈라먹젠 후민 , 갈라 먹을 밥은 .

혹시 아감젓 같은 건 ?

베틀도 헤영 했는데 . 이 근방에는 .

어가라 행 혼 불렁 헐 땐 흰죽 .

전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이 있다 .

예 . 꼭 언단 거치룩 영 허자념니까 ?

창신은 경 민간이 다 안 신어 .

그럼 할머니도 젊으셨을 때는 쉐 질럿지예 ?

어 . 감젓줄로 . 경 행 놔두민 감저 다 잘 들어근영 팔월 뛰민 강 파먹고 .

이 빛깔이 나곡 뭐인가 경 아년 다른 지름 불랑은 종이가 오래 가면은 .

회 아니 먹어반 . 무주건 숨았어 , 숨안 .

어 어 , 그럼 쌀도 좀 주고 .

거문 보리?시락은 밧디서는 어째든 집에는 가져와신게 .

바닷고긴 물훼 못 먹는게 . ㅎ나도 엇어 .

감저나 싯건 바꼽서 . 감제 시깬 숫에 바꼽서 . 경 뎅기멍 가원 집 뎅기멍 정 뎅기멍 감저 , 저  
감저 싯건 숫에 ㅎ술 바꼽서 . 바꼽서 . 경 뎅겨낫수게 .

오고 나완 바로 해병대 지원hen .

영 모다질 때 ㄱ튼 때 행 먹엇주게 .

음 , 콩 꺼껌쪄 . 자 , 콩 꺼끈 다음에 탈곡은 어떻 헝니까 ? 여기는 .

두 군데 양쪽 헷주게 . ㅎ쪽에는 젯상 , 젯상을 놓곡 .

정해여 . 머리에 막 기냥 몸에고 무시거고 모욕 시키기가 궂어 , 애기 찌닥찌닥 눌어 .

성계국 같은 것도 잇엇고게 .

감자가 더 맛 좋지 안해마씨 ? 감자 ?

놔야고 . 이제 그걸 거름이 부족하면은 이제 밧이 멧 개 이시민 돌려가명 놔야 뤄고 . 집에는 돼지 키우곡 소 키우곡 해야 되니까 .

단지 . 단지하고 오가린 틀린 거 ?

어떻허여 ? 하르방덜끼리 결혼허연 잔치 ㅎ엿주 .

이 가정집의는 이 저 탑을 못 싸게 하니까 .

그 숫이엔 현계양 . 이 송당 사름들은 숫이 흔햇지만은 혜벤 사름들은 힘들엇수다

응 ? 한국계 , 이게 .

옌날은 돌고망 뜰꽈근에 그 . 줄 해근에 그 돌로도 .

아 , 낄동은 ㅎ나만 놓는 거 ?

걸어가근에 . 게난 물도 목장에 강 다 혼 곤데만 먹진 아녀주게 .

나막신은 나막신은 그냥 두 개만 이렇게 ?

집 울타리에 것이 이만큼 솔진 거 시민 .

눔빼짐치 담글 때 그 순서 ?

기민 이거를 다시 골아 ?

큰일 헐 떼 쓰곡 .

곡식을 그 새 헤다근앵 영 짜그넝이 .

막아사 그 이디 공기 안 나가서이 구들이 뜻일 거난 .

보통 보통 다 해여 .

그럼 사월 초파일 잇잖아예 ?

후난이 그 지게문에 어떻 돌아시냐면 여기는 암커 이제 돌처귀 박아이 .

영 제사 먹으레 오민 그땐 열두 시 다 뛰가사 제사 지내난에 정기떡덜 해영 상엔 안 올련게 .

그 둘 , 그 둘에 넣는 거라예 ?

그 오니 정힐 때 , 옛날엔 가위바위보라고 허지 않고 혹시 다른 거 엇엇수과 ?

경 헤나샤 ? 여잔 무사 먹지 안 헤나샤 ?

또 이젠 세대에 따라 가지고 옛날하고 바빠진 원인이 인건비가 세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, 옛날 우리 그 지금으로부터 한 오륙십 년 전에 , 오륙십 년 전에는 하루 그 할머니들이 가서 일하면 은 .

열이 나가문이 막 열 낭 눈에 꼽사리덜이 , 그놈으 홍역을 허젠허믄이 . 게믄 영 보믄이 대강 가심팩이부터 피어 . 경 안 허민 이 손바닥에 하고 . 발바닥에 보고 손바닥에 보민 홍역하는 걸 알아져 .

조상 위해 올리는 건데 , 제사 때 .

하영 완 .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저 혼 가구씩 다 저 둘양 살렌 헨 우리도 밧거례 우리 할머니 살던 그디 할머니 안거래 어머니영 같이 저 자게 만들고 그 밧거례 헨에 그 피난민덜 살려낫어 .

삼춘 , 저기 그 옛날에 그 옷 허면은 .

어섯수과 ? 뭐 예를 든다면 , 뭐 막 그 생이 , 아니 모여가지고 막 지어가지고 그런 놀이는 안 해반마씨 ?

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 나무한다는 말이 텁 들렁 강 나무하는 게 삭다리 끊는 게 나무허기 아니 ?

아 , 그러니까 성읍에서는 옛날 쉐덜을 집에서만 키운 게 아니라 드르에 올령은에 내분 거구나 예 ?

그 다음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행은에 뭐 골 말 잇으믄 굽아줍서 ?

엊 디귿 자 집으로 우리가 출생한 집인데 .

그것도 언제 ? 조 할 때 같이 가는 거고 ?

움틀랑허영 크곡 크주게 . 훈 이백 메 , 삼백 메 나가는 것도 쟁복 시난 .

거난 그냥예 천 기저귀가 시라목으로 헌 게 좋덴 .

경 헤근에 보리 그 기겟방에 가정강 골아근에 경 허영 그 시절엔 .

지금은 오토미 힙니까 ? 여긴 뭐렌 골아 ?

다 떼여사만 살 거 아니 ?

안 썻어 . 제맛에 먹언 살안 .

거 허민 즉 말하자면 옛날에 토굴과 마찬가지로 만든 거 닮아 .

아 , 낭 채 , 낭 채 .

삼춘 솔입 걷어난 그 경험 골아봅서 .

그럼 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잇잖아예 ? 그 많이 달라졌잖아예

게난 집이 뭉덜 가져오지도 못하고 ?

막 밥 하영 먹는 아이보고 뭐렌 힙니까 ?

헛물에 가근에가 헛물에 강 . 머정 좋은 사름은 , 이게 갯고이 소질 잇는 사름은 고기 , 고기 만이 쓰는 사름은 고기만 만이 쓰고 . 고동 만이 허는 사름은 고동도 만이 허고 그렇게 .

놀곡 . 매 부락에 저 , 무시거 달집들 캐우지 안 힙니까양 .

안 뛰곡 아무것도 못 허주게 , 게난 . 막 어른 모시듯 문 더꺼놓 딱 문 더꺼놔근에 사람 금해영 .

빠꾸하면 돌아와야 뛰 ?

경헨 만낭 살명 허연 , 이젠 아다치구엔 헌 디 니시하라 아다치구엔 헌 디 강 이젠 그디 간에 집을 상 갓주게 . 쪼금 돈 벌어지난 . 집을 이층집 헨 상 간 산 가난 다 피난덜 해 불렌 허는 거라 , 이녁 고향에 다 .

이파리 , 이파리 허민이 이파릴 또시 그 줄에다 그 저 새끼로 꽈 가지고 줄에다 헌 걸이 전부 다 빠 가지고서이 그 열 개씩 훈 , 훈 도로무씩 무끈다이

그치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살곡 .

족제비 꿀렁기 요만이 훈 거 흐나에 수오백 원씩 받아나서 .

석상베도 잊어낫주 , 무사 .

뒈야지 도새기엔 곤지 . 뭐엔 골아 ?

응 , 옷은 다 족은시어멍이고 예를 들령 다 난 안 받았지만 . 시누이도 밋에라부난 안 받고 족은

시어멍 , 셋시어멍덜은 다 해줘 , 그런 거 .

다른 거 준비하는 거는 옥돔 .

동글락해근에 ˘레 영 놀근에 영 영영 골 때에 쓰는 것은 .

족제비는 일제시대에 , 일제시대에 족제비 잡아낫저 . 우리도 경 다 잡아난 . 그때는 갑이 만이 갓저 , 족제비 .

제주시에덜 살멘 . 부산도 하나 살고 . 말겟년 부산에 지네 살 때 오라 가라 안 허주 .

어디 갈 때도 . 그 재량이라고 해 가지고 . 대로 이 모자도 줄고 그 도리도 줄곡 허영 다 이제 일반 사름도 써낫어 . 재량이엔 허영 . 경허민 육지례 이 제 주사름이 이걸 다 줄아근에 내치민 막 비싸낫젠 혈다 .

치마 저고리예 저고리 .

예 . 그건 자생단체고 .

짐치종률 , 난 나 먹는 거 기자 그거주 .

곧 헌 때는 맛잇어 . 메밀 ˘루로 허민 .

거기는 쪄기서 시집 온 사름들이 .

짚은 딘디 , 그디 막 눈이 확 메와버리니까 몰른 거라 .

뼈꾹새 울기 시작하면 간다고 그래 .

예 , 그걸로 잉겐이덜 잇이난 .

이거 쟁 못 먹는 거예 ?

그럼 연 이름덜 알아지쿠 , 아 저기 연 부분 이름덜 . 게니까 연 안에 ?

아이고 , 아이고 , 행편 엊어낫서 . 빈데 .

아 , 소곰 혼 사발 .

고산에 잇는 거 , 계메 .

떡국 , 떡국 맹질도 힙니까 ?

뭐 소 잃어불엉 울고불고 그런 일은 엇엇수과 ?

음 , 조침 주라이 허고예 .

우리 떡 이서 , 그 떡 .

거 지네 뭐 장난으로 허는 거주 무신 . 무사허곡 하여 ?

이렇게 하면 이렇 , 이렇게 하는 게 그 .

그 허는 사람이 . 그땐 많햇주게 . 그런 죽는 사람덜 .

초가집 짓엉 살당 또 이제 호끔 싯어난 쓰레뜨집 짓엉 쓰레뜨집에서 또 뜰엉 고천 . 새로 집 만 들엉 상점 햇주게 .

보리꼬고리가 땅드레 가고 . 경 허민 그거 혼 줌 영 끊엉 영 영 폐왕 그 고고리가 혼 디례 와야 만 그 저 거세기 틀 .

이거 영 씨운 거 베끼 무신 접탕근이 이서 ?

조개는 고망에 들어간덴예 ? 고망 소곱으로 들어가고 . 전복은 이렇게 엉덕 밑에 .

저지 그 할망당으로 갑니까 ?

거난 요후루기 허는 거 보난 , 월정이 , 그 동이주 월정 저 어디 서화리 넘어간디 월정인디 월정이 무신 저 십만 원짜리 땅이 오백 , 천만 원이엔 험시네 .

아 . 그게 상삿집 .

아 , 서슬 허는 날허고 . 나머지 뭐 담 쌓는 거라든지 목수들이 하는 일은 그냥 빌엉 .

경혜영덜 만이 해당 먹어낫어 .

그 그냥 보리 제께로 해서 .

가을에는 뭐 무시걸 먹어나신고 ?

거 수고햇수다 . 또 쉬엇당 후쿠다 .

어 . 생명주를 누여근엥 막 다듬이로 다듬엉 .

전복도 족은 거 잇고 .

봄에쯤 뿌릴 거 닮아 , 거는 . ?실 들어가민 타 . 이제 타게 웅실 거라 벳 나가민 그놈으 것이 박삭허게 피어 .

으 , 누물 놓고 혜영 . 배추 놓 .

오 류마는 그게 막 뭐 주줏빗엔 허는가 .

장 만들 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잇수광 ? 혹시 ?

이제는 기냥 뿔앙 들여 .

예 , 아니 . 콩도 아니고 그자 무신 그냥 서끄는 것이 셔낫주기만은

그런 건 엇고 , 재기차긴 재미지긴 ㅎ 거주 .

겨울 농사 안 지어난 디 .

청수에 목장은 공동 목장이주게 .

아 , 뭐 날아다니는 새 까치 말고마씨 ?

모몰만 놓 ? 다른 거 안 놓 ?

마루 이렇게 하면 이 문 둘젠 하면 여기 이 밑에 거를 뭐렌 해 ? 뭘 세워야 웬 거 아니우과 ? 문 달젠 하면 ?

그다음 , 피농사는 어떻행 지엇수과 ?

다른 떡이 무신 떡이 이서 ?

우리는 메쌀을 가정갔다 . 게믄 뻥떡을 안 해문 작박으로 혼 작박 메쌀을 낭푼에 놓 가정 가수다 .

그것도 해난디 나 그거 이름을 몰라 .

하여튼 밧을 주장행 많이 갈았수다 . 또 중간에 물도 밧 갈곡 . 혼 육십 년대에 그자 .

게 , 옛날에 , 옛날에 헷었던 사람 . 혹은 헷던 아이를 키운 사람 .

정월 멍질에 새벽국 같이 단오에는 그런 건 어서마씨 ?

거 혈 때 쌀은 어떻 준비 헷수과 ? 무슨 쌀로 .

묵은 어떻행 쑤는 거꽈 ?

버무려 놓민은 이젠 흑을 흑을 걸 날라 가야 옆이 흑을 불를 거 아니꽈 ? 저만치 어디 먼 디 강 헤 놓면은 , 거 산태엔 헌 게 이서 산태 . 산태엔 헌거 이신디 앞에 혼 사름 뒤에 혼 사름 이렇게 행 들르는 건디 , 그것을 그 산태도 거 다 미리 준비해냅니다개 . 이녁신디 엇이민 동네 집이 가근앵예 거 산태도 경 집집마다 엇어낫수다 . 것도 건 낭으로 만든 건디양 , 것도 만들어 놋근앵예 , ㅎ나만 이성 뛰는 거 아니라 산태 혼 두 개 세 개는 이서야 웹니다개 .

그거 , 이 저 팽돌엔 헌 게 잊어 . 돌에 영 ㅎ꼼 영 납수룩힌 놈 허영은에 영 고냥 뚤랑 .

그 서춘 사름덜이 맥영 술치왕 풀젠 .

할망당 , 할망당이엔 헌 디 , 들어낫저 . 그런 디 강은에 할망당에 강 뭐 올령 절하는가 ?

감저밥은 이디도 감저밥은 혜영 , 쓸 ㅎ꼽은 놓 감저 하영 썰엉 놋근에 그냥 솟디 놓 닥 닥 닥 찍어근에 익으민 푸닥푸닥하게 그자 범벅거추룩 거리멍 먹엇주게 .

저 밧을 번헨 놔두는 거군아예 ?

추석 전이만 헌덴 허영 , 보름 전이 .

밧 갈양 . 이만썩 갈양 , 삼 삼 갈양 .

예 , 거난 그게 구월달 , 시월달 웨민 하는 거 ?

식구가 막 , 형제가 아홉 명이여 영 허민 거 다 만들젠 허민 .

그거 국물 내잖아예 ? 국물 내서 그거 주배기 넣잖아예 ?

경허민 이녁냥으로 나냥으로 혜영 혼착썩 혼착썩 허멍 행 다 혜영 뿐 뜨곡 다 쿠찡이 행 , 줄 쿠  
찡이 다 그치고 .

옛날 도통에 자릿도새기 나민 물 골른 도통에는 보리낭 던져줘야 .

게민 그날부터 초사흘까지 세배라고 해서 다녔어 .

그자 국 끌령 먹고 무시거 흐는 건 가시리 .

으 , 조도 경허고 . 조허고 감저는 똑?타 .

아 . 그럼 그건 어떻 잘 나완마씨 ?

아까 참 , 나대가 뭐파 ? 나대가 .

아니 . 이제는 멍질 끝낭 가는디 옛날은 멍질 끝나지 안행 가낫저 .

예 순다리 , 이거는 여름에는 또 막 그 몸에 좋은 거 . 요즘은 막 몸에 좋텐 혜근에 .

탕근 , 맹긴 . 탕근 우이 영 패랭이 고지 쓰는 게 맹긴 아니 ?

쓸?르도 넣고 . 그럼 그 지짐이 알지예 ?

아 , 이거 거왕이렌 허는 거예 ?

새끼손가락이 귀옥쟁이고 이게 노뉘에기라 .

아니 , 콩 단 이만썩 훑주게 . 훑으민 조도 웃 단 , 저 혼 착에 석 단썩 웃 단 . 혼 바리가 웃 단 ,  
조도 웃 단 , 보린 스무 단 .

우리 어무니 이시난 어무니가 아부지 상식 허멍예 .

게난 펭이끼리도 부닥치게 흐고양 ?

그 태우는 게 잇이난에 .

경 허영 그런 거를 뭐 , 뭐 부르는 일름은 엊어마씨 ?

아이고 , 아니 옛날에 아이들 흐술썩 행 뎅경게 만은 .

친떡은 시리에서 찌는 거난 무신 뜨나멍말멍 시리떡 허는디 뭐 그거는 재료에 따랑 허주 .

녹드도 가는 세계는 것도 주로 가는디 벨로 안 갈아 .

우리 동네에선 감제엔 해 .

그 재목을 베는 형식이주 .

어 , 이것도 저기 운반허젠 허민 놀민 미끄러저불고 멘지락 멘지락 헌 거라부니까예

나왕에 홀 만한 사름 아 , 거 집 가근에 집 일어줘 집 일어줘 허민 거 고데 꼿나민 , 그 사름은 또 올라가근에 집을 다 덮으고 계행 , 그 따로 해근엥에 새로 집을 썩 덮으면 , 또 그 아래서 줄 올리라 , 해근에 다 덮으민 줄 올리민 , 그 줄로 그냥 줄 멜 때도 양쪽에 그 흙질하는 날은 사는 날은 사람 숫자가 많으니깐 혼쪽 끝에 네 사람씩 네 사람씩 사양 .

얼마나 어렵게 살았수가 ? 워낙 베고프민 바다에 가서 ?메기 .

집이서 햇주 . 어디서 해 .

예 , 아 , 새로예 ?

그냥 침떡이렌 헤여 ? 뭐 다른 고달돌찐떡이여 이런 맡은 안하고 .

저 간단히 알기 쉽게 헐라면은 .

뭐 , 뭐 , 뭐마씨 ?

그건 고달을 입진 침떡 .

저지오름에 그 산을 사서 .

그냥 다 보통으로 맹질허듯 혼 가지로 허주게 .

아 , 할머니 어렸을 때라부난 .

으 . 메역만이 딱 부찌근에 육지 메역 거치 , 육지 저 다시마 거치 넓게 허영 부찌근에 . 또 그 놈을 부찐 것을 저 그대로 혼 낭 , 혼 낭 안 해근에 영 조근조근 예쁘게시리 해근에 기력신 이만이 하고 너버긴 이만이 해근에 . 혼 단 해여 겐 단으로 해영 무껑 놔두민 , 저 그 메역 야가지 , 저 귀 있는 디는 찍가마니 배로 딱 무껑 놔두민 풀 땐 거 찍가마니에 저울도 영 들르는 저울 .

그민 좁쓸로 허는 거마씨 , 옛도 ?

보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잇수과 ?

그 바령<sup>후</sup>는 거 어떻 <sup>후</sup>는 거카부덴 , 보리 가는 거 , 산듸 <sup>후</sup>는 디가 아니고

허허 . 그런 거 타는 거예 .

건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 소상 때 .

아 , 송키 엇이믄 ?

뺑이치기 , 뺑이 영 뻥뻥 도는 것도 잇고 .

쉐 키운 거야 . 뭐 암쉐도 키워보고 새끼도 하영 뱗지만 .

응 , 열매 까근에 그 노란 거 이런 디 험벽해근에 그거 소금 놓곡 뿐사근에 . 그거 처메나서 .

주어불면은 그거 놋당 발레영 보선 안 놓곡 광목은 끊어당 발레영 껍데기 멘들곡 .

청 먹엇주 , 숨앙 . 설탕 그땐 설탕 엇이난 당원 그뜬 거 솔 놋근에 것도 간식으로 점심으로 먹어 낫주 . 일하는 디도 .

고구마 썰어놓곡 영혜영 징징이 놓젠 허민 영 영 다 놓면 떡이 기냥 부떠불잖아 여기 팟 삶아가지고 이젠 뺏아 .

그럼 그게 일종의 자랑거리잖아예 . 신도 토양이 좋다 .

건 가린석 . 가린석은 이디 안 나완 .

치멧단 . 요기 어깨 . 한복은 여기 어깨에 끈 이수게 ?

그 주위에 이신 나무 .

어 . 어떻 허당덜 보믄 그거 갈라당 잇을 때도 잇엇주기만 .

이제 군인은 그 검은 모자를 안 쓰니까 노랑 개 .

예 . 성함은 입력을 했고예 . 강춘 ?

게민 나무떼기 해근에 그 풀 이만이 진 거 헤다근에 머리 해영 멘들아근에 뒤터레 다왕 새각시풀 해영 새각시 멘들아 .

또 , 또 뒷날은 삼우제를 해여 .

그렇구나 . 아유 , 세상에 .

대소령현 사름을 매치햇던 혜 ? 어 .

옛날은 검질로 문 게난 출헐 때 그거 부서정 쉐머리엣 것도 쉐출 줘 나민 그 머리맡에 것도 해당 솔고 경허명 살아난 . 허당 버치민 따시 엇이민 출도 빠당 진곡 . 단차 출해당 진으멍 , 남도 때곡 .

고등어도 물훼로 먹엇다강 안 뛰여 .

이 도곰은 이제 산뒤찝으로나 예껴사 뛰여 , 이 도곰 . 도곰도 아무나 못 예껴 . 하르방덜 옛날

예껴근에 도곰착이라고 .

게믄 좀 으스륵헌 디다 짓는 거 .

호미로 베나 무시거 칼로 베나 벨 때는 속 , 속풀을 이렇게 손바닥에서 부벼서 그 물 나는 거 해 근에 딱 허게 무끄민 그거 아물어 분다 .

이 집 지으명 여기로 이사 오신거꽈 ?

마지막 펜지 ? 그런 거 아니 ?

굴 이름은 모르고 그 일본병정들 왕 판 . 그 때 싸울 때 . 녹남봉에 요기 그듸 이 오름에 그 안네 가메창이 있어 .

응 , 영 못지게 영 .

아 , 곧 난 땐 베로 ?

게민 만약에 그거 열 개 예핀 것에 모물 병뎅이 혼 멕 두라 .

지게문이라고 하는데 , 이 저 마루에서 방 .

건 도폭 , 그냥 도포 ?

모물츠베기 말고 미역국은 안 먹어 .

세 칸 놔도게 보기 좋게 꾸며 간 거지 .

요새 무사 안 나오느냐 ? 관복 .

먹으로 짹 선이 나는 거라예 .

꿩마능은 케당 안 드셔봋수과 ?

이 줄 끝에 돌 둘양 영 언치고 , 영 언치고 , 영 언치고 한다는 얘기잖아예 ?

그 아까 무신거 바농와치 ?

그때 아이고 , 마농 놓곡 , 무신 젓갈이나 허술 놓곡 .

아으덜 옷 종류 ? 옛날은 우린 미녕으로 아으덜 저 국민학생덜 껌정 물 들여근에 오랑 헤드렌 허민 그거 물라근에 .

범벅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, 범벅 종류 ?

그냥 드레박 행은에 물통 이름은 무신 일름마씨 ?

우리는 옛날 국죽이라고양 알란지 . 국죽 .

이дин 그런 거벳게 다른 건 뭐 .

또 지름떡이라고 잘하는 집이는 . 또 그거 허고 .

장호미 . 나무허례 가도 .

개도 죽저 , 지달이도 죽저 .

좁쌀 모인좁쌀이나 흐린좁쌀이나 놓 그자 고대로 쑤는 거라 . 그냥 장도 안 놓고 하여서 옛날 지잇잖아 . 이 장아찌라고 .

벳경은 더 좋아 . 벳경도 먹고 , 아니 벳경도 먹고 .

예 . 네개방장현 건 약궤 그 다음에 중궤 .

아닛과 ? 그러진 아녀고예 ?

세 개민 다 되긴 허쿠다 .

요즘엔게 식당에서 허난 돈 아져강 사먹으면 뛰는 거주게 .

밥 혼 숟가락 못 타 먹으민 분허영 아이구 .

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두가 선전할 수 있다 이거야 . 게서 전쟁이 없다 .

으 . 감저 씨 , 종자 놓을 때 그때는 걸름을 만이 놔 , 쉐걸름이나 돛걸름이나 .

풋은 풋은 서로 부트지 못하게 하젠 놓는 거라 .

비료 시상 난 후젠 조도 안 불려도 어떻 안 해 . 그냥 좋아 . 거난 옛날은 명청하게 그런 자연으로만 이제 하연 먹언 살앗주게 .

그다음엔 이제 그 어 옷을 아까 옷감을 사 가지고 이렇게 본 놓 영 헷덴 헷잖아예 ?

대바진 옛날 그 차롱 . 차롱으로도 뛰여 .

게믄예 그거 하나씩 다시 물어 볼게예 ? 어 텁은 어 어떤어면 텁이 이섯수과 ?

그걸로 그거 헨에 고망더레 그거 만들언에 문더레 부쩐에 그걸로 헨에 .

엿도 나가 나는 엿 안 만들어 봄도 어머니네 엿 만드는 거 봄빛주게 .

젖 안 나와 가민 . 이제 그거 딸영 멱이는 거 .

힘들어 . 네불만 짜민이 곱닥허게 빠져비어 . 이디 껌데기베핀 엇어 , 파랑한 껌데기베핀 메밀은 .

그믄 정월쯤에 가 가지고 헛니까 ?

장 담은 더레 기냥 드리쳐 .

또 저기서 사공질 새 거를 앗당 놓는 사름양 .

물방 허영 물방 허영 쉐 허여근엥 뱅뱅 돌민 쉐는 어떤 때는 궤부리 는 쉐는 안 돌아 .

먹통하고 먹통에 헹은에 탁 틱기는 거 ?

응 , 종기 나근에 헐 때 . 이 무니낭 불리를 해다 가지고 뺏아 가지고 처매면 막 물 짜 .

궤영 따시 무껑 물려 놋다근에 요만썩 , 요만썩 무껑 , 요만썩 무꺼근에 열 개 무껑 특허게 가늠  
해 놋다근에 걸 따시 삼아 .

거 가레기 뽑는디 영 해근엥에 씰 췇 번 영 무꺼근에 동겨네영 그건 뭐라

미깡 허기 전이 경 , 보리 갈곡 , 조 불리곡 , 감저 놓고 .

그럼 서리도 못하고 애들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 동네 삼춘 또래 잇엇지예 ?

몰라 . 딴 집덜은 해도 그 만 펭 잇이니까 새하고 각단은 이거는 뭐 저 방상 사름덜토 다 비어당  
쓸 정도로 밧이 너르니까 행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엇이 해당 우린 하고 . 엇인 사름덜은 저 가시  
리 우의 성읍리 우의 같은 데 강은에 이런 설덕 같은 디 거 새덜 거 낭 이신 거 모두왕은에 후루  
가근에 멧 단씩 해단 메칠을 그 해여당은에 집 일고 .

게민 봉분은 어떻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 거라 , 봉분 만드는 기술자가 ?

흑 헐 때도 조합 사름이 전부 나오랑 할당을 한다 . 그 집이 크면은 다섯 하고 , 집 세 거린 다섯  
하고 . 두 거리 , 그 두 거리쯤은 네 하고 , 세 하고 이렇게 해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다 시꺼  
징 헷지 . 그거 다 돈으로 허젠허민 어 마허게 돈이 든다 .

으음 . 삼춘이 직접 지은 집 .

쉐 거름허고 뜻하고 쉐 거름 허고 .

이 동네 것덜 고등에젓 허는 중 몰라 .

다시 한 번 골아줘 봅서 .

종자 영 헐 거는 .

콩죽 . 그럼 흰죽 잇잖아예 .

엿날엔 그런 거 몰라 . 이 중간에는 그런 말 이서 . 나가 들어진 말 .

또 햇빗 잘 비추곡 .

우리도 그 귀경 강 오고 . 그딘 막 제관도 사름 여라 개난 제관도 막 여라 사름 . 큰 디 해봉 밥  
못허난 벤또 , 돈덜 문 메와봉 해근에 허민 저 벤또 로

여기 암쉐 질르면 못 질러 . 막 숫쉐들이 많아 부난 . 못 질러 .

오분작이 맛이 더 좋주게 .

엿을 부쳐마씨 ? 남평날은 그믄奕을 ,奕을 .

가죽으로 우리 아버진 보선 , 보선 .

아 예에 그건 풍조엔 허잖아예 ?

경 혜영 . 요세 , 요세 ? 추룩 간식이 어디 잊어서 .

소라 구챙기도 보민 빈 거이 .

아아 , 그 다음에 이제 보리하면 보리솔로 헤갖고 해먹는 건 뭐 잊어신고예 ?

영 뚝뚝 끈엉 , 경 행 숫아사 , 뚝뚝 끈엉 .

조 갈 때 콩허는 거난 .

거 무신거니 ? 일름 ?

성겟국은게 물 꿰 가건 놔근에게 .

아예 엇어 . 과일은 생각도 못허여 .

동그스름하게 끊어근에 허곡 기지 이시면은 율로 요레 해근에 율로 요레는 소매 부찡 .

으 , 헛물질 갈 때 하고 .

미녕은 소개 헤여다근엥에 저 소개 , 영 갈양 .

거난 그 지금 온도가 옛날하고 차이가 커 .

저 심방 잇잖아 . 심방한테 가가지고 날짜를 준다 말이야 .

묵 , 묵 , 묵 .

으으 . 게난 지금 여기 학자덜토 식게 헌 건 방송엘 들으나 뭣에 하민 그 잘 그걸 굽갈랑근에 골 아주질 아녀는데 제사 지내고 떡 먹으레 가는 게 식게 먹으레 감서 헌 말은 .

감저 놓하고 감저 놓 .

게민 웃껍데기 벳경 막 굽닥하게 시성 요만씩 요만씩 썰엉 텐장에 무치민 그것이 그렇게 맛좋아 . 그 뿌리도 질깃질깃해둠서루 . 경 아깝게 데끼질 안헨 그걸 다 헷젠 허난 얼마나 어루와사 경힐 거라 .

이거 큰 거는 뭐렌 헤마씨 ? 물떡 말고 .

시집 오난 저 시어머닌 막 힘들게 헨 ? 시집살이핸 ?

삼춘도 그거 팽이치기 해 보신 적 잇수광 ?

몰르켜 . 어떻행 물려보진 안 허난 모른디 베염 물리민 얼먹주기게 지독하여 베염 .

그렇게 헤근에 숫는 거여 .

예 , 경 흡니다 . 우리도 경 흐여나수다게 . 우린 아덜네가 퉁로 안 살양 그자 훈듸만 해나난 모르고 , 우린 밧거리 , 아덜네 족은아덜 안거리 쥐뒹 밧거리 강 살젠 흐난에 이사 바꾸젠 흐난 저 어디 간 저 가스렌지 큰 거 , 이제 밥해먹는 가스렌지 그땐 구만 원이엇주만은 이십오만 원 줘 가스렌지 흐나 사줘수다 , 난 . 선물로 이십오만 원 .

무슨 상어가 여기서 낫수가 ?

꿰 낭 그뜬 거 무신 그자 옌날 .

우리 하이튼 요디 버들못에서 강단이엔 해영 가젠 허면은 여기서 신산리 가는 것만이 멀 거라 .

도리는 뭐꽈 ? 도리 .

훈련시키肯 해연 . 겐 우린 돌아오고 우리 집이 하르방도 가고 .

응 . 밧일 . 주로 밧일이지 .

집줄 영 헐 때 영 돌리는 거 이수게 ?

아 양에는 지시 안 허고 .

게도 갈 땐 다 비슷허게 그치 같고 씨만 뜯나 .

거 불에 데엿젠크도 허고 그자 , 우리가 표준말로 화상이주 .

어머니가 몸 약허난 . 어릴 때부터 먹어집데가 ?

물덜이 . 게민 집꺼지 온단 말여 . 오늘 누게네 밧 불린덴 허민 그 밧듸로 강 이젠 그 밧을 불리주 .

응 . 경운기를 . 또 그거에 또 먼가 , 트랙터를 한 사십 년 . 그정도 훋주게 .

으 , 소금 서꺼근에 이젠 항아리에 , 똑 맞은 항아리에 놔근에 뚜껑 더껑 놔두면 .

세 고지 못 허민 다섯 고지 .

그 훈 번 말해줍서 .

아까 잠깐 물어 봬신디 집 짓는 연장 , 연장 다시 한 번만 굽아 줍서 .

곤질 , 꼬녀 , 꼳 이런 거 안 들어봤수과 ?

겨난 우리 수삼사건에 함덕 간 살단 이디 올라왓저게 .

그거는 삼춘 오메기술도 해반마씨 ?

아 그게 잘못해불민 그기서 열 생겨 . 그 구뎅이 안에서양 .

팔월 나 가면 두레가 생기는데 .

경 해근에 그 대문 애염에 난간 , 대문 밖으로 이제 마당더레 해근에 그 난간이 이제 이 마당 이  
것가 마당이면 요만은 높으게 해근에 대문하고 쿵쿵하게 해근에 쪽하게 난간이 잇어낫어 .

아이고 , 수삼사건 때는 뭐엔 골으코 ?

물도 그런 거 있고 .

포제는 옛날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이십주 .

경허곡 이녁냥으로 헐 수 있는 사람은 놈으 건 안하고 이녁냥으로 이녁 소를 허젠 허는 뒷도 잇  
고 하는데 남을 빌어서 해서 성질이나 나면은 소가 너무 얼맥여 부는 수도 있고 허니까 , 주인이  
자기대로 훈련을 가르키고 싶은 사람은 자기대로 하고 , 못하는 사람은 그 .

게믄 서리는 이렇게 부찐 게 서리고 .

어 그추룩 헤나서 . 나 이 그 말 골아난 생각해보민 진짜 놈의 속을 몰라

열 개 , 열 개 .

가리 터도 안 들어avn .

아니 , 콩그루가 아니고 무신 무시거엔 뜻루 골으는 이름을 듣는 거 아이라

예 . 방 두에 고팡 있고

그러니까 이 동네 어디서 하션마씨 , 결혼식은 ?

그저 누에 씰 뽕양 흐는 것이 모시고 . 삼은 베고 .

낭도 해단 지들커 햇지예 ?

그건 어떤 식으로 해여마씨 ?

어 , 영혜영 여저덜 지게 잇지 안 하냐 . 영 혜영 이례 , 여전 흐나고 돌은 이거민 돌리가 들렁 .

아 , 변한 게 그러니까 변한 게 뭐 엊어도 여기 살면서 뭐 농사하기가 좋다 아니면 뭐 옆에 사는  
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건 엊어마씨 ? 좋았던 거 .

다끄는 건 어떻 하는 거라 ?

농당 아니 놓지도 못하고 .

모제는 제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츰추츰 행 가당 웃대 제수를 못허 거든게 경허면 그 웃대 나

시 모제 허는 거 . 건 막 웬당덜 막 모영 . 것도 허는 날 다 이서 . 삼월 보름에도 허고 , 시월에도 허고 .

옛날도 저 검은 오름은 콩 불린 목이라 해서 , 콩 불린 목이라 해서 속담에 그 말이 나온 거우다 .

흔 해 후리메 두 번 끼왓주게 . 안 트덩 뿔양 문딱 풀헹 다듬엉 다 맹글앙 .

종달 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.

겐이도양 , ..양 . 물 흐여그네 걸렁 물 해영 죽 쟁 먹어빳수다게 , 것도 . 죽이사 아이 먹어본 거셔마씀 . 다 먹어빳수다 .

그 텍일 해난 다음에 낭 준비 해난 다음에 그다음에 펑지 펑지해가지 고 낙지 ? 낙지도 잡아 봄수꽈 ?

무섭다예 ? 그런 것들이 , 그리고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다예 .

그디서 또 받아먹으민 그 그릇을 그냥 아이 보네어 . 낫당 데신 해오고 경해 .

흐믄 무시거 흐여 . 그자 초복 웨민은 무시거해 누구나 말복 웨민 무시거 끂낫구나 , 그런 거 생각만 헹 살았주 .

말보다 소가 쓸모가 하구나예 .

그냥 이렇게 단추를 다 그렇게 , 예쁘게 안 해 가지고 .

거 , 곤 신사 신어빳주게 깍신 .

그거 피주게 . 피 그거 이제 , 출 출진 거는 이제 밥에당 넣엉 먹고 메 메좁쌀 같이 모인 거는 아니 허주 , 좁쌀에 해영 먹어 .

궤도 놓고 이불도 놓곡 거기 .

아 , 그런 건 안 봄난 .

옛날엔 모멀덜 싯곡허난 모멀로덜 해영은에 골양덜 허고 혜낫저 . 이젠 확 사단 허주 , 누게 허느니 .

죽어오느냐 살아오느냐라서 .

아 , 경 혜마씨 ? 그문 어르신 고깃배는 안 타빳지예 ?

어 . 집집마다 물팡 잇곡 허벅도 잇어야지 물 질르젌 허믄 .

달랭인 경 어디 시어 , 짐치 담그게 .

아니 , 그건 새끼 나는 중 알민 ㅎ곡 , 몰르민 기냥 베꼈디서도 나곡 안네서도 나곡 , 열두 개씩 , 열세 개씩 나 , 도새기 새끼가 . 경 젤 먼저 나온 건 젤 족 으메

따로 영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뭉쳐야 뛰니까 .

그때 가면은 고산 영알에 굴소곱에 들어가민 우트로 착착착착 떨어지는 물 , 것 강은에 ㅎ 삼십 분 맞양 앗아민 입술이 삼동 뛰불어 .

게도 안 올라와 . 나 옛말 골으쿠다양 . 나 잘 만낫수다 . 옛말 하영 들언 .

경해도 저 어디 신촌 강 사당 먹읍니까 ?

그 혹시 동네 무좀 막 심하게 걸령 고생하는 사람 엇고예 ?

소낭은 가운디가 구려부난 .

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헐 수 잇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잇고 ,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잇고 베지왓이 잇고 .

파란 콩계 . 이디 우리 장 콩 가는 거 , 집이들 가니까 .

슷 , 캐 거시기 헤근에 , 윷가락 두 개씩 심어근에 승부 골리주게 .

자리젓 헤여근뎅이 그거 ㅎ쓸 앗엉 강 ㅎ곡 . 경 ㅎ민 반찬이 엇이난 그 게 웬장만 ㅎ나 앗엉 가민 그거 무수 헤여근뎅이 착착 호미로 비당 그차 놓 웬장 찍으멍 먹곡 .

시어머니는 뭐렌 허멍 경 미웡힙디가 ?

궤 굴이 아니고 궤 궤 .

어떤 마을은 , 무사 신풍리 이런 딘 바당 엇지 안 해 ?

우리 할 땐 연애가 어디 잇엇수과 ? 우리 할 때는 주로 중매마씨 .

그니까 수제비 국수를 주베기렌 허는 거 아니 ?

부려 . 경허민 쉬도 새 쉬 허민 막 짐 시끄민 하늘만썩 들러키멍 문딱 빼어 불고 물도 경하여 .

마늘 마늘지시 만드는 법은 ?

에이고 , 아무 것에라도 먹어져 . 게난 아무 걸로라도 출레엔 허주 .

조팝은 언제 , 언제 먹고 어떻 만들주마씨 ?

응 , 이디 집 안 트든 때는 벽장이엔 헌 디가 이서낫어 . 맥에라도 무시거 조 두들엉 곡메기 허영 이 새에 놓멍이 거 구강 놓젠 . 감저를 씨 놀 거 놓아 두젠

항 놓은 거라예 ? 그 다음에 여기도 춤항 같은 것도 헤낫수가 ? 물 받젠 하면 ?

이젠 그땐 이제 낮에는 버을고 밤에는 학교 다녀야 하니깐 그 야간 이 잇엇수다 . 일고도 .

예 , 경해도 또 여름에 입는 거는 또 이름 또 퉁나지 안 해마씨 ?

은절미 이런 말 안 헛수과 , 여기는 ?

요만씩 쭉 허게 파주게 .

예 , 삼춘 , 그 메역 주물젠허면 언제 메역은 주물아서마씨 ?

마흐렌 저 무시거 헌 것가 마흐레주게 . 하르방 모저 , 저을에 씨는 거게 . 그거 이제 띠 엇인 것 그라 마흐레주 .

배추짐치는 , 배추짐친 펄기짐치도 기냥 한 펄기 , 펄기짐치도 싫곡 , 뜯시 펄기짐치 아니 , 뜯시 배추를 영 후영 요만씩 , 요만씩 혼 치썩 후게시리 영 후영 썰어그네 양념 , 버무린 양념 후영 버무린 짐치도 싫곡 , 뜯시 기냥 뜯시 저양 , 기냥 양념 해나그네 기냥 것절이 식으로 기냥 막 바로 먹는 그런 짐치도 싫곡 .

세 개예 . 게민 세 개 허면 두말떼기 하고 그 옆에 거는 ? 밥 하는 솟은 ?

경 행 허단 말제에 비료도 나고 하간 게 해 가난 그냥 걸름에 서껑 강 밧이 강 좁작 빼엉 비료 놔근엉 허민 보리 해 먹엇주게 .

거 뭐 다양허게 썻주 .

아 , 팔기도 하고예 ?

저 영어도시례 가는 디 질 확장후명 우리 요 질 어염 밧 어염에 그거 오라시난에 저 도청 건설국장 왓단 요 귀훈 거양 , 이거 멧 십 년 만의 봄점수다 봄점수다 후명 .

지금은 아메도 거 더듬더듬허영 후를 걸렵직 허여 .

글로 여기서 뭐 , 우리가 영 듣기에는 이 근처에서 조금 다녀난 사람은 여기에서 시집 가가지고 저 동에 강 사나 뭐하나 돈 벌어서 일본 가서도 그냥 온다고 해 . 이제는 무당이 없어지는데 저지 같은 데는 무당이 많이 잇엇는데 , 조수 같은 데 잇엇는데 .

만들양 써 . 산에 강 만듭니까 ?

그 밧이 이 옛날엔 꿩마농 나겐후민 물릇싸리영 막 후민 누라불민 그거 노는 디 그거 나주마는 게 , 이제사 막 나주마는 이제사 미깡낭 심경 검질메민 그런 거 나겔 험서게 , 못나게 . 이디가 저 , 이디 알력집이 기자 미깡낭 아래 뿌령 내불민 아이들 혜당먹곡 , 지네 짐치도 혜당먹곡 이제 , 이제 .

그런 거 허면은 물을 그냥 혼쪽을 지울어지면은 잘잘잘잘 물이 알려레 내리주게 . 경허믄 그런 디 지신물 받는 거 . 저 항아리나 무신 거 그디 낭 받양 .

게믄 삼촌예 , 미녕으론 뭐 해 ?

즘자리 헌 거 .

고등에예 ? 고등에 . 고등에 조림 .

곱은잔 무사 곱은자로 썸신고 ?

늙은 거 , 친 건 괜찮고 ?

윤딘 허민 바농질 영 호와근에 바농질행 꺼껑 오그령 영 찍찍하게 오그리지 안하나 ? 이거 바농 질행 영영 쥬놓민 영 오그려 놓 윤디 영 놔근에 판 놔근에 찍허민 이거가 오그라지주게 . 경허난 하는 거라 .

하간 거 원 .

아니 , 여긴 갓이 엊어 .

그자 족양 밥거려 먹고 그거 족양도 먹고 .

이거 . 이게 몽콜 .

응 비에기 비에기 베에기 .

종인 딥지 말렌 그 양태 , 첨 양태엔 해점저 .

멘들양 , 돈 줘도 이녁냥으로 멘드는 사름은 멘들지 . 맞질 안 해여 . 치메 예를 들엉 나가 죽엇다 , 치메다 허문이 이녁냥으로 꼬짝 늑진 디 치메 끂이 요꼬지 오면은 톡 부명 존디 . 요만이도 몸에 맞질 안하여 .

또 그것도 늙어 가민 풀아불곡 .

우리 저듸?라 뱃거리도 헛간이엔 하주게 .

아 , 마을에 잇언마씨 ?

그럼 제주도에 잇는 속담 잇잖아예 ? 속담 .

게난 이제는 배추짐치 해근에 겨울 내낭 먹주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행 먹어낫저 .

겨난 그전에 이런 거 엇인 때는 개로만 사용했는데 .

콩 강 꺼꼬주 , 이건 .

다른 건 엊어 그거 . 구슬치기엔 혼 건 그거 . 나 알거니 , 공기호는 거뿐 호고 .

이런 거 하는 건 안 봐 . 그때 무신거 이만큼은 헌 쉬끗 닮은 걸로 그자 영영영영 해가믄 해도 허여보진 안헨 .

게도 어떻 나가 보면서 아니 훌 수가 이서게 . 이 저 농촌 일이란게

고사 그 , 토신제 훌 때 , 고사 .

이제 이젠 그 돌산갓 이엔 헷주만은 , 옛날엔 퍼렁헌 갓 . 그저 퍼 렁<sup>후</sup>진 아녀고 저 .

난 그런 거 허는 것도 보도 아녀고 헤나도 아녀고 .

아 , 겨울엔 안 나고 .

오십 일 셔야 완전 물라 .

예 , 담 널엉 수토새기 촛양 새끼 베젱 흐민 , 경흐민 그 수토새기신듸 배로 무껑 가주게 . 수토새기 빌어근에 가민 수토새기 게꿈 바락바락 물멍 착착착 흐메 암컷 들어가기 전에 . 게꿈 이만씩 나오멍 , 입 착착 다시멍 암컷 꿀만 보민 .

아 , 소금은 혼 허벅에예 ?

족제비 그뜬 것도 목째비 이용허주 .

삼춘 그러면 이제 그 떡 잇잖아예 . 떡 .

아니 , 제기 온 때도 셔 . 밤낮 엿새도 걸리고 .

굴렁쉐도 헤낫저 . 굴렁쉐는 그 뭐인가 옛날에는 그 자전거가 안 나낫지 .

그런 뱃이라야 그게 그 갈산듸 , 녹상배 .

헤가 바닷 물 속에 내려가는 거 .

이제라도 행 막 둘암직은 안 허여 . 생각해 보난 .

영헨 거왕에 영 여꼬는 거라예 ?

보통 무신 생선으로 국 끌려 ?

밥이 제일 허기가 힘든다 .

하 , 하 , 하 , 하 .

그럼 삼춘 그 팔월에 벌초 하잖아예 ?

맞아예 ? 게난 예전에는 여기도 조개술벤 헷구나예 ? 으 , 조개술벤 헤갖고 이렇게 생긴 거 .

예 . 청충의 물은 어떤 물인고 허니까 어 , 흰 털이 절반 , 이 뭐야 .

기억나는 사람사 많이 싯주 . 뭐 노력 많이 헌 사람 .

그때 제일 무서와 뭐 또 부락에 또 지키레 나오렌 흐곡 .

마늘도 엇곡 허난게 옛날에 그냥 쫓주게 .

그 다음엔 그 바위 , 큰 이 동네도 큰 영덕이나 바위 같은 것도 있수가 ? 유명한 바위들 ?

그거에 대해 혼 번 골아봅서 .

냉국엔 헌 거는 누물하고 미역벗고 안 뛰여 .

그자 그땐 주로 풋 집이 같았단 풋 .

먼저 끓영 허는 거 아니 ? 아 , 우리 집에는 음식을 잘못 헴신개게 .

응 . 다음은 이 이 돈이 .

답 이렇게 그 둥글렁하게 .

그 체들 가져근에 뛰지하고 그 감저 이제 그때는 감저가 많이 싱글 때 고구마 많이 싱글 때난 그 뿌시례기 같은 것덜 멧 날 멧 날 메칠 져다근에 이만은 데명 놔둠서 그거 해근에 도새기 주명 새끼도 내우곡 경 해근에 .

지난번에 오징에 잡을 때 횃불 싸근에 밤에 강 잡양 왕예 ?

응 . 아랫 것도 우에 것도 죽고 , 다 죽어불엇지 . 아무것도 었다 .

이것도 맞이민 허곡 . 아이 맞으민 .

누물죽게 , 기냥 좁쌀 놓곡 그냥 수민 뛰주게 . 누물죽게 .

말이나 소나 그럼 똑같은 거 먹여마씨 ?

아 , 농협으로 불르는 게 좋아 .

아니 , 모시실은 육지서 .

그것도 그대로 . 그대로 좀팍에 놔근에 그대로 알아 맞창 .

이 사름으로 양쪽 이렇게 기둥 영 허곡 물그레 저것이 영 가운데 똥골랑 헌 것이 영 영 돌아가게 , 양쪽으로 영 영 사름덜 .

아니 , 그것도 마찬가지 . 종이로 모양만 영 오그라지게 .

노끈으로 , 노끈하고 소낭 .

씨감저도 경 행 놔두곡 , 그추록 저장해 놔두곡 , 그추록 구뎅이 흐여그네 , 기추록 행 저장해 놔두곡 , 먹을 것도 그추록 흐영 저장해 놔둠서 먹전 기루우민 먹을 감저는 , 씨감저는 거시지 못할 거고 먹을 감저는 영 흐여그네 거세기 흐민 그 저 가운데 주챙기 주챙기 울아그네 그 가운데로 손 디밀아그네 감저 영 퍼내여그네 , 메 개씩 퍼내영덜 먹읍니까 . 주챙기 행 그 가운데로 꺼내어 ,

그럼 삼월달에 뭐 잇주마씨 ? 삼월달에 ? 한식 명절은 들어보셨마씨 ?

거 산듸씩 . 산듸씩 두드리고 .

일류 고급주라 . 게서 밑에 거는 그냥 막걸리로 먹는데 , 너무 웨면은 그걸 혼잔 그레 놔서 영 둘  
렁은 술 먹는 사람은 먹으민 하 좋다 . 수염이 돌은 늙은 하르방 많이 이실 때라 . 수염이 이렇게  
덤방하면은 그 이 바농상지에 가위해다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 거 요렇게 거울 빵 , 경 안한 사람  
은 걸쳐져 . 탁배기 먹어나민 입에 부트거든 . 부트면은 요렇게 해서 흘긋 뿐 아먹어 .

응 , 계난 저거 혼 바리엔 혼 게 뭐이냐 후면 쉐 . 소 후나에 시끄는 양이라

허베기 허민 그 뜻 , 뜻 두 관ಡे 놓곡 쌀 두 관ಡे 혼 솟 두말떼기로 하나 쑤민은 딱 한 허벅 허  
여 .

그런 거 헤근에 말류와근에 그거 방에혹에 그거 뺏아근에 체로 영 치멍 헤영 그거 가져근에 돌레  
떡도 만들어근에 먹고 . 그거 가져근에 범벅 .

위로 뜰 들은 다 제주시 살암수과 ?

하나 큰성 일본 가고 , 수삼사건에 셋성은 죽어불고 .

이거를 막 고았지 . 막 고이민 실로 감아 싹 벌개져 .

응 , 설탕은 설탕도 후끔 .

어 . 동전거치 생겼저 , 옛날에 .

으 , 그런 데는 . 그 .

예 , 알았수다 . 아까 둔지봉은 이 동네선 뭐렌 불렀수과 ?

경 헨 웬장에 서꺼 .

아 . 백중제 헉니까 ?

절론지가 하영 나주 , 여름 검질은 .

그 전에는 쉐도 먹엇수다 .

예 , 속았는베치예 . 속았는베치 .

으 , 물령 . 물려 와서 물린 다음에 나뇽 집이덜 눌엉 놋당 . 혼 번 허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댓  
번도 올라올 수 잇고 놀 나민 .

이제 속곳은 여자들 그저 물질 흘 떼 입는 속곳도 .

그럼 일주일간 돌아매서 혼 점씩 끊어먹는 거 .

고팡은 안구들 바로 다음에 고팡이엔 헌 디 잇어낫주 .

영 흐민 , 이제 이것이 훈 그못 갈 거 아니우꽈 ?

예 . 금기사항 같은 거 . 그런 거마씨 .

씨 뿌령 , 같은 뛰주기 .

으 , 주베기엔 허는디 .

게난 지넨 지곡<sup>흐민</sup> 악은 나놓고게 , 이긴 사름이영 싸왑주게 . 경<sup>흐민</sup> 수못 머리 잡아등기멍 싸 우민 어멍덜 강 굴아불민 어멍덜 펜박<sup>흐레</sup> 오랑 사흘씩 말안 곤곡 , 심어낳 그 공깃돌 이기난게 , 지어 노난 악 난 싸왑주게 . 어린 것덜이엔 훈게 무신 .

돌아가젠 . 경헌 오민 막 어떤 사름은 뱅신 지랄하는 사름 잇곡 . 일름 오랑 막 둘민 저 일름 , 저 막 죽어 분 사름 일름도 막 골았어 . 저 그추룩 헤근에 일름도 바꽈 곤곡 . 겨난 우리도 저 우리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낫주게 .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고 작은아바진 순경이고 . 겨난 우리 아바지가 산에 사름 , 저 순경 오민 저 느네 웨삼춘네 산에 갓젠 죽여 불고 . 산에 사름은 오민 순경 가족이엔 헌 죽여벤 우린 못 살肯 헨 , 게도 죽진 안 해신디 . 아이고 , 그땐 더 무서와낫어 . 밤이 그추룩 오랑 . 이 집이서 요 앞집이 만이 헌 디 우리 옆집이 , 이젠 읍장이주만은 옛날말론 멘장 , 멘장이 살아신디 멘장네 죽어질 걸로 아기덜은 다 우리 집이 오랑 밤이 우리 할마니 놀지주 게 . 놀진디 밤이 이 밤과 저 밤 새 완에 저 , 아이구 , 느 골으민 . 멘장 을 칼로 콕히게 박으민이 그 각신 살려<sup>드</sup>렌 칼을 팍 심으민이 확 동겨불고 허민이 손도 문짝 쫄라지고 . 아이구 , 그추룩 경핸 멘장네도 두 밧 흐루처忸 다 죽어 . 옆집 이서 죽어간다 게민 겁낭 살아지크냐 ?

그 노래 , 나 생각인디 , 노래 딱 꾼나만 딱 해당웬 사름이 그 다리 웠 사름이 지는 거 .

서까래는 이거 영 뒷<sup>?</sup>라 서까래라 허는디 . 서리 . 서리 .

그 각단으로 줄 멘드는 거 . 각단으로 놓는 거 .

겨민 여기에 돌을 지들루는 거우다 . 큰 돌을 .

패랭이 닮은 거 . 모저 .

으 , 뜻로 지내여 . 날 받앙 .

밧 넓을 뗀 게메 . 돈 하근엥이 이제 뭐 훈 사름은 그 물 테우리 빌엉 .

또 부엌에서 마리에 나오는 건 샛문 .

그런 거 하는 디는 엇어 . 이제는 허는디 .

또 경 아년 경 아니한 물 아니 하는 밧들은 하지 .

아 , 아무나 꿩죽 못 먹언마씨 ?

게민 흑을 여끌 때는 , 흑 여기 불르젠 헐 때는 그건 다 보리 ? 스락 놔 가지고 꾸여 가지고 흑 부르는 거예 ?

음 . 춤이나 춤항은 뭐과 ?

강 돌아뎅기당 보민 고사린 꺼꺼서 ?

낭 떼곡 . 보통 보릿낭 하영 뗏주머 .

그럼 할머니 그 결혼할 때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 같은 건 엇엇지예 그런 건 ?

그건 뭐 말할 순 엇고 지금 .

음 , 요 밧듸 뽕나무 , 국민학교 옆에 텃밭 대신 밧 헨 무시거 하고 집도 짓어벼신디 , 거기에 이제사 생각해보난 뽕나무가 그디 많이 잇어낫어 .

아 , 수두룩이 아플 때 . 그럼 여기 물맞이도 해마씨 ?

부찌사둔 . 아이고 그디 막 부찌사둔이로구나 .

엇어 . 나 먹어난 것만 골암주 .

애기 나게 애기 나오게 뒤면은 밧에 이제 집에 솟 잇잖아 .

가는 게 저것이 , 에 또 하여튼 유월 초일 거여 , 유월 초 . 유월 초에 해 가지고서 칠월 내지 팔월꺼지 저거 , 저거이 땐다 . 혼꺼번에 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밑으로부터 누렁케 익어 가민 익어 가야 따니까 그 익은 것만 .

옛날 멩질 때 , 옛날 멩질 때도게 웬당덜 집의 문딱 저 이 집의 강 먹곡 , 이 집의 강 먹곡 , 다 돌아뎅기명 먹어십주게 .

경허민 그것이 벌겅<sup>후</sup>게 바라 .

아 , 그건 어떻 만들어마씨 ?

영어 베우레 . 겐 웨국 갓단 서울 남저를 알안게 .

내가 거리에 잇당 보민 게난 여기 마을 회관 어디 잇수과 ?

아 낙인 그거 췄에 .

응 , 요샌 다 다끄지 , 물도 아이 서껑 .

그렇게 떡 치면 그 다음에 또 따끄젠 하면 어떻게 허는 거 ?

그런 , 그런 건 .

사람이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면 소가 말 잘 듣고 .

으 . 들어간지 나간지 모르니까 . 개는 알겠지만은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.

으 , 뒤에는 고물 . 앞에 이물이렌 헙니까 ?

그럼 옛날에 옛날에 , 옛날엔 어떻 헷수과 ? 예를 들면 아까 출 빌 때도 점심만들젠 .

그건 잘 기술적으로 잘 하면은 집에까지 정 와도 어떻 안 하는데 , 잘 못하는 사름은 자꾸 헤싸지는 거라 . 오당 보민 헤싸지고 .

응 , 노린 쉬 .

그 사름이 대반 게민 ?

그믄 그거를 이 사람이 정확히 죽었다 이거를 어떻 확인해마씨 ?

거리 태석이가 교감 선생 , 아니 저 , 저 교련 선생 헤낫저 . 김태석이 느네 웬당 .

게서 그 원담은 볼목리에서 아예 보수 ?튼 것도 안하고예 ?

아니 , 검질 한 번 안 매는 사람도 잇주만은 한 번만 매면은 거의 콩 헤 먹어 . 게고 콩이 막 두 불하면은 .

저디 싯저 싯지 안으냐 ? 다 싯저 .

들어뵌 . 것도 골으며 경 .

경허단에 이디 들어오란에 택시도 허곡 .

경허면은 이젠 그걸 숫아 , 아 걸러 .

머드레콩 거튼 거 . 쌍콩 .

뜸은 그믄 어디로 어디 지둥으로 불영 영 돌아 ?

게민 반은 몇 개나 뛰낫수과 ?

예 . 미녕으로 흐난예 .

저 영 좁아근엥에 허여 . 이제도 무신 큰 저 어디 제에는 그런 것도 써

콩이나 보리나 조나 잡곡으로 들어가 .

예전엔 그거 나 곳는 거 그 말 아니냐 .

뭐인가 화일이 아닌 날을 택해 가지고서 집을 인다 .

어 , 어 . 게엥 또 무신 것도 모양도 벨로주게 . 쟁으로 기자 쟁고무로 해근에 신 멘들아근에 멘드는디 , 것도 보목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것도 어디 타리에서 어디서 멘든데 흐민은 혼 참 강 주문햇당 혼 달이민 혼 달 , 보름이민 보름 그사이에 주문해사 것도 멘들아줘 ..

밥 혼 두 사발 좀 놓 또 보네곡 .

예 , 예 . 감자 .

바당에 아무만인 해도 이디 앗인 사름 그거 알아져 ?

게도 산디찍은 용도가 하지 아님니까 ?

물은 주로 이동헐 때 차 대신 쓰는 거구나예 . 쉐는 밧듸 일하는 거고 .

빙떡도 뜻 담양 합니까 ?

사름 그뜬 웨 가민 사름 쉐 나름 쉐 .

일본말이라 도로보 . 도둑질헌덴 말이주 , 도로보가 .

베가 낚베라 버리니까 풍선 베이니까 어디 가도 제때 돌아오지 못해주게 .

삭다리 골은 거 해영 와 .

계난 설탕 놔부난 맛엇수다마는 먹읍서 허난 좋다게 허멍 .

이게 희난예 . 곤сал후고는 다르니까 . 곤сал 곤밥 .

제석 , 아아 . 안네 .

아 , 파래도 놓 먹는가 ?

무껑 , 저 내기 청 따먹는 거 .

아 , 것도 비 , 주로 비 만들주 . 거 그자 가젱이 사용하는 거 .

그거 보관하젠 허민 어떻 헤낫수과 ?

멩지는 해도 멩지웃은 죽을 때나 .

지금은 상 안 놓지만은 .

사름으로 행 메오기 힘들면은 쉐로 행 고서와서 .

걸름을 네여근에 , 보리씨 뿌려근에 .

으 , 그거 소곱에도 놓고 .

자 그러면은 그 구슬치기 종류는 어떤 것덜 잇수과 ?

감태 골은 거 , 바당에 난다게 .

호열자 영 그것사 이제도 나오는 것이 호열자주게 .

아이 뒷 닦주게 . 과세도 아이 가민 송봐이 .

경<sup>후</sup>곡 또 우리대로 <sup>후</sup>민은 이제 걸망 , 망아리 담은 거 . 걸망 헤근에 , 우리냥으로 주물멍 , 그 망사리에 담아근에 이젠 밀려왕 고이 왕 퍼근에 , 저네영 우리대로 물리와 .

올레 , 올레코시렌 헤근에 나그네 빌어다근에 그 이제 정월 날 거아니라 ?

옛날에 원 그런 것도 몰라 .

이거 뭐 , 남자 어른덜예 ?

게난 두 명베끼 못 나도 자손이예 .

아 , 어머니 아버지 식계를 , 응 , 합제허지 말라고 .

응 , 바당에선 나는 건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라 ? 막 밧듸 강 물릇을 막 파당 씻엉 거 단장행이 패도 막 쪐물을 빠불어야 둘 거 아니 ? 어떻 거 숨아가민 경 돌아신디 .

이것도 무신 그자 겸사겸사 납니다 .

예 , 예 . 굴렁쉐 .

부자 하는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고 허니깐이 그 경 <sup>고</sup>라 . 다 <sup>두</sup>려 , 다 <sup>두</sup>려 .

어 . 불도 때주게 .

경 혜영은에 이제 하는 건데 , 그거는 밀로 허여마씨 ? 보리로 혜마씨 ?

우리 친정엔 아직도 열두시 헙니다 .

보통 곰으로 둘았주 , 곰 .

여름 옷 , 여름 옷 .

영 돌아멩이나 그냥이나 놋햇당 막 곰펭이 피어 .

아 , 가린석은 엇인 거 ?

음 . 쁔 묵 .

예 , 예 . 우리도 어릴 적에 저기 그 제사 때 도복을 입어근에예 . 그 친정에서 보문예 .

응 , 떡국 맹질만 <sup>후</sup>나 더 잇는 거주 , 다 <sup>고</sup>찌 .

옛날에 이제는 물론디 , 터우 .

그다음에는 , 성게국도 끌려빳수과 ?

아 데사니 뺏은 거예 ?

에고 , 메곡 하건 거 , 잘 메믄 혼번 메고 게아민 감저꼴 더꺼지국 <sup>후</sup>민 내불믄 제완지 숨빡 . 밧

이 .

아 , 쌀도 같이 ?

난 귀신은 안 봬반 . 사람들 뭐 우리 어릴 때 보민 뭐 도채비 낫어라 뭐 옛날에는 이 마을이 막 물이 멀어 . 물 지르다 놓는 디가 . 물통이 .

예 . 그거 뭐 하는 거마씨 ? 고구마의 뭐 밑에 나오는 거우꽈 ? 아니면 .

그땐 죽어야 뛰는 거라 . 누구든 막론하고 . 경 혜야 주식덜이 펜안 혼 거주

득수알 . 품 받는 것이 .

신랑 집이서 잔치 허젠허민 신랑 쪽에서 혼나 .

물에 텅 놋당 건정 이제 내와 그거 . 그것도 잘 뛰어야 골이 돌아이 것?라 골이엔 허주게 .

밀골은 더 새는 거주 . 옛날은 줄보리하고 밀만 해낫는데 , 살보리 가 솔보리가 살이 많고 좋데 .

거 혼 번양 골아봅서 .

응 이녁 밥 먹어가난 귀 턴에 살았주 . 어이구 , 이녁 밥 먹지 안 혼여시민 , 이녁 밥 경 빗도어 성 빗도 어성 그루후제 빗도 어느 때?지 빗 셔시민 빗이 그걸 그걸 문 마무리 혼젠허난 우리 안중이 풀 때?지도 빗이 셋어 . 겐디 그 안중이 풀 때?지도 밧도 어떻 어떻 사명 이추룩 , 이추룩 혼여그네 빗이 잇더라고 . 그추룩 혼명 우리 안중이 풀 때?지도 빗이 이선게마는 저 어떻 , 어떻 혼연에 빗도 문 물고 , 그루후젠 어떻 , 어떻 혼영 쉐도 잘 혼쓸 뛰고 .

여기선 길마를 질메렌 헴구나예 ?

서북향을 솟은 안 앗져 ? 주로 어디 앗져 ?

예 , 시월 달 십일월 달부터 맛 좋덴 힙디다머예 .

조 , 이제 흐린조 게우리조엔 허영 .

그거 숨바꼭질은 옛날에도 숨바꼭질이라고 헨마씨 ? 아니면 다른 제주도말 엇엇인가마씨 ?

으 , 소중돌메기 . 소중의에 돌메기 .

것도 보기좋게 영 놋주게 . 거 하나하나 농사 무신 뿐이 날 거라게 ?

성읍리하고 가시리하고 성읍리 사이 경계선이 이 지금 대록봉 .

노랑 콩도 잇고 푸린 콩도 잇고 .

세우리 허당 여기 혼... .

그거 삼형제렌 늘 해왔거든 .

웃은 영 놀 거 아니라 영 .

저 신작로에 나상 므신거 흐민 보곡 흐는데 .

서능은 다 혜사 흐꼼 숨 쉬여정 대소상 헐 때엔 잘 출리고저 해도 성복제에 안 허민 못 헐 거난 .

체 했을 때는 어떻 헙니까 ?

짐치헐 때도 마농이 하영 놔사 쿠성 맛좋는디 이런 디 흐꼼 허민 경 마농 욕심을 헷어 ? 마농은 놓민 맛좋는 좋은 알아도 마농이 엇이니까 안 논 거지 .

아 , 계난 웬장 이런 거 .

그 그것도 , 방치기 ?뜬 거주게 . 방치기 .

아 , 세 번 골아 줘야 뛰 ? 그럼 그거 내려놓는 거라 ?

기추룩 흐명 경 굴으멍 흐연 해도 저 웬차녀댄 . 어떻 안 흐여 , 가도 어떻 안훈댄 흐난 갓주게 .

그런 디는 별반 없는데 , 좀 요 근래에 이젠 멧 년 뛸시니 ? 훈 수십년 뛸여신가 . 그때 뛸여서는 아이덜 키우기 위해서는 방 떨어내어가지고 방 멘드는 디가 잊어낫주 .

두 폭으로 하고 광목은 영 오그려근에 두 폭 셈 쳐근에 말령 허고 .

거 잊어불었져 . 거 혼 다리 두 다리 하면서 노래가 잊어낫긴 잊어낫는디 .

게민 수의랑 상복은 어떻 마련힐 거라 ?

소낭 해당 현 건 소낭솟 .

경허니까 조팟은 헐라고 허면은 나는 그렇게 헷어 . 어 , 미리 밧을 갈앙 놔둔 거 . 날이 어느 날 좋아서 막 카 . 밧 갈앙 놔둔 게 막 햇빛 맞아서 허면은 검질이 예방뒈어 .

챙 전부 꺽죽 베껴 가지고 .

벌무작 이렇게 허면은 딴 사름이 이거 벳기질 못하여 .

게서 그 상예 소리허멍 가 .

아 , 여기는 멘네덜 안 갑니까 ?

지녁 간 놈 옛날은 진역 간 놈 .

엇어 . 예 , 알았수다 .

뜬 육의 사름은 허는데 .

궂인 밧디 싱근 사름은 남도 주그만허민 드레도 얼마 나지 못하고 .

게난 여기를 왕 보난 식게가 엇은 거라 . 흐흐 .

아 ,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고 뻥뻥뻥 .

그렇게 허기 때문에 그런 산쉐 , 드릇소 ? 그 뒷엔 헤낫는데 .

건 여기선 귀국이엔 하여 귀 .

아 , 건 자고 .

그거 이거 안 웬 거주게 .

으 , 으 그거는 저 제서 때에 맹질 때에 건 상에 올리는 떡으로 뜨로 허연 징부찐 거 뜨로 .

경후고 저 어머님 고향은 어디우꽝 ?

음 . 그민 그거 이제 호상옷이라고 해서 상복도 행 , 그 천 사 오민 동네 사름덜이 만들 거 아니라 ?

그다음엔 십이월에 들면예 , 어 , 음력 월에 들면 우선 맨 먼저 신구간이 들잖아예 . 신구간에 들면 , 물론 신구간이 어떤 땐 보면 명질 정월에 그때도 잇주만은예 , 혹시 이사할 때 신구간 보명 이사햇수과 ? 여기 이사는 어떻 여기 이사 올 때도 경햇수과 ? 여긴 이건 언제 오십년 됐던 헛수과 ?

간장 끌려근에 하는 거 그거 말고마씨 ?

윷놀이 낭게 , 옛날 윷놀이엔 혼 낭 잇이민 ?는 거 끊어다근에 .

경 허난 미녕은 하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정뱅이 종의를 만들젠 정 뱅이를 만들젠 허민 앞이 흐나 두이 하나 두 폭 .

빌어사 . 경허민 부제침이 출 시끄젠 허민 엇인 사름은 출 시꺼주고 그 무쉬덜 빌어당 , 출도 이녁냥으로 엇인 사름 시꺼오고 .

담제 ?지 허는디 , 요세는 백일 탈상이야 뭐 , 또 사십구제 헤근엥에 사십구재 탈상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데 .

게믄 옛날엔 테우리 이런 말은 안 헤낫수과 ?

그르를 그 우터레 놓는 거라 .

그건 서른 뭇 쳐 .

어떻은 어떻 . 채를 잘 쳐야주 .

이걸 튼내짐직현 디 튼내질 못허겟네 . 아이고 , 거 미릇 굽아시민 목시안티 들어방이라도 놔둘 건디 .

음 , 장을 뭐 장방 이런 거는 안 만들고 .

맛도로기 잘도 맛 좋읍네다 .

어 , 삼춘 여기 훠 있잖아마씨 ? 훠마씨 ?

훠 , 사름 먹는 훠 , 자리훠 , 따시 비깨훠 , 옛날은 따시 머 무싱거 도새 기새끼훠 뛰야질 잡으믄 그 새끼 , 새끼훠 , 그거베끼 훠가 어실 거라 , 옛날엔 .

혹시 뭐 이 동네 사훈 같은 거 , 죽은 사름끼리 혼례 치러 주거나 그런 거 잊어낫수과 ?

그 헷고 요즘은 콤바인으로 그냥 다 하고 .

예 , 예 . 개 맥인덴 , 개 맥인데 .

예에 , 게민 거기에서 그 정물벵듸까지 왕근에 , 물 보레 가젠 허민 어떻 허영 갑디가 ? 여기서 그 점심도 아정가야 월 거 아니우과예 ?

어떻 멘들아 ? 그냥게 .

응 그래서 거길 또 그걸 걸름으로 흐는 거라 .

예전에는 지금은 막 어린아이들 게임하고 막 노는데 예전에는 뭐하시면서 놀안마씨 ?

아 , 손으로 영 ?

냉국 ? 성계국 , 보말국은 힘들겠다예 ?

예 , 열 치가 혼 자예 ?

그건 어떻 행 하는 거마씨 ?

그렇게도 그 물을 없어 못 짚어 .

그 식으로다가 헤벤은 보리를 같고 .

두불 . 조팟디 어떤 검질 나마씨 ?

오래민 아프당 좋주 , 어떻 허여 ? 귀막으렌 안헌 사름은 어떻 안 헤여 것도 수주에 귀막으렌 해야 막주 . 경 안허민이 나이가 만허영 그때가 뛰민 귀막는 건 훌 수 엇고 . 젊은 때사 귀도 막으렌 해사 막주 .

거 이제도 맛 좋읍니다게 . 이제도 맛 좋아 . 그거 이제도 흐민 맛 좋아 . 눔삐 막 맛 좋은 것 흐영 넓게 후 넙죽넙죽 썰어그네 얼른 소곰 햇당 양념 버무령 담아두민 이제도 막 맛 좋아마씀 .

아니 , 나 곤건 들읍서 . 쉐걸름은 뜯통더레 담양 도새기 똥 막 싸고 흐꼽 도새기 물 골르민 그 물 적정 바까터레 내청 이젠 씨 삐영 쉐로 사람으로 혜영 막 불황 .

깍도 곱게 나곡 절 .

게난 씨만 뿌리는 게 웹시 ?

응 인절미는 ? 아까 인절미엔 골암선개 .

담만 앗다놓민 돌차귀로 다주게 .

기신세 영 무경 가근에 이제 영 들러근에 ㄱ메기를 잡았주마는 이젠 이디 안경 이선게게 . 그런 거 쟁 강들 잡암주게 .

콩은 꺼끈뎅 허여 또 .

아 , 하하하 . 아 , 살아있는 낭을 고치지 못하게 .

어 ,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의생활 . 즉 옷감을 만들고 , 그 옷감 만들어서 옷을 어떻게 만들고 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해 나가겠습니다예 .

갈웃 , 갈웃 멘들곡양 , 바지저고리 멘들곡 , 경 햇수다게 . 우리도 미녕으로 저 몸빼 맨들앙 감물 들영 입고 , 적삼 , 적삼 멘들앙 감물 들영 입고 , 경 핸 옛날은양 , 우리 검질 마흔 나썩 , 쉰 나썩 메엇수게 . 계속 그거 입으민 여름에 덥지도 안후곡 뜨도 영 잘잘 내리지 안 후곡 , 경 좋읍디다게 . 게난 그걸로만 옷행 입었수 게 그 미녕으로만 . 경후고 뜨로 막 바래어그네 곱닭후게 멘든 미녕은 곱게 적삼도 어디 웨출복으로 멘들앙 곱게 입엉 덩기곡 , 또 저 막 곱게 멘들앙 입엉 덩겼수다게 이 할으방덜 바지저고리도 곱닭후게 다련 미녕으로 멘들앙 입고 , 경 흡디다 . 게난 주루 일흘 때 입는 건 , 저 미녕마씀 , 미녕 . 저 바지저고리 멘들앙 , 갈웃 맨들앙 , 경 입어 경 행 흡디다게 .

듬북은 다 걸름으로만 씁니까 ?

아 , 막걸리하고 우유 .

겐 수박 열믄게 수월 넘영 오월덜광 유월덜엔 이젠 따명 풀아야주

요즘은 동네 사름도 다 줘 ?

게민 귀클 , 귀클은 이렇게 나와 .

그추룩 허멍 세상 우리 살아오는 과정은 .

아 , 맨 우에 똘 잇는 거 아니 ?

아 , 그럼 테로 낚시허러 나간마씨 ? 아니면 ?

응 글루 다아분 이 섯동네는 평지 뛰 엇어부렷주게 .

게난 쉐가 두 마리면 혼 서넉 짐은 미舛에 비여다가 재경 놔둬 . 게민 영 봄근에 출 어디 좋아서 라 허믄 늄의 뱃디도 가근에 도둑질 행 오는 거라 . 하하하 .

이문간식으로 들어오는 디 . 게민 쉐도 그디 강 쉐 메어 .

우리 마을은 저레 막 올라가야 이 사람 손으로 물을 파서 영 옴틀락<sup>후</sup>게 팡 그 물로 하주게 . 우리가 강 질어와 북으로 지어당 허벽에 .

똥을 문 싸져가는 거 , 겨난 그 우이 꺼 벌써 알아정 그런 거 골리영 옛날에 마보시라고 노 영 꽈근에 세로 영 그레 영 찔렁 영영영영영영 헤가민 짹하게 이추룩 누에 영 거시기 해여지게 마보시로 혼 것에 좀박에 놓 튼틀하게시리 팡 이디 저 칭기칭기하게 헨에 , 그디 줋어 놓 영영 행 나 두민 이 세에 저 세에 문 허명 영 서껑 집을 짓주게 .

이런 건 만들지 아녀고게 멩지 , 옛날엔 대개 씨좁 갈 땐 멩지이불 행 가주게

그런 건 아닌디 영장밧에 강 오지 마라 . 안 뛰주게 . 게고 바닷물이 쌀 때 하지 말양 들 때 허라고 헷주게 .

뭐 , 뭐 하지 마라고마씨 ?

아니 , 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 .

아 , 알아집니까 ? 그러면 몸 궂인 때는 하지 말렌 하고 . 또 하지 말렌 하는 건 잇어마씨 ?

구르마도 다 멘들어낫는디 무신 .

응 , 거 서꺼야 . 밀<sup>ㄱ</sup>루고 모물<sup>ㄱ</sup>루고 호박입국엔 놔야 .

요렇게 바농질 하는 거를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는 무신 바농질 ? 끝에 풀리지 말게 하는 거 ?

까망히연 . 아마 감아진 게 웬쪽으로 감아진 거 같아 .

예 . 그걸 뭐렌 힙니까 ?

바위에 토닥토닥토닥하게시리 양철 닳은 거로 만들어진 거 그걸로 해근에 아까<sup>ㄱ</sup>치 영 영 영 떠내영 .

게민 방에에 놓 그걸 영 영 막 헤사 영 방울로 떨어지지 안 하여 ?

미녕씰도 그것도 아메도 뽑아낸 거 닳수다 . 멘네 .

헌데 여기는 경을 안 허고 . 그 집에 강은에양 포수나 총 둘러멩 하는 놈이나 그디 팽과리 대양치는 놈이나 .

무꺼당 눌엇당 쉐 주곡 .

게니까 옛날 여기 그 뜻다리식으로 만든 건 그것이 더 이쁘긴 헌데 거 곱게 만들민 상당이 예뻐 . 옛날식으로 . 지금 시장으로 파는 그 비차락을 이제 일본서 전수 받안 완에 이제 그 씨를 다시 제주도 일원에 .

우리가 가면은 그냥 그 차반지데로 다 가져간 거 네 놔근에 . 그 드르 판에 딱 아래 자리 꼴아근에 다해여근에 .

토목은 그것 거세기 아년 걸 토목이엔 험실 거라 .

옛날엔 못이 힘들었으니까 못을 잘 안 셋주게 .

술찌게 만들어서 고기로 판다는 거지예 ?

게난 그 서른 가호 사름덜이 , 나 그럭저럭 해 가니까 경허난 이제 또 열시 설 , 열네 설엔 문훈을 온 거라 . 중매 . 이제 거트민 .

기축 허영 허곡 . 또시로 저 무시거니 ? 그 늘레네 나는 것?라 무시거엔 혼다마는 .

그럼 그 줄은 그냥 낚싯줄이라고 헤마씨 ?

밥해영 그자 올렷당 , 과일 그튼 거 술해고 감주 우런 거 햇다근에 제 지날라는 거주 . 원 꼭 그튼 거 .

먹지 못해 . 석 둘 동안은 무시거 먹지 못해 .

아니 , 원 안 허진 안 헌디 , 게난 어머니가 저걸 허젠 허민 , 우리도 비오면 멩지실을 감아사주 . 게도 나도 멩지 많이 차나서 . 비 오민 어디 놀래 가보젠 허민 아이고 큰년 오늘 멩지 차라 , 오늘 멩지 차사켜 . 게민 멩지 경 좀질아도이 우리 어머닌 스무자를 후루 차는데 나는 스무자는 못 차고 혼 열일곱 자쯤 차져 .

게난 뛰지고기 실컷 먹곡 수박 실컷 먹으민 .

으 , 맛엇넨 헹 안 씻어 .

예 , 쓰긴 쓰는 거예 . 경행 . 누룩 만들어시난 아까 오메기술도 누룩 놓 만들고

예 . 그거 후고 . 또 도세깃국 .

그럼 보리밥에 대해 좀 얘기해 줍서 .

이제사 거 새로 나온 건디 . 오래 헷주게 . 게도 .

아 , 떡국을 먼저 행 .

그늘 친 낭 아래 , 땃시 집지슬 그뜬 디 . 경 후여그네 굽에 무신 넙작흔 돌 하나 놔그네 , 그 우터레 , 그 우터레 짐치망데기 놔그네 , 저 거세기 그 우의 조직 후여그네 딱 놔그네 , 돌 딱 지들쾅 , 그 낭 그늘에 , 집지슬엘 노나 , 낭 강알엘 노나 뒤 , 뒤에 , 뒤에 후여튼 그 뒤터레 놔 . 뒤터레 강 지들쾅놨다그네 익으민 익을 때마다 영 후여그네 돌 영 들르곡 , 거 들르곡 후여그네 혼 펄기 아사놔그네 썰엉 먹곡 썰엉 먹곡 경 햇주게 .

아 , 먹을 때 .

도망가지 못하게 . 심술궂엉 도망 잘 가는 소나 만나면은 똥 싸주게 울멍  
콩 텩구리도 주고 허면서 가울리면서 줘야 입맛이 돋는다고 해가지고 .  
돈으로 따지민 요즘은 돈 얼만 안 가 .

예 , 바당 건 메역 .

게난 콩국 끌일 땐 누멀도 놓곡 ?

어저께도 강 햇수광 ? 아 , 기구나예 .

거 보는 사름 잇수게 ? 땅 보는 사름 .

주로 나는 거 잇잖아예 .

이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몰르민 .

그때는 뻔또가 엊어 가지고이 , 아레미 뻔또가 엊어 가지고이 .

소똥 ,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저 조 그튼 건 저 유월절 가까워야 하는데 , 하지 넘영하는데 산드는 하지 전에 하주 .

예 , 두 번째 메어서 돈돈 후주게 . 게난 저 저고리 골룸 메듯 후는 겁디다게 . 우리 여자덜 저고리 골룸 메듯 . 줄 매는 사름 빌어당 후곡 , 훌어멍은 .

거 뭐 일이십년 이내에 하는 거고 .

또 , 이거는 항상 입어 . 겨울에도 입고 , 여름에도 입고 .

예 . 쉐 멱이는 사람 .

그래서 거 밀어 부니깐이 이제 그거 어디 갓나 허믄 펭대 갓다가 펭대 갓다가 수삼사건에 폭동완 불질러 부니까 이젠 세화리 갓주게 . 원래 한동에 잇다가 .

어 , 녹대하고 이끄지 아녀도이 .

광목 미녕도 그자 풀혜영 경 두드려근뎅이 .

성주 내리는 건 어떻 행 하는 거꽈 ?

보신탕으로 보신용으로 먹는 거난게 .

저 서쪽 사름이나 동쪽 사름은 고지엔 허는디 .

경허민 사름덜 그거 풀례 텩기는 거 토목 .

조 컴질 멜 때 재미진 거는 그자 오늘 이 집의 강 메민 , 내일은 저 집의 돌아가명 열 집이고 ,

열다섯 집이고 쓰무 , 돈 징 훌 생각은 안 흐고 , 그냥 수눌엉 .

할머니당이꽈 ? 저도 찾아가 볼려고 하는데 .

예 . 저는 김기연 이고요 . 나이는 팔십 .

눔이라도양 영장밧디 간 보난 편씩 , 아무 것도 엇이난 막 섭섭흔 거란게 , 난 냉이라도 .

쓸 거령 와근엥에 이디 부엌더러 강 .

마지막 출발현 거 조천에서 출발현 거라예 ?

무루레에 아래 꺼는 이름은 모르크라 .

물 맥이지 아녀민 안 웨 거니까 . 물은 꼭 맥여야 웨난 . 게난 그것이 이제도 생각하민 생각하민 우습기도 하고 복통난 일이난에 .

후나 해영계 요멘썩 쿠여근에게 혼 점썩 요멘썩 요멘썩 , 막 오래주 고정이 웬도 .

네 개가 지역 이름으로 해서 무신 푸는체거멀이라고 흐는 것은 푸는체 .

틀도 이제 비는 거 .

꺼내 뒤근에 이제 장물은 쪼근 그릇더레 놓곡 그 메주도 이젠 도고리에서 찌어근에 , 그건 막 찌여 .

그자 경 소문 듣는 거주 .

머리 올려근에 경허면은 맹긴은 씨면이 이 귀를 내쳐야 웨덴이 .

옛날은 유주기 . 이젯말론 그게 들깨주만은 .

그렇게 해서 그 저 오래 그걸 해 가민 .

겐 뭐 저 그날은 뭐 이 막 아주 그 무신 먹을 걸 없언 밥일 못 먹을 정도 영 뭐허니까 .

옛날에 솔레기도 하영 안 낫주게 . 풍선 해근에 그 돗 돌아근에 솔레 기란 그거는 기픈 바당에만 하기 때문에 완전 멀리 가사 솔레기를 잡앙 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기예보도 엇고 무시것도 엇이난 갓당 태풍 불엉 배 사람 죽어근에 배도 흔적 없고 사람도 흔적 엊일 때가 천지만지고 .

연 방장햇젠헌 헌주게 . 연 방장 . 연 뛰다근에 낭에나 어디 걸리민 아이고 연 방장햇젠헌 영 곤나 . 낭에 걸리나 헌 거 .

게믄 얘기가 태어나서 일 년이 웨민 지금은 뭐 돌잔치 막 영 하는디 옛날은 뭐엔 골아난마씨 ?

게난 이렌 아방은 저 문전이고 어명은 조왕이니까 아방 먹어난 음식을 우로 걷엉은에 , 이 젠 그 디 강 올렷당 다시 문딱 제 지내나민 이제 .

이디 멍에 씨왕 이 한줄에 멍에 매와 가지고 , 쉬 멍에 .

어떻 경 웃드르에 꺼끄레 잘 안 가 .

그 묘종 놀 때 , 그 묘종 만들 때 예 ?

성 싼 후이는 집이 , 집에 잣지만은 남자덜은 다 성곽에 가야 뛰여 .

예 , 지금도 . 그 물은 엇일 땐 엊주 .

그듸 멜 그날 그 후리 헌 거 . 그날 잡은 거를 . 간사람 수정에 이제 그 그릇으로 해영 . 올케 춤  
요센 말로 무신 소쿠리나 .

몇 년씩 오래민 저 허는 거 .

막 줄 벌영 가멍 허는 거 .

그때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닌 같이 살안마씨 ?

아이 , 건 조 헤근에가 아이덜마다 .

언니 하나 잇는디 그때 일본 간 어디 간 철이 몰라 . 일본 가 불언 .

매 집이 엊엇주기 . 부제칩이나 그렇게 허엿주 .

단추는 언제부터 생겨신디 생각 안남수과 ?

수태에 아무것도 엊인 사름들 먹엇주 . 헤벤 부제 사름들 그런 거 안 먹엇수다

안하고예 ? 가축 잇인 사름은예 .

?. 물방에도 션 . 그거 쉬 해영 둉글이멍 이제 그레 놓 이제 물방에로 방에 청 .

소금 쪼끔 해야만 놈빼가 그거 무시거 물을 좀 빠져벼야 그 김치 맛이 나주 . 경 아녀민 무 맛으  
로만은 무가 좋은 건 맛이 좋아도 궂인 건 맛이 엊어게 .

음 , 손자귀 특특 . 손자귀렌 허고 . 벌써 봅서 . 자귀도 세 개가 나와신게 예

무꺼 두는 거 뭐 또 하나 잇지 안해마씨 ? 무꺼 두는 거 엊어 ?

적삼 이만이 헌 거 허영 .

고적도예 , 초창기에는 수삼사건 전에 풍습을 따라가지고 , 이 저 메밀로 만든 돌레떡이엔 혼 거 ,  
이만씩 혼 돌레떡이엔 그 햟어 .

팔월 추석에 특별하게 송편은 팔월에 해 ?

수의 . 돌아가셨을 때 .

단오에도 오월은 단오 맹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즐겼주게 , 단오히 고 맹질을 .

하이튼 이 날 중에 젤 수일허곡 그 무시거 .

정그레에 성제가 아장 골양 .

몰총으로예 . 그럼 갓 , 갓 ?

몰라 , 저 서쪽으로는 어떻 헤신디 .

그거 햇고 . 톳 냉국은 어떻 만듭니까 ?

백로 , 상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아니 저 삼대 제지내나민 더 우엣 하르방은 집이서 제 안 힙니까 ?

그레 이런 풀이 없으니까 밥풀 . 밥풀 막 끈적거려근에 밥풀로 부쳐근에 .

아니 , 그런 거 엇입니다 . 장담을 때 그런 거 엇고 , 해치 , 우리 집이민 둑해치

콩짚은 어떻 저기 활용하는고예 ? 콩짚 .

으 , 고젱이 중의 , 고장 . 이젠 고젱이엔 골아도 고장중의 , 고장중의 혜연 .

원 아팡 한 때도 굿 해도 좋지 안 허난게 .

영영 논 낭은 머옌 후여 ?

어 , 사름이니까 웃음 .

도새기 질루민 그거 밥을 줘사주게 . 그거 해 황에 구진물 담아 놓고 그 채 비와 농곡 행 퍼줘야  
도새기 살 거 아냐 ? 후루 삼시 줘사 , 것도 .

겨난 신구간이 신관 구관이 그 사이에이 그때는 아무런 탈이 엇기 때문에 신구간에 이사를 가 불  
자 .

게민 그걸 일 년 놔두면 자연히 뛰는 거주게 .

아 , 쫌쓸로 헌 게 .

요즘은 혼웃어 . 짖을 때 해부는 사름도 잇는데 .

아이 남주도 허주 곱을락 .

가린석 . 가린석은 양쪽에 잇는 거우과 ?

그다음에 떡살로 이렇게 본으로 헤근에 동그랑허게 헌 하얀 떡 .

응 . 콩도 삐여 그냥 .

큰 건 큰대로 족은 거는 족은 거대로 . 또 색깔은 흰 건 흰 거 또 검은 건 검은 거 옷 옷에 따라 가지고 .

그 양반들은 왜 죽엄느냐고 골아집니다 .

고무줄 ? 삼촌네도 고무줄 헌 ? 무슨 노래 부릅니까 ? 고무줄은 .

오분재기 , 전복 , 구쟁기 그거주게 .

으음 . 게도 이제 산듸 헐 때는 아까 이제 그 보리 불릴 , 아니 저 조 불릴 때처럼 맛잇는 밥해 먹고 영 힙니까 ?

요 조팟?치 그추룩 힘드리질 아녀주 .

추석 끝나근에예 . 추석 지나근에 .

범벽은 그게 전부 ? 그은 그 범벽 만들 때 뭐 , 뭐 필요해마씨 ? 범벽 만들 때 ?

저 값어치가 아주 중요한 것덜이 잊어십주 .

아이고 , 검은 조도 싫고 거무룽한 거 더 맛심나 . 것도 싫고 .

삼베에 삼 , 삼 .

불에 구민 딱딱해 가지고서 거 구슬거치 뛰주게 . 그게 다마 , 다마는 그 일본 말로 동그란 걸 다 마엔 허는 거주 . 그거 헌 저디 이디 영 쪼그만허게 훔파 가지고서이 .

개발시리는 이제 훌러온 , 이제도 왈실 거우다 .

으 , 으 . 제청 길목에만 , 제사 지내는 장소 길목 .

경 헷 , 경 헷주 .

말 들으민 들인 디 버리라 . 그 말을 옮기지 마라고 .

멍에의 부분 명칭에 대행 말씀해주십서 .

그 전이는 장 담아낫주 . 요즘은 장 안 담아부난 장물 사당 .

원담 이름 뭐 잇수과 ?

세 채 . 막 부잣집은 뭐 네 채도 짓어 그 .

그디 허곡 저 아니 새로 아니 어디냐 . 저 태범이네 집 .

긴줄이 서른다섯 개민 상당히 큰 집이우다 .

보라색으로 혼 게 갓김치 .

곤밥 , 제사 때 곤밥 이 산디쌀로 해 먹습니까 ?

게 , 나두문 좋은 게 아니라 , 설사 낫을 때 뭐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계속 설사 나면 안 돼지 않으 카마씸 ? 게도 뭔가 하지 안해시카마씨예 ?

그다음엔 약궤엔 헌 게 잇저 . 약궤 .

벽장 우이 놓 이녁 밥 먹을 때마다 국 , 잘 행 먹어진 땐 잘 놓곡 못행 먹을 땐 못행 놓고 . 국하고 장 , 국하고 밥만 거려논 때도 잇고 경허영 , 그것이 상식

옛날은 줌수덜 허민 빗창해근에 속곳 입을 때난 . 옛날은 속곳 ㅎ나만 입으민 속곳 해근에 영 접 앙 이녁냥으로 맹글앙 입으민 영 곰 둘민 빗창 차곡 해신디 , 이젠 빗창을 손에 걸렁 지릉지릉 끂고 , 망사리도 강 바당에게 다 띠와근에 물질 헌덴 헨계 . 옛날은 경 안 해나신디 .

그럼 옛날 그 물질 허는 거랑 지금 물질 허는 거랑 뭐가 좀 많이 달라마씨 ? 비교하면 할머니 .

좋아 . 여기 동생 밧이 하나 이서 .

엿날에 우리는 귀국은 못해 먹어봐신디 .

이 도야지 잡안후지 아넷수과 ? 도야지 잡양 ㅎ민 그 놓는 그릇도 그대로 새로 멘들앙 해난 거 닮아 .

그 경 ㅎ여그네 이제 사삼사건 나난에 그 아까 무릇 그 삼밧동 , 무등이왓 .

아 , 맹질 때도 신구간 든 때도 셔 ?

음 ,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기둥 세우면은 담 싸놓은 데만큼 흑질을 해근엥에

쉐 , 말 진드기 다 태왕 죽여 불곡 .

장들 보관하는 디 , 아니 항아리들 .

팔월 추석 때는 추석 때는 씨름 .

술오리 엇이민 맥주보리도 ㅎ곡게 . 걸보리 안 ㅎ여도 맥주보린 ㅎ고 .

지칫돌게 처음 무싱거 집 짓을 땐 네 개 해근에 , 지둥 네 개 세울 거 아니꽝 경 해근에 ㄸ로 ㄸ로 , 다음은 건 네 개 , 다음은 지칫돌 아무거나 훠는 냥 멘드라근에 세웁니다개 . 경 지칫돌 생 각후민 .

예 , 물도 쓰고 쉐도 쓰고 .

이디 모저 , 모저 허영 .

게메 , 그런 걸로 창은 안 불랏주 .

일로 와서 들어와서 굴뚝 짓고 .

것보리 . 것보리엔 허곡 줄보리엔도 허곡 두 가지주게 .

한 번만 해 봅서 .

예 , 누룩을 맥주보리로 주루 햇수다 . 맥주보리 골양 .

일본에 갔다 오건디 혼 두 어번 갔다오랏주 . 년 살았지 . 공장도 아니고 첨 , 그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허레 나가 나서 . 샛아버지가 거기 일본에 사니까 그저 공부허기 전이 어디 좀 뎅 길라고 . 그디 수준 성님이 일본에 살아낫주 그 아방 즐음에 사니까 간 보니까 배 해가지고 바당에 짐 실려 뎅기고 이서게 . 해서 . 그 배에 , 이년 허다가 일본 망해 가지고 무시거 헐 때 총 맞 아지카부덴 경 행 이디 오라부렷지 .

아 , 경햇구나예 . 그며는 이제 보리는 후끔 이제 싹 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뛰면 보리를 밟아야 뛰잖아예 ? 보리 밟기는 누가 어떻 언제쯤 밟앗수과

보리 다음 , 감저 다음에 이제 유체는 뭐 깜짝하게 .

만들기는 허여도 난 안 허곡 먹기만 헷낫주게 .

으 후당 혼번 이쪽에서 저짝꼬지 . 꼬꼬지 비여가민 그다음은 낫을 골아야 뛰 .

응 , 시월둘 뛰민 다 조도 비곡 산뒤도 비곡 시월둘 나민 옛날은 바빠 .

오리발 신영 아지고 . 경허난 오래 바당에만 사는 거 . 고디 강 베랑 놀지 안허영 그자 일허당도 빠정 물건 행 풀고 .

아 , 조팝은 경 만드는 것과 ?

아 .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거마씨 ?

고급이고 , 계난 어실 때 가난행 어신 사람덜은 ?

여름 내낭 검질 메믄 이때 뛰면은 쪼끔 . 이때 뛰면은 해양케 그게 피면은 강 요렇게 뽑아 오고 내중에 또 둘린 거는 다음에 가근에 뽑아 오곡 경허멍 .

또 모물꼬루행 빙떡도 지정 먹고 .

경 혜난 . 이제도 그거 .

예 . 씨로 혜근에 묻는 거난에 .

거 거죽 벗경 , 초불 .

그 떼도 공동으로 훌 떼주게 .

아 기구나 . 게믄 신혼 , 결혼행 신혼살림은 어디서 햇수과 ?

아 . 이빨 속으로 그냥 놔 .

거문 여기는 그래도 산에서 . 그 수산사람덜이 여기 많이 피난 와신가마씨 ? 그때 .

건 어떤 식으로 담습니까 ?

아이고 , 그때 얼마 줘서게 ? 돈이게 .

응 . 영 꺼꺼놔근에 영해근에 영 주어낳 데싸부난에 엇곡 . 상제 두건은 영 바끗딜로 행 주어근에 이 실밥을 오그리질 안허영 영 과짝 . 노다쌍 , 이디 주어낳 확하게 노다싸근에 이 실밥 꺼끄지 안허영 꼬짝 사게 .

아 , 사삼사건 성읍리 일차 습격은 열다섯에 들곡 .

아니 , 거 말고 . 동지 산 거 . 배치 동 산 거 .

거 아무 집이나 엇수과 ?

다데 ? 다덴 엇어 ?

겐디 옛날에는 경 멜첫해난 그 국물로도 헤나서예 .

모풀 국시를 아침 세백이 하는 거라 . 국시해여 .

그 찹동 안 앗양 가민 그 제사가 안 뛰는 거 .

옛날은 집이 가정오민 그거 무신거 하는 거꽈 ?

으음 . 놈빼는 깍데기보다는 뚜껍게 헌 게 맛 좋아예 ?

술양 것 하영 먹연 .

보지 말렌 . 나빠온에이 그 사람 보민 이제 본 사람도 나쁘고 . 멧 술 보지 말라 , 멧 술 보지 말라 혔다덜 . 그 영 아는 사름 혜사게 그거 흐… 아는 사람 봄사 거 멧 술 보지 말라 , 멧 술 보지 말라 혔다게 . 멧 술 보민 거 나쁜데 그 사람마다 보지 아니 아니 본덴은 안 하고 . 멧 술 난 사람 보지 말라 . 보지 말라는 혜낫저게 . 이젠 무신 그거 보고 , 저거 보고 햄샤 ?

장팡 두이도 흐곡 마릇 두이도 흐곡 .

경허민 너패국이 뛰는 거 ?

널 , 마리 , 마리 놀 때 그 널이 라든가 부섭은 어디다 설치하고 마리는 어떤 걸 어떻 헷수과 ?

몰라 , 난 도롱이엔 혼 말은 안 들어봐서 .

거 자식더레 대흐여그네 혼 번 말해봅서 .

고망 뜰랑 혼 건 산에 제 홀 때만 쓰주 . 소랑현 것만 식게 때 흡니다게 .

똑똑 끊으멍 영 영영 쥐어 놔야 뛰여 .

난 우리 큰뜰 스물일곱 뛰사 나난게 .

곤сал 싯곡 , 보리сал 싯곡 , 좁쌀 싯곡 .

그럼 속담이나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거 들은 거 잇수광 그러니까 제사 때 뭐 허지 마라 그런 거마씨 . 그러니까 임신하면 뭐 먹지 마라 하잖아예 ?

흔 접시헨 흐고 술 흔 잔씩 행 데접허곡 경 허주게 . 형 해근에 웬당딜 모여근에 .

끄트머리가 두 개로 영 거려 .

그럼 뿔 모양에 따라서 소 종류 몰라마씨 ?

으 , 알아수다 .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께예 . 이런 식으로 허는데 보통 옛날에 우리 주춧돌은 우리 돌예 ? 현무암 .

게 이름만 잊었주게 . 이름만 .

계난예 , 아 . 그 뜻할망은 무신거 해준다 이런 거 엇어 ?

이 땅 버는 세금 , 세금 . 겐 그게 선물세라는 건 그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걸 뭐 선불로 받아다가 선불로 받아간다고 해가지고 저 선물세라고 했는지 몰라 . 것도 나도 그 뜻은 지세히 모르겠는디 그 해근에 그거 바찌나서마씀 .

어 , 그자 기자 멧돌 ? 레엔 헣다 .

망사리 만들었던 거라 . 게민 그거 좀 굽으게 .

아까 할머니가 도와줘부난 . 다른 할머니는 다음에 왕 허고마씨 .

아까 국죽은 하는 거 어떻하는 건지 골아줍서 .

일본 간 무신거 해낫어 ?

기자 이디 사름이 문 받는 사름이 받아근에 아저가주게 . 제국시대엔 경 안핸디 , 이젠 막 경햄 저 .

안에 놓는 거 . 참 , 그거 설탕도 놓고 뜬도 놓곡 , 거뿐인게 .

아 , 그걸 쓰는 거라 ?

약궤는이 그 저 밀쿄루 해 가지고서이 .

흔 번 더 해봅서 .

왕대로 ? 으 , 거왕 . 그 줄 지붕 일젠 해도 사람 빌어사지 안합니까 ?

먹통은 하르방이 알지 , 나 알아 ?

할미엔 후네양 , 여기선 .

아까 물떡은 무신 걸로 멘드는 거라 ?

보리сол로 밥행 먹어낫잖아예 ? 경혈 때 이제 보리сол에 주로 뭐 서꺼근에 밥 헤먹엇수과 ?

여기는 바닷가에 바위가 잇어도 바닷가 아닌 디 바위 별로 엇어 .

일풋제 저녁에 다섯 시 훠가문 일풋제 지내어 .

고물이엥은 안 후여 . 게민 침떡은 뉴삐채로 썰엉 , 무채로 썰엉 서깽도 , 조침떡 쳐 .

이건 스납쁘 허는 거 , 건 일본말 .

예 , 갓다 왔다는 얘길 들어난마씨 . 아이덜은 어떻 템수과 ? 자제분은 ?

골아 가지고는 담양 집이 왕 물리왕 . 채 빼 퉁 그냥 두 불 골아오나 거피나

그럼 , 그 고산에는 그 기관은 뭐 , 뭐가 잇어마씨 ? 뭐 , 리사무소 리사무소는 몇 개 잇우광 ? 두 개 잇우광 ?

그 수리계 이름은 뭐우꽈 ?

모멸컬름 논덴 허주게 . 모멸컬름 논덴 .

건 도야지 젖주 , 주로 .

이젠 동더렌 따로 허여 .

각단은 줄 허는 거 .

여러 가지 다 골아 줍서 .

예 . 그것 좀 골아 줍서 .

우린 담은 거 먹어 .

눌 트멍에 우린 곱져보진 아년 . 옛날에 제국시대에 눌 트멍에 무신 쓸도 곱젓저 무시거 헤낫주 . 우린 경은 안해반 . 그 제국시대렌 우린 살림 안 사난 .

아니 놔낫어 . 수제빈 경베핀 안 훠 , 이건 . 아기 난 어명이나 우리 아기 난 때도 시어명네가 그냥 수제비 퉁안 허고 메역도 그냥 썰지도 안행 지랑지랑 허게 허영 거 방서로산디사 허영 헷주 .

콩은 이 여름농사는 다 그 장마 가운데 , 장마중심에 콩을 주로 갑니다 . 유월 , 양력으로 하민 요지금 유월이십오일경에 보통 콩 농사가 적격이 훠어 .

그런 건 촌엔 안헙니다게 . 어디 것도 상인덜 , 장수덜 푸는 사름 허는 거주 그자 개인 사름은 안 헷수다게 .

그건 후끔 꺼무고 지세 .

아 , 아버지가 아니고 ?

모시 정뱅일 입영 , 고성장 말양 성산장에 가정 후민 . 그건 영 앞인 남주 어룬덜 영 꼬부령 영 .

안 해 먹어 봐마씨 ?

그추룩 허고 이건 벳하고 보섭 . 경행 하는 거주 . 경히고 또로 쉐 명에는 .

이불 그땐 그 이불 곁은 거 , 궤 곁은 거 , 전부 그쳐오주기 .

하하 . 이제 성복제 끝낫수다 . 성복제 끝나면 그 다음 뭐 할 거 ?

요렇게 좁주기게 , 미녕이 . 겐 옛새미녕이엔 허문 이렇게 넙주기게 . 것그란 옛새미녕이엔 허는 거 .

갈근도 , 갈근도 그거 , 갈근은 칙뿔리를 말하는 것이고 .

아 , 일본 강 엇어낫수과 ?

응 . 뜻 숨메 놓았저 , 콩 놓았저 .

흔 열 멧 설에 .

아 , 이불 만들어근엥 ?

옛날은 멜 들엉 서너 말썩 댓 말썩 거려도 이젠 멜 안 듣덴 힘디다 .

요새도 팔월이 곡석 익지 안 해여 .

고기국도 안 허여 . 얘기가 경 혈 때 제서가 당하면 .

둘비 헤 먹는 콩은 매주하는 거나 비싯하고 .

그거 흔 오록년 해서 .

무물은 걸 께 안 만들엉은 방법이 없주 .

고дет흑 허잖우꽈 ? 고디 허는 거 ?

꼴레이불이엔 행 옛날은 천을 헤 가지고 막 누벼 .

그럼 십일월에 와가지고는 이제 동짓날이 이신디예 ? 동짓날은 어떻행 지넷수과 숨메를 징징이 이런 흔 도리 놓면은 또 놋 강 또 숨메 놓 놓곡 놓곡 허민 떡을 비어가면은 톡톡 테져 .

산드는 많이 못 헷어 .

게난 양웨를 하영 먹엇겠네 , 예전에는 예 ? 아아 .

경헌디 훈번은 흑설탕 난 허난 맛엇어라 .

으 자리젓 헤근에 또 밥 뿔어가민 밥솟듸 놀근에 영 뭐행 먹고 .

걸름이 어디 경 시 . 콩밧에 갈당 . 콩은 그냥 갈아 .

따비란 건 저 보지 안해실 거라 . 사람이 사람으로 이거 거 따비 잇고 거 뭐인가 쬐 고지 두 개 메와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거 둘리가 훈 조로 해 가지고서 거 테왓밧 잇잔하여 ?

묻어도 그디 더우에 물라불민 푸푸푸푸 할망덜 영혜영 종이로라도 상삐로라도 씰어불민 벗어져 . 깨끗인 안 벗어도 . 그것이 경행 먹어 .

너무 큰 건 가시가 세고 .

응 . 근데 우리 고조부님 .

아 , 옛날 옛날에 우리 낚을 땐 이 영 선비 네왓저 . 영 선비 , 영 선비라고 봉돌 요디 가운데 큰 거 놓고 영 혜영은에 선비 멘들양 , 이디 행 이것에 낚시 양갈래에 돌아메영 바당에 강 드리청 궤기 낚으고 해나서 .

그냥 불휘채 씻엉 흰죽에 씽근엉 뜨뜻이 먹어근엉 뜸 나오멍 경 허영 구완헨 .

게민 그때는 친척들만 모영 밥행 먹는 거 ?

예 저을 이제 바지저고리 행 . 입는 거 흐고 .

밧은 어떻 만들아 ? 네 개로 허여 ?

아 , 바로 가실템지 . 바로 갓주게 . 바로 물탄 , 물 탕 .

맛 좋아도 그건 아주 퀘퀘묵은 때에 우리보단 앞 시대에이 .

그 다음 양씨 . 고씨 . 마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템서양 .

우리 뭐 한 어렷을 때 우리 뭐 한 , 한 삼십대까지도 .

떡 놓 , 또 징 놓 , 우에 또 떡 놓 이층으로 ?

게난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어나니까 .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안나 . 어떻 허면 그냥 밥이나 배불리 먹고 . 지금은 밥을 먹는거 말양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, 어떻 허면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지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헐고 .

이 , 이 , 이 , 줄기 .

칠성 ? 그럼 아까 토신도 모셔나고 .

양쪽으로 영해근에 영 차고 영 차고 .

그거 다시 한 번 간단히 골아 줍서 . 팽이치기 할 때 팽이채는 어떻 준비헨마씨  
동세도 잇곡 헤가믄 막 하믄 다 못 만들어 .

그 다음에 옆에 또 무끄젠 허면은 ?

옷 멘드는 것이 아니고 , 그거 베로 ㅎ여그네 저 쉐 ㄱ뜬 거 무신거 짐 시끌 때에 , 곡석 행 시끌  
때에 그걸로 행에 영 질기는 거게 , 동기명 딱 ㅎ게시리 얹는 배 , 얹는 배 , 얹는 밸 ㅎ는 거주  
게 , 얹는 배 . 게민 막 질기는 따문에 그초록 혼 배는 최고로 좋은 거 , 삼으로 혼 배 .

불 . 불 숨곡 .

뭐 , 뭐 올라올 때만 ?

좀질게 허젠 허믄 그치룩 하는 거 .

고팡에는 밑에는 그냥 그 저기 머만 .

감태 같은 거 듬북 같은 거 다 개인이 허여 .

저 영장 날 때 담지 말렌 하고 . 사람 죽으면 영장 난 때 비린다고 장 담지 못허게 허곡 .

아 , 멜첫도 하고 . 멜첫도 혜영 먹고 .

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어야만 저희들이 , 웨냐면 소라영 이렇게 하면 기왕이면은 녹화郁闷고 녹  
음郁闷 거는 사실 이거 다 기록으로 남길 거거든마씨 . 경 헤부난예 기왕이면 저가 글을 쓰는 거  
하고 .

경 ㅎ고 나도 저 멘네 갈아봤수다 . 멘네 갈아네 두 해 갈아네 뚤덜 두개 시집보내고 남은 거 사  
단 햇수다만은 , 밧듸양 , 멘네도 막 밧 골립니다 . 좋은 밧 아니면 아이 뛰여 .

아 , 먹통으로마씨 ? 그럼 먹 , 먹통에다가 먹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.

보리찍이엔 허주 , 보리찍 .

아 , 물들은 어떤 물들이 잇수가 ?

풍체 지붕 , 집 어염에 풍체 ? 거는 누람지 모냥으로 여깡 .

그때 우리 같이 강 물어보게예 ?

말타기 종류는 들어보신 거 잇어마씨 ?

게민 걷어불기 전에 새로 이를 땐 이신지붕에다가 또 올리고 .

게난 밧 갈아그네 씨 부려그네 섬비 꼬습니까 ? 아니면 .

게난 입추 , 게난 처서 전에 처서 삼사일 전에 메밀 파종하는 시기 .

잔 종지 , 술 마시는 ?

그냥 좀호미라고 헤여 . 낫 .

한발차기나 양발차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거꽈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핸마씨 ?

그런 것덜 하영게 허곡 다른 것도 허곡게 .

수춘 시아주방네 안거리 살고 할머닌 모커리에 살고 . 밧거린 엇어 ?

그냥 저 조갱이만 이렇게 불어 잇는 게 잇고 . 그게 암캐라 말이여 .

그다음엔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과 ?

지름갱이 잇고 , 세 가지라 .

고동이엔 현 거 구챙기이 .

야 , 게난 장물이 간장 . 장물을 또 솜습니다 .

엿날에 저 칠월 칠석에는 임금님 걸어 간 날이엔 행 꼭 그날에 비 혼방울이라도 혼덴 옛날에 곳 는 거 들언 .

줄자도 잇주 . 줄자 .

응 . 또 이제 떡도 신가지 제물로 출려 지는냥 . 떡도 허여지민 허여도 못 허여 . 매번 못 허여 .

일주일만 지나면은 . 그게 누가 논건 지 번연히 알아집니다 .

멘네를 막 벳디 널영 물류왕 , 이거 영현 거 닮아도 여기가 틈 낭 이거 쌀이 두 개라 이거 .

아이 , 그런 거 엇어 .

이제 무신 복막염 것도 빙이라게 . 복막염사 빙이라게 . 죽어부난에 이젠 우리 오래빈 아옵 술이 주게 . 오래빈 아옵 술인디 , 아방 우리 친정아방은 , 우리 오래빈 유월 초엿셋날 나곡 , 우리 친정아방은 팔월 쓰무이틀날 죽어부난에 , 난 두 둘인가 석 둘만의 오꽃 아방 죽어부난에 그 오래비 둘앙 어명은 어떻 살거라게 . 경 살안 그 오래비가 그 오래비가 아옵 술 나난에 어명도 죽어분 거 아니 . 경 후멍 아옵 술에 죽어부난에 이젠 오래비도 이젠 나가 돌아당 살아야 훌 거 아니 .

것도 여름에 혼 팔월 달에 쯤 갈 거라 . 몰라 요세는 콩 가는 것도 막 시기도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.

트우민 거기 곰팡이가 생기는 거과 ?

함덕 살 때들 멘들어낫주 . 함덕 사름은 시방도 멘들아 .

겅허단 정미소 나난 이젠 그 물 서끈 보리도 정미소에서 지어단 물리와 가지고 그레에 검편 밥을  
헨 먹단 .

암호 , 우리가 암호를 받으레 가 .

그 다음에 그럼 그거 세 가지 잊어마씨 ?

애기 난 어멍안틔 주는 건 , 무신거 맥입니까 ?

게난 보리씨 뿌릴 때 보리씨를 언제 뿌렸수과 ? 보리씨 .

경현 천을 옛날에 뭐렌 골앗수과 ?

아 , 굿 제물 허는 사름은 아무나 안 허는 거 ?

이삼일 넘으민 벳겨뒹은에 안안팟 이신 거 입져 .

옛날은 무사 뜻 가는 집이사 뜻 갈아근에 .

어 . 둋걸름은 그거 족은 , 거 둋걸름 허는 뭐인가 멩텡이가 잇주 . 작은 거 작은 거 멩텡이렌 해  
가지고 잇어 .

반친 길이 막 저 문 높이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.

그런 말은 안 해 .

응 . 가마에 그 질메에 .

아 , 그디가 골방 . 젯상이영 .

다 숨언 ? 허멍 허는 아이가 가위 , 바위 , 보 , 촛이레 다니는 디 . 거 안해낫구나예 .

게난마씨게 . 것도 건 잘못된 거고 . 잘못뒈긴 잘못뗐주게 .

술아난 다음에게 그자 넷멩지엔 허주 . 눈 거 . 뉘여 , 뉘여 .

아 , 콩 . 그 뜨거운 콩가루로 .

여기는 가오리연 허고 둘연 .

아방 엊고게 흘어멍에 아들이렌 괜당이나 누게 팔세만 준 거주게 .

게난 놈의 집의 강 쓸 웃이민 놈의 집의 강 흐르 검질메여사 쓸이 관뒈로 하나 . 관뒈 뛰싱 혼  
뒈 .

비와가지고 이제 탁 더퍼 . 더퍼가지고 이렇게 혜영이 영 게미를 멘들아내는 거라 .

응 , 엇이민 엇인 대로 하고 . 감저골을 영 쳐 , 영 치민 . 감저골 유월절 전이  
옷을 만들어지는 양 여러 개를 입어 .

몇 살까지 ? 시집오기 전까지 ?

건 엊고 , 구들에 막 화리 놀근에 숫불 살뢰근에 추왓주 .

음 , 또 솔입 걷젠 허면은 아정가는 게 뭐우과 ?

메는 게 더 하키여 .

그렇게 하고 밤에도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큰질이 아니라 . 큰질이엔 해도 쪼금 족은질이었는데  
윤에 이제 배수로가 영 잇고 해서 . 구루마 턱 채와가지고 밧 갈아뒹 구루마 턱 채와가지고 집이  
오랑 거기서 잠이 들어 . 짧은 때니까 , 쉐가 가질 안하는 거라 . 식 해가지고 이제 몰아서 쉐가  
식 허면은 움직해서도 또 그만이 사 . 보민 마당에 와 잇어 . 질 옆에 고랑착에 구루마 빠꾸 빠지  
는 법이 엊어 딱 중심으로만 펑소에는 으염으로 , 질 난 딜로 가는데 구루마 체운 다음은 안 다  
니는 뭣이라도 딱 양 바퀴 가는 거 봐가지고 윤이 담에나 고랑창이레 바퀴 빠지질 안허거든 . 딱  
정직하게 춤 , 그 소는 이제 춤 , 아까운 소 풀아부렷는데 늙언 .

아 , 미녕사 흐주마는 .

응 . 오대 하는 사름도 싯곡 그건 혼이 서 ? 요새에 수대에도 허곡 삼대에도 허곡 이대에도 허곡 .

몰쿠실낭하고 이제 종낭으로예 ? 아아 , 경하고 가죽신 멘드는 건 안 봐낫지예 예 건 안 봐봐실  
거고 ? 초신 .

거 다른 거 안 놓 그루나 놓고 .

흑 병뎅이사 들어신디 아메도 옛날은 두루 축축허게 햇어 .

그면 삼춘도 일하명 어디 다청 그거 막 그게 막 허물지고 해빛수과 ?

여름에 나는 검질이 그 쉘터력 .

상당히 좋았지 . 인심 , 옛날 인심 지금 백분의 일도 따라가질 못 흐여 옛날엔 이 사름이 굴며 죽  
어 가면 그 사름을 좀 살리전 했지만 , 이제는 그냥 너 죽어라 .

그자 사천 펑 이 정도 자기 그 , 그 옛날에는 출왓이 그것이 살림 . 살 림살이라 거기에서 그 출  
을 비여근에 불도 때곡 소도 주곡 . 게민 소 먹어난 그 앞에 거 이제 안아당 말류와근에 또 불  
때명 밥하곡 .

멩지는 멩지 헤근에 멩지는 이 광목하고 멩지보단 멩지는 풀을 뛰게 하주게

검질멜 때는 손으로만 멱니까 ? 조 검질은 ?

멀쩡한 나무 우리 긴력으로 못 허주게 .

뜸은 어떻 . 풍체 대신에 하는 거 ?

무운 저 물 나는 거난 .

교육감출신 , 그분은 안 돌아가셨수과 ?

경 허영 보리 같고 . 이 제주도에서 이 마을이 이등이라 . 제주도에서 일 강정 . 강정이 제일 땅 좋아 .

옛날 우리 보말 잡으렐 가나 바당에 물싸믄 뭐 잡으레 강 보믄 구쟁 이고 오분작이고 까먹은 겁 데기만 막 시메개 .

물라근에 험벽 드러 부청 이거 멘들어야주 . 이 모냥으로 멘들아야주 게 호았던지 감찼던지 .

물 탓당 털어지민 허리 상허영 들러키민 그냥 털어정 큰일 나주게 .

계난 허가해 줘서 감사합니다 . 그런 , 거 편지주게 . 편지고 그것이 계 약서라

메주 숨는 콩덜 허영 .

적이 두 가지가 있어 . 아 못적은 두부 놓 아무거라도 놓곡 두 가지라 .

거 , 맞다 . 쉐 질메도 나가 문 만들엉 네중에 혜낫는디도 문딱 이져부런 .

험벽 , 그 펭이채 두드리는 걸 . 경 행 노끈 , 노끈 모냥으로 저 꼳 것도 잇고 아니 깡 아이덜 . 아니 깡 건 푹삭푹삭<sup>후</sup>곡 , 깡 건 노끗으로 영 뱅뱅 몰아진 노끗으로 줄라메민 , 영 <sup>후</sup>영 팩 등그리민 잘 등글어 .

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?

송당서 날만이 지달이를 잡으레 다닌 사름도 엊일 거주만은 .

그찌 담앗당 , 그 메주 울어낭 장물이 뛰어사주게 . 울어나근에 장물 벌겅 <sup>후</sup>문 이젠 거리는 거라 .

흔 단씩 똑똑 빼면서예 .

무시거엔 골읍네까 ? 일름 ?

거 반지기엔 허긴 헌다 . 반지기엔 허는데 보리썰하고 족썰 서끈 건 반지기엔 안 하고 곤썰하고 보리썰 서껑 콩 서끈 건 반지기엔 헌다 .

물레 말고 그게 종자가 잇수다 .

으 , 만뒤떡하고이 . 그거 저 절편 , 솔편 . 절변 , 솔변 .

게민 여기 함덕 배추 , 함덕 배추 해서 오는데 반결구배추 .

겨민 우린 그걸 간식으로양 우리 빵이영 우유 먹듯 그거 두어 솟구락 먹엉 점심 때우고 .

안 헤낫지예 ? 경햇구나예 ?

한 발 차기 , 양 발 차기 그런 말 안 쓰고 ?

어디서 보초사단에 그 사름덜이 도망간 모양이여 .

아기 둘 . 뭐 , 뭐 전부 내 불언 집안에 그냥 .

우리 아버지는 오십팔 세에 돌아가고 , 우리 동생은 일흔셋에 돌아가고 , 이렇게 헤부니까 아덜은  
순일곱에 죽어 불고 , 큰아덜은 순일곱에 죽고 또 세 번째 놈은 순넷에 죽어 불고 .

그런 땐 복옷 엎어 . 당현 상제나 두건이나 손지털이나 두건 멧 개 행 쓰고 엎어 .

옛날은예 , 초가집에예 . 유지름은 무신 지름 ?

옛날엔 자주 먹엇수광 ? 빙떡 ?

예 , 경혜사 먹어지주게 . 겨고 식게 때 맹질 때 무신 떡이나 하젠 해야 받아 오주 . 경 안허민 .

게난 감는 거?"진 뱃는디 짜는 거는 안 봐 .

흔 물 , 두 물 .

서꺼근에 이제 툭툭툭툭 잡아놔 . 경 이디추룩 갈지 안 행 .

또 아덜도 이제 저 이제 어디 뎅기는 , 이제 훠직햇주기만은 저 , 저 어디 뎅기는 , 도청에 .

전분공장 헐 때?"진 헷는디 우리 저 서귀포?"지 , 서귀포 전분공장?"지 감저 실린 풀레 가와신디 .

물 맥영 오라 허민 물 맥여 오고 . 어디 가근엥 좀 여덟 살만 웨면 소 소를 맬것으니까 자식들한테 .

응 , 쉐도게 영 몸을 움직여사 새낄 날 거 아니가게 ? 경허난 영 빵 송애기 , 쉐가 새끼 남직 허민 쉐 클러 놔야 .

아 , 그런 생각도 아녜 .

씨 헐 거는 조코고리채 놔둡니까 ?

그냥 뭐 그 깨 같은 건 안 써 ?

가마기보말엔도 허곡 , 것?"라 허는 생이란게 .

그믄 제사 떡 잇잖아예 ?

지금 집이 요렇게 잇잖아요 .

으 , 그 저 거세기 관 짠 목수안테 .

음 , 아 , 지금도예 ? 예 .

쪼꼴락<sup>후</sup>지 안 <sup>후</sup>고 큰 것도 거 잇어 . 우의 더꺼지는 거 , 거 써 . 다듬 아불어사주게 이제도 큰 구제기 해도 그건 다듬아불어사 .

장팡뒤에 그 정지 바른 디 장팡뒤 헤여근에 저 거세기 돌 바통 , 장항 놓젠 <sup>후</sup>민 그디 돌 놋근에 저 자갈이라도 냇창에 강 해당 수두룩이 <sup>후</sup>영 , 동글락<sup>후</sup>게 <sup>후</sup>여근에 <sup>후</sup>곡 , 장항은 무싱거 들카부덴 풍선 , 저 소낭 , 지친 거 끈어당 노끈으 로 뻥 <sup>후</sup>게 돌아가명 여봅니다 . 그 무싱거 <sup>후</sup>쉬라도 장항 벌러불카부덴 , 그추룩 <sup>후</sup>영 요만이 혼 도<sup>후</sup>영 정지 무뚱으로 , 그 뒷문으로 장항 거리레 가게 , 그것이 장항 .

봐보지 안 하연 . 음 . 그럼 어렷을 때 참웨나 수박 서리 해보신 적 잇어마씨 ? 엇지예 ?

남저덜이 다 궤기 썰엉 굽곡 묵도 다 남저덜이 허곡 , 갯것궤기나 무시거 다 화리에 불 살쾡 남저덜이 다 헷주 , 여청 안 헷주 , 옛날에 .

이거이 궤에기민게 영 허영 요 정도 .

톨 잇잖아요 ? 톨 채취 할 때는 다른 거하고는 좀 , 톨 그거 할 때는 달랏잖아요 지금도 다릅니까 ?

문지방은 대문지방 , 정지지방 .

지금 , 지금은 그자 돈만 아껴가민 벌 게 다 잇수다 .

건지뿔도 비슷한 건데 . <sup>후</sup>꼼 자쳐진 거 . 뒤타례 자쳐진 거 .

물방에에서 지영 오면 온착 보리썰 .

뿔은 접박부리 , 건지뿔 . 또 아이고 , 앞더레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겠다 , 그건 .

이젠 세시 풍속에 관한 거 물어볼 건디 , 세시 풍속이 뭐냐 하면 정월덜에 뭐 헤나고 음력 이월덜엔 뭐 헤나고 그런 거 잇잖아요 ?

경해놓난게 이 집터나 뭐나 이거 전부 옛날 재산이라 .

잔치허기 전원 잔치<sup>후</sup>는 날 입어난 거 놓는 거고 , 수의는 이 손톱<sup>후</sup> 는 거 문딱 바지저고리영 다 죽은 옷을 멩지로 멘드는 사름 잇곡 , 사당 그때 죽으민 금방 ?져당 사당 입는 사름 , 이젠 수의 잘 맹글지 안 <sup>후</sup>여 . 문딱 그때사 , 죽으민 기자 강 좋은 거 <sup>후</sup>지 기루민 좋은 거 , 궂은 거 <sup>후</sup>지 기루민 궂은 거 , 경 <sup>후</sup>는 따문 수의 미듯에 안 <sup>후</sup>여 , 이제까지 . 경<sup>후</sup>고 상제옷도 다 옛날엔 해 놔둬신디 뭐 이젠 가민 멘든 거 사당 탁탁 입져 , 그날 영장밧디서 다 솔앙 데껴부는 거

무신 .

그 그렇게 물 질르는 사람이 엇엇어 .

사진도 안 찍곡 . 사진이랑마랑 어느 저를에 . 사진 안 찍으난에 우리 웨수춘은 왓단에 아이 카메라라도 가져왕 사진 찍을 건디 사진 아이 찍을 거카부 댄 아니 그냥 와신디 . 흐멍 , 경 흐여낫수다게 .

어떤 식으로 행은에 숫 묻은 거 ?

이런 떡을 봐야 뤰는데 .

옛날 목초밭이 어디 십니까 ?

으 , 겁죽 벳겨 불민 안 뤰여 .

요즘은 책장행 이만씩 손바닥만이 혜영 쌔게 두드령 따귀치기 허고 .

거 해낫주 . 거 옛날이 아니줘 .

이게 굵은 방울이 두 개씩 벌러지는 , 벌러지는 거라 . 거피민 .

아 , 계난 백설기는 제펜 .

허리띠엔 혜근에 그냥 곰이엔 혜낫어 .

다간 되면은 시작 .

저 우이 , 저 우이 이서 .

응 , 눌엇당은영에 정운기로나 .

아 , 옛날에는 틀 안 혜낫수과 ?

뭔가 훌륭하게 웬 뒷은 어릴 때부터 탁 뛰어나가지고 보는 상태가 다르다고 게서

무시거엔 헷저만은 거 잊어불언 거 알아지크라 ?

으 , 건 일본으로 수출허고이 그것이 수지가 맞암주 .

반치 혜근에 그 셉 다 끈어뒹 몸땡이만이 .

그게 무신 흔엇이 귀한 거라 .

그 부락에 젊은 사람들 .

예 . 지들커렌 헷지예 ?

또 딴 집의덜은 막 이제는 톨밥 그치록 막 혜영 하는디 . 그 옛날에는 톨밥 하면은 아주 못사는

집만 틀밥 헹 먹으니까 우린 막 그 틀밥이 맛잇어근에 .

젤 오랜 게 저기 거육대구나예 ?

건 아니 , 아니 허여 .

스물네 살 때 . 그때 지었던 집은 어떤 집 짓엇수가 ?

아 , 그땐 그것도 .

날 받양 . 그건 허급 ㅎ면은 이젠 새스방 칩에서 정시신디 가근에 날 받아 오주게 . 아무 날 잔치 ㅎ쿠뎅 ㅎ영 날 받아 오민 뜨로 이젠 저 새각시칩의 뜨로 그거는 막펜지 ㅋ정 가는 거 .

모양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이신가 ? 색깔 말고 . 등이 굽은 말 이런거 .

놀곡하고 또 저기 보리 비여난 디도 마찬가지예 .

여기는 경 해도 촌이라부난예 . 시에 사름은예 . 저기 찍엇던 허는 어른도 있긴 이십니다 뭐 . 그 시에 어른들은예 .

으 , 오랜 안 살고 잠깐 .

거기에 새끼 돌은 감저도 잇지 안으우꽈 ?

야 . 이건 어느 아지망이 , 아 요건 어느 아지망이 좁아 논 거 . 누게 논거 . 누게 논 거 .

골무 , 골미 안 해 ? 손에 골미 이런 거 .

여긴 나룩찍이 , 벗찍이 없으니까게 .

싱글 만썩 , 경 ㅎ영 싱거가는 거 .

예 , 그거 두르메기 .

우리네는 뭐 동네 사람들광도 베랑 경 , 저 사람이 나쁘다 ㅎ게 생각은 원 아년 살안 . 다 좋아베 이주 . 어디 저 모른디 가면은 또 영 생각현 함부로 말을 말아야지 .

넙폐 같은 거 또 미역 , 미역 주로 .

본 집은 오명사라 못 짓주게 .

물빵 딱 ㅎ게 반디기 거시기 해근에 선 긋지 안 ㅎ여게 ? 경 행 거기 물빵 그리거든게 . 영 해근에 .

옛날은 아무것도 안 해나난 돈이 어려와낫수게 . 이제 바당에 그거 다 돈이께

건 식량 엇일 때 먹어난 거지예 ?

거 게 아무거 , 요새 콩덜 , 요새하는 사름덜 만뒤콩덜 풀지 안햄수과 퍼렁현 콩 . 그거 허는 사

름 , 이녁집이 신 사름은 뛰에 설탕도 놓 허곡 .

쉐 두 개 메와근에 절이왓 .

그치록 해근에 . 겨영 우리 나 딸 성제주마는 두릴 때 그 한복 같은 거 다 만들어근에 입져근에 학교 보내곡 다 헤낫어 .

챙기렌 힘니까 ? 여기는 잠대렌 힙니까 ? 이 동네 ?

게고 치통 , 이빨 알령 , 그걸 이빨 알리는 거 .

하이고 , 그리고 말고 .

엇이 . 이 두겐 뒤여 . 요 손 두께 . 영영영영 행 요만큼은 허게 행 청덜 먹어 돌레떡이엔 행 .

이젠 떡칩이 맞창 해당 먹엄주마는 그전엔이 상웨떡 허전 허민 이제 기주엔 허영 허여놔 .

추렴헐 때 도새기지름을 헤다 놓는구나 ?

네피 , 메역새 트명에 카락카락 네피가 뭔지 모르겠다예 ?

예 , 경하난 이제 또 삼갑신이렌 허는 거고예 ? 아 , 게난 옛날도 이제 초신 하나도 종류가 으라개 .

결혼후영 신혼살림은 어디서 흡디가 ?

경후민양 , 콩 가져그네 맨드는 거 하지 안 후우꽈 ?

앗일 이 엇이민 그냥 손지덜토 왕 앗곡 영 헤가주 .

그런 날을 후끔 좋다하는 날로 담아 . 이 베염날 , 소날 그뜬 딘 안 담아 .

삼촌도 직접 쟁기 멘들아 봅디가 ?

그럼 뭐 약이나 병원이 생기면 그런 거 하는데 옛날에는 민간요법 하잖아예 ?

무신 무작 무시거엔 곤다마는 .

경훈 거 무신거 ? 아녓주 .

예 , 예 허곡예 .

예 . 바농질은 뭐 이제도 그냥 바농질은 허는 거니까 .

예 . 혹시 그거 햇엇던 사름 살아계신 사름 엇수과 ?

아니 그 새로 안 하고 , 집 짓을 때 새 ?

그것도 남테 날 때 헌 거꽈 ?

묻어 묻어 . 저 어디 가근영 그 묻어 . 막은 방쉬 말고 .

그 종류들이 아까 해산물 허는 것들은 뭐 생복이니 구챙기니 이신디 혹시 미역 말고 또 뭐 잇수과 ?

심방 빌어당 집이서 해여 .

헤나긴 헷주만은 그거 무신 .

엿날에 좋은 밧디는 그 보리 비어동 그 거디에도 산듸 헐 수가 잇는디 .

큰 뺑이 네 개 , 네 개나 다섯 개 나오거든 .

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놈의 대동아 전쟁이 또 나가지고 사는디 .

배알 . 이게 배레렌 허는 거예 ?

으음 . 집에서 헌 사름은 엊고 ?

게난 얼마나 그거를 딸령 해여시믄 ?

고누엔 헌 건 무신 말이라 .

또 우리 그 지역 벗어난 디는 필요가 엊고 , 여기 조금 동쪽으로 가면은 저 아스콘회사가 잇어 . 우리 동광 저 지원후는 데 , 그거 세 군데 .

밧 가는 쉘 밧 가는 쉘디 슛놈은 밧갈쉐엔 허곡 암놈은 밧 가는 쉘 엔만 허주 부렁이 밧갈쉐엔 말은 안 하여 .

감저 빼떼기로 골면 ㄱ루헹 범벽도 허고 떡도 행 먹곡 . 돌레떡 .

응 , 거 무끄는 것 ㄱ라 .

심방하고 약속허영 그자 . 아의덜 따문 무슨 사건이 신 때는 나가 솔짝솔짝 그자 헷주 .

십구 뭉 . 아 .

그 다음엔 뭐 막 무시거 눈에 뭐 막 먼지가 낀다든가 뭐 껴서 눈에 막 뭐 들어가잖아예 ?

그 저지리 속에 청수가 잇었다는 거로구나예 .

승부는게 , 가다근에 이 칸 어염드레 가민 진 거라 , 그뭇드레 가불민 게난 톳 ㅎ게 차민 이레 가곡 , 이레 찰 때도 이 그뭇더레 걸치지 안 ㅎ게 톳 차곡 ㅎ민 이기는 거고 , 이레 걸쳐정 진 거주게 , 그뭇드레 가불민 .

거문 그 말 탈 때나 저기 내릴 때나 맹심허기 위해서는 .

조찍은 게 요래 요래 요만큼씩 묶어 놋당 쉘 맥여 .

목선으로 멘든 거 그물 시끈 배가 잇어 . 그 그물 싸움판 허는 것이 두 척 이서 . 하난 인부 시끄고 하난 그물 시끄고 . 게민 자기가 아다루웬 순번은 일차로 딱 물때 맞쾅 해상이엔 헌 배가 잇어 . 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감시하는 두서이가 해상이라고 허는디 .

으 , 보린 안 불라 .

게난 떡도 두 빗 다 행 올리는 디 , 따시 또 올리는 디 , 혼 빗이민 영 반 빗 올령 짹글르게 친떡 도 올리주만은 이젠 친떡은 그자 두 빗 올려 .

문딱 타 내은에 이젠 .

젓 담넨 말만 들어봤주 .

떡에 다른 소 종류 , 소라는 것은 속에 놓는 거예 . 고물 . 팥 , 깨 , 완두콩 , 설탕 , 건 요즘이잖 아예 ? 옛날에는 ?

나무로 허영 무끄는 거 . 사름 앗는 자리 멘들앙 거기서 .

세우리렌 헷지예 ? 세우리 .

딱 그디 앗은 사름만 헤영 .

아 , 이디 이디 .

여쪽에 , 여쪽에 한 .

아 , 영 데왕 .

산에 불 부져야 좋아 ?

일어나지 못행 . 어떤 땐 고개 우의로 그거 넘어나곡 .

걸 어디에다가 놓는 거마씨 ?

보릿눌 눌 때 어떻 도왓수광 ?

노란 털도 잇곡 , 그추룩 헌 게 .

하나씩 초담은 영허여 .

그 후엔 저 암ㄣ 암쉐엔 하고 또 슷송아지덜은 사름 , 나름 다 영 헤근에 허곡 .

중간에 괭이가 나난 텷벙에를 테 뱃을 부수멍 『랑조를 갈잇주만은

아이들 키우젠 허난 할 수 이수과게 .

아이고 , 날씨에 따라 .

삼춘 , 그 베클은 .

조코구리는 저 , 여기선 거의 손으로 훈앗어 .

어디 강 말도 크게 못하고 쥐인 몸이라 .

아니 , 건 올레 휘어진 집도 있고 구짝헌 집도 있고 하여 . 건 , 건 상관없고 .

목감 사는 막이렌 해영 지금도 시방 잇주 .

그치룩이라 . 방 두 칸이 엊어 .

삼춘이 들었던 접은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가 ?

아 , 마음대로마씨 ? 그럼 어르신 햇던 방법은 ?

그걸 지엉 강 풁니까 ?

아 , 그러면 여기에서는 돌을 이렇게 해서 원담 같은 ?

빙아리 혜근엥이 . 춤지름에 복양 .

좁씨는 조 간 때에 으문 걸로 골탕 씨 해영 놔뒀다근에 그거 빼여 .

집이 질루민 여자덜 입에 들어 갈 건 이십디가 ?

경 안영 그걸 안 행 허문 알레도 가벗닥 .

돈이 어디 셔게 . 게난 저디 골으레 가 온 사름도 떡 , 저디 방장대 그차 온 사름도 떡 , 고기 썬 도감도 떡 .

물 물양 초불을 싹 훈 불을 그 갈아 논 거를 그 평메 지와놓고 그 다음 씨를 뿌리주게 .

그다음엔 딸꾹질 얘기 때도 잘하잖아예 ? 딸꾹질할 땐 어떻 치료햇수과 ?

궂인풀만 꽈꽝허게 나난 저 집에 오란에 집이 후꼼 이신 처례주 . 집이 오란 . 옛날엔이 얘기가 배소곱에서 움직영 이상 웠민 기자 새끼훼나 , 웠지 잡아근에이

게난 데가린 끗차동 . 그 데가린 영 새가 영 질민 이 이파린 이만해곡 요딧 거는 영 끗차근네에 영 홀타불민 . 이디 붓터난 여핏 것만 혜영후민 .

정지 두에 장팡이 잇고 .

굴도 핫주마는 . 왜정시대 때 판 굴도 있고 .

갈치 알개미젓 . 고등어 창자랑 ?

챙기 만드는 걸 뭐 쟁기 서끈덴 여긴 ?

아이고 , 우린 김장도 식구도 많이 살아나고 많이 해낫수다 .

노랑모인조가 잇곡 , 노랑찰조도 잇어 . 근디 까만흐린조 , 노랑흐린조 햇거든 찰조 보고 흐린조  
엔 해서 , 흐린조 .

이런 디 영 담양 영 놀르민 .

궤기 잡는 사름 , 옛날은 궤기 나끄는 사름 보제기 .

그렇게 이제 하고 , 물총은 풀고 허지예 .

고쩌야 헐 거 아니우꽈 ? 잘못 흐민 붓 가정가근에 .

응 , 저끗듸 앗앙 바농질도 못허고 . 바농질해가민 그거 아이가 따시 죽어가고 .

응 . 그거 허여근엥이 .

건 어떻 하는 거라 ?

그믄 어육으로 네 군대 줄을 영 ?

음 . 경 식게해 나민 막 음복도 허고 힙니까 ?

보미 지름은 어떻 만드는 거 ?

검은 터럭에 흰 털이 하나씩 이렇게 난 거주 .

경혜여근에 문전제 혜둬사 큰제 허지개 .

채하고 봉뎅인 퉁난 거꽈 ?

밧 불리는 소리가 잇주게 .

아니 , 사는 게 그거민 잘사는 거주게 . 무신 크게 베려져게 . 살곡 , 뚫도 저 외도에 중매로 흐연  
에 중매로 흐연 가서 . 것도 우리 수춘 .

출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먹는 거 , 곡석 해난 거 .

설면 물이라도 꼭 더 노면서 딸리멍 .

으 , 터럭벙것 . 옛날 .

셍복하고 구쟁기 같은 거예 ?

게메 , 갈중의는 아무 사람이나 행 입고 , 물 들영 곱게 헌 건 흐屎 부잣집이

심방 뛰는 책 잇어예 ? 그 책 보다 보면 뭐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또 점궤가 안 나올  
것 같으면 또 굿 .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 , 그 사람이 뭐뭐 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다 잇어마  
씨 ?

응 , 녹딘 녹디죽 .

음 , 요즘도 순다리 해영 먹엄수가 ?

그냥 햇불예 , 햇불 쌍 . 햇불은 뭐에 부짱 갓수과 ?

풀 종류는 나오는 거덜이주 .

무수도 바당물에 강 소금 절영 올 거 ?

그 저 뭐 하간 뭐 헐 때 옛날모양으로 축 고하는 사름덜도 웃고 .

옛날 건 무신 널 헵니까 ?

또 이간 막살이 이간찝은 막살이엔 헤여 .

아 , 허꺼 . 모몰쏠하고 보리쏠하고 .

겨민 나가 열니살인가 김녕에 내려가니까 물질을 못해 . 훨줄 몰라가 지고이

아무것도 엇어 . 얘기 저고리 쪼끌락한 거 이제 풀지 안행샤게 ?

뿔운덴 ㅎ주 , 뿔운덴 .

하르방은 구십 난 할망은 어디 뱕원에 잇고 따시 팔십 으답 난 할망은 , 하르방은 매날 할망 밧  
듸 갓다 왓다 돌아댕기고 .

흔 사름은 그걸 내치곡 . 흔 사름은 저기서 잡아 던져 . 새 모물을 .

시어멍 시면 시어멍만 허곡 . ㄱ치 심부름 허고 . 경 허는 거 .

두말떼기 솟허고예 그냥 보통은 이제 웨솟은 어느 정도 하는 거 ?

소상까지 허당 그다음엔 안 험세 . 일 년 탈상으로 험저 .

옛날에사 걸름이 셔게 . 비료가 전혀 웃인 때난 .

아기 나난 건 메역국 , 거 모멸로 주배기 .

게난 붓도 들렁 가야 ㅎ크라 .

남저덜은 헤도 여청덜은 안 뎅겨 . 경 강 그 집이 일이나 나민 막 욕허여 . 궂인 일 나민 .

경혜근에 항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좀 받는다고 그러지 .

이제 벳 , 요 벳공젱이 .

그럼 신혼 결혼하성 신혼살림은 계속 고산에서 ?

음 , 우미 ㄱ튼 것도 이 바당에 나 ?

기냥 좀꿰양 , 곤술에 좀꿰에 ㄱ찌 놔그네 방앳혹에 막 ..아 . 그네 그 ..은 경 ㅎ영 수곡 , 또

들께죽은 들께 방앗간에 강 골아당 , 이녁냥으로 ..으 네 우리 저 찰리 , 찰리에 놔그네 그걸 물  
짭니다 . 막 짜낳 , 짜놔그네 앗인 궂인 건 놓지 아녀곡 , 고운 거 우루 고운 물만 비와 놔그네 ,  
쓸 싯어 놓 죽 쑤민양 , 경후민 막 맛 좋읍니다 . 들께도 경 해여 .

이십 년 전에 . 이십 년이 무시거라 , 이제 이십오 년 거저 훗구나 . 경허영 헌디 그거 출려 놓고  
아파트 하고 이디 또 나 물려준 밧 싯고 , 경 정 허난 경 막 돈에 곤란은 안 햇주게 .

줌질아근에 공장으로 나온 거고 . 여기 미녕은 베틀로다가 우리가 짜  
벳받침이엔도 허곡예 , 벳받침 . 그 다음 여기가 벳이 잇일 거 아니라예 ?

그거 비어당 물랑 이젠 물방애에 강 쉐 메왕 문딱 지어당 .

예 . 여자들이 보통 하는데 .

그럼 멘네로는 무슨 옷 만들어마씨 ? 광목도 ?

옛날엔 경혜낫주 . 어디 경 궤기해영 , 쉐궤기 , 도새기궤기 .

당번이 이녁이 자기 소를 보고 싶으민 강 보는 거지 .

걸름 허젠 , 걸름 허젠도 햇주 .

겐 나는 마을에서 해 준 밥을 얹어먹엉 살고 그런 역사가 잇어 .

쓸 담양마씨 ? 하하하하하 . 그 쓸을 먹어져 ? 새 요강단지 ?

아니 , 돌래떡인디 저 반착 싹싹 오그령 그 친정에 부젯집인 뜻로 멘들앙 헤가난 거 , 그 말은  
못 , 잊어부런 못 골으크라 .

엿날은 군것질 하는 게 우리 커 갈 때 군것질이라는 거는 저 밧에서 나는 거 고구마나 .

혹시 저기 불솜을 때 ?라 앓는 방석 같은 건 안 만들엇수과 ?

그 저 매울 신자 그게 , 실 신엔도 하고 장맛이 엊어진덴 헤불어 .

뎅침 박는 건 줌질이 박는 거고 , 흙게 ?는 건 경 호는 거 .

출례 . 게난 훈장도 출례 . 이제 지시 ?라도 출례 .

독새기고 뜬궤기하고 그거 무슨 채소 맑아진 것도 벨로 엊엇어 . 이젠 상이 문어나게시리 출려  
가는디 .

거 모시 멘드는 건 , 씰 뽑앙 ?는 거난에 그 저 .

경후민 하여튼 자리물훼 먹을 때양 , 오월 , 오월 , 유월 하영 먹주게 .

건 부제칩이 하긴 하는 거고 .

갓은 엊어도 갯누물은 옛날에도 행 먹어낫수과 ? 김치 ?

쉐나 물이나 . 실령 왕 여기에 쌓는 거라예 ?

아 , 두 개씩은 안 잡아 ? 영 두 개씩은 .

장담을 때 고사 어떻게 ?

수확이 잘 안 나고 .

게난 저것도 으라 가지로 지금 흐는데 . 저거 뭐 돈이 안 돼니까 . 지금도 이 밀감 , 금년도 지금 풀지 못행 난린게 .

비 온 날 신곡게 , 비 온 날 . 눈 온 날도 신곡게 .

?. 그런 것도 거껑 잘 먹고 .

밥을 허난 누시 먹을 수 없으니까 .

으 , 무물쿠루 . 그거는 무물범벽이엔 헌다 .

응 , 겨난 . 아이고 , 잔치 부녀부난 못 갓저 영하고 .

거 무끌 때 어디다 무끄는 거꽈 ?

숫을 가마니도 수톤 가마니가 잇고 오톤 가마니가 잇거든 . 큰 것이 잇고 오톤 가마니가 제일 큰 건데 , 그걸로 혜가지고 쉘에 시깽 모슬포에 가면은 군 인가족들안티 풀주게 .

옛날은 약이 엇이난 .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판 하는 거마씨 .

그다음엔 이젠 팔월로 웨면 바로 아까 우리 얘기한 추석명절이 잇잖아예 ?

뭐 , 뭐 자라마씨 ?

입춘이라는 것은이 새 봄이 돌아온다는 뜻이여 . 입춘 웨면은 이젠 새해 들었다고 정월 초허루가 아니 , 아니 웨도 입춘 웨면은 여기선 결혼을 할 적에 입춘 웨면은 새해 든 걸로 택일을 보고 그렇게 , 입춘대길이라고 해서 .

예 , 유월 장마 때 .

겡 물 아이 들어가게 해낫당 .

예 알았수다 . 혹시 .

피쓸로만 밥을 허민 맛이 좀 덜어 .

메탁기로나 . 옛날에 도께로 콩 하영 .

땅 팡 혜가지고 땅 우에도 요렇게 눌주기 .

멍에 그림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지 . 그다음에 목장예 , 여기서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헨마씨 ?

겨울 모자 그게 그놈의 아덜이주게 . 털벌립 ㅎ고 , 겨울 모자가 따로 잇어 만약에 이 다리 와서 이 다리가 걸리면 빠는 거 .

그 다음에 이제 집 뒤에 놓든 옆에 놓든 웬장이영 이렇게 놓는 디예 ?

영 허면 요것이 멍에고 .

넙페 , 넙페국이 맛잇주게 . 넙페 바당에 강 보민 납작납작한 거 . 페 페는 펜디 영 납작납작한 것이 잇어이 . 그런 것만 넙페 트멍에 그건 영 영 잇어 . 게믄 그거 영 영 헤다근에 그거는 숫기 전에 막 바당에서 영 훔텅이에 놔근에 막 밍 겨근에 그것이 ㅎ꼼 풀죽게시리 밍경 , 그 넙페도 영 보기에는 깨끗한 거 닮아도 비 비면은 거 다 막 궂인물이 막 나와 .

그 조코고리를 마께도 때리거나 영은 안 헤낫수과 ?

경해부난 이거를 ㅋ콜이 그 손이 하나토 엇이 다듬아 .

게난 그 옷감 손질하는 거 한번 골아줘봅서 . 어떤 식으로 손질해신 지  
밧벼도 잘 뛰낫는데 . 거 쑤이 아명해도 산듸쑤이 .

응 . 겡 냄삐 .

육십 년 , 칠십 년 전 ?

데명 눌어근에 그냥 물 아니 들게 . 썩지 못허게 허영 .

응 . 얻어먹는 밥은 뭐엔 골읍니까 ?

누구 곪지 않아서 그 날 밥 먹기가 바쁘니 .

일당 안 받꼬 ? .

겨민 막 부끄뢰근에 소리 안 혀젠 헤도 ? 소리 ㅎ곡 헤낫주게 .

길마 , 길마가 그 가린석인가마씨 ? 길마 ?

실을 감아근에 감는 거 ?

그럼 얼마 안 뛰신게마씨 .

성질이 와삭바삭한 사름은 제기 바글바글 궤고 .

모시웃은 막 잘 살아지는 사름덜 막 호사로 .

패마농짐치 만들젠 허민 어떻합니까 ? 지금 ?

뺏데기 . 뺏데기는 눌지 안 헹 집안에 놔뒀다가 .

바지에도 저고리 잇고 바지 잇고 .

또 양태는이 저 갓 둘레 .

것도 나룩밥 아닌 산듸밥 .

알순당은 알친오름이렌 허는 디가 이수다 .

으 , 으 . 방엣주룩 .

보리 다 수확해난 다음에 .

으 , 거 공기 통허게 .

으 , 으 . 쉐 키우는 사람이 밧 가는 사름 .

데경 , 데경 . 좋아하는 사름은 막 그거 허고 오실오실오실허게 그냥 그거 익어가면은 이제 쌀 씻  
엉 놓 , 이제 쌀도 익고 그것도 익으면은 먹는 사름도 잇고

얼마나 먹엇으면 닷 웨 먹는 하르방이엔 헤시코예 ? 재미잇는 이야기 다예 하하하하 .

물에 들엉 나오민 초울 거 .

게 흑 혼 칭 놓곡 돌 혼 칭 놓고 .

거난 밀낭페렝이이꽈 ? 아이고 건 몰란 밀낭페렝이 , 밀낭페렝이 해도 보리 허는 것이 밀낭페렝  
인 줄 알았주게 .

먹는 건 풀 먹는 거 마찬가지 .

게난 난 항상 그 아이들이 건강후곡 .

그거 해 보신 적 잇어마씨 ?

그거 무신 찻장 ㄱ튼 거는 안 하고 ?

수건게 . 수건도게 그 복수건 대신 요새 몸빼 해주는 거 .

예 , 게영은에 집에 혼 눌씩 눌고 해낫수가 ?

불도 오레가고 불이 오레가니까 또 방도 뜨시고 .

그런 거 아녀고 우나 가분 후제 허는 사름덜은 궤덜토 허고 무신 ㅊㅊ .

그떼가 멜 나사 담글 거난에 헤 , 헷 .

게고 제초제가 이 고구마가 여기 한창 절간고구마 아 할 때까지는 좀 제초제가 안 나왔지만은 .

이거 밖에 문 잇고 안에 문 잇잖아 .

일본말일 테지 . 그냥 건 아까완 헐리지 못허난에 강 또 해당 짓으난 건 그자 웨로 해당 짓은 거라 . 아깝게시리 .

눔의 집이 영 후는 거 보민 , 옛날에 .

게민 선돌에 얹형 사람들이 그 돌 거시면 뭐 동티 난다 이런 말은 그런 거는 아니고 ?

조름페긴 이 엉덩이 맞으멍 .

막 장사 잘 뛰연 .

아아 , 그 영 영 숨앙 영 영 감아 ?

아 , 히여똑흔 거 ?

그 다음 또 달라진 거 엇인가마씨 ? 남자 옻 .

예 . 게난 물를 때 허기 뛰면 만약에 여자 저고리 치메 헐 때예 , 저고리는 미녕이 어느 정도 들고 . 치메는 어느 정도 , 것도 삼춘 거 헐 때는 어느 정도 들었수가

오줌단지산디 무슨 단지산디 둥글언에 민보 아방네 집이 헨 설어낫어 나도 .

옛날 경 골아 , 그렇게 헤낫어 .

게난 쉐는 쉐는이 겨울엔이 그 이제 농서가 다 끝낭 양력 십일월 , 십이월 양력 십이월 혼 중순 뛰민이 추워 가민 쉐를 집이 쉐막에 다 들여 맨다 .

이 년에 혼 번 가오리행 .

啾가지고 이제 그 그냥 저 그 다라에 다라에나 뭐나 그걸 놔 .

아 빨간 거 아니면 검은 거마씨 ?

빙떡은게 메밀くり 온 메밀くり로 혜영 옛날은 경 이제 고치 맛잇게도 안해여이 . 이제는 그거 허젠 허민이 , 내가 건 선순디 이제 허는 밀 , 첨 저 .

어 . 그거 한 개 뿐 .

약 나와 . 우리 헐 때 그런 거 엇어나신디 .

아 , 다시 한 번 어무니 . 귀국 ?

뭣맹지는 뭐고 생맹지는 뭐꽈 ?

멧 번 두드려사 후여 콩은 .

시집갈 때는 그거 시집갈 때 신는 신으로 거세기 행 신는 거주 .

술으로써 장물이 진미가 더 납니다 .

에이 그런 것도 이던 엊고 .

누구네 테위 짓엄저 허명 .

예 . 한 번 그냥 간 거예 ?

음 , 겟은에 그 밧일 종류는 어떤 종류 있는 거마씨 ?

어 . 다 죽여 부렷주게 .

다듬인 혼자만 헙니까 ? 아니민 누개영 ?찌 헙니까 ?

우리 할 때는 공장에 강 헤여 .

아 , 큰솟 옆에 . 여기 그럼 제가 잘 그렸네예 ?

쓸모 있는 걸로 주주게 . 요즘은 경 험서 , 이제 .

보리 같고 조 같고 감자 헷주 .

아 , 입이 쓰니까 .

새왓듸 , 새왓دين 감저 못 널어 . 뻃데기 .

그러면은 삼춘 지름떡은 멧 개 올려 ?

고무옷 안 입은 떼는 가민 그자 워가 들어갓당 나와야주 경 .

에구게 , 얘기 날 때 웨민 물 끌려 두고 뭐 꿀아 두고 경 안 허여 ?

아 , 문어 잡을 때 . 그걸 헷불이엔 불렀수과 ?

아니 , 아니 . 이 방에는 옛날은 반창이 없었어 .

아 , 그건 처음 들어봤수다 .

어 , 옆에 살고 , 지금 큰아들도 내려완에 .

담을 뒤집어 . 방법으로 .

아 . 도깨질은 잘 안하곡 , 조는 방에에 놔가지고 둉글여 .

소오십년이 무시거꽈게 ? 저 그 저거 이디 온 후예 짜신가 ? 아니우다게 .

겨민 이제 매도 거령 아버지 , 어머니만게 . 할머니 , 하르버니네는 첨 이저 훌 거주마는 못하고 . 여기 고모덜이 잇거든 .

아니 , 맥에 허영 이런 벽장에 놔도 웨고 . 이곳이 마 골방 ? 치 우알더 레 영 해놓 이 저 그 뭘로

영 가려지게 .

만디도 해난마씨 , 옛날에 ?

물은 봇은 안 만들어 .

체는 뱃이왕에 , 쉐막 에염에 뱃이왕이 잇주게 . 저 남방에 징는 뱃이왕 그레 강 체 그튼 거 톡톡 걸곡 , 경 후여 . 체 , 푸는체 그 그디서 방에 정 그디서 푸는체질 후곡 , 체로 치곡 후난 그레 톡 톡 후영 그 무신걸로산디 해영 그디 놔둬 쉐막 에염에 뱃이왕이 잇어 . 저 남방에 영 널찍흔 거 놔근에 방앗귀도 잇고 건 뱃이왕 .

머파 ? 그 밀어그네 .

쉐손 허민 영 바트렝이 남해여근에 영현 거 해영 넙적현 거 해영 네귀 나게 해근에 영행 안네 꼭 하게 못 박양 심는 거 허주게 . 요영 놔근에 세멘도 거려놓민 영 우이서 영 허곡 . 흑도 이디 거려놓민 영행 허곡 거 영 받으민 쉐손이주 게

삼춘 , 다른 데 가서 조사헐 때 보난 조 날 때 맨 처음에 허민 한 잎 이렇게 나잖아예 ?

아니 , 끌리는데 무사 안 먹으랴만 난 끌령 먹어보진 아녓주 . 기자 저 저거 헹 먹주 .

양 , 어떻 살아신지 그 시철에 .

그럼 콩 숫을 때 두말떼기 솟에 한 번에 두 말을 다 놔 ?

문을 쪼질락허게 멘들아사 찔름네께 . 영 . 아래 거영 .

그럼 멜은 보통 채로 이렇게 거령 잡는 거마씨 ?

느쟁이로 현 떡은 반돌이 이만큼썩 크게 허민 뜻 숫양 꾹꾹 누르명 건 먹젠 . 제사 때 올리젱을 안 허고 그거 미쳐도 이 그거는 안 , 제사에 .

보말 , 춤?메기 또 다른 건 엊수과 ?

예 . 그냥 뭐 여러 가지 성덜 많긴 만하우다만은 .

웬장국 허민 이제도 맛잇는디 뭐 .

새각시 조름에 이쪽에나 새시방 쪽에서 놓면 대반상 출령 저레 들어가라 이녁 친촉덜이라도 이디 앗인 건 다 친촉이라 . 우시 온 사름 어디 보낸 거 몰라 . 새각시 조끗듸 앗이나 새시방 조끗듸 앗인 거 이녁 친촉에서 웃대 우이 웬 사름 .

바지 끂동 메는 거 .

옛날 북강생이가 아니지 아녀우과양 ?

이거 잘못됐다 . 그렇게 하는디 이 상 , 이상이 엇이면 이제 여기서가 신부 쪽에서가 아 이젠 통

과뒈엇다고 들어오라고 허면은 그때는 신랑이 들어오는 거

예 , 경 뭘 거우다 .

아니 , 아니 . 그 택일 가정 가는 날 .

경허난 저 우이 강 새 강 엇이민 사오곡 경 안허민 어디 따시 새왓 상도 비곡 . 경 안허민 우린  
새 뽑으레도 놔의 새 해난 디 뽑으레도 뎅기고 경해낫주 . 강 지아정 여남은 단썩 , 열 단썩 행  
저 우이 성읍리?장 가주게 . 그거 뽑으레 .

그럼 마리는 보통 집마다 다 잇인가마씨 ?

부딘올레 도로가 가까우니까 . 바로 옆이가 .

한 사름신디 너랑 불떼라 . 불떼렌 허민 겁나 .

그 구녁에서 보명은에 벌겅허면은 탓구나 해서 그 구녁 막는 거예 그 구녁 막암덴 현 말도 뭐렌  
협니까 ?

할망들 쪽파에 뿌리?지 혜놓고 모물 ..아 주

옛날도 풋덜 시난 옛날도 경행 혜나고 . 옛날은 솔벤 절벤 혜낫주 , 경 안 혜낫수게 .

큰 것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 .

데우리?곡 그 쇄비 , 저기 무시거 그 쇄비늠이 아니고 .

것도 집이 왕 눌어 ?

수망은네 보리쌀을 ?쌀 뜸을 들이는 거라 .

설사 날 땐 어떻햇수과 ? 아이들 막 심행 화장실 왓다갓다 하거나 설사 날 때 ?

몰라 , 우린 . 혹은 안 뿌리주 , 무신 .

물하는 사름이든지 쉐하는 사람이든지 강만 허문 불을 놔낫수다 .

아니 . 대상 끗나민 ?

속음 , 얼마 속꼬질 안혀게 .

아 , 절롼지 ? 제와니 ?

옛날엔 경 안 혜낫수과 ?

실 감는 건 실패고 . 바농 영 멧 개 찔렁 놔두는 거 잇지예 ?

아 화상 입어가지고 흉터 이신 채 사는 사람 잇수과 ? 지금 이 볼목리에 ?

게민 저기 그걸 슬래엔 헐 거 , 촛는 사람을 ?

팔월 처서가 뛰어 가면은 그걸 모둔 걸 다 실령 강 메밀 씨 하곡 .

흑자파리 할 땐 어떤 식으로 놀았수과 ?

그 다음은 고 씨가 많고 , 그 다음에 오 씨 .

아니 소개 소개핸 누려 간 거 .

서 훈는 건 시월에마씨 ?

영장밧듸 강 밥행 강 막 멱이고 , 떡행 멱이민 걸로 끂이주 .

┉ . ┉을 지키는 청년도 참 하 부락은 죽아도이 . 다 지키젠 사나난 청년이 그렇게 많허연 .

아 나중에 출 다 비여난 다음에 .

물뚱 줄으레 저 웃뜨르 . 물뚱 줄엉 왕 말魯고 . 또 솔입 걷어오고 .

게메 이젠게 답례품 , 흐쓸허민 답례품 . 옛날은게 무시거 줄 거 엇이민 잔치 때도 고깃 반 쌈당  
뒈지고기 .

습진을 볼목리 말로 뭐렌 곧진 안 헤낫수과 ?

그 다음에 세미떡 놓곡 그 다음에 저 거세기 손가락떡 놓고 .

아 , 저 우에 .

빈데도 막 사람한테 부텅예 ?

으 , 몇 개 가정가마씨 ? 거기는 .

무르데경게 곤сал 놔사 먹주 .

그럼 여기 경로당 잇잖아예 . 경로당 .

밤의도 비媪직허민 강 헛주 .

보말 먹은 똥에 모살이 .

그다음엔 떡이우다 . 떡 .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친족덜 , 동기간덜 집도 좀 개량도 하고 이렇게 허다 보니까 중간에  
취락 구조가 면면으로 가끔 생기다 보니까 만이 늘어서 지금 한 삼백 호 이상 템실 거우다 .

조팟디 조팟디는 세 불 메도 , 콩밧듸는 혼 불 메면 뛰고 .

얘기 못 전디는 생각 안행 돈 아까운 생각만 허는 거지 .

기구나예 . 아니 마을지 지금 가본 읽다 보니까 , 보난 베랑 이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예 ?

과정을 훈 번 말해봅서 .

벨로 수박은 하영 아녀고 .

소는 어떻 길르맨마씨 ? 어떻 길러야 돼마씨 ?

곱닥해나신디 막 술쩐 죽어신디 몰라 , 이젠 . 함덕은 안 살아 .

똑?타 . 게난 것도 놈삐짐치도 소금에 절입니까 ?

이게 서 톤음이라고 흐는 겁주게 .

두 개 부찐 거 절벤 .

응 , 제물떡도 해 가지고 . 따시 이녁 부모 제사라도 그거 만뒤 좁양 제물떡 해가고 . 빵허는 사름은 빵허곡 그거 정성허는 사름은 그거 하곡 . 흐랑흐랑허게시 리 밀도 헹 하고 , 밀?루도 .

신을 말허는 거라 , 삼신 .

드물게 허면은 좀 그 좀 불안합니다게 . 그 서설헐 때고 그레 가근엥에 거 팡팡 흑을 놓고 뭐허명 보면 더러 그 발도 빠지는 사람 이십니다게 . 그거 서리 드물게 해불민 그사이에 그 그 짧은 사름덜은 술이나 혼 잔 먹고 우에 가근엥에 고데 해도라 , 고데 해도라 , 그 나이든 사름은 지붕우에 올라가면 돌아뎅기지 못합니다 .

으 나중에 나완 사까린 .

한 , 에 군인 나가 가가지고 , 군인 스물한 살에 간 스물다섯 나는 해에 제대햇수다 . 제대헨 완결혼 한 스물일곱에 해 가지고 그 뭐 첨 그때부턴 열심히 뛰어도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.

물?랑계예 ? 물?랑계가 여섯 군데가 이섯구나예 ? 혹시 여자분 들이 햇던 건 엇인가마씸 ? 계가 .

응 , 등덜펭이엔이 불에 가도 아니 벌러지곡 아니 카는 거 .

틀림엇어 . 건 멜론 .

두 군데 다 밀장을 만든 거구나예 ? 게난 밀장은 이런 대문처럼 문을 돈 것을 .

안거리 밧거리 모커리에는 사름 살고 .

예 나록 혜난 다음에 .

게난 , 시집 가기 전에도 모날 허지 안혜수과예 ?

그 새에 쯤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스무한 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학교에 다녀도 일체 아무도 몰랐어 .

딱 따른덴허난 , 허여보민 . 경힌다게 .

오징에젓은 ? 오징에 막 낚양 허민 사당 씻고 몬딱 헤다근엥 저 막 좀질게 썰어 . 썰엉 것도 소곰 넣곡 저 요즘은 설탕도 호끔 넣곡 경 허영 놔두민 그거 그저 그거 . 장에 거 다 나와 .

으습?장은 지금 들어보질 아녀진 것 같은데 .

경허난 우리 어릴 때 계난 막 보초 사낫저게 . 영 성도 다 둘러낫저

그 아니 산에 잇는 거 아니 ?

그러니까 봄에는 고사리 보통 많이 헤 먹잖아예 ?

그 과정 훈 번 말해줍서 .

소낭 웨로 따른 건 엊고 ?

한 두 개 정도 . 동 동쪽마을 서쪽마을 헨에 .

요것 , 요것은 유름줄로 대개 허는디 .

그걸로 헨 집 허연 전세해 주고 아덜도 또 대출 받안 얼만 내 날 . 전세만 허젌 헤도 삼억인가 수억인가 헷젌 .

겨민 그 가운데 멜 싸정 그냥 고드레 막 들어오민 멜이 바닥탁 , 바닥 탁하여 경허민 그물이 이거민 이 꿃뎅이 , 저 꿃뎅이 둘리민 이 가운데 멜이 꽉 차이 . 게민 막 고드레 돌아오민 기냥 . 우리?치 멜팟 엇곡 무시거 헌 사름은 그 멜덜 허레 그냥 난리 나게 . 고듸 들어오는 멜 . 거려오는 사름도 하 .

경훈디 난 자리젓은 잘 담아집니다 , 원 . 자리젓 두 말 드는 망데기 ㅎ나 ㅎ영 놔둠서 자리 두 말 사당 , 기자 소곰 놓 망데기로 ㅎ나 딱 담양 놔두민 봄의 ㅎ영 놔두민 ㅎ슬 들엉 저을 들도록 그걸로 반찬후영 먹어집디다게 .

어떻행 그 아들은 ?

예 . 삼춘은 피 먹어반마씨 ?

추억은 뭐 옛날 헤던 거 때문에 지금은 모르고 .

하하하 . 삼복 날이 ?

그 생선 생선국에는 미역이 들어가주게 .

또 범벅 , 범벅 밥 . 범벅이엔 헤근에 어려운 때 먹어난 거 . 저 좁썰에 감저 서껑 먹어난 거 . 그건 범벅 .

뻔또에 뭐 쌍 가낫수과 ?

보리낭깽이엔 헙니까 ? 보릿낭 .

우리 입는 적 적삼도 만들곡 .

게난 산듸 , 피 , 모물 .

ㅎ끔 쪼그만 솟은 뭐엔 골아 ?

?. 혁 뜨리는 그 곰베엔 한다 . 거 .

것사 지지는 거야 무물코르 해여다가 뭐 요새 후라이팬도 좋고 해놓으니까 옛날에 솟두껑 가르쳐 놓 인제 .

음 , 게민 저도 감저 줋이레도 가고 해낫인디 .

초가집 , 여기 초가집벳기 엊어수다게 .

허허허허 . 옛날 해 먹은 거 원 그거 .

그 썩지를 않아 . 게난 그걸 그 풀을 그대로 말렷다가 주는 거주 .

결혼할 때 큰일 나민 고적 , 이제도 ㅎ주게 .

으 . 멍에 이게 , 이게 멍에라고 허면은 .

오십 년 팔월 삼십 일날 .

예 . 뭐 골아줌서게 괜찮아마씨 할머니 .

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?

그 먹고 싶어도 . 박박도 아이 굽으곡 .

생이도 것도 사냥이엔 헐 거 아낫꽈 ? 날 거를 잡는 거는 ?

주식 못 나는 사름도 주식 낳게 허는 거곡 .

아니 무시거 놀 디도 이섯주게 . 돌도 , 팡 .

예 . 모관 . 게도 여기도 모관에 속합니다 .

작년이 멧 뛰 담아게 . 메주 서너 개 사 , 뒷 개 사당 작년이 둄간 .

반지기 밥은겐 무시거게 곤쏠에 .

또 뭐 예금 , 뭐 예 예금 예대출 영 이런 거 하젠하민 무릉 , 대정 농협 무릉지소로 가야 뛰고 .

게난 그냥 밥 올리고 .

남자 옷 종류는 무시거 그거 .

저 뒤쪽에는 꽃양 세운 거 있잖아예 ? 그거 뭐 , 뒤치기 ?

으 , 새 께로 안 허민 안 웨여 .

하영 흐는 거 , 콩 .

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혜가는 .

그 하르방 빵 영 대면은 그래도 영 뭐냐 솟으로 그령은에 만들민 틀림없이 맞추왕 .

지금 잊어시면은 아주 필요헌 비석덜이 없어 가지고 .

게난 장옷은 어떤 거꽈 ?

도께 도께 영 혜영 탁 하면은 .

무신 저기 뭐꽈 ? 그거 . 비듬이라든가 .

예 . 아까 피 같이 햇덴 핸게마는 .

예 거문 장이 막 둘주마씨예 ?

이 뭐 그 사람이 가끔 보민 그디만 간단 말이여 .

담아당주민 손으로 전부 부찌지게 .

우린 침떡 경 행 햇주 . 설기떡이엔 헌 말은 들음이 처음 .

경햇저 , 우리 두릴 때 혜여난 거 곧는 거주 , 이거 .

아부지가 저 집이 결혼허라 영 허난 그냥 결혼헨 ?

아 , 집동이 돌아가신 분 역할을 허는 것과 ?

경행 가운데 구멍 뚫어마씨 ?

매봉을 비추민 마을에서 그 매봉을 비추민 마을에 해가 웬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해서 탑을 쌓다는 거야 . 겐디 도로 허면은 그 놈은 동산을 부숴불었어 .

이제도 웬장에 찍어도 맛좋아 .

무신 뭐 이듸 사업을 헣다 .

이거 지등이면은 이레 이만큼 헌 ? 짹한 낭이 이서 . 게민 그디 무끄고 이디 무끄고 저디 무끄민 . 이레 창문더레도 비 안 빼게 허곡이 마리 , 대문더레도 안 빼게 거 .

이 물은 먹으면 먹은 데로 소는 소화가 웨는 디 말은 소화가 잘 안웨여 . 소화가 잘 안 웨서 그냥 나와 버리니까 무한정 먹는 거 이거 .

거난 거 이제사 난 거 아니고 옛날도 헤난 ?

그건 아니다 , 삼춘은 . 게믄 이 이제 게믄 요 마당 , 여기도 마당이렌 하지예  
도께로 헤갖고 . 어 , 게믄 도께로 헌 다음에 도께로만 허민 끗나 ?

그런 거 잘 안 햇주마는 이제 . 그거는 저 뒷이주게 . 이 일 , 날씨 , 일기 .

앞에 허는 것도 잇지 아녀우꽈예 ? 영 허영은예 ? 것도 일름 원래 잇어 어예  
어 뻘겅힌 건 황쉐 ?

집 혼 거리 , 옛날 초가집 집 혼 거리 짓젠히믄 그 낭이 , 낭 숫자로 보민 멧 개 들템 허더라 ?  
그 숫자는 참 세젠 허며는 뭐 거 이름이 이거 집을 짓젠히민 옛날 초가집은 거 낭 이름이 이서  
양 .

또 그레 , 집이서 그레 굴민 그레 씨는 비차락하고 이 집안 씨는 비차 락이 뚜나주게 .

아까 고비끼과 , 고비끼리과 ?

응 경 행 장만하고 .

게 당허는냥 햇당 어떤 땐 수망 일민 날 좋앙 출 잘 허곡 경 안허민 적져 놓민게 육 들곡 .

일포 ? 사름 죽으민게 , 일포는 오널 도새기 잡아근에게 , 넬은 일포 후여근에 고령꾼 오민 절후  
여근에 음식 마련후영 , 옛날 밥으로만 햇주만은 , 이젠 국수 도후곡 밥도 후곡 아무 거라도 햄주  
게 . 경훈디 고령꾼덜 오랑 봉투 놓 절후민은 그땐 손님 대우라 . 밥을 행 맥엿던 , 떡국을 행 맥  
엿던 손님 대우는 주인이 후는 거 것이 일포 .

응 , 우리 대엔 또 누웨 질르고 .

응 , 곤밥이난에 . 응 .

낫당 무시거 헐 거라 .

넬 영장이민 이 저냑 밤에 강 햄주 .

아 , 먹 골앙 ?

그런 거 엇엇주게 . 뱃에 일허당 어떤 사람은 질에서도 애 낳앗주게 우리 마을 사람 질에서 아기  
낳앗어 .

그걸 줘사 먹엉 살아날 거난게 .

그런 건 엊고 . 거 , 걸 , 무시거 비류들은 후쏠썩 헬실 거라 . 이젠 막 뿌럼주만은 옛날엔 것도  
엇이 햇주 .

으 , 그런 것이 질겨 . 불 때고 뭐 영 헤가도 깨꺼지지 안 해 , 이거 .

응 . 게믄 그 저 올레 저끗듸가 통시라난 ?

응 . 으쌰 살 .

아 춤향은 안 들어보션마씨 ?

속중의는 여자가 입는 거고 .

할망이 멧 번 해낫주 , 뭐 .

줌진 걸로 만든 것이 미투리고 .

확 부름이 부나 , 큰 비만 때려불민 담배에 몯 구멍이 나 . 터져 .

경하고 , 감저 할 때는 이거도 이것 저기 거름이 이서야 웜 거 아니우꽈예 .

이제는 그것이 알아준덴 하는디 .

경만 먹는 사름이 많아 . 보리сол에 좁쌀 서껑 먹는 사름도 신 사름 .

게난 나 안 골암서 ? 오래 가냘허지 못허난 그 즉시 못허민 못해여 .

무슨 내에 영장이서마씨 ?

독창은 들어보션마씨 ? 독창 ?

응 , 메는 건 동네 사름덜이 허곡 , 영 그 메는 저끗듸 혜영 무신 상여 씩우기 전인 아기덜이 웬 당덜이 허주게 .

경 행 사삼 터지난 ?

우린 족은삼춘 죽은 땐 일 년만 헤신디 우리 할으바진 삼 년헨 .

홍세엔 헌 건 그 저 결혼헐 때 놓는 홍세 말 아니라 ?

옷으로마씸 ? 어머니가 무신 뭐 미녕이나 웜로 만들아주진 안햇수과 ?

게서 강 보면은 , 개가 주껑 강 보면은양 , 물엉 이서 .

후나 들기 시작허민 거 잠깐 번식헙니다 . 그 밧듸가 잊어나면은 그 밧듸 따시 놓은 걸리는 거 .

지금은 후회나 . 육지라도 하나 셜야 조을 건디 .

아니 그냥 그네엔 하는 거 아니 ?

이제 곤밥 짓젠 하면은 쓸 씻엉 밥 언치는 건 마찬가지고 .

그런 거 봉가다근에 이젠 영 공간 나게 영 이렇게 , 이렇게 터지고 요디를 돌로 영 막아근에 저 흑으로 막 불랑이 .

그걸 딸려야 옛 뉘는 거 .

제조제하고 자주 메 버리니까 이제 씨가 물라 버렸다 말이주 . 여긴 물릇도 누웡 텁굴어도 옷 안 벼무릴 정도로 잊어낫다고 물릇도 .

그다음엔 혼수 헐 때 그때 이불 맷 채 햇덴협디가 ?

응 , 남전 네 개 .

건 처음엔 개인적으로 허다가 후제 .

술 엇인 때는 월로 혜낫수과 ?

눔의 밧도 갈레 다니고 .

으 , 굿을 못 허고 . 게고 상제도 어디 나그네신디라도 가젠 허민이 이 머리창 드렷단 건 , 이 마지못행 집이 아이나 죽으민 아니 갈 수 엇이 가젠 허민 머리창 드렷단 것도 클러 풍 가야 뉘여 .

그믄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? 조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협니까 ?

장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눔이 오만 원짜리를 나민 그건 대개 칠팔만 원짜리를 납니다 . 대개 구십구 프로 .

거의 안 만들어 . 며루치젖은 .

응 , 그저 보리 거 고구리만 .

으 , 미녕 안 해 부난 . 게나 제나 육지서 풀레 부수 온다게 . 미녕 베 .

예 그거 잇주 그거 .

빤스는 그 째그만헌 그 지금 입는 빤스 .

어 . 옛날에도 이서 .

못 뽑는 건 뭐렌 골앗수과 ?

여기는 돛국물에 놔서 오래 딸리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엇어 .

밥 종뉴에 대해서 골아줍서 .

돌아사라 . 영 동기는 줄이 싯주기 . 동기는 줄 누단착더레 동기는 거 웬착더레 동기는 줄 .

물축을 숫가락으로 영 . 마치 와 가민 영 넘어가지 안 헌 때 영 뿌린다 . 게고 술도 영 그레 뿌리고 .

낭끌 ? 돌끌도 가정다니고 .

지명 나왔을 때 얘기하카마씨 ?

그거를 약초영 막 숲아근엥 엿처럼 숲양 그걸 만들아 . 만들어근엥 그거 영 불르민 좋주게 . 그거 궤약 , 궤약이엔 허주게 그것그라 .

난 신조가 만약 , 운동훼 때 . 운동훼 때 하면은 , 물건 찾기라도 해서 딴 사람 자식한테 젖지 , 이녁 자식한테 물건 찾기 해서 가져다 줘 본 일 엇어 . 딴 아이들한테 우선 , 뭐 만약에 주전자 달라면 , 본부석에 앉았다 주전자 젖주게 . 내 자식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해 본 적 엇어 .

흔다리두다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고 결정 나낫수과 ?

크게 헤여근에 막 영상 영상하게 줄양 , 뭇양 .

그거 왜 하는 거마씨 ? 그건 ?

아 , 조개껍질 갈아 가지고 .

대띠는 들리 수주가 맞느냐 , 안 맞느냐 , 팔자 수주 , 들리가 . 게난 아니 맞은 사름은 또 몰라근에 , 아니 맞은 사름이랑도 후곡 , 잔칫 택일 잘못 해도 저 무싱거 후곡 , 경 후는 거주게 .

아무 때라도 그건 바농질허젠 허민 오그라지만 그거 허여 . 멩질 때 아니라도 남저딜 선비딜은 후리메 입영 혼 달만 입으민 버물지 안하느냐게 ? 버물민 그걸 다시 뽕양 끼왕 경행 허영 입져 .

안방에 허는 건 그기 저 무시거 코시힐 때 허는 거고 바깟디 허는 건 밧칠성이라고 해서 뒤에 눌눌엉은에 저 뱅뱅 둘렁 그디 강은에 뭐 올령 허는 거고 원 .

어 . 다 같았주게 .

음 , 고기 석 점허영 수에 혼나 놔 .

거난 이젠 한우가 고기가 맛좋던 헨 그 검은쉐나 얼룩소 , 식쉐를 다 치와두고 이제 한우만 질렀주게 , 노린쉐 , 지금 , 지금은 .

톨 허체 혼레 갈 때도 혼 줌 줍양 왕 행 먹곡게 .

어떤 사름이 가져가신진 모릅주 . 건 가져가불고 나머지 .

게난 그거 허여근에 크민 , 소금물에 동강 크민 , 익으민 짓벌겅허주게 짠짠허게시리 헤근에 소금 하영 놓민 딱 질어당 황에 질어 놔둠서 그거 허영 여름에 먹곡 . 따시 드릇마농 캐다근에 따시 그거 헤근에 드릇마농 헤근에 썰어놓 지 담양 먹는 사름도 잇고 , 따시 영영 뚉크령 짐치 혼 황행 놔둠서 쫓물에 쟁 놋당 여름에 먹고 .

패 , 바당에 패 ?

신기하다예 ? 여기에 그은 무끗물이 지금도 보관둬 잇수과 ?

경 헤부난 죽도엔 헷어 .

칠성은 그 하르방네 칠형제가 낫주게 . 경<sup>후</sup>난 칠형제 놓아 놓으니 그걸 칠성이라 헤여 . 별들이  
칠 개 잇어 . 칠 개 . 그 일곱 개 . 칠성이 그거 .

도깨비 불 봐난 건 없는데 .

예 그건 경허곡 음 . 콩나물 콩누물국도예 .

여기선 완전히 노란 거 .

껍질 중에 밖에 거는 베껴 불고 안에 속만 .

우리 남원에 잇었던 게 널당 .

감저만 ? 호박 같은 건 놓 안 헷수과 ?

응 . 이녁 동네 해지 웨엉 돌아오젠 허난 .

응 , 남방에 질 때도 그 소리주게 .

이 마을 주변에 오름 , 내창 , 바위 ,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.

거 제반은 거 저기 제사 지네기 전에 문전제 거 다 제반 해 놓고 , 제반 지냈다는 제사 지넷다는  
말이잖아예 .

예 , 맞수다 맞수다 . 그문예 , 그다음에 두 분이서 어릴 때 혹시 어떤 놀이 햇었던 거 기억남승  
과 ? 예를 든다면 남자어른들은 자치기라든가 여자 어른들은 공깃돌 놀이라든가 . 그런 거 생각  
나는 대로 골아줍서 .

그런 때는 우리 훈 열뒤 술 웨실 거라 .

아니 , 그건 치마허리고 .

게민 이제예 먹는 거예 . 먹는 거 물어보쿠다예 .

열 개 오십 센치 .

우리 밧듸 출을 갈아 , 아방은 저 산에 낭<sup>후</sup>레 가곡 , 나는 아기구덕 , 아기 져그네 출을 비어  
서 . <sup>후</sup>를에 가민 <sup>후</sup>루에 출 훈 발 , 아기 둘곡 <sup>후</sup>민 <sup>후</sup>루에 훈 발 비기가 어려와 . 경 오널 강  
비어그네 , 뒷날은 강 훈 발에 무꺼둬그네 뜯시 무껑 데며두어그네 또 뒷날 강 훈 발 훈 발 <sup>후</sup>  
곡 . 우리 성집이는 이제 글로 순비나래로 걸어그네 서광 학교 강 , 순비나래로 걸엉 , 불근오름  
앞의 오라그네 , 아기 둘례 뜯시 주물아가민 오주게 . 게민 얼매 돌아게 . 경 <sup>후</sup>여그네 그추룩 <sup>후</sup>  
멍 아기 돌아서 . 그추룩 <sup>후</sup>멍 아 경 <sup>후</sup>여신디 출 그때 세 바린가 , 네 바린가 <sup>후</sup>영 <sup>후</sup>여나 둔 거  
강 베려보난 오꽃 시꺼가 부린게 .

으 , 주름 앗정은에 무끄고예 ?

음 , 그러면 언제부터 일궤까지 입는 거라마씨 ?

훈도시도 안 하고 팬티도 안 입고 해불민 .

사람 훌령 그 헛것이 . 이제는 그런 거 엊어 .

그시락도 놋당 불 때곡 불치도 놓고 .

아아 . 날씨나 이런 거 참 중요허구나예 . 골갱이 엇이도 꾹꾹 찔렁 들어간다는 거다예 ? 김매기는 혼 번하고 .

아 , 맹주 차보지는 않안마씨 ?

우리 한동 공동 목장은 선흘 , 선흘 지경에 선흘곶이엔 헌 선흘 목장이 셔낫저 .

가져 갈 때 . 그 쏘곱에 광목 혼 필 놓고 , 돈 얼마 놓고 . 이제 여장 .

멧 개 뭐 요라 개 심엉 탁 데끼민 . 뻥이치기도 혜난 , 뻥이 빠단 .

조팝은 조팝만 ? 실락 아이고 좁쓸만 놓 ? 실락행 먹게 하민 그냥 고실고실 밥 물 맞찧 행도 먹고 . 감저철 나민 또 감저도 그레 썰어 놓 밥허민 맛잇고 .

아니 , 꽃신이 그땐 엊주 . 하얀 고무신도 너무 좋주 . 까망한 고무신도 이서나신디 하얀 고무신만 신어도 좋주 .

구완 못 행 죽음도 허곡게 .

고기 잡는 사름은 뭐엔 골읍니까 ?

그 작은 돌을 뭐렌 굽어낫수과 ?

이제도 그건 맛 좋아 .

여기도 그러면은 그 골체 멘드는 어른덜이 잇어낫수과 ?

해방 웠서 애국가도 , 애국가도 몰랐단 말이여 . 또 애국가도 그 나이 많은 사람덜이 이제 애국가음이 아니라 .

멧 대 멧은 아니고 . 그것은 혜 보지 안 하고 멜에 다 소금인 거 닳아 사 웠여 .

아 , 그럼 뜻은 어디서 나마씨 ?

아 , 사둔침이 부주가 ?

참새가 뭐 어디서사 연락후영 가는지 .

게난 그게 열 개민 .

예 , 쉐 먹당 나머지는 언주와당 더러 불도 숨주게 .

경 혜연 저번에 온 때에 지금 저 수나이 남학생이 이거 얼마간 이 여기 줄 그었는데 .

그것도 이렇게 어 도깨질 헤마씨 ?

음 , 안 둠아 , 작년부터는 안 둠안 .

아 , 그럼 거기에는 무슨 검질 나마씨 ?

근데 용수 놈들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몰라 그건 마을에서 그건 저 못하는 거 지금도 그 돌들이 거기 있고 얼마든지 증빙자료가 있다 이거야 .

여기에 또 이제 그 삼춘님이 경험 , 추억이나에 . 조로 해근에 헌 거는 제일 좋은 게 저 조밥 먹는 거 ?

게난 보름떡은 떡을 찌는 거고 , 예 . 이렇게 해갖고 시리에 이름 쟁은에 허는 거고 , 산메는 밥을 쑤 헹은에 밥을 허는 거라예 . 어 , 건 산메 .

게난 그 추룩헌 날을 삼춘 담그는 거는 집안 식구가 엇이난 본맹 일 피해근에 담그는 건가마씨 ?

거난 아까 뛰는 여기 혀간하고 웨양간이 나오는데 혀간하고 웨양간 따로 없이 아까 면문간에 그냥 같이 뛰잇다고 하는 거지예 ?

경 행 입영예 ? 응 모시를 , 저기 심어야 될 거 아니우꽈예 ? 그거는 또 아까 삼 ?

호와 . 감추는 것도 감추는 건 옷 풀어지지 말렌 감추는 거 .

옛날은 저 재 , 불 숨아 난 재 그거 다 메와근에 막 서깬 .

물은 행 허민 시방은 물궤기덜 다행 먹젠텔 허주만은 옛날은 물궤기 먹으민 부정허곡 허난 물 잡아 먹젠텔 안 헤낫어 . 옛날엔 시방 영화에 나온 사름덜 엇어 막 무신 높은 사름덜만 물 탄 뎅겨 낫주 . 아무나 물 못 타 . 그거라 . 싸우레 가는 사름덜 물은 아무나 물 못 탕 뎅겨 . 부제나 물 탕 뎅기주 . 이제 그뜨민 도지사 그튼 사름이나 막 부제 사름이나 물 타주 . 물을 아무나 못 타 .

또 소금을 담아야 해여 .

솔벤 멘드는 거 존존헌 거 엇어게 동글랑흔 거 , 우에 놓는 거 .

금줄 맷당 꿃나믄 탁 클러 불메 .

오른쪽 틀리는데 그거는 뭐엔 힙니까 ? 그거는 .

산디 농서는 삼월덜에 힙니다 .

겡 새 더겟주게 . 지동 세왕 .

곡석을 곱져낫주 . 공출하렌 헤불민 .

아버지가 술 그렇게 해서 먹고 삼촌도 먹어보고 ?

예장을 들이니까 그디서 봐 가지고서 아 , 사람을 , 우리 집을 무시햇 다고 웨 생원이엔 씻는냐 ,

훈장인데 . 경허난 이젠 안 받으면서 허니까 , 석용이 아방도 보통이 아니주게 . 겐 석용이 아방이 게민 당신네 훈장이민 훈장증 가져 오시오 훈장은 어디서 훈장증 주는고 허니 성균관에서 준다 .

옛날은 담 넓이가 상당히 넓었다고 . 웨냐허믄 이렇게 허민 일로 담을 쌓민 일로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도 다니곡 적이 와가민 총도 씹는 그 총구녁이 잇수다 . 다 만들어졌어 .

싸와낫주게 , 둘아정 막 물어불멍 .

그디도 백중날 목욕허레 가곡 . 이 선흘은 물 엊어부난개 .

이 쟁기 , 쟁기 .

이 하르방이 . 하하하 . 쉐스랑 가정왕 파불肯 .

고고리만 보리클로 홀타놔근에 . 이 대는 , 보릿대는 엇어지고 보릿대는 뜨로 앗앙 눌고 .

영장 날 때 훑은베 .

예 , 갈독지예 ? 갈적삼?라 .

삼춘 떼는 푸는 게 나오니까예 .

하나 소왕 , 첨 첨 소 메는 소왕간이고 .

아니 , 가시린 숨지 안해영 그냥 들이청 . 오래 , 오래 숨으민 .

쓰랑쓰랑 허게 흰쌀로 해기네 .

소는 기를 떼 어떻 기릅니까 ? 소는 .

아 , 긴 줄 올리라 짤른 줄 올리라 , 난 몰라 .

아니 , 무신 생선으로 국 끌려 ?

풀 베는 거 . 그것만 허명 살았어 .

모양은 어디 남아 이실 거다예 ?

예 . 계문 우리 삼춘은 연 잘 만드는 사람 축에 .

옛날에 거름 안 허연 .

요즘은 그보다 좋은 쌀들이 많으니까 주식용으로는 안 하고 새 용으로 하고 .

집이 놀 때 출도 헹 맥이고 해야 될 거 아니 ?

정뱅이 적숨 짤른 거 .

그 이 신랑이나 신부나 저 밥을 다 먹지 아녕양 ?

연료로 쓰는 거 봇는데 , 할머니덜이 .

아 , 그럼 혹시 우리 상웨떡 크게 만든 거 말고 친떡 대신 만들어난 거 말고 네모나게 .

그 옛날부터 이 집에 제라는 거는 그 집안에서 그 어떻 어떻 해가지고 끌어나가던 그런 식으로 따라오라 가지고 제가 둬는 거난 그거는 문전제고 제사하고 그런 거는 집집마다 .

응 . 게난예 . 증거물이 다 사라져 불었어 ,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증명 해 줘야 둬는디예 . 안타까운 일이고 .

겐디 우리 성산 쪽에 우장이 젤 췌고로 둔돈<sup>후</sup>게 만들어졌써 .

늙은 물 안 버립니까 ?

지슬 게난 <sup>후</sup>나썩 톡톡톡톡 <sup>후</sup>나썩 .

콩이 도장해가지고 그 열매가 달리긴 달려도 .

패마늘 해다가 이제는 다 까는 거라 . 탁하게 시쳐가지고 건져가지고 막바르 담가야 맛잇지 소금 국에 담갓당은 맛없어 , 찔겨가지고 .

아 . 그럼 가문잔치 때도 부조 해마씨 ?

우의 입는 그 죽은 사름덜 입지는 호상도 다 맹지로만 만들았수다 .

게민 깡통차기라는 것도 이섯지예 ? 깡통차기 . 깡통에 뭐 집어놓 막 달그랑 달글랑 소리 나는 거 .

메주 이렇게 빛은 게 단단해 ?

건 남저가 지 . 남저가 영 들르는 거 .

아 . 메누리랑 사위는 잇고 ?

쉐 쉐 맥이는 사름<sup>?</sup>라 테우리렌 <sup>후</sup>난에 .

말만 들었주양 , 우린 잘 모릅니다 . 물총모잔 .

건 아이고 이름 잊어불언 못 골으켜 .

쉐뿔놈<sup>?</sup> 우로만 나오는 거 단지는 땅소곱으로만 들어가는 거 .

에헤헤 물 물웨는 저 이제 봄 , 어허 유월 육 혼 오월 때에나 싱글 건가 , 오월 말쯤에 싱글 건가 , 물웨 오월 말 유월 초에 심글 거라 .

아 그렇게 우린 해보지 안 헷주만은 .

아 , 암커 , 수커가 잇어 .

그 우이 꼭대기 싹 나는 딜로 말고 뿌리 나는 딜로 .

물렌 이제 영 불르는 거고 , 물레하고 싸곡이 씰 빼곡 허는 것이 물레고 .

미역체예 . 진설이 , 진설이 뭐과 ?

예 , 그 둉글락<sup>ㅎ</sup>게 , 저 사발에라도 가르지 안 행 통으로 쳐그네 , 톡<sup>ㅎ</sup>게 비와그네 .

일단은 고 다음에 강 골아주민 웬 거 .

막 아이 존 거 .

나 몸도 멧 멧 좋으라고 경헨 골아 , 경현덴 .

게난 그 돌을 뭐렌 협니까 ?

으 , 옛날 어른들이 재미진 그런 말 잇어 . 그리고 삼춘 , 맨 마지막에 한 떡 이런 거는 누게 먹지 말라 .

발로 똑똑 불르는 거라예 ? 보리 불리젠행은에 연 날리거나 이렇게 허진 않고 ?

궤어 와가민 소곰 서너 방울 확 들이치민 . ㅎ<sup>ㅎ</sup> 쇠 잔질랑 , 헷다근엥이 또 숨아 가 가민 . 또 궤어 가민 . 소곰 서너 방울 또 들이치곡 행 . ㅇ<sup>ㅇ</sup>라 차례에 소곰 ㅎ<sup>ㅎ</sup>끔석 ㅎ<sup>ㅎ</sup>명 끌여근에 . 경 행 간 봉다 끌여지만 간 봉 싱거우민 . 소곰 더 놓곡 .

집에 잇는 신 . 집신 . 자신에 대해서 . 집집마다 신들이 잇다고 하잖아예 .

것도양 . 왜정시대로부터 유리다마가 나왔지 .

아까 그 문우장 가정 아침이 들어오민 올 땐 어떻 해 ?

서른 못이 이제 혼 바리예 ? 삼춘 아까 혼 도롬 , 두 도롬 헷덴 허는데 그 혼 도롬 한 거는 뭐우과 ?

이 저 반찬도 보민 계절에 따라 막 틀려 아니꽝 ? 봄원 어 무슨 반찬해 먹습니까 ?

저 콥데산이 뺏아근에 놔근에예 .

으 . 짜도 그 객객 . 짜다는 말은 .

경행 키와근엥에 한밥 먹엉 혼 메틀 시민 누에가 그 .

도새기 질루젠후난 쉐에 갈 거 셋수과 ? 도새기 맥이젠후난 , 어느 저를에 쉐 ㅋ<sup>ㅋ</sup>뜬 거 .

개창 막 크지 않고 ?

가깡 것도 멘들아사 뒤여 .

그디 잊어, 지금도 .

떡 부스레기 . 그다음에 반죽할 때 물 하영 놓면 .

에이구 , 여기 아가미 엇주게 .

구월덜 . 음력 구월덜 .

보리сол을 벌러근에 이제 그거 게난 그 벌른덴 허는 말은 거핀덴 하주 거핀덴 .

사모관대 쟁 갓다 오민 그게 결혼식인 거라 ?

졸국이 , 석 덜 뛰 가민 상제가 강 날을 봐 오주게 .

부침 하난디 이젠이 원 엉다게 , 문딱 떠난 .

물박에 헤다낳 헤여 . 물박더레 문 툰아낳 .

메 날 그자 강 . 흐꼼씩 잡아당 . 간 땐 잡아당 먹고 .

우리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젓 먹은 거 생각남서 무시거 접시에 새카망 뭐 한 거 영 허영 아저당 보민 우린 그 거명하덴 허명 안 먹엇주게 .

나 십이월둘에 결혼하고 뒷해 나니까 구월달에 구 개월 만이 제대핸 완 게난 제대핸 오난 그 집 짓어난 디 강 뚜로 살렌 헨에 뚜로 살안 .

죽 안 쑤는 거 , 죽 못 쑤는 쑤사 어디서 ? 석상비сол도 냥 죽숴도 뛰곡

예 . 쉬는 어떻게 질뢰마씨 ?

주챙이 , 이건 누람지 뻥 둘르민 꼭데기 트멍나지 안 흡니까 , 이추룩 흐믄 게믄 주챙이 맨들양 톡 더꺼불민 부름 걷어지카부덴 베로 역던지 , 돌로 지돌 르던지 경 흐는 거 .

야 . 쟁 먹으민 둘아 . 둔데 많이 먹으면 여기 목 아파 .

하영 심어야 될 건디 .

허허허 호박입국을 어떻 끌려 ? 물 게 놀근에게 데와가민 궤가민 놀근에게 그루 놓곡게 .

가시리 풀 . 여기선 가시리 풀베낀 안 헤여 .

밤 혼 혼 시 , 두 시에 나가면 짙기 전이 들어가는 거라 .

아 , 안거린 시아주방 살고 .

청은에 넘어가민 지는 거 ?

헤가지고 , 초가집이엔 말젠 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웩 케다가 그냥 발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막이로만 헤근엥 그렇게 헤난 ,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잔치도 하고 .

어 , 어 . 훈 펜 바우는 요렇게 놔두고 율로 시작허믄 율로 영 요꺼지 .

쉐뚱이나 물뚱이나게 물른 거 , 쉐뚱이나 물뚱이나 쪽쪽 ..아

빙글빙글 돌아야 될 거니까예 ?

삼도 경 . 모시거치 .

우리 눌 같으면 돌멩이 ?

당헌 상제만 이젠 복치메 입고 복치메 소곱에도 상제가 몸빼 입암주 이젠 권복덜은 시누이 아지 망덜은이 다 몸빼로 쥐불어 .

예 . 겐디 그거 허전 하면은 지붕에서부터 .

벌초 가면 이렇게 벌한테 쏘이기도 하잖아예 ? 그럼 벌한테 쏘이면 어떻 허주마씨 ?

게난 조천에서 출발행 대판까지가 닷새 ?

흐꼼 저 물령 물양 돼지도 그냥 젖은 때 흐꼼 주민 씹엉 먹어낫저게 .

응 . 딱딱하지 안허여예 .

그레 톡톡 타 놀기네예 .

허갈 아이 마타서 걸리게 됤면 사름을 괴롭히고 경하지 말렌 하는 문답을 허주 . 그 숫?장 차압 허진 안허지게 . 견디 그때는 무법천지 법이 엇은 때라 수삼사건 때 .

으 , 허리 잊고 .

예 , 예 . 맹지로 , 맹지로 헛수궤게 .

경행 셋복은 뭐고 상복은 뭐꽈 ?

일 단계 돌아가멍 죽 궤어낭 .

옛날에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비고 .

그축룩 멘들양 단추고망 만들양 옛날은 단추 엇일 땐 별무작 .

칼도 이실태주 . 그치 둘황 , 먹통에 .

예 . 이름은 몰라 .

경 옷 정도 그자 그땐 해주난 .

진풀 골은 건 혼엇이 안 날 거라 . 이건 마른 밧이 나는 거난 .

이 동네 유명한 디 또 뭐 이수과 ?

궤 우의 놓는 거라 . 경 하민 버른은 경 잘 혜난 . 옛날은 의자 그런 것도 엇이난 사름 굽으민 그 우의 올라가근에 그거 혜근에 .

이건 아무 때나 허는 거 아니잖아예 ? 이것도예 .

탕쉬 , 탕쉬 , 탕쉬용으로 .

혹 놓는 것이 첫째 . 야 .

그때는 양식 보리 한 말이면 보리 한 말 모아 근에 바령 밧디 바령을 들이곡 .

가메도 아니고 그자 걸어갔다 .

다 음력으로예 , 게믄 훈 칠월달이네예 .

콩 , 그때도 서꺼 .

응 경 먹을 거라 .

으 . 유월 스무날 빙애기 꾀왕 .

옛날 그믄 그 도새기 , 도새기렌 헷수과 도야지렌 헷수과 ?

이제 그거 들엉 톡 어프민 그냥 떡만 나온다 말이여 .

그 다음엔 문을 만들 때는 문설주가 이섯잖아예 ? 문설주 .

설귀떡이렌 헌 말은 안 해 ?

경 행 끌리는 거주 .

거니까 나쁜 말 놀리는 걸로 .

술가락으로 거려도 먹곡 뭐에 무쳐도 무청 먹어도 좋읍니다 .

우리가 그 남을 떼주게 . 낭 혜땅 떼는 거 그거 끼왕 놔뒀당 .

예 , 예 . 바나나 종류네예 ? 아 .

이 동넨 다 광산 김칩 . 기구나예 .

사람 그트민 주글름 탄다는 말로 .

예 , 예 . 정그레예 .

잣담이 벡담으로 뛰어 잇주게 .

, 굿이나 집이나 나그네 촛으나 . 요센 술 메는 디도 벼랑 엇나마는 .

풍선 명칭 알아지쿠광 ? 요거 훈 건 초석이고 .

맞다 , 장항뒤 . .

아 , 그 학교에 이신 당은 하르방당이파 ?

물을 허게 웨니까 말이야 , 이런 지하 판에 경현에 올리멍 먹언 . 여기 그런 것도 서귀포 우리 어린 때 강 보면은 춤 서귀포는 물이 많이 나니까 통 만들어서 먹고 햇는데 이дин 전부 두레박으로 .

으 , 이 세 사름은 저 절만 허고 그 사름 양쪽에 사дум서 이레 수저도 놓고 잔도 굽고 . 영 이레 제관신더레 잔도 앗다 드리고 허는 거주 .

게난 맞수다 . 걸린 사름들 엊어낫수과 ?

감티라고 . 지달피 감티여 뭐 뭐신 , 텔 병것이여 행은에 거 아무나 아이 씁니다 .

살기는 좋은디 노력은 더 해야 웨여 .

삼 년이엔 혘다 . 삼년 천도 친다 허는 디 세 번채 후는 건 담제 , 게민 삼 년이 웨주기 . 죽엉이 , 죽엉 , 묻으민 글로부터 세영 일 년 시민 소상 또 일 년 시민 이제 대상 이 또 석 돌시민 담제라고 건 담젠 막 담아간다고 마지막 허는 거여 . 담젠 석 둘 시민 담제 헤낫저 .

조침으로ن 그거 안 허여 , 어시니깐 후주 .

내창 이름 그냥 무끗딜로 내려온 내창이엔 경만 헤낫주기 .

우리 전에는 그런 게 없어 .

건 막 허기가 힘들어 .

예 , 게난 멜젓이 용도는 김치하고 양념 버무려근에 양념 놓고 .

가린석 . 게민 것이 쉐가 익숙으민 이젠 조꼼만 뻬겨가민 꼬짝 나가고 . 물도 그렇고 .

그 다음에는 ?는 거는 그 쓸을 이 깨는 거 .

주근깨도 기미랑 기냥 ?찌 .

소목장은 저 웃드리 강 이 으름 나가민 목장 강 올리주게 .

나룩헐 땐 만약에 논이 벡 펭당 모가 얼마들 거허영 , 나룩씨를 이녁 해난 나룩씨를 멧 말 멧 웨 , 그런 식으로 펭당 멧 펭이민 이 씨가 멧 웨 모종을 놔야 훨 건가 ?

허리 치메 치메에 허리 둘고 곰 둘곡 . 허영 입엇주 .

응 , 절벤은 또 안 치는 거마씨 ?

여디도 뿌리고 이디도 뿌리고 영 허면은 이걸 밭에다가 다 뿌려 . 뿌려 난 다음에 밭을 갈아야 이걸 밧디 다 뿌려 . 뿌려 논 난 다음에 밧을 갈아야 .

그러면은 두 번 헹은에 간 다음에 좁씨를 빼염쩌예 ?

이 뭔가 한경면에서 복지훼관 거기 놔 앓고 또 리사무실 잇고 또 그 웨에는 학교 . 그것벳그 엇어 .

밀리는 딘 무신거 , 잡는 디 이름이 다 잇지 안허꽈 ?

웃삼달리나 , 알삼달리나 똑?타 , 여기 주어나 ?

응 . 고구마 막 받지 못해영은에 공장에 강 막 시꺼다 놓 찻데기로 뜨지도 안행 무데기로 해영 막 풀명 헤낫저 .

우리는 경 아네여 . 먹도 아녀고 부모도 쉬이도 아녀고 경헨 살안 .

형님 , 빨리 옵서 , 빨리 옵서 . 왜 , 왜 . 허니깐 , 이제 그 말 들엉 보민 춤 웃기는 말 .

그런 걸 다 목수가 요건 어디 쓰고 어디 쓰고 목수가 남 , 집 짓기 전이 강 그 남을 다 지정 , 지정해야 뛰 . 그런 남을 .

양쪽으로 영 놓 떨엉 뛰싸놓 떨곡 이렇게 해영은에 헌 다음에 이 풀엉 .

저 먹는 사름덜은 당캐 강 먹어옵니다마는 .

이사 갈 때 뭐부터 가져가야 뛰는 거 그런 거 잇수과 ?

건 아무사 아무나 못해여 것도 바느질와치 잘후는 사름이라사 주

그런 거 다 올려 . 떡도 다 지와 , 작구떡 다 .

응 , 경행 그리쳐 .

그 다음에 깅이죽 , 갱죽도 잇엇수광 ?

아 , 바로 밧갈쉐가 뛰는 게 아니구나예 .

알린덴 허는 거 치통이엔 허느냐 ? 치통은 안 들어보고 , 이빨 싯당 알리는 수가 싯주기게 . 응 . 치통 , 것이 .

경기 , 뭐 정새라고 헤마씨 ?

셋 . 쌍둥이가 아덜 ㅎ나게 .

응 , 피 무처지게 .

살아 잇는 거예 ? 죽영 놓는 게 아니라 .

이거나 이거나 크는 율은 ㅋ따 .

아 , 이것도 짹글르게 .

술 춘인이 제국 시절에 , 술 춘도 어디덜 이실 거여 .

초불이엔 안 행 훈 불 , 두 불 ?

반춘 뭐시냐 허민 저 바나나냥 닮은 건디 옛날 이디 시난 반추 , 그런거 해당 .

바닥 안으로 해서 장지방이고 .

두물민 거려버리거든 . 가지가 나 불어 .

그거 만들고 , 또 저 어디 강 쓰쟁 하면 이젠 또 거세기 . 수꾸락 , 수꾸 락떡엔 헌 거 잊어 .

동지미짐치영 또 . 무신 짐치엔 골아라만은 .

이거 세 갠 허젠 허민 막 바빠 . 경현디 그때 장 보렐 못 가 . 요런 바우 완료시키질 못행 .

예 , 여긴 짓 .

게 그 솟 그 , 솟 영 바우그라 솟전이엔 허주게 .

꿰물이주 . 어이고 , 남조 수나이딜 가파 후여근에양 .

경현디 그디 갈 때는 동글락떡 해영은에 그 돌레떡이라고 잊어 .

으 , 약궤 . 약궤하고 또 만둬 . 거 만두가 빼졌구나 . 만둬하고 .

다 익엉 비젠 후단 보면 모를이 하나도 엊어져불여 . 몬 떨어져 불어 .

후쓸 따뜻헌 때 놓왕 허민 빨리 먹곡 .

북군에는 일 년에 두 번 .

여자 그트면 생리 . 그런 것도 피허렌 허곡 .

이거 옛날은 벡장 , 벡장이라고 헷어 .

거 쪼끔 산덴 하는 집이나 자리젓 하주 . 경 아년 집은 자리젓도 못행 먹어 .

경 아녀근에 후꼼 가난헌 집덜은 보리철에는 보리만 놓 해영 먹곡 .

으 , 나서 , 결혼하고 나서 .

으 , 뭐도 허고예 . 그럼 무치는 건 . 고물은 ? 떡 우에 하는 거 아까 콩하고 ?

돈도 엊고 가난하고 허민 저 이젠 막 이것저것 하간 것 뭐 온갖 것 다 허는디 .

어디 돈 엇이민 아들 풀아지쿠과 ?

두말떼기 말고게 , 중솟 , 중솟 .

어쨌든 순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예 ?

콩 꺼껑 그 다음 .

걸름하는 거 말곤 다른 디 쓰는 거 엇수과 ?

보리 껍죽 . 보리 껍주게 .

콩은 그냥 생으로 못 먹잖아마씨 . 보깡해야 뛰는 거 ?

저거 , 저런 나까우리 .

깬닙이 유입이우다게 . 깨입이 .

으 . 그 물을 자리에 강 .

이연발 , 박죽 또 ?

경행 사려근엥이 이제 쉐질메에 톡 시깽 강 풀어근에 짐 시끌 때민 풀어놓 양쪽으로 둘이 시끌 땐 양쪽으로 시끄민 막 좋아이 .

심방덜토 놈의 집 다 큰굿 마쳤당 그거 오민 어떻 아니 가집니까 . 게도 다 큰굿 헙니다 .

베 . 게메 , 삼으론 베 , 베를 짜니까 .

것이 엿이 뛰부는 거주 .

꽃은 하얗고 , 알맹이는 껌시롱하고 .

응 , 삼춘 게난 , 맹주 혼전 혼난에 이번엔 누에치기예 .

예 , 예 , 예 , 예 .

겐디 샷부름이라고 허는 거는 이 여기서 같으면 제주시 쪽으로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.

게난 소똥이나 말똥도 주우레 다녀빛수과 ?

좁쌀 작작 빠영 , 좁쌀 그걸 사람 손으로 .

아 , 서울 강 사는 거 ?

어 , 웬장 담글 때 어 웬장은 언제 담금니까 ?

단오엔 저 폐마농 해영 영 영 감양은에 걸로 적 멘들고 .

무시거 혼여 . 껏닙도 잊고 .

아이 , 잘 불립수다 . 나중에 그거 다 잘 불러야 됩니다양 . 그 다음에 더 잇걸라그네 어떻 .

예 , 삼춘은 어떻 해영 경찰을 시작한 건 언제과 ?

메끈 응 메끈예 그리고 또 아래 거는 ? 또 아랫 건 ? 그 , 밑에도 이렇게 ?

그다음에 험벽덜도 잊어야 될 거 아니우꽈 ?

탈 그튼 거 . 예 . 그런 것만 주로 우리 어린 때는 그 참 , 그 간식이 바로 그거라시니까 .

지난에 영 흡디다 . 이마팍 팍팍 조져봅디다 . 진 사름덜 수나이덜끼 리

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안덕초등학교 뿐 , 안덕면에서 . 중학교가 중간에 생긴 거주 , 안덕에는 중학교도 없었어 .

좁쌀만 놓 하는 거 ? 무신 조로 해근에 헙니까 ?

경해도 곤밥 아니 ? 새각시밥은 ?

셍멩지 다듬은 건 그자 맹지 저 경 흡디다게 .

일로 도야지가 들어왕 이디 강 볼일 보면은 먹어 .

마늘 . 고춧가루에 물 딸릴 거 아니 ? 멀치 물 딸령 .

호박입국도 물 끌려가민 놔근에 장 놓 . 그루 놓고 헹 먹는 거 . 호박입국은 그루 엇시민 못 먹어 . 까륵까륵 헨 찔러 부는 거 셔 , 호박잎은 .

허허 . 으 과질 , 같은 것도 안 해나고예 . 흐린조 좁쌀 좁쌀 .

엊주게예 . 보리밭 헐 때 걸름이 잇이난예 .

어 , 그런 것도 잘 .

집에 대들포 . 우리 집 대들포 . 저 놈은 우리 집 대들포 허영근엥에 말하는 게 .

떡 시리 안 익어 가민 침주렌 해영양 .

당물 ? 어디 이수과 ?

걸물 , 솟두못 , 가름에 뜯이 하 .

하나만예 ? 삼춘 , 적삼하고 ?

갈적삼 음 .

이제 도토리낭이나 그런 그 뭐 춤낭 .

음 , 경 허영은에 이제 하고 , 새끼 , 전복 새끼는 뭐렌 헙니까 ?

아니 , 녹듸죽은 걸르지 안 흡니다 .

그게 종가침에서 오래 살아온 ?

새해에 이듸 강 막아 . 올하는 서 막았어 . 새해 나면 남 막아 .

그때 잔칫날 음식은 , 삼촌 결혼헐 땐 어떤 음식덜 헤낫수과 ?

무수 내모는 소리 하여 . 뱃 불리는 소리 오래곡 .

건 우시 , 우시 .

체햇을 때는 체 내리는 사람신듸 강 체 나오랏주게 .

흔 둘만 웨민 트건 물리와 . 벳듸 내낳 .

이남삼녀 ? 뜰이 젤 맏이꽈 ?

응 , 감주 . 감준 어떻게 만드는 거마씨 .

으 , 조상이 다 제주도 .

응 , 상뒤 빌민 그 사름덜이 다 파근에 해영 허고 개광 두룬 사름 또 퉁로 잇주게 .

멜 , 멜덜 들어와나세계 멜 .

찹쌀 같은 거 . 산趺밥 맷밥 .

아래 이렇게 간 건 귀클 .

그 소서가 그 저 머냐면 중이냐 저 거시기냐주 저게 .

갓누물로는 우린 안 해보난예 . 먹어보지도 아녀고 .

쉐 쉐 맥이는 사름은 .

보리를로 흔 놈은 , 이렇게 메왓주 . 이렇게 메운 거 , 흔 놈은 사서 훌트고 흔 놈은 흔 줌씩 접 아주주게 훌트라고 .

기주 멘들앙 허고예 . 게민 순다리는 어떻 만듭니까 ? 순다리 ?

밧거린 쉐왕 . 경핸 살멍게 그 모커리 핸 살멍 요딘 방이고 요딘 정지 시난 그디 솟 두 개 앗정 그레 골양 수레기 반 , 뉘 . 두루 골아진 건 뉘 신 거엔 허주게 조 방울 신 거 행 밥행 먹으렌 허난 기가 맥힌 말 아니라 ?

그건 좀 잘사는 집 . 게 이문간 해영 .

옛날에는 제완지 뭐 헷는디 , 진풀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디 요지금은 진풀 제와서 못살아 . 제초제 해서 크기 전인 드르 잡당 봐도 나는 건 그놈의 검질 , 옛날에는 그 검질이 그렇게 없었거든 게 .

게난 식게 때 정도 했지양 ?

그스락불 피우젠 허민 .

우리보다 우이 뛰영 막 갓주 .

영 아장 우리추룩 얘기해주게 . 저 가운데 잇인 것이 마루주게 .

갈란 나강 덕천 친정에 가난 .

아이 큰일 나 . 잘못허민 심어 가고 벌금 물고 헌 따문에 , 도둑질로 .

호랭이로 비민 따시 또 아이덜은 비민 난 조름에서 영영영영 멱여지 민 아이덜은 쑥쑥 잡아 뎅기  
멍 영 비어가민 나가주게 .

시방도 막 가죽 수입하는 거 보난 소금했당 막 발령 나옵디다만은 그 식으로 막 발렸당 이걸 송  
곳이 뚫으는 누슨 송곳이 이십니다 .

조 불리는 순서는 그 , 시간을 또 정해주게 , 그 마주 임제가 아침이 허라 거시기 허라 . 그날 영  
거시기 허는 사름을 영 보아 가지고서 그 질 잇는 데를 우선 해주주게 . 질 엇는 딘 , 옛날은 질  
없는 디 막 안 밧도 잇주게 .

아 , 계난 묘종 놀 땐 거름 해근에 .

사잎 클로버라고 해 가지고 , 그 사 에이치 그룹 , 지금도 사 에이치 조직이 좀 잇을 걸 ?

요만큼 해가지고 갑을 내와가지고 것도 간장 끓여 .

예 . 그 다음에 이 졁썰죽도 췄지예 ?

이게 긴 건가 ? 대가 ?

뭐이든지 뚜나 . 영 그릇도 다 뚜나 .

진 낭 놔십디다 . 그냥 그자 굴무기낭 .

이제 우리 군인 갈 때 팡 팡 이디 다 뭐 헐 때 차 후퇴 때 우리덜 다 가세게 .

예 . 그 미끄럼 그 저기 이 미끄럼 같은 거는 안 해낫지예 ?

아 . 그건 한 스무 살 , 서른 살 그때쯤엔 .

허허허 , 우리 그땐 무시거 서사 놓주 , 번씩 엇언 .

어딘가 막 씨러저근에 막 여기 막 피나고 막 굵어먹고 해근에 .

고랑은 이제 납작한 디가 고랑 .

예 . 게믄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성씨가 젤 하우꽈 ? 요즘은 , 요즘 도련 ?

게 옛날에 거난 골암주게 . 옛날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엊어낫젠 허난 우리 시절엔 아무것  
도 .

응 , 소분하고 제허곡 하는 .

어디쯤 가민 아무 디 가민 골아 메야 헌덴 허명 다 왕 골아 메라 , 골아 메라 .

가는 사름덜은 잇어도 아무나 이녁 먹을 거나 허주 . 장사꾼덜이 엇어 .

영장 난 때 신는 신이 따로 잇어낫수다 .

그럼 , 뻬이치기 허전 허민 뻬이를 뽑아와야겠다예 ?

응 , 지슬 . 그 다음에 따른 것들은 .

경후민 산듸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?

패마농 지시는 뿔리도 허곡 썹도 허는데 썹은 떼여불여 .

소곰풀 허면은 우린 어느 정도 허냐민 소곰 콩 혼 말이민 소곰 두둬 정도

거문 그 보리는 다 해근에 집안 마당까지 갖영 오는구나예 ?

응 , 우리 어머니네가 혼 이십세 웰뚱말뚱헐 때 그 양태를 막 잘 줄아 놈은 혼나도 서툰 사름 힘든디 우리 외할마니가 이 양태를 대를 잘 멘들아 주니까 .

아 , 뜻으로도 장을 담아예 ?

거난 어린 때 말고 큰 다음엔 ?

생선국 종류 골아줍서 . 생선국 .

피마자인가 ? 잎이 영 헌 거 보민 피마자 닳은디 .

남자 옷에는 어떤 옷들이 이섯수과 ? 남자 어른 아이덜 옷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이섯수과 ?

족은마누란 기냥 이 뜰떼기<sup>고</sup>치 놋이 삭삭삭 나곡 , 눈곱제기 잡혀근에 열 나가민 그 뜰띠 삭삭하게 뜰띠가 과짝 나주게 . 과짝 낭 그것가 영 궤양 헤가민 혼 일주일 웨가민 삭아지주게 .

건 어떤 식으로 만듭디가 ?

그거 딸 때에는 탕탕 바농 소리가 막 난다 . 이 실 거치 헌 것이 이 등멩이에 사려져서 게난 그걸 두드려야 그걸 좋는다고 그래서 .

버섭<sup>후</sup>고 벳은 췌 , 췌 .

그거 혼 쪼가리 갖다 놓곡 이제 그 죽 췌서 그거 조청 먹는 거 .

사당 ? 옛날엔 사지 못 할 때는 안 해반마씨 ? 칼국수 ?

떡 어떤 떡을 헷수과 ?

옛날에는 문게라고 안 헛수광 ?

엇이민 그자 독 잡양 깨끗이 시쳐둬근에 춤 아까 곳는 물 놓 물 삭삭 끌이민 독 비아농 독 앗아 놋근에 그레 놓 그 숲아 가민 거저 익어 가민 요즘은 독 건져두고 죽을 쇠 우린 쇠 먹어도 그때는 그자 그 독 이신 채 쓸 비와놋근에 쑤민은 독에 죽에 막 버무려지민 걷정 고기도 갈랑 먹고 식구 으라이 훈 명씩 갈랑 먹곡 죽도 훈 사발씩 먹곡 경허명 살안 .

줄기는 그냥 뭐 데우청덜토 무청 먹곡게 .

무수짐치도 뭐 똑딱똑딱 썰어근에 그거주기게 . 양념이엔 헌 거 그자 고치

헐랑헐랑하게 얀드룩게 들이젠 헌 사름은 물 서터서 들이고 .

목시가 잇주게 , 목시가 .

겡 뽕양 왕 뻬이치기를 . 영행은에 .

아 , 이거는 무꼴 ?

가루 . 뭐 헐 때 쓰는 가루마씨 ?

우리도 징조도이 재기 안 헐 건디 자이네신드레 우리가 팔십이 .

게난 경허난 요새엔 요양원에 보내는 따문 . 게난 요새 사름덜 경행주 옛날은 경허멍 다 큰아덜 만 주단 보난 편씩 . 이젠 다 동등권이라고 . 집인 뜰 멧 개고 ? 어멍 , 아방 다 살았어 ?

게난 이 우에 성 벳깻디는 다 불테워부러신가마씨 ?

뭐 , 뭐 잇어마씨 ? 바느질 헐 때 쓰는 거 .

아니 보통 헌 거를 게아니면 철사 ㄱ튼 거를 꾸부려서도 ㅎ고 .

할망 잘 아네 . 여자가 어떻 잘 알암서 ?

게민 햇불로 허민 그거 고기도 보이고게 .

으 , 으것도 . 으거 . 게난 또 여기에 그 벳흔 혹이 묻으면은 밧 다 갈면은 그 돌아매는 게 이서 . 벳칼이라고 해서 . 낫 모양으로 멘든 거 . 우리 수저 모냥으로 멘든 거 .

광복도 미녕이랑 마찬가지라 . 아무거나 만드니까 . 광복으로도 웃 멘들고 .

이 낭을 이거 . 끼울 거니까 뱅 . 이거 소소현 딘 엇어 . 어음낭 , 어음낭 허영 경허민 이거 둘러 놓민 요 망사리도 이거 족으면은 영 줄어지고 . 테왁은 요레 어떻 행 돌아매곡 .

그믄 열무김치 잇잖아요 ? 배추김치 말고 열무김치마씨 .

응 게곡 . 또 이따근뎅에 감자 싸라 놓곡 좁쌀만 놓 밥 , 니젱이 놓고 행 밥도 행 먹곡 .

흔 짹으로 먹어 가민 훈 짹더레 물이 가 . 쌀은 겁덕은 잇지 그거 틈 자지 않은 때 빨리 먹을라고 밧디 , 아침이 조반 좀 인칙 일어낭 여저가 허민 허고 좀 늦게 허민 시간 웨민 밧디 가야니까 .

보리 국죽 . 보리쌀로 죽을 씁니께 . 여기 족쌀이나 곤쌀이나 아무 쌀이나 냉은에 불와 먹기 위해서 .

여기 무끄는 거 행경 , 밑에 부분 ?

아 , 틀어사 , 아이고 바느질 ? 심도 하긴 하우다 .

예 , 낭 삭다리딜예 ?

모르고 . 것도 사당 .

그것 해서 게난 골 , 골 ? 르 .

예 , 어떤 것덜 이신고예 ?

그건 몰라 . 그 구녕 무신거 .

헹은에 이젠 그 부분도 아 그것도 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주게예 ?

아 , 장도 날 봐서 담아 .

아이고 뺏데기 오족 헷수과 ? 이레 .

이만큼 헌 이 호강이가 돌로 웨엇어 .

무신거 영 놔근에 저영헌 통에라도 놓 , 막 , 저런 다락 깊은 것에라도 놓 막 옷 뭐 더껑은에 이제 막 부르거든 . 딱딱 막 부르민 데깍허민 궤양 비왕은에 이젠 어디레 뭐 더껑은에 이젠 트우는 거라 .

어떻 말이라 . 삭삭 더운디 보리 비당 앗이민 누게 물 훈 적 주진 아녀곡 그자 앗이민 촘 아 , 촘 죽어불고 싶은 생각날 때가 하주 .

야 . 콩 ? 툰 거 전혀 아이 가정 다니곡 . 시방은 약콩이여 푸린 콩이여 두불콩이여 놉니께 . 콩 밥은 교도소 .

웨나 물웨나 둑 개 아지곡 훈장이나 훈 두어 술갈 아정 가민 걸로 반찬허영 먹엉 밥 먹엉 와 .

예 , 예 . 발 헹근에 .

엿날에 , 하르방 강 살앙 , 얘기 나는 것도 몰라 .

검질 뭐 여러 가지지 뭐 .

아버지영 어머니영 사랑 많이 받앗수과 ?

그러니까 별다른 게 엇인디 . 그럼 속담 뭐가 잇어마씨 ? 속담 .

아 , 뎅겨 가야 해마씨 ?

누게 주도 아녀곡 , 칠성에 암팡 지커는 질서 .

건 휘지 안 하여 .

옛날에도 헤난 ? 이 동네도 해낫수과 ?

그 저 오줌 췄운데 허는디 경 안 하면 늘렸내가 많이 나니까 물에다 바닷물에 혼 멧 시간 둠가둬 .

그렇지 . 설계는 고산이 몬져 잇엇주게 , 설계툇주게 .

아니 , 숨메 건 옛날 떡 . 느챙이이 .

별로 , 별로 . 미녕베낀 .

아멩해도 조가 들어가사 맛이서 .

아 , 어른동지엔 죽 쑤고 ?

우린 김녕더레 . 내령가곡 .

음 , 그러면은 이제 보리허고 , 어 조하고예 ? 조펌벽 허는 거 혼번 골아봄서 ?

대개는 , 수십오 년도엔 게 그런디 그때 모물 갈레 가는 디 모물 갈안 집이오란 들판 해방됐저 헨 , 소문이 나가지고 , 저 해방된 줄 알고 . 게난 거 그 두 후에 우리가 거 모물을 가는디 모물 어느 때쯤 갈앙 좋고마씀 허민 , 거 들을 거 엇다 , 양력 거 해방되는 해에 모물을 잘 뛰나가는 양력 팔월 십오일 중심이믄 모물을 갈민 웬다 , 웬다 해근엥에 그런 속담도 나놨수다 .

어 . 다른 말 엇여 .

거 지평 이렇게 사면 .

전복이나 소라도 그냥 따로따로 해마씨 ?

경허난 그 해에 그 사람덜 다 망해실거라 . 감재 원 안 뛰언게 . 뛰질 안 하연게 그때에 .

몰라 , 그건 어떻사 헴신디 . 그거꺼진 몰르크라 .

아하 , 그런 조건부 잇주 .

예 , 예 . 그런 거 할 때도 산뒤 허고 . 산뒤찍은 주로 어떤 데 셧수과 ?

시월 , 이 콩 , 〽실 들엉 콩 들어나면은 ㅎ꼼 쉬는 기간에 . 노는 기간에 이제사 놀지 못해 , 이제 미깡 덕분에 못 노는디 그때는 〽실헤나민 놀주게 , 하영 이 그때는 콩 쑤엉 . 우리도이 쑤기

가이 열도 훨 때 잇고 , 아홉도 훨 때가 이서이 .

옛날에사 경현 훈 때 저 무시거 뜻걸름 밧 헷주게 .

그 남총을 한 게 맷 살 때쯤이랏수과 , 어르신이 ?

콩밧 거름은 안 하고 , 콩밧 거름은 안 하는 거라예 ?

많으민 뉘 빗도 올릴 수 잇고 .

경해근에 차는 거주게 .

어 , 따로 . 정제가는 문 잇곡 , 상방 가는 문이 따로 잇곡 .

그 밥을 꼭 그 누렝이를 눌려 가지고 해檠 .

크게는 아니 해도 뜯집 우에 쓸 만큼은 이제 눌거든예 .

보릿고르 서끄민 맛은 덜어도 엇이믄 또 서끄곡 .

베부레기 베부레기 베 보호 , 그걸 세밀히 말허민 베 보호지 .

조금만씩 무꺼근에 영 나란히 놓 도께로 영 영 때리믄 건 거 문 때 려지면은 이젠 못 클러근에  
이젠 그거를 조그만씩 쥐멍 . 이제 고를 치는 체 잇지 안 하여 ?

고팡에 제는 제사 때 해나면은 그디 강 올려 . 이 용시하는 사름은이 .

감저를 썰어 가지고서이 바쳐주 , 바쳐서 . 국가에서 다 수매행 간 .

중궤 , 약궤 , 과줄 허민 그거 허는 거 .

주챙이 거는 다 사람마다 다 만들 수 있는 거 .

고네할미 여름 젤 하영 나는 건 고네할미 , 숙 , 복쿨 , 절롼지 , 푸깨낭 .

넉득이 종류는 아까 골은 장작옻도 잇고 족은 것도 잇고 .

낳은 어떤 낳으로 주로 만들어신고예 ? 남신은 ?

자엔 현 것이 무신거니 ?

거 뭐 막 연 종류는 하낫는디 무신 가오리연이여 , 뭐 둘연이여 무신뭐 이젠 연고라 무신 , 이제  
문 이져부런 무신 .

그럼 원도 이렇게 막 망가질 때도 잇잖아예 ? 태풍 오고 나면 .

밧 구진 사름만 헷젠후난 .

경 허영 딱 것이 좁져불민 잘 좁지지도 못허여 . 나고찌 떠 놓니까 .

동목장을 어딘고 허니까 무 , 영주산 .

게민 고팽에 보면 쪼그만한 문이 있지 안허과 ?

오전 비엉 오후에도 무끌 수가 있고 .

흰 그루 , 곤술 골아당 물 컷당 , 방에에 강 , 기계 방에 강 그루 골아당 , 부청 , 물 궤왕 반죽을 물주게 , 우리가 . 물양 이만히 쟁 나두민 흐끔씩 톤으멍 그싸추룩 동글동글 흐게 영 , 멘들락 흐게 영 손으로 영영 흐영 넙작흐게 멘들양 , 걸 좁아 . 영 오그려노민 이거 떡이 오그려질 거 , 요레 똑똑똑똑 그루 칠흐멍 좁아근에 차롱착더레 놋당 치주게 , 뜻로 솟디서 .

건들 건들 부름이랑 불건 동남풍이나 허 불어나 오라어야뒤야 어으 서너늬여어로구나출단이랑 비거들랑 어흐 어어엉 좁지롱하게 헤 비어나 노라 허영 그치룩허영 부르주 .

응 , 경해근에 하르방 , 할망이나 행 그 옷 입져근에 문딱 해근에 성복행 . 성복이엔 현 건 관 안에 들여놔불민 따시 또 그새에 성복 새에 그 옷을 다 맹글아근에 이제 성복행 들어오민 아이고 아이고 헐 땐 그 옷을 다 입져사 허주 .

우리 어머니도 새철날 놈의 집 가지 말렌 헤신디 .

풋죽을 쑤엉 문에도 잡앙 던지곡 .

그 숨은 콩을 거려 놓명 막 숨으민 막 거품 나명 그걸 경 골아지주 허민

하하하 . 예 , 알았수다 .

음 , 그런 것도 있고마씨 ?

할망덜이 돈 한 거 , 좋은 거 사민 노랑흔 베고 , 좁진 베도 잇고 , 흐끔 흙은 베 좋은 거 잇주 . 좁진 건 돈을 해끔만 준 거고 , 보통 베는 노랑흔 베는 좋은 거 할망덜이 돈이 잇언 비싼 걸로 사당 궤에 나두는 거고 , 흐는 사름은 흐는디 , 이젠 그런 거 멘들지도 안 흐고 , 베도 안 사오고 . 그자 그 날사 멘든 거 사당 . 그 베영 흐민 궤로 앗아내영 영장 나민 그 일가 방상덜 강 두건 멘들곡 , 옷 멘들곡 다 햇주게 경 햇수다게 , 옛날에는 . 옷 집의서 주장 멘들앗수다게 . 이젠 안 흐여도 . 두건 좁곡 .

말고삐는 제주도 말로 무신거렌 힙니까 ? 말 끗젠히 허민 .

우리는 걸 책에서 읽어나신디 막 그 살이 막 잇언예 .

기꽈 ? 그럼 보통 어떤 디 숨어낫수과 ?

경훈 사람 잇주 . 난 아무거에도 기냥 네비어 .

옛날에는 전복으로 죽 쟁 먹을 줄 몰라낫어 .

꿩마농도 이 웃드르렌 싯주만은 이렌 엇어 .

으 , 쪽기차긴 아까 물어봤수다 .

옛날은 그자락 안햇지 . 원 식으로만 이젠 재를 부려서 그냥 몬 숨메 로만 몬 누루떵 꼭꼭 해부난 하고 . 우리 해난 오메기는 동골락 허민 요디 양꼬 흐꼼 놓 영영허여근에 쳐 내영 숨메델이나 꼭꼭꼭꼭 누르뜨민 그자 요만큼은 오메기 뿐이 웨지 . 이제 거덜은 가짜배기야 , 멘드는 거 , 옛날 멘드는 걸로 허민 .

응 . 상웨떡이 요멘씩 물양 멘들앙 저 Ⓜ신 디 굴묵 짓는 안자리 강 놔두민이 , 경행 우이 톡 더껑 놔두민 , 광목으로라도 우이 톡 더껑 놔두민 이만이 불어나 게민 떡이 튼튼 안 행 복삭복삭허지 .

아까 흑질헐 때 무신거 ?

으 , 그 날레 날레 널면은 그 날렛군데로 영 거 다 영 거세기 명석이영 허면은 날렛군데로 나뒹영 펜펜허게 고루주게 날렛군데로 .

이제는 그런 조상들에 허는 건 해어가 어서도 . 야 . 해어가 시면 좋은 거주게

여기도 이제는 농서짓는데 걸음을이 사용하니까 그게 나는데 , 아메도 그게 안 존 밧디는 안 난다고 .

예 , 따귀치기 . 우리 아들도 힘니다 .

꿩쪽도 독죽이랑 마찬가지로 허는 거주게 .

아 , 물 종류는 알아져어 . 가라물 .

쯧 , 순메로 써 본 거 뭐 뭐 잇수가 ? 한번 ?

소곰 놓 골양 메주해영 담으명 해낫주 .

으 , 흐린조론 술 담가 .

사는 거 집이나 뭐 .

제주도에도 콩깍지엔 허여 , 우리도 . 콩 그 Ⓜ물 영 Ⓜ랑 Ⓜ랑현 거 어샤 ? 것가 콩깍지주게 .

낭이 시면은 이게 줄이 영 돌아멘 걸 요레 와근에 딱 혜영 무꺼마씨 .

게민 이거 관 들렁 집에서 , 옛날은 집에서 헷으니까 .

어 . 옛날에 영 길게 혜근앵 허리로 영 헷주만은 .

경 헨 촛으면은 촛은 사름들끼리 장肯 불렁 술래하고 .

잡초가 복작해 부리면 거 뭐 .

다 돌아가면서 . 그렇게 해서 하고 .

골그루 숙아줘야 뛰는 거로구나 .

예 , 그걸 삼춘이 훈번 골아봅서 . 베영 .

가막창신은 뭘로 만든 거 ?

응 , 치메 곰 , 저구리 곰 .

어 허 , 허 , 헛 .

텐장 놓 끊이는 거 ?

알챙이 잘 소꾸라 이렇게 곤는구나예 , 말을 ?

게난 가정 , 가문마다 다 틀려 . 어 .

겐디 그거 좋지 안 허여 . 우린 뜻 논 게 좋아 베여 .

옛날은 바지저고리 그라 중의적삼 중의적삼해낫주게 . 게난 그런 것덜 혜영 남자덜토 입곡 여자덜 토 그자 곱게 입는 치메도 행 입곡 .

석 섬은 날 거우다 . 좋으민 , 옛날에 혼 말지기민 .

장갑이 시냐 ? 그때 . 우리 육도록 장갑 아이 징 검질 비엇저 , 검질도 그냥 매고 . 아이고 장갑이 어디 셔 ?

겡행 그 보미를 연자방에에 강 피 골아가가민 그걸 치면은 피쓸 , 좀쓸이 이수다 . 좀쓸이라고 .

이제 낭을 끊거나 집 안에서 뭐 허거나 헐 때 . 거는 동티라고 헤가지고 옮기지 마라고 하지 .

으으 . 팔월 추석이 제일 어려운 때 .

골치가 아팡낫주게 . 이묘허젠 허민 저디 강 정시안테 강 날도 받아야 뛰고 터도 봐야 뛰고 그거 뭐 이것저것 개판이니 뭐니 새로 그거 사야 뛰고 막 복 잡해낫저 게난 이제는 딱 장의사안테 맑기면 일체 다 그거 .

허리띠렌 허고 . 으음 . 게믄 이제 여자 거는 이렇게 훨 거 아니우과 치마면예

예 . 어떻 달라마씨 ? 크기가 똑같은 것도 ?

아 , 이 알녁 밧디 맷 개 봐레져라 .

그것도 매 사람 못 허고 그때도 다 , 그때도 고구마 헐 때도 통시 걸름 흐꼼 놓면은 잘 들고 경안 허면은 잘 안 들어 .

거 늦인돌이엔 헌 것은 여기 나는 거여 .

아니 , 아니 . 안 꺼네여 . 꺼네민 안 뛰여 . 이만큼 뚜껍게 .

웃음 . 제맛에 . 웃음 .

응 . 버청 , 버청 . 검질불 와랑와랑 허민 그디 불 헹 누게 숨아줄 사름 이시민 해도 이녁낭으로 불 숨곡 이젠 기자 족은 가스에 놔근에 곳는 거 보민 앗양 드러 젓으멍 쑤민 웬덴 허는디 .

다른 사람들도 다 그치 갓다놨잖아예 ?

그 시리들은 색깔이 어떤 시리들이 잇엇수가 ?

물은 경허난 시리에 햄주 . 물을 주민 그 시리 고망으로 다 내리고 .

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.

가시새에 엮으는 거 , 가시새에 엮으는 거는 고지 강은에 저 낭가쟁이 존존헌 것덜 해당덜 하고 .

진역 간 놈만 콩밥을 먹는다 . 경허는 말 때문에양 밥에 숨메를 아니 놔낫수다

겐이는 물에 들엉은 안 해도 고으론 잡암네 .

헐라고 출려 놨다 겐디 사름 죽으민 안 하여 .

음 . 계영 사진도 찍엇수가 ?

물 짜면은 이제 깅이 , 깅이 물 허고 모인좁썰허고 놓 쑤면은 깅이죽 막 맛좋아 .

문전에는게 집이 법당이나 개인 주택이나 마찬가지우다 . 신이 없지 않우과

아아 , 하르버지쁠요 , 예 ?

말하고 소에 먹는 먹이 ? 아까 이제까지 말햇잖아예 ? 먹이 ? 말하고 소가 먹는 먹이 ?

에에 , 불은 건 없었어 .

또 이 안느로 꼽앙 나오고 .

막 하낫어 . 건디 이제는 햇자 소용 엊주만은 젊은 사름덜도 옛날그치 하지 안한 거 닮아 .

게민 저 굴목이영 짓젠 허민 행와삽니께 , 낭이영 . 그런 거 보통 월로 어떤 걸로 협니까 ?

동박낭 , 예 . 젤 좋아마씨 웃이 .

그 학교에 강 막 운동장 메꾸고 뭐 허고 . 그렇게 우리가 막 . 경해서 이제는 초등혹교를 다녔는디 초등혹교를 간신히 졸업하지 안해시냐이 . 경허난 이젠 한동에도 여유 잇는 사람은 , 재산 잇는 사람은 그때 저 어디고 김녕중학교가 생겼저 . 지금 고등학교보다 더현 학교탓저 . 그디 당기고 그디 못 당기는 사름은 그냥 놀앗주게 . 그냥 놀앗는디 .

아 , 노봉옷이렌 불런 , 누빈 옷을 ?

순메는 어떻허연 밥 그 허다가 이제 팟이 딱딱하면은 이젠 그 순메를 삶아가지고 걸 그레 집어

놔 .

아 , 시방 거 미는 그 쇄손이 없으니까 .

예전부터 그게 여기 특산물이언마씨 ?

것이 걸궁이라 . 관덕정에 입춘날 그튼 때 거 허연개 . 나도 입춘날 구경 갓단 .

사름이 맥이는 건 요즘 들어서 사료여 , 무신 목초여 .

으 , 다라에 , 다라에 . 경 안 허믄 그렛방석에 .

동고락하고 납지록하지 . 이제 꺼는 몽콜락하지 안하나 ?

냉국은 미역을 이제 저 물렸다가 허는 거주게 .

음 ? 건 뭐라 ?

아 , 건 허는 디가 잇고 .

모신 우린 안 해봤어 . 모시하는 사름은 모시도 허주 .

그냥 두 빗 올리는디 .

바꼈듸 어디 갈 때는 베꼈듸 치메 입영 가곡 경 아녀민 속치메만 입영 뎅기곡 .

이거 영 열어 영 몇 개냐 숫자 알민 .

덩드렁마께로 할망덜 일엇이 앗앙이 무신 그레 골아단 동골랑현 거 이시민 독독독독 못으멍 털어 지와 .

벌문은 아니래도 흐낙씩은 꼭 꼭 , 헤헤 .

톨도 옛날에는이 바당에 , 동네서 . 이제는 해녀들이 딱 언광 꼼짝을 못하는디 옛날은이 바당에 들 사름은 들엉 , 돈 내엉 들어이 . 들엇당 정월이나 이월 나믄이 톨주문헐 땐 사름덜이 다 강 거 톨을 허여 . 하면은 이제 다 고드레 지어 올령 물령 도속으로 풀아낫어 . 흠치 다 뭉청 .

사둔이 ? 언제 행 와 ?

그 다음은 훋지둥이라고 해서 훋도리로 해서 밑으로 또 나가는 거라 .

상복은 영 흐곡 , 그 이 복은 거 무신 복이엔사 흐는지 잘 모르크라 .

올려근에 그 푸리도 못 올라가게시리 행근에 말황은에 그거 해영 구민 .

넉동베기예 ? 윷놀이 헐 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준비핸마씸 ?

시국 따문에 시집 못가고 , 군인 가붐땐 흐난 .

예 , 그것만 허니까예 ?

옛날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어떻게 달라젼마씨 ?

경 흔들어 가민 머리가 애기구덕에서 아래착 저래착 , 정신이 혼 동뒈어이

경 혜영 내여근에 그 솟 읊아보민 내 놓고 . 이젠 구덕에 . 구덕에 내놓고 .

집에서 헷지 . 옛날이사 이제사 저 문딱 빙원에 .

안 텐젠 흐멍 도새기덜도 다 치와불곡 , 이자 쉐덜도 멧 집만 .

그럼 젓갈 잇잖아예 ? 젓갈 . 젓갈 .

응 , 그문 아까 누에 질쾅 , 질룬 다음에 실 어떻 빠마씨 ?

우리 큰아덜은 편씩 홀 줄도 모르는디 , 신 때 . 족은아덜은 넉동베기 잘 흐여 .

풋죽은 , 풋죽은 풋을 저 싯청 , 싯쳐그네 그 저 흑 하나이라도 잇는 거 판찍 다듬아됭 , 다듬아둬그네 이제 솟듸 놔그네 혼 번 숨양 . 숨아그네 영 흐屎 뜸 재왕 . 저 흐屎 저 물 웃게 , 물 웃게 뜸 재와그네 뜯시 조락물이엔 혼 물이 잇어 우터레 뜯시 물 혼 사발 조록흐게 비와 , 물 혼 사발 조록 흐게시리 비어놔그 네 또 풋을 숨으민 풋이 잘 퍼져 . 조락물 , 풋 숨으명 조락물 낀다 경 흡니께 . 게난에 조락물 톡 혼 사발 비와 놔그네 , 뜯시 불 깃다가그네 조락물 비어 놔그네 이제 또 저 불숨아가면 불 숨양 쑥 흐게 숨으민 풋이 막 잘 퍼져 흐屎 뜸 때보다 빨리 익어 . 경 기냥 막 숨는 것보다 경 흐영 문작흐게 숨아 놓 , 문작흐게 숨아놔그네 그걸 저 옛날은 도고리 , 도고리에 놔그네 막 저 ..앙 . 그네 이제 ..아 네 도고리 놔그네 마께로 막 ..아 . 지면 물 놔그네 , 물 놔그네 영해 젓어 . 베슬기로 영영 흐영 젓어그네 그 물을 저 철 밧쳐 , 영 흐여그네 철 밧쳐 사체 그레 들어가지 못흐게 . 철 밧추와그네 그 물을 자꾸 영 흐여그네 뚫라 물 뚫르곡 , 뚫르곡 흐민 그 체는 굽에 문딱 ?라앉곡 , 요물을 문딱 그 물에 빠져그 네 이 체 알러레 문딱 내려갑니다게 . 게민 천 비삭흐여그네 먹을 나위 어서 . 게민 건 데껴불곡 , 체는 데껴둬그네 그 알멩이 빠진 그 물만 솟더레 비와 놓곡 , 뜯시 곤сал , 곤сал 싯어그네 뜯시 솟더레 놓곡 흐여그네 , 기자 계속 익을 동안 익을 저 젓으명 계속 익을 동안 우터레 그저 저 푹각푹각 부글레기 올라오랑 펄짝펄짝 뛸 때?"지 막 숨아그네 흐민 저 곤сал이 다 익을만이 익어지민 딱 맞추와그네 불 꺼그네 소곰 놔그네 먹는 거 , 거 뿐 . 죽 흐는 것 제일 쉬웁니께 .

그다음 짓 돌아불민 단추나 무시거 고름이나 둘 거 .

응 , 씨를 짹싹 뿌려근에 , 다시 혼 불 불령 흐면은 다 뛰는 거라 . 게난 웨 불리느냐 . 땅이 이제 북삭지므로 이 걸 땅을 뛰게 만들엉 . 강흐게 만들어근에 흐젠 경 해야 .

아 , 명단에 올령 잇엇던 사람예 ?

아 , 비행기 만드는 저기로 . 게난 그 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난예 ? 공출 때문에 막 배고팠던 경험은 엊어마씨 ?

순 꿀게 . 녹듸도 허곡 꿀도 허곡 숲양 소곱에 담양 톡 좁은 떡이라고 꼭 헤낫저 . 전이 좁은떡은 동글락허게 끊엉 이 요레 이제 요만이 끊엉 그레 쉬 담양 똑똑 좁으민 영 좁으민 영 웬다게 . 또 영 뇌기반듯헌 거 놓고 좁은 떡 놓고 , 곤떡 놓고 , 반 하나에 사람덜 테우고 .

넉넉헌 집이덜은 경하여 , 이제도 .

둘이가 잡양 사민게 가운데 들어 상 틀락틀락 허단 고무줄 발에 감아근에게 .

종기 같은 거 나면 부스럼이라고 허는디 .

한문만 , 웨하르방이 큰 한문 서당이난 성제가 그자 한문 서당에만 뎅기멍 한문 막 잘 압니다 , 이제 경 . 경후민 바당에 오다근에 간세후영 , 하르방 그르치는 거 간세후영 오랑 그메기 잡아근에 구제기후고 숲안 먹곡 햇젠 흡디다 . 우리 웨하르방이 큰 훈장 수서장이난 웨하르방신디만 글후레 뎅기멍 .

아 , 그거 콩가루 하영 놔 ?

도록은 무슨 지 , 큰 지나 지낼 때는 그 높은 지관이 입어근에 허는거 . 또 저승 갈 때도 허고 .

하간 거 널면은 그 집이 그냥 본인도 몰르게 막 바글바글 그 이상헌 버렝이가 막 들어와게 , 집더레 .

따로 곳는 말은 엇수과 ?

이 , 박사 아니민 말대답 못허키여 .

뭣사 넣어신지 그게 경 맛이 좋아 .

겨난 밧 골린다는 게 양 그것들이 밧이 , 지심이 좀 이신 밧 . 밧 힘이 좀 이슨 밧디 그걸 갑니다 .

경해근에 이젠 그것도 . 그거는 뭐 빼 딸린 국에도 끌리고 .

조 털어지민 브름에 또 불리지 . 붕뎅이엔 헌 거 조채 나민 도새기 주고 따시 여물은 해당 이젠 맹뎅이에 담으명 집안에 다 들여놨다근에 창고 시민 창고에 담앗다근에 벳 나민 다 물리와 . 영 이빨로 씹으민 똑똑허민 지아정 물그레에 굴양 밥행 먹어낫주 .

그리고 굴 그튼 건 , 뭐 건 조사헴시믄 이루 말할 수 엇고 , 그건 뭐 굴 저 굴이엔 헌 건 저 그자돌 영 엎어져 가지고 , 뭐 영 사람 기어들엉 앓을 수 잇는 덴 다 굴이엔 굴으니까 .

이제 혹시 소 하영 질뢰시난 쉐 질루멍 막 고생햇거나예 잊어불지 못하는 거 ?

물론 굴 때 폐를 그거 물론 우의 폐를 더퍼 .

나가 죽대장이주 . 죽을 많이 췄봤어 .

그든 어르신 그 옷감 , 옷감 손질은 해보신적 잊어마씨 ?

아 그건 일찍 놔서 뭘 하면은 그것도 유월절 경에 놓는 거니까 .

옛날에는 나가 베부러도 놈 베고팜구나 , 허는 배려가 이신디 .

거 일가덜 많이 하여 . 동네 사름덜도 하고 .

옛날에 저번도 골앗지만 콩 , 보리 , 나룩 , 산듸

예 , 이불안도 하고예 .

아 , 무수가 둘민 밥도 돌아예 . 무수 논 밥 말고 또 틋밥 ?

그럼 그것도 다 개인으로 ?

이 영 오름이주만은 그 가운데 한라산<sup>고</sup>치 옴막<sup>흔</sup> 데 있어 . 그드 를 가메창이라고 하여 .

금년엔 소식을 안 들었네 . 지난해<sup>꼬</sup>지 헷젠 말이 이서 .

말도 집이서 혼 마리씩 키와낫수과 ?

하하 . 아 , 생각남수다 그거는 .

아이에 옛날엔 물적삼도 안 입엇 소종이만 입어네 헷주게 .

그믄 치메를 이렇게 해서 영 행 입엇잖아예 ? 영 행 . 영 행 감아근에 요기 끈으로 치메 허리로 헷잖아예 ?

누게 알아게 . 나도 몰르주게 . 옛날 할망덜 영등 할망이엔 허난 뒷인 지게 영등 할망이엔 허난 .

그믄 그 젤 대장 , 젤 큰아덜을 뭐엔 골아 ?

쪼개민 윤이 나오는 거주게 .

예 , 모시로 현 옷은 주로 어느 철에 입는 거 ?

축 익어 나민 새각시 둘양 오랑 새서방침이 오랑 잔칠 해여 .

그거를 , 저 . 나쁜 거를 영 그 사람한테 가라고 .

우리 집인 문 도라무깡 .

허허 . 할머니 하르버지가 같이 내려가니까 에 할머니 하르버지 의지 허곡 어머닌 또 환자라 놓고 허니까 뭐 못하고 경 혜연 .

홍역 걸린 땐겐 , 혼 일주일 이녕 어디 나가도 아녀곡 , 무시거<sup>후</sup>민 아픈 아이만 맹심<sup>후</sup>민 넘어갓주 .

으 , 것<sup>고</sup>란 다림 , 다림 허여 .

경 했다근에 이제는 막 기계가 빠난 갓다 왔다 해도 , 옛날엔 시리떡 훌 때 사름 정지에 금해부  
렷어 , 부엌드레 .

집 짓을 때는이 , 그건 이녁 , 그때는이 이녁이 소나무덜 만이 심지 안해ษา ? 그걸 솔짝솔짝 그차  
시네 . 그리고 또 허가도 나고 , 그 집 짓젠 허민 허가 , 허가도 준다 .

아 , 그 때는 진덴 해여 ?

아정가민 빗창은 하리에 찻당 .

콩도 조 불려나민 어가라 허주게 . 조 불려나민 궂인 밧된 콩은 갈민 콩씨 빼어놔근에 그냥 갈민  
콩씨 혜영 곰베로 행 병어리로 독독 두드리고 검질도 혼 번만 메고 콩은 쉬운 거 . 건 무쉬 안  
빌엉 밧갈아치만 빌민 웨는 거 .

그 감저 이석 줄이레는 안 뎅겨빤마씨 ?

웨냉국 . 오이로는 냉국 안 협디다양 ? 오이로는 아녀고 웨 .

정기떡은 뭐 어떻 무물코르 캉 정기 후라이팬에 지지민 정기떡이난 맛 좋주 .

중매 , 하하하하 , 외방일은 몰라이 . 월령이나 벳괴 .

무신 생은 보지 말라 경힌다게 .

경 해도 . 자식들 무음은 경 안협주 .

그 큰 집에 허들 아녕 . 저쪽에 모커리에나 뭐허영 허는 집덜이 많고 .

금방 오줌을 싸면 뜨거우니까 바로 멱여예 ? 오줌을예 ? 기절한 걸 .

고치장 요세 둠암서 ? 상덜 먹엄주 .

이 제주도선 광목 못 입언 .

잇고 . 메누리 , 사위 일본 살암서 , 이제 . 손지덜이랑 다 살멘 . 게난 왕랜 허주게 .

경 힘실 거라 .

우리 아이덜토 못 해여 , 아이덜토 , 우리 아덜덜토 못 해여 .

반 탈 때에 ? 맹절 날도 ?

응 . 경하는 거 .

거문 이간 집을 보면은 이 그 상무르 중무르 이 거 헌 거를 개수가 후끔 달률 건가마씨 ? 들어가  
는 거가 ?

가시리 경우는 소금으로 해도 웨도 .

뽕돌은 멘들엉 푸는 디가 잇이난 사 오고 .

그건 뭐 그 고등 그 고등 종류는이 물속에 들어가민 감태가 막 잇어이 .

거 광란이엔 해도 이제사 보난에 무시거 음식먹언에 아다로 웨는 그거 아이라 ? 배 아팡 막 흐거 . 어떤 게 약인궁 흐민 , 배를 아팡 삭삭 그렐 그는디 나도 두린 때에 검질메레 밧듸 간단에 그걸 아프난 , 그 무신거로 헨에 , 무시거 속귀 를 경 꼬아 .

아 , 웃삼달리가 . 이 동넨 ?

그 엿기름 헐 때 하는 재료 똑 그와 거치 그추룩 .

요기는 뒷난간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나가는 디도 잇고 크게 나가는 디도 잇고 .

으 , 입은 사름도 말젠 허고 준 사름도 아이고 , 그거 입으면 안 웬다 .

예 , 밧을 갈아사 홀 거난게 .

보리 막 나 가민 이월 달 나 가민 보리 헐 때 검질메사주게 .

보리낭 그대로 묶는 거난예 ?

경행 딱 사진 놓 신부 사진 놓 보내사 .

난 , 거 몰라 .

냇창 , 내 , 내 , 물 흐르는 내 ?

아 . 좀 더 큰 디 .

나오는 거라 . 그거 .

국장꺼지 올라간 경허난 훠직허연 이제 축산에 들어간 허는 디 , 그 아덜도 이젠 한참 대학 하게 웨고 . 오란 보니까 돈은 하영 들게 웬 거라 . 여기선 돈을 날 일이 엇어 . 게도 이디서 살아보난 하도 공기 좋고 가진 실편 .

진거 . 진게 쭈왓젠 .

아 , 하영 무꺼근에 ?

기미는 뭐 볼르민 좋으코 ?

그믄 할머니 사랑 , 어머니 사랑 , 누님 사랑 많이 받아신게마씨게 ?

눈물 나마씨 . 일본에선 모른 척허곡 지금도 .

오이지도 , 물웨지도 그 마지막에 존존후게 막 영 도로기 열지 안읍니까 ? 경후민 그거 기냥 톡 톡톡톡 후게 벌렁 , 벌러그네 그저 그거 소곰에 , 소곰에 후여그네 딱 후게 .

다음은 아까 골은 거 무시거 ?

물항 싯고 부엌이라예 ? 우리 집 지으게 뛰면 집 지으면 이 문 두는 디가 잇잖수과 ? 집 지영 문을 둘젠 허면 , 이게 문이렌 허면예 , 요걸 뭐렌 큵니까 이거 전체를 ? 문 둘젠 허민 이 판을 먼저 만들어야 헐 거 아니 ?

그러면 지금 구전둬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표준어로 하지마시고 예 그냥 이 볼목리 말로 골아 줍서 .

거난 늄의 집안이 허는 그런 말 골으민 , 늄의 집안은 당초 그런 사름이 엊주 .

예 , 예 . 그럼 그 분덜도 상 가근에 또 넴기는 거라마씨 . 게난 좋은 쉐는 상인이 많고 쉐도양 . 또 어떻 몰멩허나 뭐 헌 건 상인이 드물어마씨 .

흔번은 아니 맞건 듣지 맙서 해연 .

게믄 그거가 마마렌 안 헤낫수과 ?

으 , 그럼 좀녀들이 강 잡는 거 .

게난 모시씰 맹글아그네 모시옷 맹글지 안 큵니까 ?

오리목 . 으것도 둘벵이뿔이꽈 ?

물릇을 주로 딸령 먹어 먹먹 먹엇어 .

들받음이엔 헌 건 우쭈왕 . 아기 배엇젠텐 .

예 . 또 요거 요거 .

그다음에 이제 하고 아까 이제 초가 하다가 이제 하는 거예 . 그 쓰다 남은 거 , 아까 줄로 헤갖고는 아까 주로 뭐 만든 거마씨 ? 아까 .

계속 물만 주믄 자라 .

팔 말고 콩이나 이런 걸 다 양꼬렌 골얏수과 ?

오재미는 영 손으로 영 데끼는 거고 . 오재미 .

가 본 적은 잇어마씨 ? 그 안에 .

무사 공출 안 해서 ? 공출 헷주기게 . 우린 온 후에는 일 년가 이 년배 낀 안 해연 . 일본서 오란 .

제국 , 제국 시대 만나 , 사삼수건 만나 우리 시대엔이 , 시집살이 해여이 요런 좋은 세상 난디 , 아이구 . 그땐이 누구나 다 시집살이하저 .

집 짓는 연장의 종류 ?

어 . 단지 그거라 . 게다 .

아니 겨울이나 여름이나 끼락 훈밧드만 그축 해놓은 . 훈수록정 이서 거의 .

게난 젤 좋은 것이 보리쌀 .

멧월 달 정도 마농지이 담았수과 ?

아 , 그런 동넨 잇주 .

아 , 어렸을 때 .

그거 만드는 사람 잇어 .

테 죽어불카부덴 물 주는 거 .

다 관리를 둬 가지고예 ?

아이고게 . 세상에 밀낭으로 허난 밀낭페렝이로구나 .

위미에서 여기 시집을 많이 온 원인이 그 , 그 관계로 많이 왔다고 .

아니 게난 , 그 전에 우리는 어떻 영 헤근엥에 이추룩 행 양끗만 꽉 눌러근엥예

아 , 뜻걸름착이엔 헷주게 뜻갈름착 . 뜻갈름착은이 뜻갈름착 족아야 뛰고 . 건 물 나는 거기 때 문에 . 이 쉐걸름 시끄는 건 막 커야 뛰고 .

옛날은 항아리 골은 거 . 이런 거 놔야 쓸 놔서 먹거든 .

아니 , 고무줄은 이레 이디 심고 저레 심곡 핸 두 사름이 심엉 가운데서 뛰주게 .

밥 , 밥에 감저 논디 , 그 서끈 거주 .

무좀 , 군대 같은 거 갓다 오민 막 무좀 걸리고 안 해낫수과 ?

영 허영은에 . 여기를 집 짓어보쿠다 .

걸름이 옛날에 어디 , 이제 사름덜이 비료가 어디 시꽈개 ? 씨만 빼엄 주 아이고 , 옛날에 경험시 민 용수 못행 먹주 . 경허난 거름 엇엉 뜻걸름만 허곡 허난 보리나 무시거 즐바로 못행 먹엄주 게 . 이젠 비료허난 궂인 밧 , 좋은 밧 엇이 용수행 먹는 거 .

경하는 찰나에 행원에 일본 놈덜이 사용허단 창고가 하나 잇어 , 부두에 . 그디가 고등공민학교가 생겨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거기 다녔주게 . 고등공민학교 웃동네 거의 다 다녔자 . 그 김녕중학교 다니는 외에는 . 거기 다니다가 육이오 나부난 학교에 다니다가 그냥 학도병으로 그냥 나간 .

그걸로만도 . 아니믄 반찬이 엊주게 .

줄을 무끌 때 어디다 무깻수과 ?

또 두 개 부쩡 똑 허게 누르뜨고 . 솔벤허곡 인절미허곡 우쪽은 똑 그튼 종류로 저 물을 그루에 물을 서꺼서 .

으 , 산디찝으로 꼬양 .

그땐 머 다 서로서로 저 .

맛 좋아 경하믄 , 그것이 최고로 맛 좋아 .

멩질에는 무시거게 제사후듯 , 그 저 영운 나시 뭔 메 다 해놔근엥에 저 상에 다 출려놓 제허곡 문제는 문전 문서 해도근엥 제라허게 제후고 .

아 , 막 뿌려 .

그럼 놈빼에 대해 말해줍서 .

오는 거 , 밀려오는 거 .

관청할망안티 갈 때는 밥도 세 그릇 . 낭푼이에 혼나 잔도 요짝에 세 개 요짝에도 세 개 . 또 떡도 허면은 그자 요짝에 양펜이 올려삽니다개 . 숟가락도 으섯 개 .

아니 , 무신거 고팡은 아니지예 ?

옛날엔 그거 막 하낫어 .

아 모든 밧이 다 바령밧으로 허는 건 아니지 안옵니까예 ?

경허면은 몸도 건강하고 모든 액운이 막아진다고 해 가지고서 몸을 건강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유래해서 주로 만이 잡아먹나 , 그날 .

잔치해 먹젠 허민이 몸을 비리지 말아야 뛰주 . 잔치하는 집 주인은 .

멘네는 난드르 오난 , 밧 버는디 빈 밧듸 강 몸을 해당 막 시꺼다농 고랑마다 ..디 막 발로 부치명 혼명 및 및 놓 , 이젠 멘네씨 빠여근에 걸 저 밧 갑디다 . 밧 갈면은 이젠 섬비질 해 불민 멘네라 . 멘네낭 나민 매날 검질 메레 가곡 , 멘네밧듸 고치씨 빠여근에 고치 타오곡 , 땁시 어염엔 돌비 놓곡 , 땁시 강낭콩 놓곡 , 강낭콩 타당 숨앙 먹곡 .

으 , 감저 묘종밧이주게 . 그게 .

워낙 거리가 멀엉 두서너 참 날아 가분다 말입니다 .

으흐 . 경해근엥 멩질제는 아침 몷 시쯤 험니까 ? 여기 메씨 쯤 해난마씨 ? 돌아가멍 .

경헨 놀아 놓 , 메여근에 그 베틀에 .

저 난 베피디 , 숲 소곱 말양 그냥 낭 없는디 , 이젠 다 낭이 컷져마는 옛날은 곳 안에 물 엊고 .

경후곡양 , 시집살이 혼명 어떻 햄수광 ?

동네에 산에 오른 사람 알아지느냐 하난 동네 사람이나 알아진다고 헷주게  
몸빼 그뜬 거 치메 그뜬 건, 몸빼 그뜬 건 광목몸빼 하난 놋당 감물들이민 입어질 건디 우리 메  
누리덜 문딱 솔아비어 .

누에가 그거 하영 먹읍니까 ?

개 멱인데 헐 거예 . 그 개는 연줄에 다 무치는 게 아니구나 ?

경 행은에 하곡 그냥 저 안칠성은 그냥 그자 궤팡에 코시허영은에 그디 거세기 혜영은에 하는 거  
고 .

솔박, 솔박이라도 뛰긴 뛰주기만은게 .

그거 지네 이익골림에 메는 거주 . 보가 신 거냐 ? 그 보가 엊어 . 그냥 지네 모음대로주 .

옛날에 양쪽에 해갖고 둘이 하는 거는 엊어 ?

부주는 옛날 보리сол 두 뛰 .

그것도 관이렌 곤는데 교육기관이렌 헌 건 그것 하나뿐 .

아, 펜 갈랑 흐는 거 .

무꾸력이 아니고 낚지, 무꾸력은 흐꼼 술찌주만은 낚진 고는다게 . 발이 영 진진헌 게 고는다 .  
거 잡으레 장난으로 뎅겨낫주게 . 훼 들렁 훼 들렁 불을 싸 줘사 뎅겨 건 .

아이, 조찍으론 안 헷수다게 .

뒷테 꼭 이 거 .

무시거 ? 무시것에 앗앙 가 .

그거 씻고 나서 간장, 웬장 담그는 거예 .

아 . 예 . 이제 돌아가시면 복은 언제 벗는 것과 ?

예 . 기민 지금이야 그 망사리 만드는 것도 다 나일론이주만은 .

불 파파 흐멍 멘들아, 불 불멍 수뭇, 난리가 나게 흡디다 . 나 멘드는 거 바나신디, 바당에도  
강 막 멘들고, 경 흡디다 .

어떤 쓸게 ? 그 쓸이 그 쓸이주 .

빠룬데 건 일본말이라게 . 일본말 .

솔박으로 불려서 그 보리가 . 집이 갓당 놋당 그 보리 장만헐 철 뛰민 날이 좋지 안 하여, 허민 .

검은 줍쓸이 흐꼼 흐린 거꽈 ?

그거 저 물에 씨원하게 헤가지고 찢엉 먹곡예 .

이 집이라 . 옛날 태어난 디도 , 여기 .

게면 그걸 뽑으면서 국을 헤 먹어 .

그러니 이놈은 저놈만 도와주는 거 닳고 저놈은 이놈만 도와주는 걸 닳고 허다가 봄은 들어 아지고 고생만 허다가 아덜 많은 게 걱정이라 . 부직다수 하여 . 부제 헌 집은 일이 많아 . 수직 다육 그런 게 있어 . 오레 살단보니 아덜도 죽고 메누리도 죽고 요 산양가면은 그런 말 하는 이가 있더라고 . 우리 동네 식게 훈번 안 해본 하르방이 셔 . 거 어떻멩키로 증손??장 죽어불었어 . 고손이 상젤드니까 옛날이니까 고손은 식게를 아니 하는 조손이거든 . 제수를 안모시는 뭐신데 옛날은 삼년상 하니까 그걸로 끗해서 그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라 . 오레 살아서 . 나이 든 사람안 티 오래오래 건강해 줍서 . 아 , 우리 육촌아시 문창래 , 농축산국장 허단 저 퉤직 해서 뭐 형님 오래 삽서 ! 오래 삽서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오레 살아선 안뒈어 우리 동네도 할망덜 구십 넘 으니까 늙은이 사는 디 주식 오레 사는 거 그게 욕이라 하이고

그럼 일제시대 때 공출 했던 거 보리만 공출했던 거 ? 다른 거 뭐 공출 ?

아 , 도복은 저 새스방 ?

그랑조라는 게 그락 닳은 건데 .

겐디 우리도 고조꺼장은 , 나도 고조꺼장은 해낫주게 .

아 , 그게 따로 이서 .

체 우의 건 개역수레기렌 허주 .

방상에서도 헌 사름 이수과 ?

여기에 걸어근에가 우이로 영 보기만 영 .

이게 . 갑이 많이 나갔는데 이건 저 어디 목장 가면은 이수장 경계에 이 잣담이라고 이수다 .

큰 거 두 개 .

으 흐면서 신이나면은 그자 .

. 딱 원을 세와갖고 그 원이 .

오늘 작업 끄낭 갈 때 집만 좀 그르켜 줍서 , 집 만예 ?

초신 삼는 거 맞아 ?

그다음에 이 산뒤는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하는 거우과 ?

즘진즘진허게 그냥 저 호는 거로 좀질게 허고 .

아 , 그은 이 년에 한 번이네 .

매해 훈장 콩 삶양 훈장허영 아덜한티도 보내곡 딸덜토 딸덜은 왕 가정갈 때 뚫덜 훈장 공짜 가져가민 아덜 , 아덜 못 산덴 혜근에 돈 다 받아근에 뚫덜은 주곡 . 웃음 .

떡 안에 뭐 그 맛잇는 거 . 고물 같은 거 . 그걸 뭐라고 해마씨 ?

조 농사는 보리농사보다 쉬웠구나예 .

겨 아이민 어떻 파니에양 , 이렇게 가분 사름은 잘 못 된 겁주 .

요건 앞이 가는 거고 요건 또꼬망에 가는 거고 꿀랑지 들렁 요레 톡 끼왕 고들개 .

겐 다섯 개를 올리는 거 ?

지러기만 줄아 줄아지는 거주게 .

무신 베개 , 베개엔만 해여 . 거 들이사 베렌 경 베겔 해신디사 .

날을 보는 거 . 금기사항 따로 엇고예 ?

친목을 허는 거 ? 동년들끼리 제숙들끼리 다 이수다 .

굼벵이가 . 굼벵이 아십니까 ?

예 , 그 절간 햇던 얘기 한번 해줍서 .

그 자리 그디서 많이 거리민 또 싯거당 가에 왕 퍼도근에 또 가곡 또 가곡 허주게 .

으 , 흑 불르는 사람 .

옛날은 쉬는 무싱거 ? 뜻 ?

이 웨에 어떤 떡들이 잇수과 ? 아까 말한 떡 웨로 떡 잇 걸라그네 .

족은 길에 사름이 항상 지는 거우다 이런 거라 .

감저밥은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 ?

말제 몸빼 나오고이 , 일본 그런 거여게 .

조금 이저 그 출 빌 때에 .

으 , 경 메역 혜영 .

이 놈들이 학교를 강 오면은 .

게난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서 일본 대동아전쟁 때 , 차대전이난 그때 보낸 거주 . 또 우리는 차대전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이 그때 우리가 육 흑년 땐데이 근로봉사이 , 만날 지게 정 다니멍 노

역만 헷저 .

거 여름 거 . 어 허 , 허헷 .

이 , 이제 그뜨민 초등혹교계 .

해치민 공동으로 흐는 거 아니우꽈 ?

깍신은 뭐고 털멩이 , 털멩이 신은 뭐꽈 ?

베옷 싱그는디 모른다 . 뭣사 어떻행 나오는 것산지 .

하여튼 스물 댓 웬 디도 잇고 , 서른 웬 디도 잇고 , 혼 열 댓 웬 디도 잇고 경해주 . 그건 무쉬  
하영 허는 사름 족영 허는 사름 이렇게 있으니까 .

대막댕이 영 영 깨여근에 그거 헤근에 받치는 것가 뭐여마는 .

경 헷다근에 이젠 저 막 비가 크게 오랑 태풍 불어 가믄 그 풍채 작 쉴 앗아 불면은 그것이 이렇  
게 영 알려레 .

아들 셋에 , 뚫 넷마씨 ?

한 번도 아이들도 뻔 적 엊수과 ?

주로 밥 , 죽이주게 .

아이고 , 밧일도 허고 커올 때 고학허젠허난에 .

그레착예 . 다른 데는 물 잘 안 나는 데는 춤이엔 행 춤향이엔 헤근에 그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 
헤근에 물 , 비 오 , 빗물 받는 그런 것도 이선게만은 혹시 이런 거 이수과 ?

입는 사름은 벌겅케 베로 입으면 얼마나 보기ガ 좋아 .

게난 새미떡은 아까 무멀로 ?

죽 . 콩 갈아낫당 콩 골양 그거 콩ㄱㄹ 놓 죽 쑤 .

그럼 집에서 출산헨마씨 ? 그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사람 어떻 잇지 않안마씨

예 , 그냥 노랑몸 .

콩으로 , 콩나물도 행 먹엇지예 ?

그 총살된 과정을 좀 골아줍서 .

어떤 때 먹는 거꽈 ?

쉐로 볼렷당 이제 그 돛걸름 징엔 현 거 맹텡이에 담으명 싫꺼당 뱃듸 지만 썩 , 지만 썩 .

아니 , 아니 , 그 밥 헐 때 좋지 .

메날 아니 , 메날 아니 . 훈 덜에 훈 번도 아닐 거라 , 일 년에 맷 번배 끼 안 뛰여 . 경해실 거라 , 몰라도 .

술레잡기가 곱을락 아니 ? 틀린 거 ?

웬당딜 하 가지고 허니깐 보통 웬당딜은 무슨 일들을 그때 많이 해신고예 ? 보통 농사일예 ?

도들을 메서 이만썩 헌 걸 너븐 , 이추룩 하게 너븐 차롱을 다 만들양 이디 숨빡 놔야지 . 좀박이라고 좀박 .

입쟁이는 요거 저 우이꼬지 다 행 입쟁이 ?

색깔이 보기가 이상하냔 그런 걸 잘 안 질뢰 .

응 , 말젯뜰에 또 .

응 . 다 고치 .

그럼 언제까지 ? 지금까지 배원마씨 ?

경 와리지 안해도 뛰주게 . 그거 꼭 새 거 먹젠텔은 안 허난 .

새든 밧듸 가민 막 나오주게 .

멘네 핀 거엔만 굴아 .

아니 , 우린 물탈락이엔 흐민 이 하르방이 업뜨리민 막 기어가민 난 타민 발 탁탁 차멍 물 제게 가 , 제게 가 흐멍 .

쏘곱에 놓는 거 . 앙꼬렌 허는디 거 일본말이렌 허니까 .

접은 이 모가지 이디 . 모가지 .

아니 . 그거 허젠허민 이제 처음에 저거 이제 가근에 캤왓잖아예 . 이제 절여서 하는 과정을 쭉 골아줍서 . 노물 켄 온 다음에 어떻합니까 ?

거 아기 그 제주도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그 대에 바구니 영 한 것에 눌져가지고 이렇게 흔들엉 혈다 .

지금도 목장을 저 지금 하고 있어 .

막 맛 존 냄새가 나 .

집 영 어염 돌아가명이 그 줄 매는 디 또 거왕 행 돌아가명 매어낳 .

집짓젠 허면은 오레 걸리주 .

농법을 많이 쪼금 계량을 시겨 줏지 . 지도를 해서 헷는데 .

그 쪼끔씩 헐 때는 개인으로 .

그냥게 영 혜근영 영 허곡게 영 허주게 .

조팝만 헐 때 조팝이고 보리쌀만 헐 때는 , 한여름에는 보리밥만 허여이 .

떡 고물 ? 걸 뭐렌 골앗수과 ? 뭐 떡에 뭐 묻히렌 골앗수과 ?

게민 무신 물도 ㅎ쌀 국도 ㅎ쌀 검으릉 험저 허민 .

그다음에 , 그다음에 아까 둥글랑한 거 뭐엔 헷저만은 .

톱 종류 아까 물어봐신디 ?

쉐 신 집은 다 갈아예 ? 빨리 하니까 ?

응 총각김치 열무김치 경 행 허주 .

새우리짐치는 어느 철에 하는 거우과 ?

또 둘렝이 용서라고 조 ㄱ튼 거양 산듸 ㄱ튼 것들 돌렝이에 강 골민 좋긴 합니다 .

줘기떡 . 게믄 이건 반죽혜근에 어떻헙니까 ?

예게 . 물 나이 혼 살이면 무시거엔 ㅎ고 아까 쉐처럼 .

새각시 펜이서 혼 사름 . 새시방 펜이서 어명 펜이서 혼 사름 . 아방펜이서 혼 사름 허민 양 사돈 혜영은에 가곡 따시 .

아 , 가로로예 , 예 .

젤 큰 사름이 앞의 매어불어서 .

여자들끼리 모영 협디가 ? 혼자만 협디가 ?

혼 두 둘 넘으민 건저근에예 .

우리 쉐짐??장 안 시꺼빳어 . 여조덜도 잘 시끄는 사름덜은 시꺼 , 노동 잘하는 사름덜은 .

음 , 그 떡은 무신 떡이렌 협니까 ? 그렇게 현 것이 .

탕근 우리 안 만들어봠 . 옛날 우리 어머니네 만들어 봤주 .

돌팽이 묻혔던 헌 뭐도 이서 .

몰 새끼는 뭐렌 협니까 ?

예 . 그믄 좀 안 좋은 뱃디 나는 거 뭐꽈 ?

엇어 . 그건 저 거시기 기증펜 .

아 , 국제만 지내 가지고예 ?

밧을 갈레 가젠 허민 놈의 장남이니까이 .

웃기떡은 뭐꽝 ? 웃기떡 .

웬장 꿀 땐 누룩을 놔근에 하면은 처음에는 그 색깔이 이런 색깔 뛰민 뛰는디 누룩 놓은 거는 간장 떠다근에 그거 먹당 놔두민 간장이 그 웬장이 시커멍허여 .

콩씨도 그냥 영 삐주게 . 졁씨 삐듯게 .

장마 끝날 때 파종하잖아 . 뭐 준비할 건 엊지 . 그냥 옛날에는 그 저 밧이 마른 때 조는 갈아야 뛰니까 마를 때 건조할 때 .

여자들이 먼저 남자 꼬시는 거네 ?

아 , 무신 펑 아까 ?

그 얼멩이 치는 건 보리테작힐 때는 얼멩이로 치는 것이고 테작힐 땐 얼멩이로 . 보리테작이나 무시거 뭐 조 테작이나 뭐 얼멩이로 그 곡메길 쳐내 는 것이고 곡메기 .

우린 맨발에양 계속 뎅겼는데 게난 경이나 안 허영은 출 이삼만 단을 눌지 못헙니까 .

물은 둘은 해사 뛰여 .

발 깨끗이 씻엉 보선 신영 .

아 , 저 무싱 거 죽은 혼수 , 죽은 혼순계 , 새각시나 죽으민 새시방이 다시 저 집이서 다 죽은 사람끼리 다시 사돈끼리 다시 만나근에 , 뚫 두라 해영 영 후라 정 후라 . 허민 게민 아무 날 택일 받양 오쿠다 . 행 그쟈 말젠 이불 우알채 행 가는 생이랑게 . 새각시 집이서 이불 우알채 해놓곡 , 새시방네 집더레 귀신을 매끼 민 그디 왕 다 영장 메단 그레 강 ??딱 묻는 생이란게 .

잘 헷수다 . 겐 그때 결혼사진은 찍읍디가 ?

좀 쉬엇당 후쿠다 . 딱 종 울려신게마씨 .

오만 원 징 살 때쯤 웃을 때 보리쓸 몇 말쯤 갖당 줄 정도로 헷수과 ?

경행 그거 막 짜근에 거 물 떨리면 엿 뛰어 .

베틀은 여기서도 그 베틀 이용해마씨 ?

흔 뭇썩 흔 뭇썩 무껑 .

아 , 여름에는 말고기 안 먹어 ?

머렌 골아 , 줄 놓는 거 .

집은 돌로 다와근에 요만인 . 돌 , 돌 다왕게 .

으음 , 게민 직접 그거 담배 헐 때도 다 그거 썰멍예 .

좀도 잘 안 먹고 .

흑 더퍼 가지고 나무를 막 쌓여 놔서 .

물론 검질 수이에 넣어서 . 그 불 부찌멍 불 추곡 햇주 . 검질은 .

아 . 팔월멩질도예 . 백로 , 상강 헙니까 ?

바당에 궤긴 안 하여 ?

제지내는 디 . 저 깨끗헌 드리 비울 때 엇이민 지방 우터레 올려 , 지방 우터레

궤명덜이 그게 이 저 시루떡그라 무시거 . 시리떡 , 시리떡을 ?

집에서 저 염색하는 염료들은 엊어난마씨 ? 집에서 하는 거는 ?

성주 아니 누린 집인 .

응 , 낭방석도 허고 .

나 살아난디 간 훈 이 년 살아난디 .

응 . 마같이 , 마같이 조팟은 빗주제만 걸쳤다고 하며는 물 부끄듯 부꾼다 하는 거거던 . 그렇게  
훗롯밤 자나며는 팍팍 올라오라 .

아 , 누에씨가 잊어마씨 .

엿날에 점복도 따고 , 소라도 잡고 , 헤난 .

그럼 , 공출해난 것은 보리만 공출햇수과 ?

아아 . 는쟁이 범벽예 ? 그것도 좋다고 .

가운데 놈빼만 짹 흐게 쫄라그네 썹이영 그찌 쫄라그네 죽엿다그네 싯쳤다그네 그레 양념 흐粲  
버무리는 채 , 버무리는 채 뜯 것추룩 양념 하영 아니 흐粲만 흐여그네 버무리는 채만 , 딱 눌렁  
놔두민 것도 맛 좋읍니다 , 것도 .

예 , 젤 우이 거가 지름떡 , 엿날은 중게 약게는 침떡 우이 올리는 게 중게 약게곡 , 그 우이 올  
리는 건 곤떡이고 , 그 우이 올리는 건 지름떡이고 경해근에 엿날은 다시 그 무신거엔 허느니 ?  
지짐이 허여근에 어떻 저 고망 나게 허여근에 우에 올려놓고 경해난 , 옛날은 .

저 영 담 닳은 디 돌 흐꼼 영 뾰족하게 나온 디 그디 다 또꼬망 씨는 거라 . 그 돌에 . 게믄 그

돌이 뻔찍뻔찍하는 하게 해영 해도 누게 똥 냄새 난덴 허는 사름도 엇고 . 이 사름도 똥 싸나민 거기 따고고 영 해영 그디 따까끈에 그디 영 해영 따까끈에 .

아니 , 놀봤어 . 하르방 일허당 심심허민 꿩 사농 뎅겨낫주 .

경헐 때난 그자 그냥 져다근에 경허면은 촌물에 컹 온 거 흐꼼 싱거 와 싱거우믄 이제 소금 허영 .

조왕을 으쌰 군데를 해낫수다 .

혹시 그때 헷던 거 그 기억나는 대로 골아줍서 . 그 상여 멘 집에서 출발할 땐 어떻 헤심광예 , 그다음 가는 도중에 그 곡하는 소리도 잊고 , 그다음에 장 지에도 도착hen 어떻 헤신지도 골아줍서 .

경 행 꺼꺼근에 모여근에 것도 집이 .

일본 사름 사가난 것도 행 풀아낫어 .

베틀 길이 거보다 길주 .

호박잎 베껴근에 썰엉 , 영 농 그루 허트민 .

무시거 체암게 올 때 체암 올 때 솟 솟 훈 아저온 거주 .

여름이난에 여름 어느 때쯤인고예 .

저디 그 아까 이영숙 씨 그 하르버님 , 그 하르버지안테 .

장으로벳귄 먹을 게 엇이난 .

동전은 한복 짓둥이 도는 거 동전 . 마무리 흐는 거 동전 .

다 훈 시리썩은 짜가야만 공정이 경 하노난 옛날에 . 떡이 경 어려우난 .

감 , 저 감저도 그전에 감저도 기계로 캐고 이 , 지실 곁은 것도 기계로 캐낫주게 .

나 그거 헤도 천지에 맵니다개 . 건 .

아 , 그건 베틀락 .

제소에는 뜻떡 안 올리난 설귀떡으로 흰떡 징 올리곡 . 그냥 먹는 거는 저 좀 친떡이라고 문친떡 이라고 무 썰어놓곡 해영 시리에서 찌민 맛 좋게 해영 먹곡

잊어불지말양 고민 해봅서양 ? 나중에 물어볼게예 ?

하이고 , 거기서 자란 동싱덜이 만이 태어나도 다 , 옛날에 열로 , 열로 열 버천 다 죽어 불언 .

그럼 옛날에 막 말 더듬는 사람 잇잖아예 ? 말 더듬는 사람한테 먹이는 거 잇언마씨 ?

예 경 훈 거 벳기 더 이서서 ?

좋은 그루가 진그루 , 그 다음에 나쁜 그루가 는챙이 , 경후민 좋은 쓸로는 밥 행 먹곡 , 거 훈  
번 골아봅서 .

밥에 뭐 죽만이 물 혜근에 그 누룩만 들이치민 바글바글 궤민 순다리 뛰지 .

예 , 예 . 누물국은 누물국은 어떻 만들어마씨 ?

상무루 이렇게 헌 거는 그다음 여기 하나 둘 네 개씩 행은에 .

멩긴은 탕건이영 후꼼 튼나 ?

고달꽃으로 만든 , 그 물 빠가지고 하니까 고달떡 ?

경해부니까 요샌 파랑하게 임시 기자 곤 것만 먹을 때라 놓니까 .

으 , 구녁치기엔 해 가지고는 땅에 , 이렇게 땅을 파 .

짓는 디 . 공항 그때게 터 이제 막 골라세 .

겨난이 우린 또 콩국이 누물 놔서 콩그를 허트면은 잘 안 익엉 .

누게 그레 오지도 못하게 혜나서 .

가라스 불랑 . 것도 중간에 .

콩죽히고 팔죽은 어떻 행 쑤는 거꽈 ? 콩죽이영 팔죽이영 쑤는 거 틀려 ?

초후루마다 혜낫주게 , 우리도 .

아 . 냄삐를 사 ?

유치름 혜근에 것도 후꼼 이신 집의 경 하고 . 경 아년 집인 어녕부녕 허영 불랑 허민 옛날은 베  
록이여 무시거여 .

여기 훈 사름베끼 엇수다 . 그디 다 나머지 다 육지 나가 불고 .

산딧침으로 명석 줄듯이 절어사 .

다 거 사름이 정성 .

것이 그 신의 물이고 .

아 , 그 구멍치기가 그것이 애 , 기역이 조금 말못이 나긴 허는디 그

으 , 하나 족으나 . 집이서 씻음을 안 허여 . 몸을 죽으니까 거기 가믄 .

그게 서귀포쪽에 호령창이엥 골아신가마씨 ?

게난 귀여 , 귀여 . 예를 들어 이거 집이면은 이거 돌 흐나 농곡 , 요 중간에도 흐나 농곡 영 해 근에 .

묶으는 건 일곱 명이 묶으고 ?

순서대로 골아봅서 . 토 그다음 .

이름도 잊지 . 거 데쌍 얘기구덕도 멘들곡 .

보리 씨 농사 허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허주게 . 산파라고 .

수주보는 책으로 어명이 간 보안 오고렌 .

나도 술도 빠나고 오만 거 다 헤나신디 옛날은 술도 오메기떡도 행 꿔어놔근에 그디 헤여놓 누룩 서꺼근에 놋다근에 저 시리 , 고소리에 놋근에 솟드 놋근에 트게 골명 꽉 영 펑헤영 콕 질영 놋 두민 하영 좋은 땐 진하게 허민 비루펭으로 흐나 나곡 , 어떤 날 흐나 안 난 때도 있고 .

저 우린 저 그 땐 숨양털 해라 .

우영에 씨 빠여근에 쉐스령으로 죽양 내부리면 그것이 자라면은 톤아 먹고 . 겐 옛날은 그걸로 김장은 못 담아낫저 .

게난 거기에 오로코미에 곱으레 오는 사름들은 .

이제게 팔월이 나민 벳이 희미허지 안허냐게 ?

동모커리 섯 모커리 건 부잣집이주게 .

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마씨 ?

밤이 . 심방 불러근에 이디서 그냥 ?

옛날에 걸름 많이 엇엇수광 ?

이제 그 또 무끔에 틀리고 . 이거 요 정도민 웨겠다고 행근에게 딱히게 정해진 게 아니 .

애기 아플 땐 그자 아프면은 애기 넋나시카부덴 할망이나 빌어당 빌어나 주고 . 거뿐이주 .

멘네에 연 읊매를 뭐렌 골읍니까 ?

고성 저 웃동네에 살아낫주 .

방은 엇우광 ? 아 , 구들 하나 .

게난 그 감저묘종이 잘 웨야 감저가 많이 갈곡 .

형식은 헨 . 걸언 .

게민 이 양태는 어떻 혈 때 쓰는 거라 ? 양태 소곱에 아무 것도 안행 그냥 씁니까 ?

벌한테 쏘이 건 훈 며칠 잇이믄 좋아 부는 거난게 .

게니까 문여 시끈 쉴 메어됭 또 조름에 거 시깽 경행 이제 앞이 거 클러근엥이 ?찌 물양 갓젠 말 아니가게 .

마 , 마주목으로도 파낫수다 .

오몽행 , 좀 길쭉허멍 오목현 건 .

경헨 산제 하는 거주 .

콩 수확은 옛날에는 골갱이로 꺾어 .

그거는 칙으로 헙니까 ? 석으로 안 행 .

솜 심은 디 엇어예 ?

어 , 털어 , 털어 . 그 놈이 치는 거라고 . 아이고 , 콩 갈레 가민 풀 치레 가살 걸 경 허고 . 그 밧에 풀에 많지 안 헌 밧은 아니 못 전디는디 콩 갈레 간 밧은 막 진물 . 가슬이라고 그 .

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마씨 ? 주로 농사짓고 . 그 전에 농사는 우리 저 어렷을 적에 그 러니까 우리가 , 나가 일곱 술에 , 일곱 술에 사삼이 일 어낫는데

여기 미깡 잘 안 하는디 . 바람이 고산으로 바람 막 들이쳐 .

응 , 게난 우리 동네만 가도 . 다 웨지 사람이지 . 우리 그전 그 토벡이 로 살던 사름은 엇서 .

세시풍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. 그 일월 달 정월 명절 잇잖아예 ?

거기에 감저 ?뜬 거 놔근에 .

그 놈우 삭은 나무는 다 불어 불곡 .

또 여름 나민 조 같고 산듸 같고 .

살기 얼마나 편허니 , 뜻죽 다 맞휩서 . 안 췄 .

아이고 , 세상에 . 쫓쯧쯧쯧 .

저 웃토산에 가민 이실 거라 .

또 그 나중에는 종자가 막 좋은 것덜이 나와낫주 .

거 , 엇은 집이 허는 거난 뭐 . 여기 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주 .

것도 보리밥 , 예 .

잠깐 허긴 혜난마씨 ? 선흘도 .

데우리는 주짝 올라오민 그거는 그냥 .

그루 더 놓라 헐 때 익엇던 헙니까 ?

혜벤은 그런 농사를 아이 짓지만 여기는 상상 외에 떨어져 봅니다 .

아니 . 저 학교 저끗듸 살단 .

감태 그때는 약으로 약한덴 허명 .

아니 난다 . 그늘 지기 전이 메줘사 . 거 다 메는 거 아니여 . 검질씨 아진 밧은 안 난다 . 검질 씨진 밧은 박삭 나곡 걸류와 놓곡 혜노민이 감젠 그냥 싱거도 안뒈난 비료 징 싱거줘사 헣다게 . 게믄이 검질씨 신 딘 잘도 나 . 메줘사 , 아니 메민 안 뛰여 . 검질에 졸령 .

옛날엔 밧디 가근에 밟으라 허당 보민 학교 선생네 밭이엔도 막 허곡 .

것도 , 그 저 우리보다 밑엣 아이영 허민 우리가 이기고 , 우리보다 우 옛사름이영 허민 우잇 사름이 이기고 .

예 , 무작단추 . 무 , 무작단추 옛날 그 적삼허거나 하면 다 무작단추로 헌 거고예 ?

예 , 예 . 경국에는예 , 맞수다 .

응 . 세 개 .

그믄 삼춘 못 , 못 잘못 쳐가지고 그거 뺄 때 .

그게 반지기 밥 . 아 .

남자삼춘은 암전후게 큰 거 닮아 . 펭이치기도 안 해봤던 후고 .

상객이 두 사름이 가는데 , 이제 그 원래 신랑 쪽에서 한 사람 , 또 신부 쪽에서 한 사람 해서 . 좀 저 어머니 쪽에서 한 사람 아버지 쪽에서 혼 사람 해서 두 사람이 .

거 무싱거엔 곤느니 ? 옛날은 미녕도 허민 재에 숫양 .

게민 그때 뛰면 다섯 솔 뛰면 어떻 헷수과 ? 일허지 못하면 ?

아니 , 이제 그 흑교가 그 흑교 .

고산에서 사람들은 뭐하면서 먹고 살안마씨 ?

굴은 아니고 나 고사 굴았지이 . 주룩코지 , 뭐 납닥 , 버랭이알 , 진여 요깃털 그냥 영 요레 검은 독무리 , 검은 독무리엔 허여 . 요렌 뒷산디 무사산디 몰라이 또 바로 우리 이 바론디 개창 , 이 배 메는 디난 개창 , 후꼼 더 가민 나 고사 굴았지 , 주룩코지 . 또 후꼼 가민 납닥헌 여 시난 납닥이 , 또 후꼼 더 가민 진여 , 저펜더레 검은여 . 글로더렌 금능 무을이난이 놈이 무을꼬지 알 필요가 엇주기 경허민 아무 디 감저 , 물질허레 가게 허민 훤히게 알지 . 월령 사람은 바당 이름

을 지우니까 계단 거 바당 이름도 잘 지와서 어디 개것이여만 허민 모를 건디 어딘 어디고 어딘  
어디고 , 훤히게 골으민 이디 사람덜 다 알아 . 우리 낫솔엔이 아니 들어난 아이덜은 커도 모르주  
만게 , 물에 들명 아무디 감저 허민 그레덜 와이 . 물에 들 레이

아 , 실 ? 그냥 실마씨 ?

어른 어떤 어른들은 이제 그트민 택시 모냥이라 . 물로 허영 탕 다녀 .

그럼 초등학교나 이런 거는 엇지예 ?

으 , 곤술로 헤도 돌례예 ?

아 , 우리하고 일가는 아닌데 그 사름네가 원래 어디 대정 사름인디 처가가 이 성읍리니까 성읍  
리 완 살아십주게 .

여기는 치매깍 . 그 다음에 이제 보선 같은 경우 ?

이제사 그러는디 옛날에는 남의 집에 빌어가는 이사는 그다지 많지 아녀고 집 지어서 갈 때가 많  
았고 .

베는 삼으로 만든덴 허곡 .

그 땐 구루마도 잘 엇어 .

벳은 요디 현 건 요건 보섭 .

그럼 옛날에 함 같은 거는 어떻 준비하고 뭐 들어가마씨 ?

일주일 . 한 번 잠잔다는 게 거의 일주일 단위 개념인 거마씨 ?

예 . 보리밥을 바글바글 웰 거 아니우과 ? 나 아까 곧듯 .

예 , 예 . 무치는 거 .

뽕 그거 헤기네 맥이는 것도 , 것도 저기 .

게믄 멜첫 아까 자리젓은 혼 말 , 보통 혼 말 담그고 멜첫은 게민 얼마나 담급니까 ?

난 그자 ㅎ술 ..아 ㅎ곡 허멍 그자 놈이 거 입곡 허멍 사냔에 그자 .

아이고 , 우린 구신물끄장 강 해오랏져 .

예 , 누에 쳐난 벌레 나온 거 ?

경 허민 오레 놔뒀다근에 혼 정월 이월 , 저 정월 혼 보름 넘으민 막 씻어둬근에 둠으민 .

그거 지었던 건 언제마씨 ?

것도 만들양 헐 사름이 , 줄 놓는 사름도 시고 헤사주 , 것도 . 빌어당 허여 빌어당 허는 사름 빌

어당 허고 . 빌어당 하영 허주 .

그 집줄은 어떻 영영 ?

그럼 소는 밧 가는데 말양 딴 데는 어디에다 이용해마씨 ?

검질 그 제완지 ? 튼 거게 .

약 ? 튼 거 둘일 때 남평날 보고 .

여긴 동카름 중동네 섯동네 .

게난 다 우리가 썻던 말덜은 알양 놔두민 좋은 거 맑아마씨 .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.

경해근에 현디 지금 나가 생각할 때에 앞에 식게 하면 한자를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한자 놓고 .

그문예 넘어갈게예 . 쉐나 말 먹이들은 어떤 것들이 이수과 ?

이젠 복치메 안 행 다 몸빼 .

예 아니 옛날 옛날 얘기해 줄도 웨마씨 .

아 , 오유월에 갈안마씨 ?

친족덜 비스름에 , 누게 아덜 친구나 누게 이신 사름은 어디 들판에 나가서 짤라 오고 .

그 검질은 어떤 검질들이 콩밭딘 잇어나신고예 ?

그냥 질러근엥 운가 얻어근엥 살앗주게 .

트면 거기서 물리면 빨간 게 나오는 것이 잇고 검은 게 나오는 것이 잇주게 그것이 누룩이주게 .

곤밥은 요새 우리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해여 .

그문 가시리국은 어떻 드셔보션마씨 ?

초가집 이렇게 해가지고 , 초가집 뭐 혼 다섯 평 쯤 웨나 ?

소는 밧 갈고 물은 탕도 뎅기고 밧도 갈고 낭테도 메왕 돌아뎅기고 벨 거 다 허지 .

그 표준어로 고등은 바당에서 기어다니고 집 있고 허 , 허 , 하는 거를 다 고동이엔 허난예 . 삼춘이 혹시 잡아난 그 고동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.

이젠 나가 열아홉 나난 따시 또 정허멍 살아가단에 이젠 열아홉 나난에 이젠 나가 누게 바당 물질허레 가겐 . 충청돌 갓주 . 충청돌 간에 이젠 . 첨 기가 맥힌 삶이주 . 충청도 가난에 물질허레 가난 그딘 생복만 잡고 저 해삼만 헌 디주 간에 물질헨에 맹지 헨 혼 필 사 아지고 돈 삼십원 헨 . 돈 십 원헨 좁쓸 오 톤 가 매니로 혼나 해 아지고 헨 간에 물질을 허는디 이제 돈은 삼십원

을 벼슬언 오란 .

여름에 냉국 행 먹어 .

좁쌀 만들지 못 하지게 . 조로만 나왕 .

옛날에 매역베끼 안 해난 ?

날레 너는 건 설레고 . 굴뚝 짓는 디 쓰는 건 구그내 .

어 , 어디 가난 무신 양눌베기여 ?

누개네 집이 강 곤떡 빌어다 도라 , 누개네 집이 강 콩 , 콩누물 .

안 좋으니까 날 우첨직하다 ?

아니 , 방 두 개 현 디도 잇고 세 개 현 디도 잇는디 .

나 쉐 질런 디도 혼 삼십 년 넘어실 건디 .

요게 멧 센티 뛰코 ?

옛날 식초 만들어나지 안하서 ?

어르신 어렸을 때는 무슨 놀이 하명 자란마씨 ? 어렸을 때는 .

멩지도 . 맹지가 더 잘 맥영 막 다크이질허민 반들반들허영 창호지 소리가 나 . 보들보들허게 .

게난 이 좁제기도 허젠 허민이 낭이 이제 그 이 꿃뎅이가 몽콜락하게 둑은 거 .

어디 먼 친족이 생각행 출려 주민 하고 .

경 허민 옛날은 그런 거 멘들지 못 해난 .

먹는 식이 다 틀립니다 .

게민 미녕은 미녕으론 어떤 옷 멘들양 입는 거 ?

아무 색이라도 물들인 건 물색 .

지들커는 우리 땔감인데 , 검질게 . 그 당시에는 그 비질 안 해영 간세로 . 낫 안 허민 못 비니까 . 벌초 안협니까 양 . 벌초해나믄 그걸 무꺼 .

짓 우이 두는 건 동전 .

소 쟁기 . 쟁기도 부분마다 명칭이 이름이 좀 다르잖아예 ? 부분 , 부분 .

응 , 우리 살 때 마차로 시꺼당 . 쉐질멘 설러 불어세 . 옛날은 쉐질메로 .

경허영 신영 다녀 .

아니게 아명해도 경 허는 사름도 잇엇주만은 우린 경은 해보진 .

그 보리сол은 어떻게 장만헙니까 ? 물방에로 어떻 .

그거를 말하는 거나 , 여기도 그런 식 무신 띠 , 거난 띠를 말하는 거여 . 무신 띠 무신 띠는 보지말라 .

게민 칼국수에 대해 훈 번 말해봅서 .

바다에 원담도 잇엇주 . 삼양삼동에도 잇엇고 . 일동더레도 잇엇고 삼동에 잇는 건 확실헌디 이 삼 , 삼동에도 둑 군데 잇어낫어 .

난 안가고 그 할머니만 옛날 옛날 구십두 살에 돌아가시난 할머니 돌 아가신지도 오래되신디 .

먹당 실프민 물론 거 썰엇당 아으덜도 먹고 . 빼떼기 헌 건 잘행 이녁 먹젠 헌 건 곱게 허메이 . 푸는 거는 그냥 이런 땅에 널어도 . 곱게 널었다근에 인칙 골았지 물고랑에 강 골아당 채로 치멍 감저?루 저배기도 행 먹곡 감저 오메기? 추룩 오메기도 행 먹고 맛잇어 . 새카망 하여 .

또 땅에 기려근엥이 땅 뽕아먹을락 허영 영 뽕아 . 뽕아근에 또 하여나고 , 먹대허여근에 .

다 경 골아 . 어느 날 개날이난 장 담으라 경 허곡 . 뱀날 용날 사름날 그런 날덜은 장 그거 안 담아 .

아 , 그럼 그것도 이따가 좀 물어볼게마씨 .

아 , 맞아 . 하나 앞에 .

옛날엔 조팟듸 걸름 안 젖수다 . 불체?뜬 거나 , 불체 그뜬 거 .

으 , 그 외에는 었다 .

아까 말훈 거 말고양 , 지 종류 .

지금 그 굴을 파가지고 오름이 막 소곱이 막 뭐해서 그 저 ,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땅굴진 지라고 해서 .

것도 잘 사는 사람덜 .

엇수다게 . 뽕입 아니우다 , 건 .

예 . 형겁에 싸 .

예 . 자리 테 탕 강 ?

음력 십이월이우다예 . 우리 제주도에선 .

명지는 어째튼 그 한 번 옷 저기 해나면은 다 쌀밥을 틀엉으넴에예

만든 날 , 오늘 숨아시민 오늘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엉 바로 메달지 못 허잖아 ?

아니 , 아니 , 씰 감는 거 .

흔 판이라고 헌 게 어떤 것과 ?

메역이 돈 하영 줘낫수과 ?

경<sup>후</sup>고 우리양 , 경도<sup>후</sup>연 땅도 팽 묻어אוטובוס다 . 짐치 땅 판 , 땅 파그네 옆으로 영 돌아가멍<sup>후</sup> 연에 폭<sup>후</sup>게 더깬 놔두난 , 경<sup>후</sup>여 시지 안 흡디다게 . 경<sup>후</sup>연 그자 이삼월 나도록 경<sup>후</sup>연 먹 엇수다 . 옛날에 , 겐디 옛날 짐치가 맛 좋아양 족쓸 숨아노난 경 맛 좋아신가 , 이젠 원 . 이젠 누물도 더 속 앗곡 해도 , 옛날 짐치가 더 맛 좋은 것 닳아 .

옛날에 사료 거튼 거 여기는 없었어 .

아 , 찬 거 먹지 못하게 하고 .

웨 , 웨 . 웨냉국 .

술도 담가 ? 족쓸로 ?

가메솟은 건 뭐인가 웨솟이엔 헤 가지고서 그건 기자 쉐로 만든 거라부난 그냥 타불엉 보고질 못 헤 .

게민 삼춘네는 고팡제를 안 햇던 거 ?

풍체도 늘 이렇게 세와두는 건 아니잖아예 ?

아니 , 건 중간에부떠사 . 경<sup>후</sup>난 쉽는디 , 타당 나뒷당 시간 나민<sup>후</sup>는디 , 허리에 츄<sup>후</sup>구덕 메 곡 멘네 타Zen<sup>후</sup>민 허리가 다 그차져불어 .

요런 데 , 요런 데 .

맛 좋게 허Zen<sup>후</sup>민 저 보리쌀 그를 .

바빵이 . 그때 당시 바쁘민 .

그럼 정월 명절은 뭐꽝 ?

이 누물도 주곡해도 . 무수 그뜬 것도 손 안줘 물은 해도 .

콩으로는 뭐 행 먹언마씨 ?

만약에 예를 들어 뭐 삼천 평을 심나 심는다 해도 어 고구마 한 열다섯 가마 정도면 충분히 심으니까 . 한 열 다섯 가마 삼천 평 우리가 삼천 평 심겟다고 하면 열다섯 가마만 종자 깨끗하고 뭐 너무 크지도 적지도 안 헌 거 균일하게 뽑아서 종자로 따로 해 두고 나머지는 절간 하던지 생 고구마로 파는 건데 .

게난 제를 거저 헤가민 .

동지՞ 물짐친 더 맛 좋고 .

며누리하고 사위들은 별 문제없이 잘 헤마씸 ?

메주 씻어낭 물 빠지와마씨 ?

먹는 건 산뒤쌀 아니라마씨 . 하하 .

아 , 기억 남수과 ? 막 상여 설배 메고 경 힘니까 공동묘지가 잇수과 ?

그런 디 잇으니까 우로 보아근에 들어강 헤오는 거 보단 그 수입 잡아내는 것이 얼마 못 잡아내니까 헛물에 . 헛 , 빙차도 온다 하는 식이라 . 이 헛물에 는

따시 우장 쟁 비 온 때에 하르방이 들어오민 우장 버치령 따시 또 비만 오곡 . 경헌덴 허주게 .

물을 사당 들여 부난 난 몰르지 .

똘 풀다 , 아덜은 장게 가다 .

퉁시엔게 퉁시엔 퉁시 동티 .

안 그러면 가지가 나 부니까 .

여기가 도절귀 해갖고 . 낭으로 ?

그런 식으로게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많고게 것도 많아사 영 조그만한 그런 디 막 잇어 . 경 헤사 곡식 익으면게 요 동네 사람들은 요기서 허고 저 쪽 사람은 저되서 허고 . 여러 잇어야주게 .

야 , 그런거 하고 .

이젠 그 봄 나가면은 그 육지서는 무수도 막 묻엇다근에 봄 나가 , 봄 웨도록 먹는디 .

낭이 춤낭 막 질긴 낭이라사 드들낭을 하지 , 저 대부분은 돌로 .

게난 서쪽이랑 동쪽도 달라마씨 . 우리 동쪽에서는 저기 출 눌 헐 때는 누람쥐 안 행 협디다 . 웨냐면 출 눌이 워낙에 길고예 .

?. 사삼때 그때 .

아아 , 허텅예 ?

이 사람덜은 영등굿이라고 해서 허는데 그저 농서짓는 사름은 생각도 안 허여 .

낭을 풀레 뎅겨수다 . 우리가 .

옛날에는 왜정시대 때 구루마가 낫지 . 그 전이는 구루마가 엊어수다 .

경헌 이디 완 아무 것도 엇이 오란 사는디 그 이녁으로 자수성가헌 살앗주게 경해연 그 살아난 역서 이제 우리베끼 몰라 .

물듯이엔 곤주 뭐렌 골아 ?

그때 가민 그거 허곡 , 따시 또 경 안허민 정월 나민 따시도 그 절간에 세배 가민 운수 보민 그 사름이 그해에 궂는 거 , 안 궂는 거 다 알양 삼잰 삼재다 아니민 아니다 허민 , 삼잰 액멕일 해야지 .

예 , 불리는 거 ?

그 저기 께는 어떻 헙니까 ? 무꼬는 거 .

각처에 사름덜 문딱 와 살아 .

육지로 . 여기서 어른들끼리 동네 어른덜끼리 바농질 행 만든 건 아니고 ?

그러면 보리는 언제 보통 갈아마씨 ?

돌아오는 거 , 돌아오는 거 . 마당에 행 물 우이 영 앗양 요레 걸어오민 거 대반이 청해 오는 거 주게 .

그디 살단에 우리 아바지넨 선흘 살기 실플덴 아니 오고 .

경 혜근에 허영 그거는 잔칫날에 하나씩 .

우리 집사름 시집을 때 혜온 거 . 혼 오륙십년 드셔 .

아 , 고소린 다꼬는 거고 , 영 오메긴 영 고망도 싯고 물 놋근에 숨아가민 그레 건 고소린 그 술 다꼬는 거고 . 이 오마긴 또 떡 멘들안 가운디 고망 뚫랑 숨으민 익으민 또 걸로 막 이제 찌어근에 이 펑으로 하나 어떻 허영 그걸 혜연 술 담는 거고 . 오마긴 , 오마긴 떡이여게 .

몰라 . 무사사 빙떡이엔 하는디 . 빙떡이엔 그르민 알지 , 우리도 . 이제 일이라도

톱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앞뒤로 땡기는 거 , 양쪽에 놀 돋은 거 .

주로 옛날엔 막 이런 예방 접종 같은 거 엊어근에 .

경 이만썩 조록 둔곡 허민 그 첨 물 퍼놔도 더불도 안허곡 . 그 국자가 서낫주게

으 , 그거 그거 농촌에서 그거 비상약으로 사용햇저 .

또 이젠 식초혜근에 , 뭐 몇 번에 놋곡 정로환 그튼 거 뭐 혜근에 발 담그렌 헷주마는 그땐 엊어서 .

혼 둑음씩 빨 수 있게 ?

게민 여기서 잡아지는 거 어령이로 물훼 해 먹고 ?

혈압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오고 ?

일제 땐 넘은 후예 .

경허연 허엿주 , 아이고 .

아 , 데끼는 거 . 거 우리 안 해난 .

입춘이엔 허민 오늘 새칠 드는 날이여 허문 기자 시간도 엇이 무조건 예펜들은 집에 앗양 . 육 들어 .

나가 이제꺼지 얘기 현 건 옛날 시절이고 .

음 , 거 두 개 꼿 ?

그거 얼마에 사가난 거 혹시 기억남수과 ?

도새기 새끼 그거 맛 .

하여튼 하루는 굶어야 둬 .

그거 물에 쟁 강 . 이제 골젠 허민 막 멀미해여 .

좁쌀 조금 놓곡 이만큼 거려주민 풀풀하게 맛싯는지 .

올레가 긴덴 말로 먼올레 .

이건 것도 씨 막 좀질이 곱게 빼어 . 건 무데기로 막 빼어 . 그냥 여름 용시는 부념도 엇고 거름도 엇어 . 이제는 허는 수도 이실 거라만은 그때는 엇어 . 것도 막 빌엉 저디 씨멩텅이에 막 쟁일 빌어당 골루루 이걸 막 빼어 .

아 , 코시 헐 때 ?

흔 설은 뭐렌 협니까 ?

으 , 자기 생각에 어디가 좋암 직하다 허민 .

이دين 몰래 팡은에 묻엇당 .

우리 아버지는 나 얼굴도 몰라 . 돌아가셨으니까 .

아무 디 해여도 말은 살아나고 . 쉬는 꼭 줘야 둬고 .

겡 안에 하양헌 거 ?

다 이젠 그런 것덜이 엇어 불언게 . 멘네씨 까는 저 목 , 목 . 그 저 거세기 멘네 .

아이 절허고 뭐 헌 거 아녀고 .

그문 보리 수확하잖아예 .

심방 빌어당 , 정월에 ?

일로 영 올라가민 저수지 통이 잇어 . 이제 그디 평균 뛰엿는데 , 건 부락에서 사가지고 저수지 물 둉견 그디 물 해서 내 꼬락지 요만흔 서릿내로 골골골골 누려오민 싸움박질 흐멍 논일 흐엿주게 . 이놈 저놈 흐멍 .

질게 기냥 ?는 ?는 하게 막 올라가근에 헤 가민 혼 웨민 비여근에 이추룩 헌 대막대기 해근에 영 영 영 영 모시거치 영 영 영 영 헤 가민 그게 문 벳겨정 영 영 헤 가민 영 벳경 숷는 것만 봐 낫주 .

게민 씨 뿌릴 때 씨 하영 안 뿌리면 웰 거 아니우꽈 ?

북풍을 하느부름 허는 거라예 . 게민 하느부름 올라오면 이제 출을 비는데 , 출 빌 때 노래도 부르고 .

땅속에 들어강 그거는 짠물 해도 피해가 없으니까 .

성게 국이란 건 요즘 난 거 ?

응 , 훌타 . 훌틈도 허곡 영 무시걸로 해근에 영 두드리는 것도 싯고 옛날 할망덜 뱅뱅뱅뱅 돌아간 디 영 대영 허민 두드려지는 것도 싯곡 . 우리 두린 때에 그자락 경 허난 용솔 그추룩 하영 허난 . 엇영 안 뛰곡 허난 곤란허영 잘 못살아 나수게게 잘 입도 못허곡 먹도 못허곡 .

조라는 것은 잘 불리지 안허민 종자가 잘 안 살양 나당도 다 쓰러져 불주

거 끌 , 끌 .

게난 그 과질도 영 들어간다 . 과질은 뜻로 올려낫저 . 과질이엔 헌 것이 셔낫저 .

어 , 나도 그게 결혼은 그 당시 신식 . 사모관댈 안 썻으니까 .

고등어 허영 딱허게시리 이젠 그거를 허여근엥에 담아됭 가민 또 재고을 해야 헤여 .

으 , 역불로 물에 들엉 허진 안하고 .

낭에 걸어질 때도 있주만은 .

이 할망 대장 아니라 곤잘 알암지 ?

게민 만약에 우미는 개인이니까 자기가 헤 왕 물령 .

으 , 문지르고 , 등멩이로 등멩이로이 바농으로 이거 체찝이 잇젌 헨 영 따곡 혘다 .

잡아야 뛰는 사람 잇잖아요 . 눈 감는 사람 .

매여 무신 밤에 그 어느 영덕 아래 사는 거 , 거 ?라 매엔사 헨신지 그거 옷밤이주 , 옷밤 .

게민 걸 이제 죽어 불게 베꼈디 내근에 널영 막 여러 날 물리당 보민 얼마나 물라야 것이 이제  
괄양 골게 훨 거라 .

싱그는 날 . 가는 날 싱거 불지 안 하민 아차 허당 비나 와 불민 굳어져 불어 .

아 , 벡장엔도 헤여 , 이디서도 .

그냥 와근에 , 그냥 끗 .

상웨떡엔 아까 밀그루에 무신 , 북삭하게 허젠 허민 무신거 놓는 거 아니

한 , 한 일주일 전엔 . 일주일 내지 하여튼 십 일 전에 놔야 뛰 .

으 , 우에 . 관 우에 놋당 그 영장허레 갈 때는 큰 상제가 혼적삼을 지어야 뛸 때는 거 .

다섯 갠데 , 거 손으로 헤 가지고 영 행 우터레 올령 만이 잡는 거 , 영 공기 심어근에 공기 심엉  
영 헤근에 영 행 올령 만이 잡는 게 , 잡는 거 숫자로 헤 가지고 거 이기는 거 승부를 갈리는  
거 .

어울릴 때 . 처음에 꼬을 때는 이거 줄 뭐 한다고 , 처음에 할 때는 ?

예 , 예 예 .

진학을 안 시겨 버리니까 이제 명챙이라 .

흑을 더퍼 가지고서 우이로 불 질를 수도 잇고 알로 불 때는 사름도 잇고 경허난 우이로 불 질령  
근에가 그 숫 남에 불 막 만이 부터 가기 시작하면은 우이로 영 막아 버리주게 . 우이 영 막아  
불민 우이로 , 우이로 불 놋으니까 우터레 연기 가던 것이 , 우이 막아 불민 공기가 알로 돌아올  
거 아니가 ? 게난 불이 알러레 터져근에가 숫이 그래서 이제 헨 놔두민 그거 지켜야 뛸여 . 왜  
지켜야 하면 잘못하면 숫이 그냥 , 나무가 흔 쪽으로만 타 버리면 그 나무가이 골라앗을 거 , 터  
져 불 거 아니니

정지 앞에 , 아무 디 그자 집 앞이도 뛸고 .

꼴챙이로 파고 , 또 모당 놔두면은 그거를 .

아니 , 네모난 거는 인절미 . 이렇게 영 웬 거는 솔변 .

훌류는 거 아니꽈 ? 훌류완 .

으 , 느챙이 그룰 노나 .

눔으 집이 어디 간 거라 ?

시루떡 만드는 건 방에에 그루를 굽아 가지고 .

견데 거문 가마꾼이 잇꺼 갈 때에 그 물을 잇꺼 갈 때 ?

그거 어디 담양 놔 뒤 . 무시거에 영 담양 놔두지 안허여 .

요기 이시난 사진 찍어 가신디 .

어떻 어렵 허여마씀 , 이제 큰뜰은 연예헨 가버리고 .

아 , 산에 내불어마씨 ? 그민 물이랑 쉐랑 먹이 하젠 하민 어렵 , 출 해야 될 거 아니예 ?

이제 뒷날은 사둔열맹 가고 . 첨 복잡햇주 .

그거 막 독현 거 원료 .

보리 불랏주게 . 보리 나면은 보리 나민 옛날에는 눈이 워낙 많이 오면은 막 땅이 곳아근에 이만이 올라와 , 곳양 . 그거 밟아주지 아녀민 보릿발 다 들러 져근에 보리 다 죽어분덴 해여근에 보리를 다 불른 거라 .

남저도 , 남저웃으로이 , 중의 .

게 , 춤지름하고 장물허고게 .

잔치 때 아니면은 기냥 뛰지고기 사당은에 해영 집의서 해영 영 영 끓여도 그 맛이 절대 안 나 .

그럼 삼춘 어렸을 때 한장동에는 여자분이 많안마씨 ? 남자분들이 많안마씨 ?

여기 바당엣 것도 엇곡허난 먹을 것도 틀도 .

털린다는 거는 그 소를 소 도망쳐 부는 거 .

어렸을 때 뭐 하멍 , 뭐 하멍 놀아낫수과 , 옛날에 ?

예 . 너무 기네 . 지명까지 훈꺼번에 다 얘기해지네예 . 게민 마을 형성 이랑 요걸로 꾃내카마씨 ? 더 말하카마씨 ? 너무 길어가지고 .

게민 그 딱지치기에 얹힌 추억 ?

게민 마루에 옛날 지금도 이렇게 나무도 다 해낫수게 , 옛날에 .

으 , 으 . 아픈 때 밥 못 먹어 가민 곤죽 쇄 .

원 , 똥글랑하게 그려 놔가지고 그 안에 무시거 놓고 .

홍세 싸는 건 노란포따리 .

아 , 이 문마씨 ?

건 산뒤는 언제 가는고 하니 , 뭐인가 하지 , 그만 시라 , 망종에 솔거리게 햇는디 그 망종 전이 갈았주 , 이거 산뒤는 .

후루 종일 걸어뎅기젠허민 .

아아 . 웨냐면 일 부리젠히여도 쉬죽 쟁 맥이고 .

아 , 모물쓸로 허믄 청묵하는 거구나 .

건 호박잎국은 호박잎헹장 카근에 , 웬장 놓민 미리 카놔근에 꿰거든에 호박잎 헹 좀질이 썰어 놓고 호박잎 우에 그루 놔근에 낭푼에 호박잎 썰어놓 그루 그레 밀크루 거려놓 다불다불허민 그루 다 미쳐지지 안하여 . 쇤에 그제랑 놔근에 싹하게 궤민 호박잎에 허민 더불더불 막 좋아 .

곤떡을 보기 좋게 놔낳 .

갈 때게 호상 어샤게 ?

그디 초상이 , 아 , 뱀 같은 거마씨 ?

음 , 그것도 저기 누 몰 갈 때 갑니까 ? 언제 갑니까 ? 거는 .

굼 , 뭄 . 옛날엔 물망 .

우리 수삼사건이난 아무것도 출리도 안헨 .

으 , 이틀인디 이젠 사흘 허단에 이젠 또 후루 해벰주 .

이렇게 두드리면서 . 그것도 잊어야 뛰고 .

이런 보리썰이라도 두 뛰 , 조 철 나민 좁썰이라도 두 뛰 . 사돈은 두 뛰 못 하여 . 사돈은 너 뛸 .

지성치멜 만이 입젖주게 , 그땐 .

밧을 갈아근에 영 올려근에예 ?

어기녀랑 사대 , 앞멍에랑 들어오라 .

화단접도 잊주 . 화단접도 잊어낫주 . 건 동네마다 .

으 , 그건 그냥 그건 체에 부뜨는 거니까 그건 체엔만 허고 .

아니 여기 팔 이렇게 .

저 , 어디 저 모관더레 헤나실 거라 .

냉국이사게 으름에 시원하게 헹 먹엇주게 .

그 다음에 호박 , 늙은호박 무침 허는 거는 어떻 헙니까 ? 탕수도 옛날 허잖아요 ?

그 , 길게 천천히 한 번 얘기해 줍서 .

그 저 소나무에 소나무에 붙은 뭐 잊잖아요 .

보리сол로 안 ḥ여근에 , 수레기 ?

일름이 뚝난 건 아니고 ?

조팝 혼 번 골아줍서 .

혹시 개역도 행 먹어낫지예 ?

예 . 쟁기에서 연결시키는 이걸 오리목이엔 허고 이건 저 접궤 .

겨난 , 나 본디는 일본말이라 , 제줏말은 몰라서 아는 거는 양꼬라 . 속에 담은 거 다 양꼬 , 일본 말 맞아 .

단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.

시월돌 들어도 무신 , 미깡이나 타민 베끼 헐 게 서게 ?

예 , 수세미헐 걸 ?

풀 행 다듬은 건 뭐렌 골앗수과 ?

으 , 미싱 들여낳 . 난 아기덜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밥이나 행 맥이곡 인부덜 미싱 으덥 , 으덥 채 . 또 인부도 으덥 , 또 그디 아랫일 시따바리 허는 사름덜 멧 사름 있고 .

그 사름 빌어근에 허곡 해난디 이제는 막 궤기 썰엉만 내불민 지네 먹고 싶은 낭 앗당 먹어 , 이젠 .

예 . 게믄 이게 다 지게문이겠다예 ?

구월 초 열흘가 초 아흐레 뛰실 거라 .

그거 요만이 혼 거 혼 덩어리 ḥ나만 톡 아사내여그네 초옥초옥 ḥ게 찢어그네 그레 춤자름 놓곡 , 궤 놓곡 ḥ연에 버무려그네 ḥ나썩 반찬 ḥ민 것도 좋아마씸

아니 그냥 임시 먹는 건 경 안 허여 .

그건 솜 . 붉은 귀 . 솜 . 검은 귀 . 그런 거주게 .

거 발효궤영 부꺼사 . 거 부끌 때 삶아야 떡이 저 보각보각하는 거주 경 안 허영 부끄지 안허민다 땅땅행 안 뛰주게 .

금기 엊어 . 무신 금기가 이십니까 . 아기사 아기 베민 기냥 텅기당 어느 때 날지 몰랑 질래서라도 베 아팡 해가민 문둘락 낳는 사름도 싫곡 , 집의 강 낳는 사름도 싫고 .

풀 안 맥영은 못허여 . 막 꼬아지고 뻥뻥 데와지고 .

진사일에 허면 용날도 안 뛰고 ? 으 .

조도 죽 해 먹고 .

나막신 우리가 어떻 만들어 그 나막신 만드는 그 .

어 . 또 해지기 .

경해 가지고 월령 그 저 뭐고 ? 폭도 온다고 하니까 그 이디 질이 어디로 간 철이도 몰란 어디 중간 중간 막 쌓아부니까 돌로 쌓아가지고 .

아니 , 물구럭은 죽도 쟁 먹으민 맛좋았고 , 숲양도 먹으민 맛좋아난 .

신건 다 올리지 .

아 , 안팟거리 집이 이서낫구나예 ?

항아리 통게 통게 그건 .

이거 현 건 뭐라 ? 머리 영 크게 하는 거 .

이 개가양 영리한 개는 지달이가 밤일 가나 낮일 가나 곰에 냄새를 헤영 딱 들어갑니다 .

아 , 하꼬네도 ? 어디 , 어디 ?

겨난 그땐 제우 나 알아진 건 그 솔벤 절벤 그거 하고 . 그건 아니 허민 원 안 하고 허민 .

아이구 쏘악허민게 세로 찌르는 생이라 베염이 . 아이고 , 그거 오죽 겁나는 것가게 ?

응 , 그건 해봤어 .

옛날은 그거 두드령 신 삼양 신엇주게 . 옛날은 .

?. 보말낭 경후난 이젠 관광덜 가는 저 알에 이제도 보말낭 보말낭 이엔 허여 . 보말낭덜 좀네 덜 들어가라 경해영 허곡 . 그디 원담 멜 들어오게시리덜 강 지커는 사람 담덜 다왕덜 원담 동그락하게시리 들어왕 허멍 그디강 담 다운 사람은 멜 강 걸이게 허곡 , 경 안현 사람 담 강 안 다으민 멜 골른 뱃디가믄 막 우티 네빈 거 혼무리씩 두무리씩 혼 거 강 주서오라나서 푸레왓디 강 ?. 경해낫저 . 보멸 낭이엔도 허곡 , 그 다음엔 버렝이알이렌도 허곡 .

그때 뭐 공출하고 그런 거 엊어낫수과 ?

겨난 저 밥 해먹는 위치가 조왕이렌 협주게 . 하하하 . 옛날말로 .

예 . 그걸로 흥세 놔짚주기게 . 일곱세 .

최소한도 열은 됩니다 . 최소한 열 .

아 , 경햇구나예 . 그다음엔 어 , 조 , 아까 보리수확 하듯이 조 수확은 처음에 어떻게 , 베는 걸로 부터 시작행 골아줍서 .

아 , 계난 그 빗자루하고 아까 이제 애기구덕이 우리 여기 특산품이 렌

게민 , 게민 조코고리 훈은 날 바로 좁썰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?

아이 그런 것도 웃고 , 서로가 맞대해영 얼굴이 어떻헌지 잘 몰라 . 하하 계난 부모 명령으로 가라 하면 갓다가 실프면은 다 도망가 불고 , 그땐 경 해서 .

녹두죽도 안 데기기도 헙니까 ?

경 후여야 후는 디 .

혼례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양 . 그 구식 결혼 , 절차 . 구식 결혼 허젠 허면은 .

하하 , 그게 죽은 분량이 아니주게 . 데싱 두 뒤가 닷 뒤난에 .

일당이 . 이젠 곤술이 혼 푸대라도 . 그땐 검질메민 쓸 혼 관둬 .

응 , 세 개베끼 안 허여 .

이제 우리 맹질후젠 후민 어디 강 빌어오나 어떻 해사켜 . 고사리 어성 .

아 , 접아 논다 해 . 어느 정도 ?

삼춘 , 이젠 조 불립주 , 이젤랑 . 조 불리젠 허민 어떤 준비가 필요해마씨 ?

봉자 아방 ˘레 아정 오주 , ˘치 골으멍 소리 허게 . 이 사름 소리 잘하난 .

예 , 예 . 그 바람 탈 떼까지예 ?

부조 결혼식 할 때에는 부조는 부조 행 나가서 밥 먹고 .

대축범벽은 맛은 잇어야 , 겐디 .

그믄 그걸을 또 운반해당 ?

아 , 혼 번 .

아 , 그럼 조합 사름딜이 의무적으로 그걸 갓다 줘 .

우리 오메기떡 멘들 듯 .

지금 먹 잇잖아 . 촘먹 잇고 숫먹 잇어 . 촘먹으로 그걸 골아서 그 물로 바르면은 떨어진다고 헷어 .

그거 혼 번 주민 와상와상 먹어가민 곧 주민 다 먹어불곡 곧 주민 다 먹어불곡 .

응 , 속바지 그런 바지 . 또 선사옷 받는 거는 치마저고리만 받고 시어멍 해 주는 거는 속내의 ?? 지 다 .

아아 , 거는 식게 때는 안 헤마씨 ?

음 , 이런 성담 위에도예 ?

에 , 어려웠죠 . 참 어려웠수다 . 수삼사건이엔 , 이디 집을 내가 두 곤데 짓으면서 저 밑에 수망리 처음 재건해가지고 지을 때는 하르버지가 산 때난 그때는 할으버지 중심으로 헤가지고 살다가 나가 군대 간 제대한 와가지고 , 와도 그때는 상뎅히 어려웠수다 , 삶이 . 그 육십년 대니까 뭐 우리가 저 칠십 년대까지는 항쟁이 칠십 년대 후반부터는 쪼꼼 사람이 어느 정도 저 생활이 좋아 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수다게 . 어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왕 집을 짓젠 허니 낭이 이서야 집 지슬 거 아이꽈 ? 옛날엔 낭이 상당히 귀햇수다게 .

감저 , 감자 익지 아낼 때 좁쌀 놋당은 감자가 익지 아녕 밥 못 먹어 .

맥주하는 데도 꼭 피보리가 들어가는 거 .

문딱 칼로 썰멍 이제 그 그레로 골민 그 보리쌀 골아 나민 큰 거 나오고 그레 나오고 허난 큰 건 밥행 먹고 그루론 무신 거 데껴 불 거주만은 그걸로 이제 그 범벅 핸 먹엇어 .

제주돈 으름에 입는 거 . 으름에 입는 .

우리 놀아난 거 뭐 하주 뭐 .

잠대엔 허지 , 잠대 .

산듸 , 산듸 수확할 때 . 수확할 때 . 거들 때 , 벨 때 .

멘네 공출 . 멘네도 모르게 미녕 차지도 못 흐게 흐곡 .

어 , 갯놉이란 그 통에 멜이 잘 들어 .

멩질 떼라도 , 다 출령 입젠 흐민 그 도복을 입엉흐곡 .

조는 언제 행은에 가는 거꽈 ?

다시 또 적삼도 마고지 적삼이엔 헌 건 이추룩 영 헤근에 저 거시기 메왕 하고 여기 게와 달린 건 마고지 적삼이고 .

수농 폐장이 잇서 가지고 해서 . 이제 그 서로 합의 헤가지고 수산이나 영 행 . 고성만 갈 수도 있어 . 이 동네 싸름만 해영 가는 수도 잊지마는 . 게민 규모가 죽으민 평을 얼마 못 잡아 .

아니 게난 바농쌍지가 바농 .

검은 , 흰 점 박아진 거 어럭쉐 .

자리물훼가 물훼가 잇고 자리 찍어 먹는 것이 맛잇어 .

거 무시거엔 골아나긴 헷저만은 오레가난 잊어비언 골아지크라 ?

이제 구경을 못 허니까 .

거 전복껍데에 촘 올케 요 소코리만인 흠네다개 .

올리엔 혼 검질도 잊어 올리 .

소에 ՞는 찍 , 그것도 거름한다 . 그 저 출왓디 거름 ㅎ연 간다 . 거 퇴 비엔 헌다 . 퇴비 . 그것도 나 허곡이 옛날엔 통지 도세기 통지에 길럿저 . 이디 영 , 거 집집마다 다 했어 건 .

경 혜도 . 여기 고성은 중산간이 아니냔예 ?

탕건은 무시거고 맹견은 무시거라 , 만히 골은 담시루 ?

이제 요건 질멧가지 . 요 큰 건 .

끄트머리에 가면은 코챙이 가면은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 .

아버지 비록 산은 뭐 구십 몇 메다밖에 안 뛰지만은 , 저 한라산 보다 높은 산이라는 뜻이주게 . 또 또 뭐 물을 거 뭐 잊어 ?

이것 ՞라이 베개에다가 이 모메길 끼와야 뛰 . 베갯모메기 수논 거 이제도 나와 , 이불 푸는 집 . 것도 수놓는 사름 다 헤다근에 풀거든 , 모메기로 . 거난 이것 ՞란 베갯잇 , 이건 또 우이 끼우는 거 베개 거적 . 베갯잇 씨왓주 나도 .

으 , 팔월 달에 검질메곡 . 혜영 .

아 , 그민 사과 , 배 , 댕유지 ?

미녕으로만 하여근엥 이녁 테와다근엥 그거 테우는 디 강 정 맨들앙 .

예 ? 판관 혜난 사름 이수과 ?

베릴락도 혜나고 , 베칠락도 혜나고 .

아 . 요걸 뭐렌 부르는 거 , 돌 ՞레 아랫 거를 뭐렌 부릅니까 ?

돈으로 부주헌 거 혼 삼십 년 . 우리 ,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백 혼 , 살아시민 백 혼 다섯 설은 뛰여실 거라 .

애기 둘레 열 술 난 게 가민 열흔 술에 가난에 애기 어멍은 애기만 둘아주렌 간디 아프노렌 누워 불민 여름에 벳 꽝꽝 난디 가근에 검질 매레 가민 열흔 술 난 게 무신 검질을 혼엇이 맬 거니 ? 강 보민 영 자갈 ՞뜬 건 매기 좋은디 고름풀 그자 강 매레 가곡 허민 아이고 이거 이런 세상이 어디 시린 경허멍 살단 보난 이젠 저슬을 들어가난에 저 그 할망은 혼듸 눔을 우리 할마니 아시 대피로 온 할망이 그 할망이영 혼듸 강 누민 그 할망이 하는 말이 . 아이고 , 나뜰 , 는 어디가민 낭중에 크민 잘살 거여 . ՞만이 누민 눈 대로 누엉 몸질 혼 번 안 행 나뜰 잘살 켜 , 잘살켜 허멍 , 경허멍 그디 살안 , 혜연 나오란 .

두드리고 막 물?랑 갈 필요가 없었잖아예 ?

그건 , 그건 저 어디 저 .

옛날은 밀 갈양 먹엇거든 . 살아온 과정이 .

그것도게 정월멩질 허듯 혜영 .

먹는디 저 양념이 더 들어가 .

뭐 지금도 물 좋아야 허주만은 좋아야 . 이런 마차 ?뜬 것도 허주만은 .

지서 정문 근무는 나 열일곱 술부터 시작했 .

게니까 새끼 나는 거 . 새끼 날 그 눈치가 나오면은 부모네라도 소 새끼 날라고 허니까 가지 말라 .

발강해놓니까 밥 , 첨 뿐세가 엊어도 원 원 시대가 그런 시대난 그거 그렇게 혜연 . 조 철 나민경 , ?랑조라는 건 .

똑똑 썰엉은에 . 물 쑥삭 끓이민 그레 들이청 .

그냥 혼 씀이 열 개 .

아 , 그게 청방 .

옛날이사 보리 조 헷주만은 감저허곡 .

겐 만이 해 오면은 사당덜도 먹고게 .

옛날 농사 진 건 다 무공해난게 .

유셨 헹 그자 장아찌 혜근에 장물에 동강 먹는 사름은 먹고 아니하는 사름은 아니하주 . 것도 사름마다 안헙니다 . 이녁 수정 여라이 먹는 사름이 허주 .

예 , 미 . 그 다음에 점복?란 ?

게민 밧 다 갈아 놓 씨 뿌리는 거 ?

아 , 마농지시 드는 거는 마늘 메여다가 그걸 뿌리를 이 뿌리를 이 짤라 . 짤라내 두고 이렇게 벳겨 . 벳겨가지고 입사귀를 뜯어 .

이제 그거 먹으민양 , 쉬 막 찔러불어 .

남신 . 낭으로 멘든 남신 .

그네도 영 잡아근에 밑에 영 발 허는 거 이수게 ? 밑에는 판은 무신거엔 곤고 줄 잡는 건 무신거엔 골아 ?

어이 , 우리 우린 산듸나 모물엔 진작 두드려부리 .

수못 익지 안헌 때 . 먹을 거 엇이난 그런 거 ?

겡 그디서 멧 년 살단 앗수과 ?

거 친떡은이 그 뭐인가 거 친떡 시리엔 헌 게 잇저 , 시리 .

물발에 물려가지고 . 게면 가로 붙여가지고 물발 안 쌈 곳으로 올라갈 라 허민 . 잇는 사공들이 전부 네 저을 줄 알아야 허주게 .

도록기 고장 핀다 . 오래 해가민 벨라정 멘네 불라 . 씨 빼어됭 태와당 쌀로 빼영 물레로 돌리멍 베틀에 실 빼영 불라눙 , 그걸로 먹고 그 어려도 스물 안에부터 차낫저게 . 빠아사 이착으로 드리 청 우리 어멍넨 하는 거 . 이젠 기계집이 다 시난 불르는 거 태와당 요거보다 물양 옷 멘들젠흐민 태우는 것도 그거 불린 거 짖어지게 북삭하게 가레기 찔르고 허영 우리도 헤낫저 . 옷 맹글젠흐민 베클에 창 혜양헌 건디 물도 들이고 감도 들영 해당 검은 물도 들이고 감은 바작헌 게 무사 아니라 . 고운 거 입지젠흐민 맹질 때 풀주만은 어느 정도 집이서 풀주게 .

시집을 때 아저온 게 이서 .

발 낫껍 ? 하 , 하 .

흔 동네난 다 알지 안하여 ?

으 , 으 . 폐도 오래 숨고 , 물릇도 오래 숨고 .

또 요거 영 심영 영영 굼추와 오는 건 굼추는 거고 .

구루마는 보통은 쉐가 하주 . 물은 하지 안하여 .

예 . 맹년이 씨 허젠흐민 그냥 보관헐 거고 .

으 , 으 . 우력 , 우력 . 우력 직접 물령 ?

냉국이엔 헌 건 그거 .

다른 생선 갈치도 끌리곡 .

맞수다게 . 근데 혹시 암창개라는 말 들어봤수과 ? 암창개 ?

꿩죽은 안 쑤보고 꿩은 잇어도 .

궁합이 맞아가지고 독이 풀리는 거고 . 다시 갈치에 그 호박에 박이 안 들어강근앵에 .

아니 젓게 . 이디 거 씌우는 녹대 . 녹댄가 ? 아구리에 주둥이에 해서 물은 그렇게 해서 끊어주고 . 소는 뿔에다 걸려멩 끊어서 , 길을 안내 행 밧 가는 디도 끊어줘사 . 것이 단련뒈민 츄촘 츄촘 발놔지고 . 어룹긴 어룹주 , 농사지는 것도 .

요건 동더레가 잘 헙네다 . 방에 .

크지예 ? 예 , 예 .

우리 저디 묵 쓰는 솟 잇저 .

할무닌 시집을 때 무신거 행 옵디가 ?

어 . 두 번째는 강 집이 . 세 번째는 우리 김 집이 .

안 나반 , 안 나반 .

그 씨 뽑아내는 물레에 무르레 그 무르레를 영 행 둘렁 저 빠근엥에 그 실 빠 논 걸로 그걸로 해 근에 저 멩지를 씰로 행 감양 멩지<sup>후</sup>는 거주 .

흔 가달이나 네 가달에 영 벌령 .

타불면은 그 밧덴 경도 허는디 땅 타며는 져버리고 안 타근에 하며는 .

솟 ,솟은 그 과정이 , 저 지금 이 곳밧디 낭 신거 쫄라 . 쫄랑 한 오 십센치 길이예 , 뽑으로 한 세 뽑 기러기 쫄랑 , 그걸 추곡추곡 영 행 저 세우명 싸그네 또 어욱 <sup>후</sup>여당 검질로 짹 세왕 , 흑으로 더평 , 바껏티 담다명 <sup>후</sup>여그네 , 걸 불질 르면은 불 부뜨기 시작<sup>후</sup>면은 그게 제일 처음 불 부찔 땐 제일 꼭대기에 흑을 완전히 안 더프는거라 . 그 웨냐면 불은 웃트레 공기 순환郁闷 . 경 <sup>후</sup>민 연기 팡팡팡 낭 불 완전히 부뜬 거 달모민 우의 완전히 더꺼부러 . 더꺼 거세기 <sup>후</sup>면은 이 노무게 안네서 그 므르지 안 훈 낭이 솟 뛰가는 과정이지 . 반정도 타가면은 쑥 조금 내려 게민 우위로 꼭꼭 눌러명 <sup>후</sup>여그네 내중에 완전히 이제 탓다<sup>후</sup>면 그 구녁을 전부 막아버리는 거야 . 막아그네 <sup>후</sup>루 내지 이틀을 시민 불이 완전히 끄거든 . 끄면 돌 아시멍 치와됭 , 그걸 이제 옛날 가맹이로 , 가맹이에 담는디 불 잘 꺼지지 안훈 걸 담 앙나두민 막 불 부떠그네 , 또 경 <sup>후</sup>곡 했는디 , 그걸예 , 가망이도 , 가망이도 오통가망 이가 잇곡 , 수통 가망이가 잇거든 . 수통 가망이는 작은 거 , 오통 가망이는 큰 건디 것에 담양 정덜 가그네 , 훈 가마에 얼마 <sup>후</sup>영 풀양 보리сол도 훈 뛰박도 받곡 , 저 감 주도 훈 말도 받곡 , 겟 해영덜 바뀌여당 먹엇지게 .

또 요만한 나무에 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놔근엥 이렇게 놓으민 .

그럼 실뜨기할 때 어떤 속가락이 필요하주마씨 ?

경허난 예비고살 봐져사 대학에 가느네 . 보긴 보는 시늉을 했는디 게난 그 남저에 미천에 그것도 경허고 . 원 족은아덜도 막 연애핸 새각신 하영 돌아 오라도 곳는 말 잘 들언 . 아 , 우리 족은뜰이 족은 오라방보다 문저 가肯 죽저 살저 어명 나 인생 살아줄 거과 하여 . 난 족은아덜 못 푸난 달랫주 . 경허지 말양 족은오 빠 풀아 놓 사위?라도 느 , 뜰 다른 데 안 주켜 .

으 , 끂는 거는 섬피 .

제완지 같은 거 나는 거예 ?

잠대로 가는 게 아니라 . 그 골 길을 땐 뭘로 ?

게믄 삼촌네는 그 춤지름을 해갖고 정기를 지진 거라 ?

응 , 지붕 우터레 올리고 . 따시 막끗에 허는 건 곳곳이 헤다방 올레더레 강 비우고 .

저리 가라 허는 의미 .

준준훈 건 하지만 , 제일 큰 게 .

팔월 달 뛰민 잘 먹을 거라 .

그 다음 줄 쉐 뒤에 쉐 영 흐는 .

뭐 궤기국에도 농 끌령 . 어시민 가당오당 웬장죽에도 흐..식 먹고 이녁 자유주 것도 .

피도 안 헤 보고 .

아 , 뜻쓴빌레 잇수다 .

아 그걸 한가운데 앗다 농 ?

그 허리띠엔 허주 무시거엔 훌 거라양 .

감저 경 하영 놀게시리 허지 안허연게 . 조그만씩게 . 조 농서만 만이 헷지 감저는 그자 .

겐디 우시 와나신디 그 얘기 난 혼 일곱 술쯤 나난 엊어불언 .

베도 꼬고 베는 뭐지 ?

성게는 그냥 알 체 톡 놔근에예 .

날 봉 뭐 좋으렌 허는 거꽈 ?

아 , 동서 ? 동서 ? 동서 얘기하는 거구나예 .

그런 내 분 밧디 가근에 그걸 저물양 소를 멱여사지게 .

착하다 . 게도 , 게도 .

아무 낭이나 , 몰라 . 무신 낭으로사 멘들암신디사 .

잘 재와사 그거 우이 무수 다 익은 것 닮거덜랑 불 꺼뒹 두께 톡 더꼬민 북삭허게 . 콩물이 파랑  
케 물은 물대로 .

거거 거시기연 동전이엔도 곤고 .

어디사 간 잡양 워신디 . 하 , 핫 .

어쨌든 다른 이름덜은 영 들어나실 거 아니예 ?

이녁 먹구정 헌대로 아무거나 먹주무신 .

흑을 메겨놓 서슬 , 서슬 .

허리엔 말양 뭐엔 골아사 웰 건고 ? 바짓허리 ㅎ屎 ㅎ민 이건 바짓허리 이건 바지 셋복 , 상복 경  
혜난 .

게난 막 그거 목시칩이여 뭐 손 본 집이여 이제 혼 불른 사름이여 문딱 신 삼은 사름이여 .

그럼 반지기밥 아셔마씨 ? 반지기밥 .

연 , 게민 자치기 , 거 이 중에서 자치기를 제일 많이 어릴 적에는 한 .

게믄 그거는 얘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지는 거우과 ?

백중 때야 이제난 ㅎ주 , 저기 쉬 질를 때는 막 출령 백중상 차려먹 어

이제는 그추룩 하면은 누게가 놈의 일 가민 ㅎ루 오만 원 육만 원 벌영 오민 쌀도 수십 키로 사  
곡 . 반찬 값도 나오곡 허는디 .

아니 , 밧듸 검질 메레 가젠 ㅎ민 , 산듸 검질 메레 가젠 ㅎ민 밥 ㅎ영 질구덕에 상지착 우알칙의  
잔뜩 담양 강 , 웨도 ㅇ정 가민 칼이라도 ㅇ정 가주 . 웨 ㅇ정 가믄 물착물착 수까락으로 그차낳  
국 ㅎ영 먹으멍 산듸 검질 메곡 햇주게 . 경 ㅎ영 물 족으민 져오렌 안 ㅎ민 좋아 . 통물 오란 ,  
감산이서 통물 질레 오라낫주 난 아으난 물만 질어오렌 ㅎ여 .

달라 . 우리 나막신은 파서 만들고 파서 발 들어가게끔 .

몬 식구가 다 옵니까 ?

예 , 언제 헤 먹엇수가 ? 독죽은 .

이 남으민 어떻 헙니까 ? 집줄 남은 거 ?

게매게 홀탓주기 게민 그때부면 보리 이녁 밥 이녁 밥 먹곡 ㅎ여 가난 ㅎ屎썩 ㅎ屎썩 씀 귀 텐  
에 .

텐장을 또 꾸어 놓 그거를 문드데겨 놔근에 뭐 좀 놔사 좋아 .

그걸로 영 영 탈 타는 거 만들아근에 .

남전 네 개씩 줘 ?

예 , 예 집이서 먹을 때 .

옛날에는 고사리도 하영 꺼꺼당 먹어실 거고 ?

잘 저는 건 잘 흡수되는 건가 ?

똥빠대도 있쭈 . 똥빠대 . 아이들 . 쪼깨 닮은 똥빠대 .

함 속에 안 담양마씨 ?

응 , 깨죽이여 무신 하간 거 건 고급이고 .

감양 딱 무경 . 게근에 경 불부찌민 .

하하하 . 무사 테레비엔 막 강강술레도 허곡 막 영하는디 옛날에 그런거 혜난마씨 ?

예 그 옛날에 출례엔 헌 거가 잊어난 거 닮아예 .

아니 그거 남자는 경 허주만 . 여자는게 이불도 해사 되고 .

이거 훌 때는 무신 저기 지금은 막 마늘이여 막 뭐 노는디 옛날에는 .

ㅎ꼼만 떠 놓으민 좋아 .

그거 영 연결시켰던 무신 꼬리 영 영 감양은에게 일로 밀려 일로 밀려 베틀 헨에 영 했다 영 했다 혜난 탁탁 혜난 거 베 짜지대 .

건 바당 소곱에 강도 하고 ?

부름 . 바람으로 영 가는 거 .

아 , 숨기도 하는 거구나 .

그 보리를 , 보리를 허주게 . 그거 이걸 훌튼데 헤여 . 훌타 가지고 마당 질해여 도리깨질 .

으 . 그냥 썰영 놓는 거보단 .

아 , 겨난이 다 이제 이 혜드레 거 다 앗다 놓 날짜 본 날은 솟을 아정가야 뛰여 .

제펜 , 인절미 , 솔 아니 .

산듸 수확은 좋으민 하영 나곡 , 구지만 족영 나곡 , 수확은 밧에 메영 나는 거주게 . 거난 수확 나는 거는 혼이 없어 . 조민 수확이 만이 나오 , 나쁘민 수확이 편씩흔 밧도 잇고 .

거 나무를 죽 허게 사람 목측으로 보니까 그것을 멧 미리 멧 센치 영 놔 가지고서 , 수각이면 수각 놔 가지고서 저디 영 뜻을 꽂앙 이디 영 뜻을 헤 가지고서 이제 거 먹물이 미쳐 있주 . 거 실 이주 , 그게 .

경 후민 소곰 안형 그 소곰을 끊인 거 식으민 . 그자 부엉 놔뒹 .

족게 멘들아사 . 그걸 다 잡곡 헤여 .

훈도시 헹 영 줄라메영 영영 .

그찌 못허는거여여 . 봄에 헤는 건 봄이 , 겨울 헤는 건 겨울 경후는 거여

근디 뭘 줍니까 ? 아이 짐 .

아니 아니 , 이레 혼 그 족은 솟디 영 해영 혼 번실 올라오민 어느 정도 뭐게 톡 있게 영 줍아놔 ,  
경행 숨앙민 그걸 하시로 영 허민 그걸 다 연결이 뛰어 .

기겐 이제사 낫주 . 기계 그때 나수과게 ?

예 , 궤에기 행 .

경 혈 때 허여당 장아찌 헨게 .

털이 고운가 보다예 . 거 풀아마씨 ? 오일장 ? 사는 사람이 있어 ?

해방둬니까 공출허지 말렌 현 거지예 ?

모물루로 묵 쑤어근에 그것도 적허여 ?

집 세우젠허민 거 기둥을 흐낙씩 흐낙씩 두 군대 꽁아근에 그냥 양쪽에 사름 두 사름씩 두 사름  
너의가 가근앵예 집을 네 사름이 장정들 네 사름이 이서야

것도 밧 좋은 디 가는 거 .

초파일에 대대적으로 등불을 답니다 . 아주 거대하게 출립주마씨 .

초집 허민 캄캄행 수못 .

게면 그 술잔하고 고기하고 다니면서 술 한잔씩 비와준다 말이야 . 수 고해달라고 그건 어디던지  
그건 허는 거고 .

그다음 이 맷테 거는 ? 저기 .

묘제 그냥 무시것고 ? 벳겼깃디 강 허는 거 아니가 ? 묘제라고 .

예 , 맨 앞에 서는 물을 선물이렌 허여 ?

그거를 뭐라 허는디 . 기억이 안남자 .

아래 중의허곡 우의 적삼하고 .

수지가 좋덴 , 수입이 좋덴 헨게 . 이젠 또 안 헤볼민 ?

게난 산듸씨를 두 번 빼는 거라예 ?

직장 다 땄나불고 . 혼디 만날 수가 엇언에 .

어 , 포는 뭐우과 ?

마을에 좋아졌다 허는 거는 .

으 , 말르는 사름을 빌어 와야 돼여 .

흔 불령 잘 가렌 ?

주루 페렝이 주장입주게 . 우리 아버지 신 때는 탕건을 잘 썬 게 , 계속 탕건만 써 .

돌 돌아와 , 뜻 돌아와 ?

걸령 , 그 물에 그 순다릴 훈 거라 .

쉐 술에 걸린 놈은 웬갱이도 들으멍 웃으멍 했주만은 아무리 수나운 물이든 쉐든 우리 손에 걸리면 맥을 못 써수다 .

셍기리도 우리 절간 허당 절간 설러부난 생기릴 헷어 .

음력 구월 . 게민 보리 가는 게 .

그다음엔 옷 만들 때 이제 천을 떠서 올 거 아니꽈예 ?

게 , 저 , 심방 .

쌀 항에 담아 ? 놔 ?

이제 우리가 호와 갈 땐 앞으로만 호와 가거든 .

맥주보리로 ? 맥주보리가 겉보리 아니우꽈 ?

음 . 어디서 물 질러왓수광 ?

아니 , 월령엔 안 풀아낫저 .

거 무신거 이만인헌 저 무신 .

고동은 바당에 들엉 숨빔만 허민 하영 숨비민 하영 잡을 거고 족영 숨비민 족영 잡을 거주게 .

모시 , 모신 어려왕 못 흡니다 . 옛날 할망덜은 삼 갈안에 햇젠 흡니다만 , 우리 큰 후젠 모시 흐는 건 아니 봇수다 .

겐디 그것이 좋은 것이 . 연상이 좋은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자분이 연령덜 많은 사름덜을 전부 추구해서 건 얘기 노릇 헐라고 하는 건데 , 이제 반대로 누나같이 생각하고 그 동생같이 애끼니까 .

우리가 어떻행 이디완 살안 ?

아 , ㄱ시락으로 구들 때여 .

고산서는 오육십 명 . 백 명꺼지도 나갈 때 잇어 .

옛날엔이 경허젠 허민 막 봉토 썬 사름은이 막 그냥 잘 행 멤이곡이 .

예 우리도 이제 으든셋 . 이제 으든넷 될 거 .

황쉐 밧갈쉐엔 혔 거는 .

죽 종류야 뜻죽이여 , 콩죽이여 , 그런 거 ?

게난 큰메누리라 , 족은메누리라 ?

일제 강점기 때 그 때 생활은 어떻핸마씨 ?

그건 혔 사름썩 다 받아야 뛰어 .

무을 사름덜이 다 ?치 하는 거꽈 ?

독새기 상 강 두 개도 올리고 , 흐나썩도 올리고 그자 .

콩은 아까 예기현대로 메주콩 .

거문 보릿겨가 잇지아녀우꽈 ? 보리 아깐 쑥 해난 거 .

새로 요렇게 더평 놓 대나무를 요렇게 놓 여꼬주게 . 무꼬주게 . 요렇게 .

아 , 보리범벅도 잇수과 ?

옛날에 뭐 밀가루 엊일 때 우리 바당에 강은에 .

으 , 안 뛰니까 할 수 없이 .

바당 ? 에 영 통으로 웬디 잇어 .

옛날은 소가 엇이민 농사를 못 지어예 ?

요거 앗았다 하면은 혔 번 쓸면은 그냥 막 조저 불여 .

으 , 뛰약세기 들령 .

아 , 낙베렌 헛수과 ?

옛날은 양념 어디 서 ? 거 꺼내민 그거차 먹어실 테주 .

조체비는 보통 장마 때 .

그것이 게메 . 그것이 .

그래 . 그래 . 수삼 사건 ??지 살안 저 소까이 갓당 올라오란 죽어불언 .

누룩 서꺼근에 막 주물렁 .

그자 저 솟듸 해여근에 허민 그 솟듸 솟불 해근에 일렝 불살뢰낳 간덴 허주게 .

거믄 장항 뚜껑 열엇당 닫았당 허는 건 겨울에 허는 거 ?

족제비도 사냥 안 해난마씨 ?

그거는 뭐 어떻 각자 개인이 해마씨 ? 아니면 다같이 해마씨 ?

큰똘 , 큰똘 헐 때 .

그것이 준자리엔 ㅎ는데 요즘말로 .

엿날은 각단엔 헌 걸 .

예 . 작긋떡은 들어봐십주게 .

예 , 두말예 . 두 말에는 장물 저기 빼젠 하민 장을 몇 웨들이 ?

톱 , 톱은이 톱 종류는 뭐인가 하여튼 세 가진디이 .

이렇게 이시난에 . 뭐 ㅋ랑조엔 헌 것도 잊고 .

네년에 보리 갈 거라 ㅎ민 , 그 걸름을 모이젠 ㅎ민 , 걸름발 훌 때 뛰민 이제 그 걸름을 다 , 소시랑 해근에 .

돔베에 놓 닥닥닥닥 뜯아가민 가시랑 똑 떼엇당이 ㅌ로 것만 복삭 뜯아불고

게믄 여긴 난간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보다 층이 야트게 .

그러면 그 지들커 여자덜은 솔입은 걷으레 안 가마씨 ?

뭐 그런 거 다 잊어 .

대산이영 벼무릴거예 ? 대산이도 심거근에 그거 말려낫당 썸수과 아니믄 사당 썸수과 ?

으 . 장을 ㅎ啐 일찍 담으면은 웬장을 ㅎ啐 일찍 건지곡 .

ㅇ , 멋져 . 아주 첨 .

문중벌초 허는 디가 어디냐 하면 덕천이주게 .

똥떡은 안 헨 먹언 .

그걸 영 기계로 맨들았주게 .

조코고리 맥에 훈아 논 걸 정 강 .

주연 어디 갓소 , 솔직히 그땐 모물 시끄레 가니까 모물 시끄레 갓수다 하난 , 이 폭도 뿔경이 집이엔 .

요 앞이 잇엇다가 개인 소유가 뛰가지고 이젠 다 메완 과수원을 맨들아 불어서 .

그냥 못빼기로만 웬 거 ?

허당허당 보민 험시민 뺄겅허여가주게 . 막 빨강헐 때?지 적젓당 널곡 적젓당 널곡 .

՞ 피해 었다 .

머리 허민 떨어지지 아녀게 이마띠 .

아이고 , 콩지를 놔사컬 행 .

준준허게 돌레 멘들양은에 할망디 갈 때 옛날 .

한 멧 술 쯤 됐던 거 기억 안남수과 ?

그건 그자 ㅎ꼼 남은 거 무신거 .

이제나 잇주 , 옛날에 은절미엔 헌 거 엊어난예 . 혹시 모물 ㄱ루로 니귀 방장하게 네모나게 헤가지고 허는 떡 엇수과 ?

것보리라도 헤여놓민 체가 잇어 . 그거 쳐 . ㄱ를이 얼마 없어 . 것보리 것보리개역 아이고 , 입에놓민 까락까락 까락까락 . 이 중간에는 뭐 기겟방에도 강 뻣아오고 문닥헌 것덜 .

경허민 영행 물 제왕 영영 누리질 , 숨 갓다 왓다허민 안 누렵나게 .

밧디 강예 , 밧디 강 놓는 거예 , 예 .

운동신경이 좋았나부다예 . 뭐 줄넘기나 고무줄 여자덜 힙디가 ?

지금은 허지만은 옛날엔 여자는 올케 박게 출입이 힘들었주 .

그젠 아이덜 첨 무뚱에 조랑조랑 사민 수꾸락 ㅎ나썩 주고 .

아 , 좁쌀이 아니라 ?

멜 그 짜게 허젠허문 짜게 허주민은 싱겁게 해근에 고 맞게 행 먹젠허문 , 멜은 소금이 또 덜 들어 .

멧 머리나 저기를 키와봄디가 ?

아 , 술 담양 먹고 허는 거 .

게심부름 허는 사람 같이 그 말을 잡앙 갓주 말 . 게니깐 말 탕 가게 뛰면 신랑 말이 어디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 심부름 말 심부름 허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신부 집에 가면은 이제 뭐 그 집안마다 여러 가지 잇주게 . 이녁 집안이 권위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뭐나 예장 들이는 데도 그 차이가 잇주민은 보통 어 신랑 부모를 대신한 사람이 예장을 들여 . 신부 댁에 . 신부 댁에 예장을 들이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상 받고 신부 가마에 태우고 영 오는디 그렇게 허민 여기 와서 끝이고 . 뭐 주로 에 여기 들어오면은 신부가 어느 방향으로 앗 으라는 것?지는 .

돌레떡엔 현 건 잇어낫어 . 돌레떡 .

어 , 주로 여자 .

낭허레 뎅기고 하간 거 해시민 이 모냥으로 안 살 건디 . 낭 허레도 안 뎅기곡 .

응 . 다리 아팡은에 . 사고나난 다음예 . 사고나난 다음 ?

할망상은 저 무시거 헐 때나 , 굿헐 때나 할망상 출리주 . 아무 때나 안 출리는 거 .

응 , 아무것도 안 논 엿인디 이제 약재로 우린 하수 뿔리 .

웃드르니까 배 허는 사름덜은 엊어예 ?

뽕남도 싱그곡 . 밧드로 전역으로 싱경 . 정부에도 권장해낫수다 .

하영 헷저 , 거 .

깨끗이 안 헤 부난 .

담배 혼 삼십 세까지는 피워저실 거라 .

콩나물은 물 언물에 ㄱ치 놓 꽂이는 거고예 ?

솔입도 글그레 가고 안 헌 거 엊어 .

셍선도 죽 쑤 생선도 .

연 꼬리엔 하고 또 옆이 귀가 있어 .

거난 이발총 같은 거 이섯잖아예 ? 그땐 어떻 그걸 치료 헛수과 ?

겐 독 잡안에 먹엇수과 ?

이드서 이드서는 옛날에 그렇게 해낫주게 .

따시 하관헐 때도 이녁 웬당덜이 들러 가고 .

산듸허곡 또 감젓줄 ㄱ뜬 거 .

아 그자 고대로 그자 이렇게 해서 그자 영 .

응 , 맹질허기 전이 .

이디선 고추장은 안 담가나수과 ?

응 , 겐디 요즘에는 뭐 비니루하우스에 하고들 막 잘 몰리는 모양이데 .

겨울에 막 추울 때 어디 먼 디 가젠히면 뭐 쓰는 거 엇엇수과 ?

목째비엔 헴신계 고사현 거 .

물리민 게 섣달 그믐날 게 누려 .

아 , 족은 거?라 거두예 ?

아 건 알선흘에 이신 거 ?

작살이영 앗양뎅기멍 고기도 쏘곡 다 해난디 .

시집 을 떼 경 해도 저기 그 예물로 이 예물 헌 거 있지 안우파예 예물이

괄민 영 불르멍 들으민 수양 수양 수양 . 그것이 씨가 돌라지는 소리가 나명 씨가 툴 툴 툴 털어 지명 저레 나고 . 허다 허다 버치면 저 이디 불도 살라근에 어떻 ㅎ썰 덥게 행도 괄르는 수도 있고 , 괄지 안 허민 절대 불루지도 못하여 . 불루는 거라고 영 하는 거 .

그루 뺏아다근에 그거 반죽을 해사 웠 거 .

아 , 먼저 산 게 트랙터가 아니라 경운기를 먼저 ?

잘 키워서 이젠 자리들 잘 잡았수게 .

아 , 거둔 다음에 아 .

그것?라 아시 , 아시 피쏠 .

이제?찌 이런 거 안해 .

으 , 또 아덜 집이 식구 , 친족덜이 사둔부찌고 당 아덜네 집은 당사 둔

아 , 경현 게 틀밥 .

아 , 목장 여기도 옛날에 목장 잇언마씨 ?

아 , 나는 게 아니고 . 아이고 , 산 귀신들이로고 . 사는 귀신이라 . 큰일 이라

셍선 종류 들어가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엇수광 ?

바다가 오염뒈가지고 요즘에는 막 안 좋잖아예 ?

기어가는 그 목다릴 지나가지 못?게 .

출 눌이 클 때는 혼두 번은 돌아오주기게 .

우이 허는 거 . 도롱이 엇어낫수과 도롱이 ?

그 쉐 질루는 집은 쉐왕이라고 해서 길르고 .

경행 , 삼춘은 얼마정도 준비햄수과 ?

게난 대개 물 허는 사름덜이 우리도 그런 물이 엇이민 일부러 어디강 그런 물을 사당 놔 . ㅎ나

일부러 .

등태 , 험벽 씨와낭 , 그다음엔 찍으로 맹근 거 씨와낭 , 뜯시 낭으로 훈거 지와낭 짐을 시꺼주게 .

에기 에기 막 물에기는 .

그럼 조 수확은 언제 해마씨 ?

예 , 예 허곡예 ?

삼칸집도 . 수룸허주기게 . 영 폭이 넓질 안하고 .

알동네 삼 조합 , 사 조합으로 나눠 가지고 그럼 네 개의 제가 있는 거예

아이 게난 . 지금?"지 나가 뭐 . 아 , 벙원에 .

음 , 뽕돌 그런 건 만듭니까 ?

아 , 기계로 뺏수과 ?

건 볼 받는 거 .

물론 파다근엥에 패를이 항아리엔가 어디 놓 막 숨은덴 . 패 놓곡 , 패 뿔아 놓곡 허영 .

응 , 호미 헌 거나 뭐 그런 쉐를 구어 가지고 드뜻하게 해서 그레 탁탁 흘쳐 . 그거 쉐운 더레 .

그거 행 아정 가민 그자 물에 줌양 그 보리밥에 물재미엔 허멍덜 마농지시에 그 물에 줌으멍 밥도 잘 먹어 .

결혼은 여자 집이서 헙니까 ? 남자 집이서 헙니까 ?

그때에 일하는 사람들은 막 돈 벌었어 . 돈 벌영 밧도 사고 . 고구마 헐 때는 여기서 많이 허연 . 몇 백 개씩 허영 그때 상도 타고 헤낫어 . 칠백 개 . 그 애월면들에서만 행 제주도 딴 데는 영 안 헨게 . 밧도 널르지 안 허고 허난 . 이 동네는 칠백 개 헌 사람들 막 상 타낫어 .

갯노물로도 짐치 하영 헤먹엇어예 ?

아 , 큰일 때 ?

흔 말지기면 어느 정도 수확흡니까 ?

건 디들팡이라고 해 . 디들팡 .

홑쌀 살기 좋고 저 .

뽕낭 심거근에 뽕낭에서 , 옛날에는 입이렌 안 해근에 뽕 뭐렌 골앗수과 ?

거난 . 이거 헐 땐 필요 엇어예 ?

그럼 닭죽은 요즘에나 하지 , 예전엔 안 하지예 ?

므물<sup>ㅋ</sup>루 아까 , 그싸 나 म물<sup>ㅋ</sup>루에 양념 다 놓 피에 경 버무령 , 버무령 그것에 베설 속에 담아 가지고서 그거 딱 무꾼다 . 혼 쪽은 무껑 나오지 못허게 , 경 숯앙 경행에 수에 맛잇게 헹덜 먹고 이 .

도깨로 맥주보리덜은 양 도깨로 두두립니다개 , 도깨로 .

요즘은 잡양 죽 쟁덜 .

호사로 막 좋은 치메 멘들앙 해영케시리 우알 해근에 . 그 모시옷은 아무나 못 입주게 .

게영 열 설까지 세어봄서 ?

무끄는 거 , 베는 거 , 혼 뭇 이 무끄는 거 .

그다음에는예 저 혹시 생손앓이라고 해서 .

건 어떻 허는 거꽈 ?

그 , 거 약초여 , 약초 .

학질은 저 것 뒷하는 거여마는 잊어불어졌저 . 모기 무는 것<sup>ㅋ</sup>라 학질이 아니고 , 모기 무는 건 모기 무는 거고 , 학질이 뭐 설새 나는 것이 학질가 ? 뒷고 학질 들어봤저마는 무싱거 어떻 허는 건 모르켜 .

그 때 기자 동네 사름도 뿐던 디 사름은게 , 아이구 , 그 돛 숯은 국물 게 그 도새길 숯아난 국물 누울 놓 끌린 거 . 그 돛 숯은 국물 , 수웨 숯아난 거 그 뜻뜻한 거 . 아이구 , 돛 숯은 국물 혼 사발 얻어먹젠 .

경허민 이걸 막 크게 해영 저 웨상 크게 해여근엥에 벌겅헌 것에 영 싸온 거 영 이 새각시 집이 영행 막 문전상 출려놓 받아 . 경행 영 상 받아근에 걸 무사다 놓 그것이 꾃 , 그건 .

콩 농신 언제 해마씨 ?

고사리 비영 그거 불 숨앙 구웡 .

세워근에 우에 상<sup>ㅋ</sup>루하고 중<sup>ㅋ</sup>루하고 그 아래 건 포 . 경해근에 서리 걸청 서슬 해근에 우이 흑 질 허여 .

난 경해난 것도 알지 못했 .

그다음엔 다섯 술 , 여섯 술 , 이거주 .

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라 아니면 ?

아 , 새각시 옆이 앗는 것<sup>ㅋ</sup>라 대반 .

겐 , 모르게 어디 한국 제주도 가노렌 해영 나왔주게 , 나완 . 겐 어디 다른 디 강 곱양 일허는디  
어떻엔 그 사름이 알아서 . 겐 주인네가 알안에 우리 집이 오믄 이디 주는 월급 주겠다고 .

어 , 거이가 거 . 농사도 짓곡게 . 바당에도 덩기곡 .

이제도 짐끼엔 허는 할망 잇어 . 성읍 노인당에도 .

그것도 초신예 ? 이름 달르지 안하고예 ?

이것이 앞에니까 이쪽 사면 이것이 앞에니까 요쪽이 대들포가 잇고 요쪽이 잇고 해서 두 개 .

음 유월절 전후에 전에 허고 .

예 , 여기 정기떡 ?

춤향은 몰라 . 그건 .

시방은 초복에 행 먹주만은 .

콩죽 누뎅이가 제일 맛은 좋아 . 콩죽 누뎅이가 제일 맛 좋아 . 먹어보민 .

그거 저 결혼하는 뭐 거 한문으로 해근에 다 새서방 이를 생명 써근에 함더레 놀근에 잔치힐 때  
앗아가는 거주 .

험벽도 귀해실 건디 그 험벽은 어떻 구햇수과 ?

또 들이치곡 번데기 나오건 건져 놓고 허민 후루 종일 허민 아이덜이 먹어 부난 거주 . 막 하 .  
겨고 누에가 잘 뛰면은 번데기가 노랑계 얼마나 곱다고 요만큼 헌 것이 .

정월 초일렛날 가는 거 ? 일월 칠일날 ?

응 , 옛날에 헤낫수과 ?

숫 가마 아니 . 숫토리 .

그래도 옛날엔 좀 그래도 밟안마씨 ?

떡 혜 오면은 그때는 밥은 그자 안 하고 밥은 점심은 뜨로 허고 점심 말고 간식으로 이제 그 순  
이엔 헌 건 떡을 혜 가지고 순이엔 혔다 . 그걸 아침 먹엉 점심 , 점심 사이에 혼 번 멱이곡이 .

아이 아니 , 서의낭 아니 . 서의낭은 트지 아년다 . 수기목이 트주 . 트는 걸로 허젠 후민 .

나오는데 냇 깍쟁이 돌아방은에 또 혼 열흘만 뛰면은 그걸 또 냇디 갑니다

겨울 . 그 일월 달부터 평균 들어와 .

재불 주꽈야 . 그디 강 끌여당 또 놔야 시지 안허여 .

그다음에는 조나 . 그다음에는 조 , 조 콩 .

오전에 양옛간 영 허젠향 시월 달에 ? 이거 몇 달 전에 .

막 깐깐한 메뉴릴 헤노난에 나 겁난 껏도 안 헌다 . 기자 기여 , 기여 기여 기여 , 기자 .

뒤치기 . 그거 두 개예 ?

먹다근에 식은 밥덜 남곡 뒷하면은게 이제 누룩게 곱닭한 누룩덜 헤근에 뱃양 .

깝은 ㄱ튼디 수커 메다가 더 나가는구나예 .

응 , 베염 뎅겨나민 . 겨난 이제 쉐멍에를 공처허게 걸어 둬사 뛰어 .

요 웃동네렌 모녀 ㅋ상 먹어야 뛰여 . 맛시리같은 건 .

어 , 일굽세 미녕 조는 거 .

게도 뭐 헤먹기도 안 해봤수과 ?

두 허벽에 골아가는 거 .

경혜영 영 돌아갈 땐 이 물이 영 돌아가명 불라지는디 이 물이 이디 서가 바짝 디리 물양 영해불  
민 이 물이 영 돌아갈 때 이 담에염디레 돌아갈 물이 없어 경행 따문에 안목은 드리 밀곡 뱃목이  
랑 자치렌 .

우리 어머닌 뭐 아버지 명예만 허니까 임제 고집을 부리지 않아 . 순 수허게 법 어시도 살 어른  
이주 .

그럼 봄이나 여름에는 생선 뭐 잡현마씨 ?

초집이엔 골아서 , 옛날예 ?

아 , 건 무산고예 ?

난 옛날 해난 거 생각허명 우스완 웃임저마는 . 옛날 어른덜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난 걸 첨 알아  
사 뛰여 . 뱃가는 따빈 어시냐 ?

아니 , 선반이엔만 허여 .

아 , 문전이 젤 어른 ?

물 같고 피 같고 그거 ㄱ랑좁썰이엔 , ㄱ랑조엔 헌 게 잇어 .

상뒤밥이엔 상뒤허는 사름덜 혹질허는 사름덜 상뒤밥을 그건 따시 곤술이나 놓고 행 밥행 맥이  
고 .

이 마을에 그래도 자랑거리 .

술양 그 저 출에 서껑 .

잠대에 부정 밧가는 건 버섭 그 .

요즘은 반달식이 베랑 엇어 . 동글랑하고 .

이 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잇는디 .

흘 , 흑이 아니고예 ?

에 에 , 거 저 남자들은 놀 일 별루 웃어 .

건 아이덜 곳는 거고개 .

그러면 어 그 삼춘 어렷을 때 뭐 이렇게 밧에서 과일 같은 거 많이 키원마씨 어렷을 때도 ?

아 , 두께 다 맞게 .

것도 우리 조천 관리지만은 그런 내가 터져 불어 . 함덕 마을엔 안 들어오고 .

흔은 어떻 불르는 거꽈 ?

으음 , 게믄 거기를 목장을 경계로 해서 쟁명 때 내보내고 .

이런 거 더 좋아해 .

우장은 것도 노 꼬아근에 좀질이 새 허여근에 막 좀질이 꿰어근에 놋다근에 것도 짜는 거 . 매 모작모작해근에 짜근에 영 야가지에 헤근에 우장행 썽 뎅겨낫어 .

멜젓은 안 헤 먹언마씨 ?

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같애 . 요렇게 뿔아먹어 .

예 . 저 습쉐 ?

으 , 모큰 오래쑤어사 .

흔 천 흔 천 평썩 가는 사름은 흔 천 평썩 갈주게 .

이름이 무신거라 ? 쪼꼬만한 항아리 이름이 .

안여 . 거기서 난 메역을 안여 메역이라고 핸예 ?

육지서는 대개 고동이엔 허여이 . 겐디 이디선 그 쭈짝허여근에 꼭지가 나온 거 . 딱지 부뜬 디는 영 허영 납삭하고 .

조로도 무꺼집니까 ?

메옹이꼿엔 헌 말은 처음 들풀네예 ? 삼춘 , 혹시 감저 농사는 ?

응 , 게난 숨이 갓다 왓다허민 안 누려와 .

첨 , 물짐치 출리고 . 혼 가지도 어디 십디가 ? 혼 가지도 엇는 집인 엇어 . 목심이 질기난 살아진 거주 .

원래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고 우리 할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어머닌 키가 컷는데 나는 작아 . 그게 시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 같아 . 겐디 나보다 우리 아덜덜은 크고 , 우리 아덜덜보다 우리 집 손자는 더 크고 우리 손지 제일 키 큰 놈이 일메다 팔십구 센치라 .

경 허영 또 뒤에 혼 뭉치 무끄곡 허민 세 뭉치 무끄는 거 .

감자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?

잘라내엉 그 대에다가 풀 .

거고 여기는 흑이 거믄흑은 또 이 촌흑들 담도 아녀 .

밧을 갈민 판이가 올라오는 거 .

예 , 계믄 명에가 필요하고 .

주춧돌 으 경 해근에 이제 하고예 . 그러면은 삼춘 , 아까 주춧돌이 이실 거고 기둥이 잇일 거고 , 그 다음에 이거 이 담 해영 주춧돌 앞에 행 기둥 세울 거 아니라예 ? 계믄 위에 올라가면 명칭들 , 부분 명칭들은 기억남수과 ? 뭐 아까 서 슬이여 서리여 하는 거 ?

그 소 출 숲양 맥이는 것?라 여물 , 여물 .

옷 소곱듸레 찔르민 옷 사이가 널르니까 그 파리가 물지 못하게 .

다 만들어서 그거를 신어 .

그다음엔 박 정희 , 이 승만 헐 때 전쟁 터진 때까지 군대 이섯수과 ?

부억에서 젤 가까운 디 .

아 , 이녁 밧이 잇언마씨 ?

어른덜 써낫주게 . 휘양도 써나고 .

게난 누에 하는 사름은 계속 뽕 갈양도 허곡 . 드르에 강 훈아당도 허곡 .

저 길이가 좀 길어 .

톨도 물쎄기 숲양 해사 . 밥이 흐랑후게 좋주 . 경 아니민 .

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해난마씨 ?

술보리 , 맥주보리 그거주게 .

검은 조 , 노랑 조 .

아 , 불 때 . 그 뭐 방석도 만든데 헨게만은 .

이거 이거 . 이게 뒤 고들게 .

그거 혼 번 골아줍서 .

미친이 굴 , 거가 옛날은 미친이굴인디 미천굴로 그다가 뭔 거 .

아 , 그게 단스께 . 일본말 담다예 ?

바닷가 바닷가 아니냔 여긴 .

예 . 검질도 메야곡 .

여기서는 명덕이렌은 안 곳는 거구나예 ?

응 , 양말도 하고 보선도 기고개 .

이십 키로 . 한 박스가 이십 키로 이백이라 .

또 무신 소 잇어 ?

예 , 건 저꼬지로 퀘영 상뒤 아침에도 경 행 주곡 .

미녕 올 내는 거는 뭐우과 ?

이파리 부분 연약한 부분은 소가 먹고 나머지 강한 것은 쉐 밑에 깔아주면은 거름으로도 거름으로 사용하고 .

아 , 경 헷구나예 ?

일정을 정해실 거 아니우꽈예 ?

우리도 어릴 때 강 평마농 캐어 오라 경허민 그거 재미가 있어 .

할머니는 아무 충도 안해도게 눔들은 아프주게 ?

날라 가고게 . 문딱 주서 .

아 , 직접은 안 허고예 ?

어 . 거 몸 비린 사름 다니면은 산모가 막 거 등얼허주게 . 거 우리가 저 미신이라고 허주만은이 옛날에는 여기 종기가 만이 나낫어 . 사람이 이 어린 아이덜이 종기 .

그거 헤다근에 그거 영 허영 빈찍빈찍한 거는 베것듸레 허곡 그 더 들더들한 건 안트레 가게 헤영 거 이제 동글락동글락하게 뚫르는 그거 ?정 속 허연 우리 구경 간 보난 큰 건 큰 더레 헨 하고 족은 건 족은 더레 또 양쪽으로 그 가운데

숨양 . 숨메허젠 허민 옛날인 ..양 험주 무신 .

그걸 꼭 해야 뭐여 .

거평 쓸로 고 거는 진?루 . 무물로만 고 건 보찻?루 .

응 , 오끼리 , 오끼리주게 . 저 고대 올리는 디 하는 오끼리 .

게난 예장 잘못 쌍 가민 ?

열 바리 하믄 바리가 ?

예 , 뎅겨난 거 기억나마씨 . 게난 꿩 사농만 허고 노루나 지다리 ?

아무나 못 허여 . 그건 아무나 .

영 물로 반죽해기네 어 .

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션마씨 ?

알선흘 , 알선흘 . 알선흘은이 정월 십사일날 음력으로 그날에 큰 제로 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칠 일날만 가고 .

영등이 들어왕 나가는 기간 동안에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 ?

새끼손가락 뭘 허여 ? 깃밥 때는 거 ?

헤낫지 . 헤낫지 . 영 , 영 , 영 , 영 , 쌍 영허민 이제 이만큼 허여 . 이제는 멘주기가 이만큼 해여 . 이제민 그거 열 개 .

그럼 뭐 상웨떡이나 제사떡 올릴 때는 그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넣어마씨 ? 송편 말양 다른 떡에 안에 뭐 집어넣지 않아마씨 ?

예 , 딱 아기 낳는 날로 삼일 .

눌엉 , 비 맞지 못허게예 ?

순서 , 순서로 강 . 다음에 누게네 질 거우광 ? 허믄 아무 질 거엔 허믄 그 사람 다음에는 우리 허쿠다 . 경 골아 퉁 오면은 그거 , 그것이 순서라 .

다래끼 날 땐 할망덜 발창에 글 써주곡 .

예 , 예 . 밀 , 상웨떡 허는 밀보다는 좀 .

으 . 살기를 펜해신디 아니 또 그거 살기 펜허난에 또 이 놈덜이 사삼 나난에 산에 , 일분 때보다 더 무서왓어 .

두 덜쯤 이시민 장물을 띠 .

야 . 이게 고들게인디 , 고들게여 고들게끈이여 허는디 이게 별로 움직이질 안춥니다 .

게난 스무 날 말양 . 초복 , 중복 , 말복 행 독 먹는 날 아니꽈게 .

나 간 날은 꿩을 잡질 못헌덴 .

주매 물 암컨 주매 .

네 , 옛날에 거 .

거 건 집안에 과거에 쭉 내려완에 그 집안에 자식이 많이 죽으나 뭐 좀 제웨 뛰여 .

흔 올레에 집도 여러 개 이신 디도 이수게예 ?

아 , 거난 사삼사건 후에 동광리가 성립郁闷구나양 ?

그디 눌어둠서 그디서 쉐도 키우고 집도 큰 거 지서낫저 . 그 무쉬 키 우젠허난이 밧디 .

거는 어디나 다 잇인 거고예 .

콩밧 검질 멧 번 맵니까 ?

음 . 메역 주무는 날이 이서 .

떡이 부서젼예 . 부서지민 부스러기 막 이십니까 , 그 부스러긴 뭐엔 골아 ?

누게 아느냐 ? 게난 거 다섯 상제 , 아덜 다섯 개민 다섯 개 다 해낫어 옛날

게메이 . 경허연 영영 허연 요망썩 요망썩 걸름을 혜영 그디 씨들어강 거 영 방 벌영혜사 보리가  
뒈어라게 . 말제라간예 그냥 씨로 뿌렷저만은이 .

영 열아근에 막 남죽으로 그냥 거 젯젠 허민 얼마나 힘들카부덴 .

밧 갈 때 밧 갈레 가젠 후면은 .

게민 산이곡 오름이곡 불어 자침주 .